

방통융합미래
전략체계연구

정책 2012-12

런던올림픽 기간 중
중계방송 등의 편성현황 분석
(An Analysis of London Olympic Games
in Korean Terrestrial Broadcasting)

윤성옥/김영수

2012. 11

연구기관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보고서는 201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런던올림픽 기간중 중계방송 등의 편성현황 분석』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주관연구기관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윤성욱(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영수(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

보 조 원 : 김장원(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이정민(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목 차

요약문	xi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목적	4
제3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5
1.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대한 실증자료 구축	5
2. 올림픽 중계방송 추이분석: 베이징 올림픽과 비교분석 자료 제시	5
3. 올림픽 중계방송 해외 사례 비교분석	5
4.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평가와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6
제2장 올림픽경기와 방송에 대한 논의	7
제1절 역대 올림픽 현황 및 개요	7
1. 올림픽 경기의 개요	7
2. 고대 올림픽과 근대 올림픽의 변화 및 발전	8
3. 역대 올림픽 경기의 주요 현황	11
4. 한국의 올림픽 경기 참가	13
5. 2012년 런던올림픽 현황과 한국 참가	16
제2절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의 특징과 문제점	22
1. 올림픽 경기의 상업화와 텔레비전의 영향	22
2. 올림픽 방송의 중계권 경쟁	24
3. 올림픽 방송의 순차편성에 대한 논의	29
4. 올림픽 방송에 대한 국내외 논의	30
5. 올림픽 방송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35

6.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방송의 평가와 문제점	37
제3절 보편적 시청권 도입과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39
1.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과 쟁점	39
2.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및 편성정책 현황	41
3. 국내의 보편적 시청권 법제 도입과 편성정책 현황	44
4. 국내 중계방송 편성법제 및 정책현황	47

제3장 국내 지상파방송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분석49

제1절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분석방법	49
1. 분석방법	49
2. 분석대상	50
3. 분석유목	50
제2절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현황	51
1. 일반현황	51
2. 경기 종목별 편성현황	56
3. 한국 출전 경기 편성현황	62
4. 경기종류별(메달관련성) 편성현황	72
5. 성별 편성현황	76
6. 그 외: 개인단체별, 국내외 선수별 중계방송	81
제3절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중복편성 현황	83
1. 일반 중복편성 현황	83
2. 종목별 중복편성 현황	85
3. 한국 출전/비출전 중복편성 현황	88
4. 경기종류별(메달관련성) 중복편성 현황	91

제4장 2008년과 2012년 올림픽 중계방송 비교분석96

제1절 분석방법	96
제2절 일반 현황	96
제3절 경기 종목별 편성현황	98

제4절	한국 출전 경기 편성현황	100
제5절	경기종류별(메달관련성) 편성현황	101
제6절	중복편성 현황	102

제5장 국내외 2012 런던올림픽 방송 비교분석104

제1절	국내외 지상파방송사의 2012 런던올림픽 방송	104
1.	분석방법	104
2.	주요 분석결과	105
제2절	한국 지상파방송사의 2012 런던올림픽 방송현황	112
1.	2012 런던올림픽과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순차편성 합의	113
2.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시청률	116
제3절	일본 NHK의 2012 런던올림픽 방송	118
1.	지상파방송의 올림픽 방송권을 둘러싼 논의	118
2.	일본의 런던올림픽 방송 일반	121
3.	일본의 런던올림픽 편성현황 및 특징	122
4.	일본의 올림픽 방송 온라인 서비스	127
제4절	영국 BBC의 2012 런던올림픽 방송	129
1.	영국의 런던올림픽 방송계획과 역대 올림픽 중계방송 시청 현황	129
2.	BBC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특징	132
3.	BBC의 런던올림픽 방송편성 현황	133

제6장 연구결과 및 주요 합의137

제1절	연구 결과	137
1.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분석 결과	137
2.	베이징올림픽 vs 런던올림픽 비교분석	142
3.	한국, 일본, 영국의 런던올림픽 방송 비교분석	143
제2절	주요 합의	144

참고문헌	148
부록 1.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 방송편성표	153
부록 2. 역대 올림픽 주요통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208

표 목 차

<표 2-1> 1984-2012 올림픽 주요 현황	12
<표 2-2> 역대 올림픽 개인별 다관왕 상위 10위	13
<표 2-3> 한국의 역대 올림픽 성적	15
<표 2-4> 한국의 역대 하계 올림픽 종목별 메달획득 현황	16
<표 2-5> 종목별 금메달 수 현황	17
<표 2-6> 한국의 2012 런던올림픽 종목별 메달실적	18
<표 2-7> 2012 런던올림픽 경기일정	20
<표 2-8> 국내방송사들의 올림픽 중계권 구매 현황	25
<표 2-9> 국내방송사들의 월드컵 중계권 구매 현황	25
<표 2-10> 주요 중계권 분쟁 사례들의 사건 경과 및 결과 요약	26
<표 2-11> 지상파방송 3사 중계권 갈등 사례	28
<표 2-12> 해외 주요국의 보편적 서비스 적용 현황	41
<표 2-13>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입법노력 경과	45
<표 2-14>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관련 주요 조항	48
<표 3-1> 지상파방송 3사의 중계형태별 올림픽 중계 편성	54
<표 3-2>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형태별 올림픽 중계	56
<표 3-3>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편성(빈도순)	57
<표 3-4>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편성(시간순)	59
<표 3-5>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편성 순위	61
<표 3-6>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 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현황	62
<표 3-7> 한국 출전/비출전 경기의 방송형태별 중계 현황	63
<표 3-8>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출전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빈도	64
<표 3-9>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 출전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시간	66
<표 3-10>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 비출전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빈도	69

<표 3-11>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 비출전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시간	71
<표 3-12> 지상파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경기종류별(메달유무) 편성빈도	73
<표 3-13> 지상파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경기종류별(메달유무) 편성시간	74
<표 3-14> 지상파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한국관련 경기종류별(메달유무) 편성빈도	75
<표 3-15> 지상파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한국관련 경기종류별(메달유무) 편성시간	75
<표 3-16> 지상파방송 3사의 성별 올림픽중계 편성	76
<표 3-17> 지상파방송 3사의 남성 경기 종목별 편성	77
<표 3-18> 지상파방송 3사의 여성 경기 종목별 편성	79
<표 3-19> 개인/복식/단체별 중계방송 현황	81
<표 3-20> 국내 선수별 중계방송 순위(편성빈도)	82
<표 3-21> 국내 선수별 중계방송 순위(편성시간)	83
<표 3-22> 국내외 선수별 중계방송 순위	83
<표 3-23> 지상파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비교	84
<표 3-24> 지상파방송 3사의 채널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시간)	84
<표 3-25>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	86
<표 3-26>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시간	87
<표 3-27> 한국출전/비출전 경기 중복편성 현황	88
<표 3-28>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한국출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	89
<표 3-29>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한국출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	90
<표 3-30> 메달/비메달 경기별 중복편성 현황	91
<표 3-31> 비메달 경기의 종목별 중복편성 빈도	91
<표 3-32> 메달 경기의 경기종목별 중복편성 빈도	92
<표 3-33> 비메달 경기 종목별 중복편성 시간	94
<표 3-34> 메달 경기 종목별 중복편성 시간	95
<표 4-1> 베이징 vs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빈도/시간	97
<표 4-2> 베이징 vs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의 생중계/녹화중계 비교분석	97
<표 4-3> 베이징 vs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종목별 순위와 5위 집중도(편성빈도)	98
<표 4-4> 베이징 vs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종목별 순위와 5위 집중도(편성시간)	99

<표 4-5> 한국 출전/비출전 경기 올림픽 중계방송 현황	100
<표 4-6> 경기종류별(메달유무) 올림픽 중계방송 현황	101
<표 4-7>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비교	102
<표 4-8> 지상파방송 3사의 채널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102
<표 5-1> 국내외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종류별 프로그램 개수	105
<표 5-2> 국내 채널의 일자별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108
<표 5-3> NHK의 일자별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111
<표 5-4> BBC1, BBC2의 일자별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112
<표 5-5> 지상파방송 3사의 역대올림픽 중계방송 평균 시청률	117
<표 5-6>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중 경기별 시청률 상위 10위(전국기준)	118
<표 5-7> 역대 올림픽 방송권료 추이	120
<표 5-8> NHK의 역대 올림픽 방송시간	121
<표 5-9> NHK의 채널별 런던올림픽 방송시간 내역	122
<표 5-10> NHK 종합TV의 런던올림픽 경기 종목 생중계 편성표	123
<표 5-11> 일본 민방TV의 런던올림픽 경기 종목 생중계 편성표	125
<표 5-12> 일본 민방TV의 'gorin.jp' 액세스 현황	128
<표 5-13> BBC TV 올림픽방송 현황(주중 평균 기준)	135
<표 5-14> BBC TV 올림픽방송 현황(주말 편성/7월 30일~8월 5일 기준)	136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체계 :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
[그림 2-1] 권역별 참가국 수	17
[그림 2-2] 2012 런던올림픽 공식로고와 마스코트 '웬록(Wenlock)'	18
[그림 3-1] 지상파방송 3사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빈도/편성시간(분)	52
[그림 3-2] 날짜별 지상파방송 3사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빈도	53
[그림 3-3] 날짜별 지상파방송 3사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시간(분)	53
[그림 3-4] 지상파방송 3사의 런던올림픽 중계형태별 편성빈도/편성시간(분)	55
[그림 3-5] 지상파방송 3사의 런던올림픽 방송형태별 편성빈도/편성시간(분)	56
[그림 3-6]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출전 경기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빈도/편성시간(분)	63
[그림 5-1] 3개국 7개 채널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시간	106
[그림 5-2] 국내채널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시간	107
[그림 5-3] 국내채널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107
[그림 5-4] 해외채널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시간	109
[그림 5-5] NHK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110
[그림 5-6] BBC1, BBC2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110
[그림 5-7] 2004년과 2008년 올림픽에서 영국의 TV시청	130
[그림 5-8] 영국 내 올림픽 기간 평균 TV시청 시간	130
[그림 5-9] 영국 내 올림픽 개최연도와 전년도 TV시청 시간 비교	131
[그림 5-10] 2004/2008년 영국 내 Top 5 올림픽 중계방송(30분 단위)	132

요 약 문

1. 연구목적

- 올림픽 기간에는 대체로 TV시청률이 상승함. 영국의 경우 시드니 올림픽 시기에(2004년 8월) 전년 대비 평균 TV시청시간이 200분 이상 높게 나타났고, 베이징 올림픽(2008년 8월)에는 전년 대비 평균 TV시청시간이 480분이나 증가했음. 국내에서도 런던올림픽 기간 지상파 4개 채널(KBS1, KBS2, MBC, SBS)의 시청률 합이 23.1%로 올림픽 이전 2주간의 17.8%에 비해 5.3%나 올랐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올림픽 중계방송은 언제나 시청률 경쟁과 맞닿아 있음.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미국 내 독점권을 가진 NBC는 올림픽 개막식을 미국 시청자들이 브라운관 앞에 몰리는 주요 시간대에 맞춰 지연중계(녹화방송) 했음. 미국 내 올림픽 개막식의 시청자 수는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트위터를 통해 NBC의 지연중계에 대한 항의 역시 빗발쳤음.
- 국내 올림픽 방송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의 비판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채널간 중복편성, 과열 경쟁에 따른 해설과 진행자의 전문성 문제, 인기종목 편중, 메달 경기 위주, 과도한 반복 재방송, 비인기종목 소외 등 올림픽 방송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방송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3사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올림픽 중계방송에 할애하는 점, 인기위주의 종목에 집중하는 점, 국수주의 경향, 성적 차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 국내 올림픽/월드컵 방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편성이었는데 2010년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 SBS가 독점 중계방송 했음. 2010년 SBS 단독 중계방송에 대해 채널간 중복편성에서 벗어나 시청자에게 채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긍정론이 당시 제기되기도 했음. 그러나 SBS의 독점 중계가 과거 KBS, MBC, SBS의 공동 중계권 계약 관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이루어진 만큼 공영방송의 배제와 지나친 상업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다행히 SBS의 독점 중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과 사회적 비판 속에서 현재 코리아 폴은 복원되었음. 런던올림픽은 KBS, MBC, SBS의 협력체제가 복원하여 3사가 공동 중계한 경기임. 협상파기, 파행 운행 등을 딛고 다시 복원하는 만큼 런던올림픽에서 방송 3사는 공조 체제를 새롭게 다졌고 2012년 3월 방송사 사장들은 런던올림픽의 주요 경기를 순차방송한다고 선언했음.
- 사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지상파방송사들은 순차 방송에 합의한 바 있음. 베이징 올림픽의 방송시간 순차편성 합의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면 이번 런던올림픽의 순차편성에 대한 합의는 대폭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만함. 그런 측면에서 2012년 런던올림픽방송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매우 중요함.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국내 방송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지상파방송사간 올림픽 중계권 분쟁이 촉발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기능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 및 시민단체/학계 등 사회 견제 장치가 모두 가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일련의 사회적 진통 후에 치러진 2012년 런던올림픽 방송이 과연 어떠하였는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함.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대한 실증자료 구축

-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자료 제시
- 지상파방송사의 중계방송 순차편성에 대한 평가
- 국내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다양성 및 특징 도출

2. 올림픽 중계방송 추이분석: 베이징 올림픽과 비교분석 자료 제시

-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분석의 후속 연구로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 분석 수행
- 국내 올림픽 중계방송 추이분석 제시
- 올림픽 중계방송 분석자료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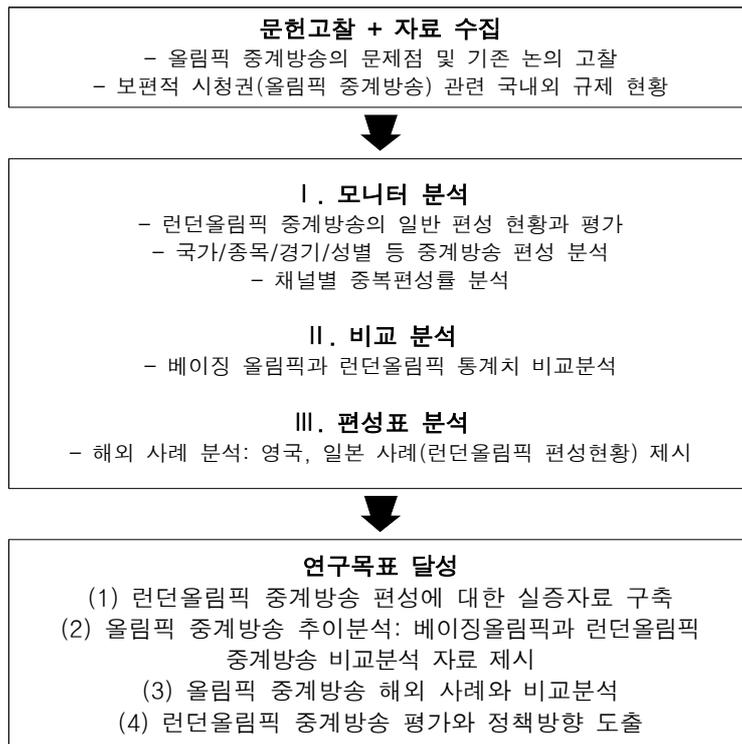
3. 올림픽 중계방송 해외 사례 비교분석

- 영국, 일본 등 모범적인 해외 순차편성 현황 자료 제시
- 런던올림픽에서 국내외 중계방송의 비교분석
- 국내 중계방송의 특징 및 문제점 도출

4.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평가와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현황, 올림픽 중계방송 추이분석, 국내외 비교분석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한 올림픽 중계방송 평가
- 방송법상 순차편성 조항의 의미 진단
- 보편적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올림픽 중계방송의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 체계도>



3. 연구결과

1.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분석 결과

(1) 일반 편성현황

-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국내 지상파 4개 채널(KBS 1TV, KBS 2TV, MBC TV, SBS TV 이하 TV 생략)은 올림픽 경기를 총 2,434건, 38,619분 중계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기간 날짜별로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계방송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방송시간 기준으로는 7월 29일/30일, 8월 2일/5일/8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생중계/녹화중계의 비중을 분석했더니,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녹화중계 1,487건(61.1%)으로 생중계 947건(38.9%)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생중계가 21,922분(56.8%)으로 녹화중계 16,697분(43.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올림픽 경기를 전체 중계방송했는지, 일부만 중계방송 했는지 살펴보았더니 경기 전체를 모두 중계방송 한 경우가 1,353건(23,156분)으로 일부 중계방송 한 경우 1,081건(15,463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올림픽 경기를 중계할 때 중단 없이 방송한 비율이 높아 시청권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중계방송 한 경우 역시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런던올림픽은 총 26개 종목(세부종목 302개)으로 나뉘 열렸는데 이중 요트를 제외하고 25개 종목이 한 건 이상은 편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편성빈도에서는 수영 401건(16.5%)이 가장 많이 편성되었고, 육상 390건(16.1%), 유도 327건(13.5%), 축구 188건(7.8%), 양궁 172건(7.1%), 펜싱 147건(6.1%), 체조 118건(4.9%), 레슬링 74건(3.1%), 배드민턴 73건(3.0%), 사격 70건(2.9%), 태권도 69건(2.8%), 사이클 68건(2.8%), 탁구 61건(2.5%), 핸드볼 60건(2.5%), 배구 57건(2.4%) 순으로 나타났다.
 - 종목별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축구가 총 4,574분(12.4%) 중계되어 가장 많이 편성된 종목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체조 3,626분(9.9%), 펜싱 3,140분(8.5%), 육상 3,106분(8.5%), 수영 3,010분(8.2%), 유도 2,703분(7.4%), 탁구 2,316분(6.3%), 양궁 2,309분(6.3%), 핸드볼 2,148분(5.8%), 배구 2,086분(5.7%), 배드민턴 1,699분(4.6%) 순으로 나타났다.
 - 상위 5순위 종목의 편성 집중도를 분석했더니 편성빈도 기준 61.0%, 편성시간 기준

47.5%로 나타났음. 채널별로 상위 5순위 종목 편성 집중도는 MBC 66.6%, SBS 61.5%로 높게 나타났고, KBS1 58.4%, KBS2 52.2%임(편성빈도 기준).

-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중 한국 출전 경기는 편성빈도 기준으로 1,259건으로 전체 방송건수 중 51.7%였고, 방송시간 기준으로는 24,920분으로 전체 방송시간 중 64.5%를 차지했음.
-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메달 경기는 989건(40.6%), 비메달 경기 1,445건(59.4%)으로 나타났음.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메달 경기는 총 14,878분으로 38.5%, 비메달 경기는 총 21,741분으로 61.5%로 편성되었음.
- 올림픽 중계방송의 성별 경기 편성현황을 분석했더니 남성경기가 여성경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편성빈도 기준으로 남성경기 1,411건(58.2%), 여성경기 1,007건(41.6%), 혼성 경기 5건(0.2%)이었음. 편성시간으로는 남성경기 19,865분(54.0%), 여성경기 16,738분(45.5%), 혼성경기 151분(0.4%)으로 나타났음.
- 국내외 선수별 순위를 분석해보았더니 편성빈도 기준으로 1위 박태환(수영) 85건(635분), 2위 쑨양(수영) 49건(367분), 3위 송대남(유도) 48건(300분), 4위 우사인 볼트(육상) 43건(317분), 5위 김재범(유도) 40건(320분), 6위 김현우(레슬링) 40건(306분), 7위 기보배(양궁) 39건(399분), 8위 라이언 록티(수영) 35건(197분), 9위 야닉 아넬 35건(180분), 10위 요한 블레이크(육상) 34건(259분)순이었음. 그러나 편성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중계방송한 국내 선수는 1위 손연재(체조) 1,437분, 2위 이용대/정재성(배드민턴) 713분, 3위 박태환(수영) 635분, 4위 진중오(사격) 481분, 5위 기보배(양궁) 399분 순이었음.

(2) 중복편성 현황

- 전체 올림픽 중계 방송시간 대비 중복편성 시간은 21.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2개 채널 중복편성 시간은 17.6%를 차지했으며 3개 채널의 중복편성 시간은 4.2%로 나타났음. 3개 채널 중복편성은 총 11건으로 채널당 543분이었고, 2개 채널 중복편성은 총 114건으로 3,392분이었음
 - KBS1-MBC-SBS의 중복편성은 6건(500분)이었고, KBS2-MBC-SBS는 5건(43분)이었음. 2개 채널 중복편성 분석 결과 KBS2-MBC가 가장 많았는데 35건(1,423분)이었음.

다음으로 MBC-SBS 중복편성이 28건(899분)으로 많았고, KBS2-SBS가 25건(443분), KBS1-SBS 17건(398분), KBS1-MBC 9건(229분)이었음.

- 종목별 중복편성의 빈도 분석 결과는 육상 27건(21.6%), 수영 16건(12.8%), 양궁 13건(10.4%), 펜싱 11건(8.8%) 순으로 나타났음. 종목별 중복편성 시간 분석 결과에서는 펜싱 KBS2-MBC 369분(9.4%)/KBS1-MBC 38분(1.0%)이었고, 탁구 KBS2-MBC 219분(5.6%), KBS2-MBC 134분(3.4%), 체조 KBS2-MBC 290분(7.4%), 양궁 KBS2-MBC 222분(5.6%)으로 종목별로 KBS와 MBC 채널 중복편성이 두드러졌음.
- 한국 출전 경기의 중복편성은 67건(3,142분)이었고, 한국 비출전 경기의 중복편성은 58건(793분)이었음. 중복편성 분석 결과 한국 비출전 경기에 비해 한국 출전 경기의 중복편성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중복편성 현황을 메달 경기와 비메달 경기의 편성빈도 분석결과 중복편성에 있어 메달 경기 62건, 비메달 경기 61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비메달 경기는 2,061분, 메달 경기는 1,410분으로 크게 차이가 났으나 메달 위주 경기의 중복편성 현황은 나타나지 않았음.

2. 베이징 올림픽 vs 런던올림픽 비교분석

-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올림픽의 중복편성 현상은 급격히 감소하였음. 생방송으로 전체 중계된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베이징 올림픽 때는 중복편성된 비율이 전체 방송시간의 55.2%나 되었음. 그러나 런던올림픽에서는 중복편성 비율이 21.8%로 매우 현저하게 줄었음. 특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3채널 중복편성 비율이 41.4%에 달했으나 런던올림픽에서는 3채널 중복편성 비율은 4.2%로 대폭 줄었음.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전체 시간은 25,536분/814건이었고,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전체 시간 38,619분/2,434건이었음. 분석대상이 다소 달라 단순히 증감 추이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에 비해 시차가 크게 났던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 분량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베이징 올림픽 때는 편성시간 기준으로 SBS가 7,941분으로 가장 많이 편성한 채널이었으나 런던올림픽에서는 MBC가 11,222분으로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양 대회 모두 KBS1과 KBS2의 중계방송 시간을 합하면 올림픽 중계방송을 KBS가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목별 편성분석에서는 편성빈도 기준으로 베이징 올림픽은 유도, 수영, 육상, 양궁, 핸드볼 5개 종목이 45.5%를 차지했고 런던올림픽은 수영, 육상, 유도, 축구, 양궁 5개 종목이 61.0%를 차지했음. 그러나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이 야구, 탁구, 핸드볼, 기타, 양궁 5개 종목이 50.6%로 구기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런던올림픽은 축구, 체조, 펜싱, 육상, 수영 5개 종목이 47.5%였음.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올림픽이 상위 5개 종목의 집중도가 높았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이 더 높았음.
- 베이징 올림픽은 한국 출전 경기를 21,774분(85.3%)/654건(80.3%) 중계 방송하였고, 런던올림픽은 한국 출전 경기를 24,920분(64.5%)/1,259건(51.7%) 중계 방송하였음.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출전 경기를 집중적으로 편성했다면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는 한국 비출전 경기를 비교적 많이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메달 경기를 404건(49.6%), 12,299분(48.1%)을 중계방송했고, 런던 올림픽에서는 메달 경기를 989건(40.6%), 14,878분(38.5%) 중계방송하였음. 메달 경기 위주의 중계방송 편성도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올림픽에서 감소하였고, 비메달 경기 중계방송의 비율이 높아졌음.

3. 한국, 영국, 일본의 런던올림픽 방송 비교분석

- 3개국 비교분석 결과 국내외 7개 방송채널의 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방송 프로그램 수는 총 951개로 국내 4개 채널은 567개, 해외 3개 채널은 384개로 나타났음. 국내 방송채널 중에는 SBS가 210개의 올림픽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4개 채널 합계의 37.1%를 차지했고 MBC가 156개(27.5%), KBS2 101개(17.8%), KBS1 100개(17.6%)로 집계되었음.
-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개국의 7채널의 전체 올림픽 중계방송시간은 93,912분(1,565시간 20분)이었음. 각 채널의 편성시간은 3개 채널(KBS1, KBS2, BBC2)을 제외하면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7개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올림픽 중계방

- 송을 편성한 채널은 SBS로 17,870분(297시간 50분)을 편성했음. 이어 NHK가 17,863분(297시간 43분), MBC 17,440분(290시간 40분), BBC1 17,309분(288시간 29분), KBS2 11,050분(184시간 10분), KBS1 10,525분(175시간 25분), BBC2 1,855분(30시간 55분) 순으로 나타났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KBS1과 KBS2가 같은 방송사로서 서로 비슷한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비율을 보인 반면, BBC1과 BBC2는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올림픽 방송을 ‘중계방송’ ‘올림픽 정규방송’ ‘정규방송의 올림픽 특집’으로 분류한 결과 올림픽 정규방송 편성시간은 BBC1(5,995분), MBC(5,425분), KBS1(5,065분), SBS(3,510분), BBC2(1,560분), NHK(2,581분), KBS2(2,160분) 순이었음
 - 올림픽 기간 중 가장 많이 올림픽 방송을 편성한 날씨는 국내 채널들의 경우 8월 2일(2,560분)이었고, BBC 1,2와 NHK는 8월 4일(1,720분)이었음.

4. 주요 합의

- 국내 지상파방송의 올림픽 중계방송은 편성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채널간 차별성이 없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 기간 일본의 NHK(297시간)나 영국의 BBC1(288시간)도 채널당 올림픽 방송 편성량이 국내 채널들과 유사하거나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올림픽 기간 동안 공영방송의 주채널만 올림픽 채널로 전환하는 데 비해 국내 지상파 채널은 공민영 구분 없이 전 채널이 올림픽방송 전문 채널 체제로 바뀐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스포츠 방송을 선호하지 않는 시청자들의 드라마, 예능, 교양 등 다른 장르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이 있음.
- KBS1(175시간)과 KBS2(184시간)는 거의 편성량이 유사한 반면 BBC1(288시간)과 BBC2(30시간)는 채널간 차별성이 뚜렷함을 알 수 있음. BBC의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 1채널은 올림픽 채널로 완전히 전환하여 국민적 관심사인인 올림픽 방송을 충분히

시청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2채널은 거의 평상시 편성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스포츠 외 다른 장르를 선호하는 시청층을 배려함으로써 편성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것임.

○ 런던 올림픽에서 중계방송의 중복편성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음.

- 런던 올림픽에서 중복편성 문제가 개선된 데는 지상파방송시간 순차방송 합의가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런던 올림픽까지 4년간 국내 방송계는 그 어느 때보다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심각했음. 다행히 그러한 갈등과 분쟁의 결과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기회가 되었고 제재 조치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 등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임.

○ 올림픽 중계방송의 종목 편중 현상은 여전히 문제임.

- 베이징, 런던 올림픽 대회 모두 유도, 수영, 육상, 양궁 등 종목에 편중하고 있음. 런던 올림픽의 경우 수영, 육상, 유도, 축구, 양궁 상위 5개 종목 편성비율이 전체 중계방송에서 61.0%에 이르고 있음(편성빈도 기준).

- 올림픽이 아직까지는 아마추어리즘을 표방하는 유일한 세계 경기라는 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4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을 고려하건대 소외된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따라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나 인기 종목을 다소 비중 있게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5개 종목 집중도가 현재처럼 높게 나타나는 종목 편중 편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경기 편중 편성, 메달 경기 편중 편성 현상이 다소 개선되었음.

-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한국 출전 경기 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은 방송시간 순차편성 합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주요 인기 종목을 방송시간 분배하여 순차편성하기로 함으로써 방송사별로 담당하는 종목 내에서 자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편성할 여지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메달 경기 편성 현상도 완화되어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 경기 편성량이 10% 정도 하락하였음.
- 런던 올림픽에서 중계방송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중계가 아닌 일부중계 편성량 (44.4%)이 적지 않게 나타났음.
 - 일부 중계방식은 계획적인 중계라기보다는 중요 경기 사이에 시간채우기용으로 이루어 지거나 중계방송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임. 아무리 중요한 경기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고 있던 경기를 중간에 끊는 것이 짜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향후 보다 계획적인 올림픽 중계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분석결과가 국내 올림픽 중계방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지만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급등하는 스포츠 중계권료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중계권 구매방식을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민영방송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이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임. 제도가 개선되어야 그 결과물, 즉 편성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임.
 - 본 연구가 양적 분석에는 충실하였지만 올림픽 중계방송의 질적 평가까지 다 포괄하지 못한 점은 한계임. 차기 올림픽 중계방송 평가에서는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와 분석이 보완되어 좀 더 발전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은 TV 앞으로 모여 거대한 대형 이벤트를 두고 하나가 된다. 올림픽이 지구 반대편에서 열릴지라도 세계인들은 한 자리에 모여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의 결실, 감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며 그들의 선전에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이벤트인 만큼 올림픽 방송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TV시청률은 대부분 상승한다. 영국의 경우 시드니 올림픽 시기에(2004년 8월) 전년 대비 평균 TV시청시간이 200분 이상 높게 나타났고, 베이징 올림픽(2008년 8월)에는 전년 대비 평균 TV시청시간이 480분이나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역대 올림픽 중 런던올림픽의 개최식을 가장 많이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런던올림픽 개최식을 미국 시청자 4,070만 명이 지켜보았고 이는 역대 최대치이며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의 3,980만 명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이다.¹⁾ 국내에서도 올림픽 기간이었던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지상파 4개 채널(KBS1, KBS2, MBC, SBS)의 시청률 합이 23.1%로 올림픽 이전 2주간(7월 14일~27일) 17.8%에 비해 5.3%나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²⁾

올림픽 경기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면서 아마추어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상업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림픽은 1984년 LA 올림픽을 기점으로 상업화 체제로 변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이 앞 다투어 올림픽에 후원함으로써 자신의 기업 브랜드와 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으며, IOC는 오류기를 비롯하여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도록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 <http://www.tvweek.com/blogs/tvbizwire/2012/07/nbc-olympics-on-fire-old-ratin.php>

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13000227&md=20120815003315_AI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문화적인 TV 중계권료이다. 회가 거듭할수록 급등하는 중계권료로 각 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미국 NBC가 8,500만 달러, EBU가 595만 달러, TV아사히가 850만 달러를 중계권료로 지급했지만 그 다음 1984년 LA 올림픽 때 미국 ABC가 2억 2,500만 달러, EBU 1,980만 달러, 일본 JP 1,650만 달러를 TV중계권료로 지불해야 했다. 2012년 8월 IOC와 미국의 NBC유니버설은 43억 8천만 달러에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18/2020 올림픽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계약했다.

올림픽의 상업화는 올림픽의 경기방식이나 경기종목까지도 변화시킨다. 좀 더 박진감 있게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레슬링, 양궁, 태권도, 유도 등 다양한 경기 종목에서 경기 진행 방식이 변화되었다. 올림픽의 시청률과 재미 때문에 올림픽 정신과 무관하게 종목 채택이 이루어지기도, 제외되기도 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농구종목에 프로선수들의 출전이 허용되기도 하였고, 미국 메이저리그(MLB)의 비협조 때문에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야구 종목은 사라졌다고 한다.

2008 베이징올림픽 때 미국의 NBC 방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중계권료 수입의 53%나 차지할 만큼 막대한 돈을 지불해, 자국민에게 인기 높은 수영과 육상의 경기 일정 중복을 피하도록 했다. 수영은 오전에, 육상은 심야 경기로 펼쳐진 것이 NBC의 입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³⁾ 2012 런던올림픽에서도 IOC는 동양권이 강한 종목(유도, 양궁, 체조 등)을 아시아 지역에서 시청가능한 시간대에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경기일정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런던과 8시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프라임타임 때 런던 올림픽의 주요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 올림픽과 미디어간의 공생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IOC의 상업화는 거액의 중계권료로 극대화되었고, 치솟은 중계권료를 감당하기 위해 방송사들은 좀 더 많은 시청자를, 좀 더 많은 광고주를 불러 모아야 한다.

결국 방송사의 올림픽 중계방송은 언제나 시청률 경쟁과 맞닿아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미국 내 독점권을 가진 NBC는 올림픽 개막식을 미국 시청자들이 브라운관 앞에 몰리는

3) <http://news.sportsseoul.com/read/sports/625155.htm?imgPath=sports/sports/2008/1117/>

4) 백정현(2012. 07). '런던올림픽 개막 초읽기, 방송국 준비됐나?' .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요 시간대에 맞춰 녹화 지연중계 했다. 미국 내 올림픽 개막식의 시청자 수는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트위터를 통해 NBC의 지연중계에 대한 항의 역시 빗발쳤다.

시청자를 무시하는 편성 등 국내 올림픽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도 항상 제기되어 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방송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3사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올림픽 중계방송에 할애하는 점, 인기위주의 종목에 집중하는 점, 국수주의 경향, 성적 차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⁵⁾ 그 외에도 국내에서는 채널 중복편성, 과열 경쟁에 따른 해설 등 진행자의 전문성 문제, 인기종목 편중, 메달 경기 위주, 과도한 반복 재방송, 비인기종목 소외 등 올림픽 방송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국내 올림픽/월드컵 방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편성이었다. 그런데 2010년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에는 SBS가 독점 중계방송였다. SBS는 국내에서 단독으로 2010년~2016년 올림픽과 월드컵을 독점 계약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2024년의 올림픽과 월드컵까지도 추가로 독점 계약한 것이다. 2010년 SBS 단독 중계방송에 대해 채널 간 중복편성에서 벗어나 시청자에게 채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긍정론이 당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SBS의 독점 중계가 과거 KBS, MBC, SBS의 공동 중계권 계약 관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이루어진 만큼 공영방송의 배제와 지나친 상업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었다. SBS의 독점 중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 언론 비판, 시민사회단체의 압력 등 여러 견제 장치를 통해 현재 코리아 풀은 복원되었다. 런던올림픽은 KBS, MBC, SBS의 협력체제가 복원하여 3사가 공동 중계한 경기이다. 협상 파기, 파행 운행 등을 딛고 다시 공조체제를 복원하는 만큼 런던올림픽에서 방송 3사는 협력을 새롭게 다졌다. 대표적인 것이 순차편성에 대한 합의이다. 런던올림픽 경기 개최 훨씬 전인 2012년 3월 방송사 사장들은 주요 경기를 순차방송한다고 선언했다. 방송사별로 주요 종목 12경기를 나눠 예선은 1사 생중계, 준결승 이상은 2사 생중계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지상파방송사들은 순차 방송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방송 3사는 축구와 야구의 예선경기만 공동중계단을 구성해 축구는 2사 1경기, 야구는 1사 1경기씩 중계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대표팀이 본선에 진출할 경우 모든 방송사가

5) 이호영·윤성욱(2008)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분석: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8-19). 한국전파진흥원.

중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레슬링, 수영, 유도, 양궁, 탁구 등 주요 종목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베이징 올림픽의 방송시간 순차편성 합의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면 이번 런던올림픽의 순차편성에 대한 합의는 대폭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2012년 런던올림픽방송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국내 방송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지상파방송시간 올림픽 중계권 분쟁이 촉발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기능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 및 시민단체/학계 등 사회 견제 장치가 모두 가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련의 사회적 진통 후에 치러진 2012년 런던올림픽 방송이 과연 어떠한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2년 런던올림픽 방송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런던올림픽 중계에서 순차편성을 시도했던 국내 지상파방송사들이 실제 어떻게 방송을 했는지 양적 조사를 시도하고자 한다.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KBS1, KBS2, MBC, SBS 4개 채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올림픽 방송에 할애했는지부터, 방송중계별/종목별/경기별/성별 편성현황이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고자 했다. 또한 런던올림픽에서는 특별히 방송시간 순차편성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국내 올림픽 방송에서 항상 비판이 되어왔던 2채널/3채널 중복편성 현황과 특징을 조사하기로 했다.

둘째, 런던올림픽 방송을 베이징 올림픽 방송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다행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올림픽 방송에 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를 활용한다면 런던올림픽 방송 분석 결과와 비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올림픽 방송의 비교 분석은 런던올림픽 방송 평가만 분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함의를 풍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즉 베이징 올림픽 개최 후 런던올림픽 개최 전까지 국내 올림픽 방송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 변화가 올림픽 방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간 차 분석 자료가 축적된다면 국내 올림픽 방송의 추이분석의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국내외 올림픽 방송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런던올림픽 방송의 분석자료가

국내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베이징 올림픽과 비교하여 추이분석까지 가능한 자료로 활용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국내 평가에 머문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국내 올림픽 방송에 대한 다양한 조사결과가 세계적인 방송사에 견주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하
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편성표 분석을 통해 한국, 일본, 영국의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방송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편성표 분석이 방송계획표로서 실제 방송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각 채널별 상이한 형식과 정보를 담고 있어 분석을 하는 데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3개국의 채널을 비교분석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개국 주요 지상파방송사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일본, 영국의 올림픽 방송을 살펴보고 국내 올림픽 방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대한 실증자료 구축

-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자료 제시
- 지상파방송사의 중계방송 순차편성에 대한 평가
- 국내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다양성 및 특징 도출

2. 올림픽 중계방송 추이분석: 베이징 올림픽과 비교분석 자료 제시

-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분석의 후속 연구 수행
- 국내 올림픽 중계방송 추이분석
- 올림픽 중계방송 분석자료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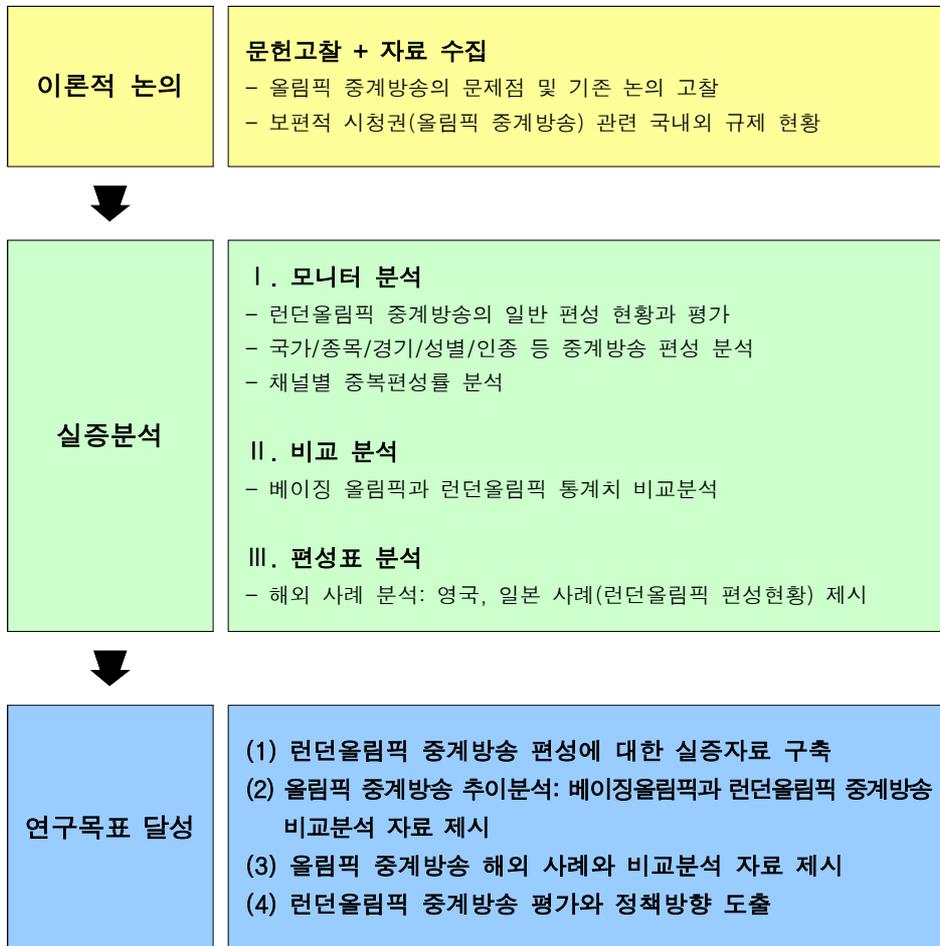
3. 올림픽 중계방송 해외 사례 비교분석

- 영국, 일본 등 모범적인 해외 순차편성 현황 자료 제시
- 런던올림픽에서 국내외 중계방송의 비교분석
- 국내 중계방송의 특징 및 문제점 도출

4.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평가와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현황, 올림픽 중계방송 추이분석, 국내외 비교분석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한 올림픽 중계방송 평가
- 방송법상 순차편성 조항의 의미 진단
- 보편적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올림픽 중계방송의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그림 1-1] 연구 체계 :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 2 장 올림픽경기와 방송에 대한 논의

제 1 절 역대 올림픽 현황 및 개요

1. 올림픽 경기의 개요

올림픽 경기는 각 대륙에서 모인 수천 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해 여름과 겨울 스포츠 경기를 하는 국제적인 대회이다. 2년마다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이 번갈아 열리며,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감독한다. 오늘날 올림픽은 기원전 8세기부터 서기 5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고대 올림피아 경기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 말에 쿠베르탱이 고대 올림피아 제전에서 영감을 얻어,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켰다. 이를 위해 쿠베르탱은 1894년에 IOC를 창설했으며, 2년 뒤인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이때부터 IOC는 올림픽 운동의 감독 기구가 되었으며, 조직과 활동은 올림픽 현장에 따르고 있다.

20세기에 올림픽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IOC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얼음과 눈을 이용한 경기 종목을 다루는 동계 올림픽, 신체 부자유자를 위한 패럴림픽, 10대 선수들을 위한 유스 올림픽 등이 생겨났다. IOC는 20세기의 변화하는 경제, 정치, 기술 환경에도 적응해야 했고 쿠베르탱이 기대했던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서 벗어나서, 올림픽에 프로 선수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올림픽에서 점차 대중 매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림픽의 상업화와 기업 후원을 놓고도 논란이 생겨났다. 올림픽 보이콧, 도핑, 심판 매수, 테러와의 대응 등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올림픽은 성장해나갔다.

올림픽은 국제경기연맹(IF), 국가 올림픽 위원회(NOC), 각 올림픽의 위원회(예-밴쿠버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 구성된다. 의사 결정 기구인 IOC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며, 각 올림픽 대회마다 열리는 올림픽 종목도 결정한다. 올림픽 경기 개최 도시는 경기 축하 의식이 올림픽 현장에 부합하도록 조직하고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올림픽 축하 행사로는 여러 의식과 상징을 들 수 있는데 올림픽 기나 성화가 그 예이다.

올림픽은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23개의 종목 아래 302개의 세부종목에서 13,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그중 각 종목별 1, 2, 3위는 금/은/동메달을

수여받는다. 전 세계 미디어에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중계하기 때문에 무명의 선수가 개인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올림픽 경기는 개최지와 개최국에게도 세계에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⁶⁾.

2. 고대 올림픽과 근대 올림픽의 변화 및 발전

고대의 올림픽 경기(올림피아 경기)는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의 대표선수들이 모여 벌인 일련의 시합이었으며, 육상 경기가 주 종목이지만 격투기와 전차 경기도 열렸다. 그러나 고대 올림픽의 유래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잘 알려진 가설로는 헤라클레스와 그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올림픽의 창시자였다는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경기를 최초로 '올림픽'이라고 부르고, 4년마다 대회를 개최하는 관례를 만든 사람이 헤라클레스라고 한다. 어떤 전설에서는 헤라클레스가 이른바 헤라클레스의 12업을 달성한 뒤에 제우스를 기리고자 올림픽 경기장을 지었다고 한다. 경기장이 완성되자 헤라클레스는 일직선으로 200 걸음을 걸었으며, 이 거리를 "스타디온"이라 불렀는데, 후에 이것이 길이 단위인 스타디온(영어: stadium)이 되었다. 또 다른 설로는 '올림픽 휴전'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관념이 최초의 올림피아 경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올림픽 휴전'이란 어느 도시 국가라도 올림피아 경기 기간 중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면 그에 대한 응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하지 말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 올림피아 경기가 처음 열린 시점은 보통 기원전 776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연대는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발견된 비문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비문의 내용은 달리기 경주 승자 목록이며 기원전 776년부터 4년 이후 마다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 고대 올림픽의 종목으로는 육상, 5종 경기(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달리기, 레슬링, 멀리뛰기), 복싱, 레슬링, 승마 경기가 있었다.

고대 올림피아 경기는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중요성을 띄고 있었는데,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제우스(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는 페이디아스가 만든 제우스 상이 있음)와 펠롭스를 기리기 위하여 제물 봉헌 의식을 치렀다. 펠롭스는 올림피아의 전설상의 임금이었던 피사티스의 오이노마오스 왕과 전차 경주를 겨룬 영웅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올림피아 경기의 승자는 시와 조각상으로 칭송받았다. 올림피아 경기는 4년마다 열려 이 기간을 '올림피아드

6) 위키피디아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wiki/%EC%98%AC%EB%A6%BC%ED%94%BD>)

(Olympiad)라고 했는데 그리스인들은 이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였다. 올림피아 경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정기적으로 열렸던 범그리스 대회인 순환 대회 가운데 하나였다.

올림피아 경기는 기원전 6세기~기원전 5세기에 절정에 이르렀으나, 그 후 로마가 패권을 잡은 뒤 그리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서서히 쇠퇴하게 된다. 고대 올림픽이 공식적으로 끝난 해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대부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모든 이단 숭배 및 예배를 금지했던 393년을 고대 올림픽의 마지막이라고 추정한다. 다른 설에 따르면 테오도시우스의 후계자인 테오도시우스 2세가 모든 그리스 신전을 파괴하라고 명령한 426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올림픽이 사라진 이후로는 이보다 한참 뒤인 19세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다시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된다.

고대 올림피아 경기를 제대로 구현한 첫 번째 시도는 혁명 시대의 프랑스에서 1796년부터 1798년까지 해마다 실시했던 프랑스 국내 올림픽인 '공화국 올림픽(L'Olympiade de la République)'이었다. 이 대회의 종목 중에는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경기 때 행한 일부 종목도 있었다. 1796년 공화국 올림픽 대회는 미터법을 최초로 스포츠에 도입시킨 대회이기도 하다. 1850년에는 잉글랜드 슈롭셔 주의 웬록에서 올림픽급의 대회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 대회는 1859년 아테네에서 열렸을 때 웬록 올림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금도 열리고 있다. 브룩스 박사는 1859년에 아테네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의 내용을 이후 경기에 채택하였다. 1866년 런던의 수정궁에서는 윌리엄 페니 브룩스가 영국의 국가 올림픽 대회를 만들었다.

1821년 그리스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반기를 들고 독립 전쟁이 일어나면서, 올림픽 부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시인이자 신문 편집자였던 파나티스 수츠스는 1833년에 출간한 자신의 시 '망자(亡者)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부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스의 부유한 박애주의자였던 에방겔리스 자파스는 1859년에 아테네 시 광장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일명 자파스 올림픽)"를 후원하였다. 이 경기에는 그리스와 오스만 제국 출신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에방겔리스 자파스는 이후에도 올림픽 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고대의 경기장이었던 파나티네코 경기장을 복원하는 데도 돈을 썼다. 파나티네코 경기장에서 1870년과 1875년에 자파스 올림픽을 개최했으며, 현대 올림픽인 2004년 하계 올림픽 때는 양궁 경기장으로도 쓰였다.

역사학자였던 쿠베르탱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1871)에서 프랑스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면서 군사들이 체계적인 체력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한 인물이다. 1890년 웬록 올림픽에 참석한 쿠베르탱은 그 이후부터 올림픽을 대규모로 부활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쿠베르탱은 웬록 올림픽과 자파스 올림픽을 토대로 하여 올림픽

경기를 국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나라별로 올림픽을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방식을 생각해냈다. 그는 이 방안을 새로 설립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첫 올림픽 의회 기간 중에 언급했다. 총회는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1894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지속되었으며, 총회 마지막 날 2년 후인 1896년에 아테네에서 국제적 규모의 올림픽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IOC는 올림픽을 조직하는 데에 모든 책임을 졌으며, 초대 위원장으로는 그리스의 작가였던 디미트리오스 비켈라스가 선출되었다.

1회 대회 정식종목으로는 9종목이 있었는데 육상, 사이클, 펜싱, 체조, 사격, 수영, 테니스, 역도, 레슬링이 있었으며, 조정도 정식종목이었으나 매우 나쁜 날씨로 인해 조정 경기는 취소되었다. 펜싱 경기는 역사적 건물인 자피온(에반젤리스 자파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에서 열렸다. 그리스의 관리들과 국민들은 올림픽 경기 개최에 열광적이었다. 많은 선수들이 이에 동감하면서 앞으로도 올림픽 대회를 아테네에서 영구히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근대 올림픽은 순환 개최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2회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기로 결정되었다.

1896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을 이어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인 1900년 올림픽에서는 올림픽의 존폐여부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900년에 파리와 1904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올림픽은 엑스포와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 바람에 빛을 바래게 된다. 1904년 대회를 예로 들면 65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지만 그중 580명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1900년과 1904년의 두 올림픽 대회는 역대 올림픽 중 최저점을 기록한다. 올림픽은 1906년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개최되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된다. 또 다른 성공적인 올림픽은 그리스 올림픽 협회가 조직했으며 세 차례나 올림픽을 치른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경기는 비공식 올림픽이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상당한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으며 대중들에게 큰 재미를 가져다주었다. 이 때를 시작으로 올림픽의 인기와 번영이 시작되었다.

올림픽은 1896년 대회 때는 14개국에서 241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지만 2012년 대회 때는 204개국에서 11,0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등 세계적인 대회로 변모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는 UN에 등록된 국가의 수 193개보다 많다. 다른 국제조직이 개최하는 대회들은 정치적 주권국으로 참가를 제한하는 반면, IOC는 그에 상관없이 올림픽에 모든 공동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연합체나 공동체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푸에르토리코, 버뮤다, 홍콩과 같은 곳도 올림픽에

서 다른 나라와 스포츠 경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3. 역대 올림픽 경기의 주요 현황

1896년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대회에서는 14개국 241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육상을 비롯한 9개 종목에서 43개 경기가 치러졌다. 당시 종합순위는 미국이 1위(금11, 은7, 동2), 그리스 2위(금10, 은17, 동19), 독일 3위(금6, 은5, 동2) 등의 순이었다. 이후 프랑스 파리(2회), 미국 세인트루이스(3회), 영국 런던(4회), 스웨덴 스톡홀름(5회), 벨기에 안트베르펜(7회), 프랑스 파리(8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9회), 미국 로스앤젤레스(10회) 등에서 개최되었다.⁸⁾ 특히 2012년 올림픽으로 런던은 역대 세 번째 올림픽을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한 올림픽이 제14회 런던올림픽이기도 하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140개국 6,829명이 참가하던 것이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무료 204개국 11,000명이 참가하게 된다. 참가국이나 참가인원으로는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올림픽 경기의 종목 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32개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26개 종목까지 줄었다.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10위권인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진입한 시기는 그리 멀지 않다. 1984년 제23회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종합 10위를 차지했고 27회 호주 시드니 대회를 제외하고는 줄곧 10위권 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시기는 제24회 서울 올림픽으로 당시 전 국민의 열광적인 참여와 홈그라운드 경기를 바탕으로 종합순위 4위(금12, 은10, 동11)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 올림픽을 제외하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성적이 가장 좋았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 13개, 은 8개, 동 7개로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7) 위키피디아 한국어판(<http://ko.wikipedia.org/wiki/%EC%98%AC%EB%A6%BC%ED%94%BD>)
재정리

8) 제6회 올림픽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예정이었으나 당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되었고 12회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핀란드 헬싱키로 개최지가 변경되었으나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되었고 1944년 13회 영국 런던올림픽도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개최되지 못했다.

<표 2-1> 1984-2012 올림픽 주요 현황

구분	개최 년도	개최국	참가국수 (개국)	종목수 (개)	참가선수 (명)	우리나라순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1984	미국	140	23	6,829	10위 (금6,은6,동7)
제24회 서울올림픽		1988	한국	160	23	8,391	4위 (금12,은10,동11)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2	스페인	169	32	9,356	7위 (금12,은5,동12)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		1996	미국	197	26	10,318	10위 (금7,은15,동5)
제27회 시드니올림픽		2000	호주	199	28	10,651	12위 (금8,은10,동10)
제28회 아테네올림픽		2004	그리스	201	28	10,625	9위 (금9,은12,동9)
제29회 베이징올림픽		2008	중국	204	28	10,942	7위 (금13,은10,동8)
제30회 런던올림픽		2012	영국	204	26	11,000	5위 (금13,은8,동7)

※ 출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 재구성

한편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서는 공식적으로 메달집계를 하고 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메달집계에 관해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다. 메달집계는 현대 올림픽에서 성공한 올림픽

픽 선수들을 알아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래의 표는 올림픽에서 개인 통산 다관왕을 한 상위 10명의 선수들에 관한 표이다.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3차례 참가하여 금메달을 총 16개나 가져갔다. 그 다음이 파보파보 누르미(핀란드/육상), 마크마크 스피츠(미국/수영), 칼 루이스(미국/육상), 라리사 라티나(소련/체조)가 각각 금메달 9개씩을 땀다. 매트 비온디(미국/수영), 제니 톰슨(미국/수영), 사와오 가토(일본/체조), 비르기트 피셔(독일/카누), 비요른 델리(노르웨이/크로스컨트리)가 각각 8개의 금메달을 수상했다. 미국 선수가 5명으로 올림픽 스타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이다. 또한 다관왕을 배출한 종목으로는 육상이나 수영이 눈에 띈다).

<표 2-2> 역대 올림픽 개인별 다관왕 상위 10위

선수	국적	종목	올림픽 참가기간	금	은	동	합계
마이클 펠프스	미국	수영(남)	2000-2012	16	2	2	20
파보파보 누르미	핀란드	육상(남)	1920-1928	9	3	0	12
마크마크 스피츠	미국	수영(남)	1968-1972	9	1	1	11
칼 루이스	미국	육상(남)	1984-1996	9	1	0	10
라리사 라티나	소련	체조(여)	1956-1964	9	5	4	18
매트 비온디	미국	수영(남)	1984-1992	8	2	1	11
제니 톰슨	미국	수영(여)	1992-2004	8	3	1	12
사와오 가토	일본	체조(남)	1968-1976	8	3	1	12
비르기트 피셔	독일	카누(여)	1980-2004	8	4	0	12
비요른 델리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남)	1992-1998	8	4	0	12

※출처: 위키피디아 재구성

4. 한국의 올림픽 경기 참가

1948년 런던올림픽이 우리나라의 첫 데뷔 무대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역도의 김성집, 복싱의 한수안 등 동메달리스트 2명을 배출했다. 식민지 시절 스포츠를 위안이나 자부심으로 삼았던 국민은 이 결과를 참패로 인식했다고 한다. 세계의 벽은 너무 높았다. 8강에 오르는

9) 네이버 2012 런던올림픽 재정리

패거를 이뤘던 남자농구가 대회 전 “외국 장신 선수에게 이길 수 없으니 출전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기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1956년 멜버른 올림픽까지 한국은 도합 6개의 메달을 땀다. 모두 역도와 복싱에서만 메달이 나왔다. 두 종목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한국 선수가 두각을 나타냈다. 체급경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체급경기의 우위는 지속되어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레슬링과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유도에서 첫 메달을 획득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양정모가 한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도 레슬링이었다. 이 대회에서 여자배구가 동메달을 딴 것이 유일한 비체급 경기 메달이었다.

제 3, 4공화국 체육관련 정책의 특징은 관 주도였다. 정치인이 경기단체장을 맡았고 학교 교육에서 체육과목이 강조되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 224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고도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에 그쳤다. 이는 태릉선수촌이 건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80년 개최된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구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고 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한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66개국이 의도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제5공화국에 들어서 관민 합작 형태로 변화되었고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뒤 정부는 체육부를 신설하고 대기업에 아마추어 협회 지원을 맡기면서 지원의 제1기준을 메달 가능성에 집중했다.

1984년 LA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10위(금6, 은6, 동7)에 오르며 국제 스포츠의 강호로 자리 잡았다. 이후 세 차례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획득한 종목으로는 양궁·핸드볼·농구(1984), 탁구·하카사격·체조(1988), 배드민턴·육상(1992)이었다. 이 가운데 양궁과 핸드볼은 1972년에 정식 종목으로 재진입했고 탁구와 배드민턴은 1988년과 1992년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대회에서는 펜싱의 김영호(금)와 이상기(동)가 메달을 획득했고 2008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양학선이 정복한 체조 종목은 올림픽 원년(1896)에 채택되었던 유서 깊은 종목이다. 원년 9개 종목 가운데 우리나라는 7개 종목(레슬링·육상·사격·역도·펜싱·수영·체조)에서 올림픽 정상을 밟았고 이 가운데 6개 종목은 1992년 이후, 3개 종목은 2000년 이후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표 2-3〉 한국의 역대 올림픽 성적

연도	개최지	순위	메달			합계(개)
			금	은	동	
2012	런던	5	13	8	7	28
2008	베이징	7	13	10	8	31
2004	아테네	9	9	12	9	30
2000	시드니	12	8	10	10	28
1996	애틀랜타	10	7	15	5	27
1992	바르셀로나	7	12	5	12	29
1988	서울	4	12	10	11	33
1984	로스앤젤레스	10	6	6	7	19
1980	모스크바	불참 ¹⁰⁾				
1976	몬트리올	19	1	1	4	6
1972	뮌헨	33	-	1	-	1
1968	멕시코시티	36	-	1	1	2
1964	도쿄	26	-	2	1	3
1960	로마	-	-	-	-	0
1956	멜버른	29	-	1	1	2
1952	헬싱키	37	-	-	2	2
1948	런던	32	-	-	2	2
합계			81	82	80	243

※ 출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재구성

우리나라의 역대 올림픽 주력 종목을 살펴보면, 단연 유도 종목이다.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 이후 총 243개 메달을 획득했는데 이 가운데 총 40개의 메달을 유도에서만 획득, 전체 메달 획득 19개 종목 가운데 16.5%를 차지했다. 이어 레슬링은 35개(14.4%), 양궁 34개(14.0%), 복싱 20개(8.2%), 배드민턴 18개(7.4%), 탁구 18개(7.4%), 태권도 14개(5.8%), 사격 14개(5.8%), 역도 11개(4.5%), 펜싱 9개(3.7%) 등의 순이었다.

메달 획득 19개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금메달을 차지한 종목은 ‘양궁’으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주요국의 양궁 경기단 코치가 한국인 출신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또한 메달 획득 종목 중에서 ‘체급 경기’는 5개 종목에 불과하여 전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기량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핸드볼, 야구, 축구, 배

10) 제22회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고 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한 미국, 일본, 중국 등 66개국이 의도적으로 대표선수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올림픽이 정치와 외교의 수단에 사용된 전형적인 예이다.

구 등 단체전 경기에서도 신체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강호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임에 따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¹¹⁾.

<표 2-4> 한국의 역대 하계 올림픽 종목별 메달획득 현황

순위	종목	메달			합계(개)
		금	은	동	
1	유도	11	14	15	40
2	레슬링	11	11	13	35
3	양궁	19	9	6	34
4	복싱	3	7	10	20
5	배드민턴	6	7	5	18
6	탁구	3	3	12	18
7	태권도	10	2	2	14
8	사격	6	7	1	14
9	역도	3	4	4	11
10	펜싱	3	2	4	9
11	체조	1	4	4	9
12	핸드볼	2	4	1	7
13	수영	1	3	-	4
14	하키	-	3	-	3
15	육상	1	1	-	2
16	야구	1	-	1	2
17	농구	-	1	-	1
18	축구	-	-	1	1
19	배구	-	-	1	1

※ 출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재구성

5. 2012년 런던올림픽 현황과 한국 참가

제30회 런던올림픽은 2012년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17일간 204개국 11,000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하계올림픽이었다. 권역별 참가국 수는 아프리카가 53개국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49개국(24.1%), 아시아 43개국(21.2%), 미주 41개국(20.2%), 오세아니아 17개국(8.4%) 순이었다.

11)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네이버 2012 런던올림픽 재정리

[그림 2-1] 권역별 참가국 수



※ 출처: 네이버 2012 런던올림픽

전체 26개 종목, 302개 세부종목(금메달)으로 구성된 이번 올림픽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종목은 제외되었으며 런던을 비롯한 총 27개 경기장에 걸쳐 경기가 치러졌다. 종목별 메달수를 살펴보면, 육상의 금메달 수가 47개로 가장 많았고 수영 46개, 사이클 18개, 레슬링 18개, 체조 1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종목별 금메달 수 현황

종목	육상	수영	사이클/ 레슬링/ 체조	카누 (카약)	사격/ 역도	유도/ 조정	복싱	펜싱/ 요트	태권도	승마	배드 민턴	양궁/ 탁구/ 배구	농구/하키/축구 /핸드볼/ 근대5종/ 테니스/철인3종
메달수	47	46	18	16	15	14	13	10	8	6	5	4	2

※ 출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은 총 104개(금46, 은29, 동29)의 메달을 획득하여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이 87개(금38, 은27, 동22)로 2위, 개최국인 영국은 65개(금29, 은17, 동19)로 3위, 러시아가 82개(금24, 은25, 동33)로 4위, 우리나라는 28개(금13, 은8, 동7)로 5위를 차지했다.

[그림 2-2] 2012 런던올림픽 공식로고와 마스코트 '웬록(Wenlock)'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26개 종목 가운데 22개 종목에 245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금 13, 은 8, 동 7개로 총 2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둘 만큼 세계적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했다.

<표 2-6> 한국의 2012 런던올림픽 종목별 메달실적

종목		메달			합계(개)
		금	은	동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6kg급	1			1
배드민턴	남자 복식			1	1
복싱	남자 라이트급		1		1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1			5
	남자 50m 권총	1			
	여자 25m 권총	1			
	남자 50m 소총 3자세		1		
	남자 50m 권총		1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1		2
	남자 200m 자유형		1		
양궁	남자 개인	1			4
	여자 개인	1			
	여자 단체	1			
	남자 단체			1	
유도	남자 81kg 이하급	1			3
	남자 90kg 이하급	1			
	남자 66kg 이하급			1	
체조	남자 도마	1			1
축구	남자			1	1

종목		메달			합계(개)
		금	은	동	
탁구	남자 단체		1		1
태권도	여자 67kg 이하급	1			2
	남자 58kg 이하급		1		
펜싱	남자 단체 사브르	1			6
	여자 개인 사브르	1			
	여자 단체 에페		1		
	남자 개인 에페			1	
	남자 개인 플뢰레			1	
	여자 단체 플뢰레			1	
합계		13	8	7	28

※출처: 네이버 2012 런던올림픽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올림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와 더불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¹²⁾. 우선 수영·육상 등 기초 종목의 성적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수영의 경우, 박태환 외에도 14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박태환을 제외하면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단 한명도 없었고 여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육상은 이번 올림픽에서 총 47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다. 이는 1992년 바르셀로나,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은메달을 하나씩 획득한 이후 16년째이다. 2011년 개최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노메달 개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둘째,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들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전략 종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종목이었던 태권도의 세계적 평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역대 올림픽에서 태권도는 각 체급에 걸쳐 다수의 메달을 확보하는 등 중주국의 위상을 높였으나 이번 올림픽에서는 금 1, 은 1개를 따는데 그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셋째,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역대 최대의 오심 피해를 받았다. 남자 수영 박태환의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실격을 시작으로 여자 펜싱 에페의 신아람, 남자 유도 조준호 등이 연이어 오심 피해를 받았다. 이에 대비하여 대한체육회(KOC)도 오심에 대한 이의 제기방식을 수립했으나 판정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즉, 선수의 경기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체육단체의 행정력과 외교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12) 중앙일보 2012년 8월 13일자 3면 재구성

<표 2-7> 2012 런던올림픽 경기일정

한국시간 기준	7(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8.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개막식(오전 5시)																폐막식 (오전 4시 30분)
복싱				오후 09시30분 라이트급 예선(한순철)		오후 09시30분 라이트플라이급 예선 (신종환)													오전4시30분 라이트플라이급 결승 (신종환)
핸드볼			오후 7시15분 여자 예선 한국-스페인	오후 7시15분 남자 예선 한국-크로아티아	오후 7시15분 여자 예선 한국-덴마크	오후 7시15분 남자 예선 한국-헝가리	오후 5시30분 여자 예선 한국-노르웨이	오후 5시30분 남자 예선 한국-스페인	오후 7시15분 여자 예선 한국-프랑스	오후 7시15분 남자 예선 한국-세르비아	오후 5시30분 남자 예선 한국-스웨덴	오후 10시 30분 남자 예선 한국-덴마크	오후 6시- 여자 8강	오후 7시- 남자 8강		오전 1시 준결승(여자)	오전1시 준결승(남자)		오전4시30분 여자 결승 (오후 11시 남자 결승)
축구	오후 10시30분 B조 예선 한국-멕시코			오전 1시15분 B조 예선 한국-스위스				오전 1시 B조 예선 한국-기보			오후 8시 8강				오전 1시 (오전 3시45분 준결승)			오후 11시 결승	
수영			오후 6시52분- 자유형 혼영 예선 (박태환 등)	오전 3시49분 자유형 400m 결승 (박태환)	오후 6시41분- 혼영 200m 예선 (최혜라)	오전 3시41분 자유형 200m 결승 (박태환)	오후 6시47분- 평형 200m (정다래, 백수연)	오후 7시10분- 접영배영 예선 (장규철, 함찬미)	오후 6시23분 자유형 1500m 예선 (박태환)		오전 3시36분 자유형 1500m 결승 (박태환)	개인혼영 남-정원용(400m)/du-김서영(400m), 최해파(200m) 배영 남-박형규(200m), 박찬민(100m)/여-함찬미(200m) 자유형 남-박태환(200,400,1500m)/여-한나경(800m), 김가을(400m), 백일규(200m) 평형 남-최규용(200m)/여-정다래, 백수연(200m), 김해진(100m) 접영 남-장규철(100m)/du-최해파(200m)							
탁구			오후 5시- 단식 예선	단식 김경아, 박미영, 주세혁, 오상은 단체 남-주세혁, 오상은, 유승민(이정우) 여-김경아, 박미영, 석하정(등에게)			오후 11시30분 여자 단식 결승 (김경아 등)	오후 11시30분 남자 단식 결승 (주세혁 등)	오후 6시- 단체 예선				오후 11시30분 여자 단체 결승	오후 11시30분 남자 단체 결승					
역도				오후 6시- 남/62kg(지훈민) 여/58kg(양은혜)	오후 6시- 남/69kg(원정식)	오후 6시- 남/77kg(사재혁) 여/69kg(문유라)	오전 3시 남/77kg 결승 (사재혁)	오후 8시30분- 여/75kg(양지혜)	오후 11시30분- 남/94kg(김민재)	오후 11시30분 여/75kg (장미란)	오후 11시30분- 남/105kg(김화승)	오후 11시30분- 남/105kg(전상균)							
체조		기계	오후 7시- 남자 단체 예선	오후 5시30분- 여자 개인 예선 (허선미)		오전 0시30분 남자 단체 결승	남자단체 김승일, 김희훈, 양현선, 김지훈, 김수연				오후 10시 남자 마루 결승 (김수연)	오후 11시41분 남자 도마 결승 (양현선)	리듬	오후 8시- 개인 예선 (손연재)	오후 8시- 개인 예선 (손연재)	오후9시30분 개인 결승 (손연재)			
사격			오후 11시30분- 남 10M 공기권총 결승(김종오)	오후 7시45분- 여 10M 공기권총 결승(김강미)	오후 5시- 10M 공기소총 등 예선(한진섭 등)	오후 5시- 스키드 (조용성)	오후 11시30분- 여 25m 권총 결승 김강미)	오후 6시30분- 남 25m 속사권총 (김대웅)	오후 5시- 남 50m 소총복사 등 (김학만 등)	오후 5시- 여 50m 소총3자세 등 (나윤경 등)	오후 8시30분 남 50M 권총 결승 (진종오, 최영래)	오후 5시- 남 50m 소총 3자세 (한진섭, 김종현)	공기소총 소총3자세 남-한진섭, 김종현/여-나윤경, 정미라 공기권총 권총 남-진종오, 최영래/여-김병희, 김강미, 김경애 스키드 조용성, 속사권총 김대웅, 더블트랩 강지은						
배드민턴			오후 4시30분- 단복 혼복식 예선 (이용대 등)	단식 이현일, 손완호, 배연주, 성지현 복식 이용대, 정재성, 유연성, 고성현, 김민정, 허정은, 김하나, 정경은 혼복식 이용대, 허정은			오후 5시- 단복 혼복식 16강8강 (이용대 등)	오후9시30분 혼합복식 결승 (이용대, 허정은)			오후9시 남자 복식 결승 (이용대, 정재성)								
펜싱			오후 6시 30분- 여자 플뢰레 예선 (남현희 등)	오전 3시40분 여자 플뢰레 결승 (남현희)	오후 6시30분- 여자 에페 예선 (최인정 등)	오후 6시30분- 남자 플뢰레 예선 (최병철)	오후 5시- 에페 사브르 예선 (박경두 등)	오후 5시- 여자 플뢰레 단체	오후 7시30분- 남자 사브르 단체	오후 6시30분- 여자 에페 단체	플뢰레 남-최병철/여-남현희, 전희숙, 정길욱/오후-단체전 사브르 남-구본길, 원우영, 김정환/오후-단체전/여-김지연, 이라진 에페 남-박경두, 정진성/여-최인정, 신이람, 정효정/최은숙-단체전								

조정			오후 8시30분-싱글스컬(김동용, 김예지)	오후 6시40분-경량급 더블스컬(김명신, 김슬지)														
사이클		도로	오후 6시-남자 개인도로(박성백)	오후 8시-여자 도로경주			오후 8시30분-여자 도로독주 결승(나아름)	트랙	0시-단체 스피린트 추발(이은지 등)	0시-경륜 단체추발 등(장찬재 등)	오후 6시-남자 임내업 등(조호성 등)	단체추발 장한재, 박선호, 최승우, 박건우	0시-여자 임내업 등(이민혜)	0시-여자 스피린트 등(이혜진)				
	양궁		오후 5시-남여 링향리운드	오전 2시-남자 단체 결승	오전 2시-여자 단체 결승	오후 5시-개인 예선	오후 11시37분-여자 개인 결승(7보배 등)	오후 11시37분-남자 개인 결승(임동현 등)	싱크로나이즈	오후 11시-듀엣 테크니컬(박현선, 박현하)	오후 11시-듀엣 프리(박현선, 박현하)	오후 11시-듀엣 결승(박현선, 박현하)						
요트			양궁 남자 오진혁, 임동현, 김법민 양궁 여자 최현주, 이상진, 기보배	오후 8시-레이저급	오후 8시-RSX 레이저급	오후 8시-RSX 레이저급		오후 8시-RSX 레이저 470급	오후 8시-RSX 레이저 470급	오후 10시-RSX급	오후 8시-레이저급 결승, 470급	오후 8시-RSX급 결승, 470급	오후 9시-470급 결승	RSX 이태훈, 레이저 허치민, 470 박건우, 조성민				
배구				오전 4시-B조 예선 한국-미국	오후 7시30분-B조 예선 한국-세르비아		오전 6시-B조 예선 한국-브라질	오후 10시45분-B조 예선 한국-터키		오후 7시30분-B조 예선 한국-중국		오후 9시-8강	오후 11시-4강				오후 2시30분-결승	
		유도	오후 5시30분-남/60kg(최광현) 여/48kg(정정연)	오후 5시30분-남/66kg(조준호) 여/52kg(김경옥)	오후 5시30분-남/73kg(왕기훈) 여/57kg(김진희)	오후 5시30분-남/81kg(김재범) 여/63kg(정다운)	오후 5시30분-남/90kg(송대남) 여/70kg(황예슬)	오후 5시30분-남/100kg(황희태) 여/78kg(정경미)	오후 5시30분-남/100kg(김성민) 여/78kg(김나영)			태권도	오전 6시30분-남/58kg(결승이대환)	오전 6시15분-여/67kg(결승(황정선))	오전 6시15분-여/67kg(결승(이인중)) 남/80kg(결승(차동민))			
다이빙													오전 3시-다이빙 여자 예선(김수지)	오전 3시-다이빙 남자 예선(박지호)				
하키				오후 9시45분-여자 예선 한국-중국	오후 4시30분-남자 예선 한국-뉴질랜드		0시-여자 예선 한국-영국	오전 5시15분-남자 예선 한국-독일	오후 6시45분-여자 예선 한국-네덜란드	오후 9시45분-남자 예선 한국-인도		0시-여한국-벨기에 남한국-네덜란드	오후 11시30분-여자 4강	오후 11시30분-남자 4강			오전 4시-여자 결승	오전 4시-남자 결승
육상					20K 경보 남김현섭, 변영준, 박철성, 여전영의/정단지기, 정영진 50K 경보 남임정현, 김동영, 박철성/정대늘이뛰기, 남김우석, 여최윤희 100m 허들 정해림/세든뛰기, 김덕현/미러톤, 남이두형, 장신권, 정진혁, 여김성은, 정은희, 임경희				오후 6시20분-여자 장대높이뛰기(최은희)	오전 1시-남 경보 20km(김현섭) 여 미러톤(김성은 등)	오후 6시15분-여자 100m 허들(정해림)	오후 6시45분-남자 장대높이뛰기(김덕현)	오후 6시-남자 장대높이뛰기(김우석)	오후 3시15분-남자 창던지기(정영진)	오후 5시-남 50K, 여 20K 경보(임정현 등, 전영의)	오후 7시-남자 미러톤(정진혁 등)		
								트라이애슬론				오후 7시30분(허민호)		근대5종	오후 4시45분-남자 정진화, 황우진)	오후 4시-여자(양부진)		
									레슬링	오후 9시-그/55kg(최규진) 그/74kg(김진혁)	오후 9시-그/60kg(정지현) 그/84kg(이세철)	오후 9시-그/66kg(김현우)	오후 9시-자/여자 48kg(김형주)	오후 9시-자/여자 55kg(양지은)	오후 9시-자/55kg(김진철)	오후 9시-자/60kg(이승철)	그/그레코로만형 자/자유형	

제 2 절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의 특징과 문제점

1. 올림픽 경기의 상업화와 텔레비전의 영향

본래 IOC는 스폰서에게서 자금제공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방침이었다. 에이버리 브런디지가 위원장으로 있던 1952년부터 1972년까지 IOC는 상업성과 올림픽의 연계를 거부해왔다. 협력 스폰서의 관심이 IOC의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브런디지가 수익창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IOC가 스폰서 계약이나 올림픽 심벌의 사용에 대한 협상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IOC는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들이 갖는 잠재성과 광고시장에 대해 조사했고, 1980년대 후반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 시절부터 올림픽과 관련 상품이나 브랜드를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스폰서를 맞아들임으로써 변화가 시작되었다. 1980년 IOC위원장으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가 당선되었을 때, 그의 소원이 IOC의 재정적 독립이었을 정도로 상업성에 대한 시각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브런디지가 IOC에 200만 달러를 남기고 은퇴한 후 8년 뒤 IOC의 자산은 4,500만 달러로 늘어났다. 그 이유는 IOC가 처음으로 텔레비전 중계권을 판매하고 스폰서와 계약함으로써 올림픽 규모가 팽창했기 때문이다.

1984년 하계 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순간이었다. 피터 위버로스(Peter Ueberroth)의 지휘 하에 있던 LA 하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 당시 2억 2,500만 달러라는 전례가 없던 이익을 창출했다. 왜냐하면 조직위원회는 독점스폰서에 대한 권리를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IOC는 이러한 재정적 후원 권리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1년 뒤인 1985년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올림픽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올림픽 프로그램(The Olympic Program, TOP)'을 설립했다. TOP의 회원들은 독점적이고, 비싼 비용을 IOC에 지불해야 했다. 4년마다 TOP 회원들은 5,000만 달러를 내야 했고 대신 올림픽 심벌인 오륜기를 국제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출판물이나 광고에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올림픽 브랜드 판매는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올림픽이 지나치게 상업성과 연계되어 이제 올림픽이 기존의 상업적인 스포츠쇼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1996년과 2000년 하계 올림픽 기간 사이에는 올림픽 관련 상품 시장의 포화 상태가 일어나면서 IOC에게 또 다른

비판이 일었다. 개최도시가 올림픽 관련 물건들을 판매하려는 상인과 회사들로 넘쳐났던 것이다. 당시 IOC는 올림픽에서는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개최국이나 개최도시는 올림픽에 모든 비용을 들이는데 IOC는 올림픽 심벌로부터 얻는 모든 권리와 수입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계권료도 올림픽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전 세계가 아닌 독일 내에서의 방송이었지만 텔레비전으로 방송한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 1956년 동계 올림픽이 전 세계적으로 중계 방송한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 1960년 동계 올림픽은 중계권을 어느 특정한 방송사에 판매한 첫 번째 올림픽이다. 중계권의 판매는 올림픽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그로 인해 텔레비전의 광고 시간을 사는 광고주들에게 경쟁을 유발하여 IOC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

올림픽 시청자들은 196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1968년 하계 올림픽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한 사람들은 6억 명으로 추정되었고, 1984년 하계 올림픽을 시청한 사람들은 9억 명으로 늘어났으며, 1992년 하계 올림픽은 약 35억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NBC에 따르면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은 1968년부터 개최된 올림픽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청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되는데, 그중 하나는 케이블 채널 간의 경쟁이 심화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으로 경기 영상과 결과를 보여주는 인터넷의 대중화이다.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게 많은 방송 비용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케이블의 치열한 경쟁을 이유로 엄청난 중계권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¹³⁾.

그러자 IOC는 올림픽 경기 운용 시간까지 변경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계 올림픽 때 체조종목은 밤 7시에서 9시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수영과 다이빙 종목의 시간은 늘렸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텔레비전 시청자들 중 가장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방송국들의 로비가 올림픽 종목들의 일정 시간까지도 미국의 텔레비전 황금시간대에 맞춰서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방송중계 때문에 경기의 룰이 바뀌기도 한다. 배구경기의 레리포인트제와 야구경기의 무승부 제도 도입은 모두 방송편성시간을 고려해서 도입되었다는 분석이다¹⁴⁾.

13) 위키피디아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wiki/%EC%98%AC%EB%A6%BC%ED%94%BD>)
재정리

2. 올림픽 방송의 중계권 경쟁

현재 올림픽 경기의 수익은 대부분 방송중계권과 스폰서라 불리는 협찬광고로부터 나온다. 특히 방송중계권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의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올림픽이 처음 방송중계권을 판매하기 시작한 대회는 1960년 런던올림픽부터였다. 당시 방송중계권료는 최고액을 지불한 미국 CBS조차도 60만 달러에 불과했다. 올림픽 방송중계권료는 다음 대회인 1964년 도쿄 올림픽부터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도쿄 올림픽이 위성방송으로 전 세계에 방송중계가 가능해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한동안 올림픽의 방송중계권료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올림픽 방송중계권료가 다시 폭등세로 돌아선 것은 1984년의 LA올림픽부터다. LA올림픽은 상업주의 올림픽의 기점이었다. LA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방송중계권료 협상을 통해 ABC와 2억 2,500만 달러에 중계권 협상을 맺고, 다수의 스폰서광고를 유치하면서 흑자를 올리자, IOC도 뒤늦게 방송중계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후 올림픽 방송중계권 협상은 IOC 주도로 바뀌었고, IOC는 대행사를 통해 방송사들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방송중계권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IOC가 촉발한 방송중계권 상승은 이를 지켜보던 다른 경기단체까지 영향을 미쳤다. 올림픽보다 세계인의 관심이 높다고 자평하는 FIFA가 방송중계권을 불모로 수익확대에 뛰어들면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미국의 MLB, NBA, PGA·LPGA 등 인기 리그까지 도미노처럼 방송중계권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림픽과 월드컵은 물론 기타 리그의 방송중계권 가격은 최근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먼저 올림픽의 국내 방송중계권 가격은 하계올림픽의 경우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345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3,100만 달러, 동계올림픽의 경우 역시 1992년 알베르빌이 15만 6천 달러였던 것이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200만 달러로 모두 10배 가까이 치솟았다¹⁵⁾.

14) 윤병건(2005). 『디지털 멀티미디어시대의 방송과 스포츠』. 서울: 한울

15) 김경환(2010). 한국언론학회 2010 봄철정기학술대회 ‘스포츠이벤트의 <방송중계권> 갈등과 대안모색’

<표 2-8> 국내방송사들의 올림픽 중계권 구매 현황

대회	방송권료(USD)	전대회 대비	비고
1988년 서울(하계)	345만	동결	
1922년 알베르빌(동계)	15만6천	-	1992 동-하계: 765만6천
1992년 바르셀로나(하계)	750만	117% 인상	
1994년 릴레함메르(동계)	16만	3% 인상	1994/1996: 991만
1996 애틀랜타(하계)	975만	30% 인상	
1998 나가노(동계)	55만	244% 인상	1998/2002: 1,430만 *2000-2008 5개 대회 KP 다년계약
2000 시드니(하계)	1,375만	41% 인상	
2002 솔트레이크시티(동계)	75만	36% 인상	2002/2004: 1,625만
2004 아테네(하계)	1,550만	13% 인상	
2006 토리노(동계)	90만	20% 인상	2006/2008: 1,890만
2008 베이징(하계)	1,800만	16% 인상	
2010 밴쿠버(동계)	200만	122% 인상	2010/2012: 3,300만 (06/08대비, 75% 인상)
2012 런던(하계)	3,100만	72% 인상	

※ 출처: KBS내부자료(방송권료는 추정치임)

월드컵의 방송중계권료 상승도 만만하지 않다. 1986년 멕시코월드컵의 방송중계권료가 한화로 2억 300만원이었던 것이 패키지 판매형태로 판매방식이 변화되면서 2010년 남아공월드컵과 2014년 브라질월드컵의 방송 중계권료가 1억 4,000만 달러까지 폭등했다.¹⁶⁾

<표 2-9> 국내방송사들의 월드컵 중계권 구매 현황

대회	방송권료	전대회 대비	비고
1986 멕시코	2억 300만원	-	ABU Pool 참여 10~12.5% 분담했던 금액
1990 이탈리아	5억 1,600만원	154% 인상	
1994 미국	10억원	94% 인상	
1998 프랑스	15억 8,000만원	58% 인상	Korea Pool 계약 - 2개 대회 6,000만
2002 한국일본	3,500만 USD (455억원)	2,780% 인상	
2006 독일	2,500만 USD (260억원)	43% 인하	*16강 진출시 plus option - 대회당 500만 USD
2010 남아공 & 2014 브라질	1억 4,000만 USD	133% 인상 (USD 대비)	

※ 출처: KBS내부자료(방송권료는 추정치임)

16) 2010년 남아공월드컵과 2014년 브라질월드컵의 경우 16강 진출시 1경기당 5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방송중계권료의 폭등은 기본적으로 중계권의 소유자인 IOC 및 FIFA가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 나아가 방송중계권을 생중계권, 녹화방송권·하이라이트방송권·인터넷전송권·뉴스방송권 등을 보다 세분화하고, 방송매체별로 각기 다르게 하여 수익확대를 추구한다. 때문에 한 개 국가의 노력이나 일개 방송차원의 대응으로는 현재와 같은 방송중계권료 폭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¹⁷⁾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경기는 국내 방송 3사가 공동으로 풀(Pool)을 구성해 스포츠 중계권을 협상하는 것이 관례였다. 풀 구성의 가장 큰 목적은 방송사 간 경쟁으로 인한 중계권료 인상을 억제하고 중계권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¹⁸⁾.

그러나 풀을 구성한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처럼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계권료 협상에 나서고 있는 일본도 2002년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싸고 흥역을 치렀다. 월드컵 중계권료가 폭등하면서 이로 인해 저편컨소시엄이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자, 그 틈을 유료위성방송사인 스카이퍼펙TV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전경기 중계권을 독점 구매했기 때문이다. 스카이퍼펙TV의 중계권 독점으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유료 매체에서만 볼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 저편컨소시엄이 전체 64경기 중에서 40경기에 대해 지상파와 지상파계열인 BS위성방송의 중계권을 구매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표 2-10> 주요 중계권 분쟁 사례들의 사건 경과 및 결과 요약

사례명	주요 분쟁원인	분쟁경과(당사자)	결과
EU와 프리미어리그(BskyB) 간 갈등사례	3년간 프리미어리그를 독점 중계하고자 하는 머독의 BskyB에 대한 EU의 계약 철회요구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EU 그리고 BskyB3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심화	유럽위원회의 중재로 프리미어리그 방송중계권은 '07년 시즌 이후 6분할되어 BskyB의 독점 금지됨

17) 일각에서는 올림픽의 상업화에 반대하여 일종의 친목단체인 IOC를 폐지하여 국가별 올림픽 위원회인 NOC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경환, 2010).

18) 강희중(2010). '중계권 에이전시 등장으로 풀 구성 한계 보여'. 신문과방송. 2010년 3월호

사례명	주요 분쟁원인	분쟁경과(당사자)	결과
2006~2007 독일 분데스리가 중계권 사례	Free TV인 프로지벤트 미디어를 제치고 독일 분데스리가 중계권을 획득한 프리미어리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발	프리미어리가 리그에 무료 TV의 경기 관련 요약방송 시간을 옮길 것을 요구하며, 거액을 제시하며 방송권 경매에 응함	무명의 아레나에게 분데스리가 방송권을 훨씬 낮은 금액으로 빼앗김
2002년 월드컵의 FIFA와 JC 간의 중계권 갈등사례	FIFA가 선임한 ISL과 JC 간의 폭등한 중계권료를 둘러싼 의견 충돌	대형광고회사인 텐츠를 통해 스카이프랙과 ISL이 협상을 시작함. JC는 관망상태를 유지	ISL의 파산예건에 따라 텐츠가 라이선스를 구입. 결국 NHK와 민방이 단합하여 66억 엔으로 중계권 타결
IB스포츠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분쟁사례	IB스포츠가 AFC가 주관하는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을 독점계약	방송3사(KBS, MBC, SBS)가 공동대응 합의를 통해 보편 접근권의 도입을 주장	프로농구 지상파 중계권 재계약을 신호탄으로, IB가 소유한 중계권 재판매권을 각 방송사마다 구입. 3사의 구조를 스스로 파기

※ 출처: 송해룡·김원제·조항민(2007). 인기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미디어경제와 문화, 5(2), 79-120.

국내에서도 코리아풀이 운영됐지만, 중계권과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199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KBS가 풀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방송한 사례도 있고 1997~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는 MBC가 3사 풀을 깨고 단독으로 방송했다. 2001~2004년에는 MBC가 풀을 파기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를 독점 계약했다. 이때 KBS와 SBS는 국내 프로야구와 축구, 농구를 독점 계약한 후 MBC를 배제하기도 했다¹⁹⁾.

그리고 2006년 SBS가 코리아 풀을 깨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부터 2016년 하계 올림픽까지 4개 올림픽 대회의 중계권과, 2010년/2014년 월드컵 독점 계약을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SBS는 2018년 동계 올림픽부터 2024년 하계 올림픽까지도 독점 방송권을 계약하여 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두 독점하게 되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에 1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했다. SBS 독점중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중계 요구와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서 일단 코리아 풀은 복원되었다²⁰⁾.

19) 강희중(2010). '중계권 에이전시 등장으로 풀 구성 한계 보여'. 신문과방송. 2010년 3월호

<표 2-11> 지상파방송 3사 중계권 갈등 사례

시기	대회	내용
1996	AFC아시안컵	KBS가 코리아폴을 깨고 단독으로 방송
1997	98 프랑스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MBC가 코리아폴을 깨고 단독으로 방송
1999	브라질 축구 대표팀 초청 경기	KBS가 순차방송을 무시, 단독으로 중계권 계약하여 방송
1999	나이지리아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SBS가 KBS의 브라질 초청 축구 위반을 이유로 단독 중계
2001~2004	미국 프로야구리그(MLB)	○ MBC가 2001~2004년 단독계약 ○ KBS, SBS는 국내 프로야구, 축구, 농구를 독점 계약하여 MBC제한
2005. 8	○ 올림픽 아시아 예선 ○ 월드컵 축구 지역예선	IB스포츠가 2008년 올림픽 아시아 예선과 2010년 월드컵축구 지역예선에서 중계권을 계약하자, 방송3사는 해외 프로그램 구매에 관한 합의를 채택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음
2005. 12	국내 농구 중계권	SBS가 국내 농구 중계권 획득
2006. 2	AFC패키지, 미국 프로야구리그(MLB),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 KBS가 IB스포츠로부터 AFC패키지, 미국 프로야구리그(MLB),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중계권 구입 ○ MBC와 SBS가 반발하여 3사 균등 분배
2006. 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결승전	3사의 동시중계
2006. 7~8	올림픽과 월드컵 패키지	○ SBS가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부터 2016년 하계 올림픽까지 4개 올림픽 대회의 중계권 계약 ○ SBS가 2010년과 2014년 월드컵 독점 계약

※ 출처: 정두남(2012). <스마트미디어 시대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연구: 상업방송의 주요 스포츠 이벤트 독점 중계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 김경환(2010), 한국언론학회 2010 봄철정기학술대회 ‘스포츠이벤트의 <방송중계권> 갈등과 대안모색’

3 올림픽 방송의 순차편성에 대한 논의

과거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과 월드컵 때마다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무시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볼륨끄면 똑같은 방송 3사.... 메달 장면만 재탕삼탕”(2008년 8월 13일자 헤럴드경제), “올림픽 특수에 표류하는 방송”(2008년 8월 11일자 데일리안), “또 틀어줘? 올림픽 재방송 짜증나네!”(2008년 8월 12일자 동아일보), “월드컵 전파낭비.... 지상파 3사 매일 동시 중계”(2006년 6월 12일자 국민일보) 등이 대표적이다.

2010년 월드컵과 동계올림픽의 SBS 단독중계로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경기의 단독중계와 순차편성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었다. SBS 단독중계로 다양한 종목을 시청할 수 있다거나 SBS 외의 채널에서 드라마나 예능을 시청하는 등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더 넓어졌다는 것이다.²¹⁾

반면 SBS의 단독중계에 대한 시청자 불만 사례도 나왔다. “SBS 동계올림픽 스케이팅 해설 구설수 괴성에 눈물까지... 누리꾼들 '샤우팅 해설 짜증나'”(2010. 2. 17. 미디어스)처럼 중계방송의 품질, 해설자의 전문성 문제 등 SBS 단독중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²²⁾

실제 동서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SBS 밴쿠버 올림픽 단독중계를 두고 방송 3사의 공동중계 방식이 더 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72.3%였다. SBS의 단독중계로 인해 시청에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한 경우는 59.0%로 나타났다. 시청시 불편사항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다양한 종목을 볼 수 없어서’(72.3%), ‘국민적 열기나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서’(37.5%), ‘해설이나 중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37.0%), ‘광고가 지나치게 많아서’(29.0%), ‘SBS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서’(9.1%)로 나타났다.²³⁾

상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의 중계방식으로 공동중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7.6%로 단독 중계를 원한 응답자 1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청집단에 따라 올림픽 경기의 단독중계와 순차중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엇갈릴 수 있다. 스포츠 경기 주시청 집단일수록 올림픽 방송 내에서 채널 선택권을 중시할 것이고

21)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002/h20100227084534111780.htm>, 이호영·윤성욱 (2009)에서 재인용.

2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20>

23) 한국방송공사(2010). KBS저널, 2010년 5월호; 정두남(2012) 재인용.

스포츠 경기 주시청 집단이 아닌 경우 올림픽 경기 외의 드라마, 예능 등 프로그램 장르 채널 선택권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림픽 중계방송의 단독중계와 순차중계 문제는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청집단 간 선호도를 근간으로 각 집단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올림픽 중계방송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학계에서도 올림픽 중계방송 형태에 대해 일종의 조정안이 제시된 바 있다. 즉 기존의 방식과 유사하게 지상파방송 3사가 공동중계를 하되, 1경기에 대해 2개사씩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방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경기 2개사 공동순차중계 방식은 스포츠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해당 스포츠 내에서의 중계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청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캐스터와 해설자, 편집화면 등을 각 방송사별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²⁴⁾

4. 올림픽 방송에 대한 국내외 논의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연구는 크게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방식과 스포츠 중계방송의 메시지와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의 두 가지 방법론으로 나뉜다.²⁵⁾

일부 학자들은 스포츠의 텍스트 분석, 운동선수 태도 조사를 포함한 미디어 스포츠 양상을 연구하는 양적인 경험학적 연구를 추구하고 있는데²⁶⁾, 메가 스포츠 이벤트(megasporting event)에서 인종, 여성, 국가 등 다양한 집단간 차이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²⁷⁾

24) 김정현 · 김대근(2010). 단독독점중계 vs. 공동순차중계: 방송시간 스포츠 중계권 경쟁과 보편적 시청권 제도 연구, <한국방송학보>. 24(6). 85-126.

25) Ingham et al.(1999), Ingham and Donnelly(1990). The expendable prolympic self: going beyond the boundaries of sociology and psychology of sport. *Sociology of Sport Journal*, 16, pp.236-268.

26) Billings(2007). From diving boards to pole vaults: gendered athlete portrayals in the “big four” sports at the 2004 Athens Summer Olympics.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72(4), 329-344., Billings(2008). *Olympic media inside the biggest show on television*. NY: Routledge.

27) Foley(1990). The great American football ritual: reproducing race, class, and gender inequality. *Sociology of Sport Journal*, 7, pp.111-135.

반대로 질적인 접근의 비판 또는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비롯된 연구들이 있다.²⁸⁾ 홀(Hall, 1971)은 텔레비전의 주요 목표는 일상생활을 특정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인 것처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 스포츠는 제도적, 기술적, 정치적, 경제학적,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이끌어 낸다. 그루노(Gruneau)는 스포츠가 헤게모니 싸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한다.²⁹⁾ 실제 문화연구자들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전통, 권력, 계층 간 갈등 관점을 제공한다. 맥도날드(McDonald)는 미디어 스포츠 연구에서는 국가, 성, 인종의 개념과 관련 세 가지 방법으로 권력은 재구축 되어왔다고 주장했는데 ① 스포츠와 스포츠 미디어에 헤게모니 이론 적용을 통해, ② 스포츠와 미디어 내 성과 인종 관계를 포함하기 위한 헤게모니의 확장을 통해 ③ 스포츠의 “맥락적 문화 연구”의 진흥을 통한 방법이다³⁰⁾

올림픽은 그 어느 메가 스포츠보다 가장 광범위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중계방송 연구에서 올림픽 중계방송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 중계방송의 양적 분석에서는 성별, 인종, 국가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은데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남성 경기 56%, 여성 경기 44%가 중계방송 되었다는 연구 결과와³¹⁾ 함께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은 남성 경기 53%, 여성 경기 47%³²⁾ 또는 남성 경기 51%, 여성 경기 49%였던 것으로³³⁾ 나타났다. 후속 연구들 역시 지속적으로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여성 경기보다는 남성 경기가 선호되고 있다는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³⁴⁾

28) Gramsci(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29) Gruneau(1983). *Class, Sports, and Social Development*. Amherst,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30) McDonald(2006).

31) Higgs & Weiller(1994). Gender bias and the 1992 Summer Olympic Games: An analysis of television coverage.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18, pp.234-246.

32) Tuggle & Owen(1999). A descriptive analysis of NBC's coverage of the Centennial Olympic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3, pp.171-182.

33) Eastman & Billings(1999). Gender parity in the Olympics: Hying women athlete, favoring men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3(2), pp.140-170.

34) Billings & Eastman(2002). Nationality, gender, and ethnicity: formation of identity in NBC's 2000 Olympic coverage.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7(3), pp.349-368.

이스트만과 빌링스(Eastman & Billings)는 중계방송 된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여성 선수들의 미디어 보도를 연구했는데 CNN의 『스포츠 투나잇(Sports Tonight)』은 단지 7%, ESPN의 『스포츠센터(SportsCenter)』는 5%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다.³⁵⁾ 또한 올림픽에서 텔레비전은 '육체적으로 보다 매력적(physically attractive)'인 경기를 중계한다는 분석도 있다(Tuggle & Owen, 1999). 올림픽 스포츠 중계방송은 '강한(powerful)'으로부터 '예쁜(pretty)'을 구분함으로써 여전히 성에 있어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동계 올림픽(여성 경기자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어 덜 성적으로(less sexually) 보이게 함)보다 하계 올림픽(수영복과 체조복을 입은 여성 경기를 제공함으로써)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주장이다.³⁶⁾

스포츠와 미디어 연구에서 성별 차별성뿐만 아니라 국가주의(nationalism) 역시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스포츠와 국가주의는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공존해왔고 올림픽만큼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데는 없다.³⁷⁾ "1896년 올림픽 경기의 시작 이래 국가주의는 근대 올림픽을 계속 따라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³⁸⁾ 많은 국가에서 올림픽은 그 국가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되었고, 국가 대표팀이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무수한 사회 정책들을 위한 기수(旗手)로 나서면서 운동선수들은 "국가적 또는 인종적 캐릭터의 대표로 살고, 숨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³⁹⁾ 실제 2008년 베이징

Billings & Eastman(2003). Framing identities: gender, ethnic, and national parity in network announcing of the 2002 Winter Olympics. *Journal of Communication*, 53(4), pp.369-386., Billings & Angelini(2007). Packaging the games for viewer consumption: nationality, gender, and ethnicity in NBC's coverage of the 2004 Summer Olympics. *Communication Quarterly*, 55(1), pp.95-111. 등.

35) Eastman & Billings(2000). Sportscasting and sports reporting: The power of gender bias, *Journal of Sports and Social Issues*, 24(1), pp.191-212.

36) Kane(1989). The post-Title IX female athlete in the media: Things are changing, but how much?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60(1), pp.58-62.

37) Bairner(2001). *Sport, 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Perspectives*. Albany, NY: SUNY.

38) Larson & Park(1993), *Global Television and the Politics of the Seoul Olympics*. Boulder, CO: Westview. p.35.

39) Clarke & Clarke(1982), *Highlights and action replays : ideology, sport, and the media*.

올림픽에서 중국의 목표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슈퍼파워로서 그들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에서 메달 국가가 되는 것이었다고 비판받고 있다.⁴⁰⁾

스포츠 국가주의는 국가별로 상관없이 매우 침투적이다. 많은 연구들은 국가주의 요소가 미디어 스포츠의 운동 경기 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왔다.⁴¹⁾ 남성우월적인 스포츠-군국주의적인 국가주의의 복합적인 중계방송이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공중의 지지를 강화하였다는 분석도 있었다.⁴²⁾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3개 영어 국가(호주, 영국, 미국)의 중계방송(편성시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국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미국 NBC 올림픽 중계방송 보도 분석 결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경기에서 언급된 선수의 51%가 미국인이었고, 2년 후인 솔트 레이크 올림픽 경기에서 미국인 운동 선수는 좀 더 침착하고 용기 있는 것으로 특징화되는 반면 미국인이 아닌 운동선수는 경험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⁴⁴⁾ 이와 유사하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미국인이 아닌 운동선수와 대비되는 미국인 운동선수의 특징이 7가지로 분석되었다.⁴⁵⁾ 물론

In J. Hargreaves(ed.), *Sport, Culture, and Ideolog*. London:Routledge. p.62.

40) Wang(2005). Gold is not sole goal for Chinese sports. *Xinhua General News Service*.

41) Hargreaves(2000). *Heroines of Sport*. London: Routledge., Miller et al.(2001). *Globalization and Sport: Playing the World*. London: Sage., Garland & Rowe(1999). War minus the shooting? Jingoism, the English press, and Euro 96.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3, pp.80-95., Jutel(2002). Olympic road cycling and national identity: Where is Germany?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6(2), pp.183-192., Mandan(2000). It's not just cricket: World Series Cricket:race, nation, and diasporic Indian identity.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4(1), pp.24-35. 등.

42) Stempel(2006). Televised sports, masculinist moral capital, and support for the US invasion in Iraq.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30(1), pp.79-106.

43) Larson & Rivenburgh(1991). A comparative analysis of Australian, US, and British telecasts of the Seoul Olympic ceremony.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5(1), pp.75-94.

44) Billings & Eastman(2002). Nationality, gender, and ethnicity: formation of identity in NBC's 2000 Olympic coverage.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7(3), pp.349-368., Billings & Eastman(2003). Framing identities: gender, ethnic, and national parity in network announcing of the 2002 Winter Olympics. *Journal of Communication*, 53(4), pp.369-386.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보다 덜 국수주의적이어서 국제적인 중계보도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는 "하계올림픽보다 동계올림픽에서는 띄워야 할 스타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⁶⁾

한편 국내 연구로는 올림픽 관련 보도 프로그램의 스포츠 저널리즘 평가⁴⁷⁾, 지상파방송 3사 스포츠 뉴스 분석⁴⁸⁾ 있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올림픽 보도가 지나치게 경기 결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올림픽 보도에서 종목간 실질적인 균형은 부족한 점, 금메달 지상주의와 함께 보도 언어에 있어서 지나친 스포츠 애국주의적인 보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잔치였던 2002년 한일월드컵은 스포츠 애국주의와 미디어를 통한 열광주의, 지나친 민족주의적 보도자세, 영웅주의에서 비롯된 강대국 위주의 편향적 보도가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한민국'을 앞세운 스포츠 애국주의와 이를 뒤에서 만들어낸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미디어를 통해 열광주의로 변질되었다. 준비가 덜 된 방송, 쉽게 흥분하는 방송사들은 예고된 프로그램을 제멋대로 바꾸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월드컵만을 방송했으며 경기마다 방송 3사의 동시중계는 관행화되고 뉴스는 월드컵소식 일색이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에서 승승장구하는 우리나라의 팀의 일거수일투족을 뉴스, 교양, 시사, 오락 프로그램에서 단순 반복 재생산했다. 반면, 월드컵 경기에 밀려 방송되지 못한 정규프로그램은 수두룩했다. 결국 지상파방송사들의 중복, 집중편성은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을 박탈했고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다.

둘째, 방송은 지나친 민족주의적 보도자세로 일관했다. 지나친 월드컵의 열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경기에만 한정된 열기였다는 것이었다. 월드컵 보도에 있어 방송은 상대팀을

45) Billings & Angelini(2007). Packaging the games for viewer consumption: nationality, gender, and ethnicity in NBC's coverage of the 2004 Summer Olympics. *Communication Quarterly*, 55(1), pp.95~111.

46) Billings(2008). *Olympic media inside the biggest show on television*. NY: Routledge.

47) 이기현 · 이동훈(2004). 아테네올림픽 관련 보도 프로그램의 스포츠저널리즘 평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뉴스워치 보도자료.

48) 윤호진 · 이동훈(2004). 지상파방송 3사 스포츠뉴스 분석.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뉴스워치 보도자료.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이거니와 연예오락프로그램 사회자들은 상대방 선수를 비하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발언을 빈번하게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반미를 유발하는 듯한 방송 멘트와 예고방송은 감정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폐쇄적 모습의 단적인 예이다. 중립적 진행을 유지해야 하는 스포츠 보도조차 해설자들의 흥분된 억양과 분위기 띄우기에 열중한 나머지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했고 쉽게 동요하며 흔들리는 언어를 구사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현상은 월드컵의 글로벌적 의미와 스포츠의 시대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영웅주의에서 비롯된 강대국 위주의 편향적 보도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방송 보다는 신문보도에서 두드러졌다. 즉, 표제어에서는 민족의 영웅화, 개인의 극화가 빈번했다. 예컨대 “첫 승을 기다린다”, “아쉽다”, “잘 싸웠다” 등으로 연결되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승리는 결과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⁴⁹⁾

5. 올림픽 방송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주시청시간대의 중계방송은 전체 올림픽 보도의 16%에 불과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는 바로 그 16%가 ‘시청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기’로 인식된다.⁵⁰⁾ 주시청시간대뿐만 아니라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전체 올림픽 경기 종목 중 누가 또는 무엇이 방송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올림픽 경기에 있어 중계방송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거나 가장 침묵하는 형태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 것인지 다양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만약 “미디어에서 레슬링 종목을 가장 많이 노출한다면 미국 시청자들은 재빠르게 그 종목이 거의 항상 방송될 것임을 알아차린다”고 한다.⁵¹⁾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그 동안 그 종목에서 잘 해왔다는 증거이고, 그러므로 방송사는 ‘최고 중의 최고의 경기’가 아닌 ‘미국인들에게 최고인 경기’를 편성에서 선택하기 때문이다.

국내 올림픽 중계방송의 보도에서는 구기 종목의 보도량이 높고 특히 ‘축구’ 종목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²⁾ 또한 스포츠 뉴스에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빅 4로 축구,

49) 송해룡(2002). ‘감정적 민족주의 영웅주의 황색저널리즘’. 신문과방송 8월호

50) Hiestand(2006a). NBC aiming for Olympic viewers to stay tuned. USA Today, p.2C.

51) Billings(2008). *Olympic media inside the biggest show on television*. NY: Routledge. p.14.

52) 이기현 · 이동훈(2004). 아테네올림픽 관련 보도 프로그램의 스포츠저널리즘 평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뉴스워치 보도자료.

야구, 농구, 골프를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⁵³⁾ 이러한 분석들은 비록 중계방송이 아닌 스포츠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 국한된 분석이었으나 국내 스포츠 편성에서 선호되는 경기 종목이 주로 무엇인지, 나아가 스포츠 중계방송 보도에서 있어서 다양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프로그램 측면에서 올림픽 중계방송은 이중적인 목표를 수행한다. 즉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올려야 하는 것이다. 상반된 목표간의 불균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올림픽 중계방송의 이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즉 방송사는 어떤 요인에 의해 편성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물론 앞서 검토했듯이 그러한 이중성에 관여하는 편성 요인으로 성별, 국가, 인종과 같은 요인도 있지만 TV 스포츠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편성요인으로는 광고판매, 제작비, 시청률 등이 제시되고 있다.⁵⁴⁾

그런데 국내 TV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점차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수익은 감소하고 있으며, 제작비는 중계권료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반면 월드컵, 올림픽 경기를 제외하고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⁵⁾

이에 따라 국내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문제점으로 월드컵, 올림픽 경기와 같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내 지상파방송에서 스포츠 중계방송은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WBC 대회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포함한 국가대항전 경기에 대한 편중성이 전체 경기중계방송 중 73.5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⁵⁶⁾ 특히 이 분석에서는 채널별로 차별성도 발견되었는데 KBS 1TV의 경우 다양성에 있어 다른 채널보다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BS TV의 경우 많은 시간을 편성하는 반면 종목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비록 지상파방송이 아닌 스포츠케이블 방송사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는 했지만 중복 편

53) 윤호진·이동훈(2004). 지상파방송 3사 스포츠뉴스 분석.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뉴스워치 보도자료.

54) Picard(2002). *Media Economic: Theory and Practice*. 김지운 역(2005). 『미디어 경제학』 서울: 나남., Owen, Beebe, & Manning(1996). *Television Economics*. 최양수 역(1996) 『텔레비전 경제학』. 서울: 나남.

55) 조성식·박영욱(2001). ‘TV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과 편성요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14권 2호. pp.539-554.

56) 박보현(2008). ‘2006년 지상파TV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 8호, pp.204-212.

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2005년 프로야구 정규시즌을 대상으로 방송시간 중복 중계방송을 분석한 결과 KBS SKY-MBC ESPN의 중복 중계방송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KBS SKY-SBS SPORTS가 중복 중계방송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MBC ESPN-SBS SPORTS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으로써 채널간 중복 중계방송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KBS SKY, MBC ESPN, SBS SPORTS 세 채널간 중복편성도 적지 않게 나타나 시청자의 시청권리와 채널선택권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⁵⁷⁾

이는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도 지상파방송사들의 과열경쟁, 전파 낭비, 채널 선택권 박탈, 다양성 저해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⁵⁸⁾ 또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중복 편성 문제는 과도한 시청률 지상주의에서 비롯된다는 비판이 많았다.⁵⁹⁾

지상파방송 스포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지상파방송이 소수의 인기종목에만 방송시간을 할애한다는 비판이다. 1998년 방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농구, 야구, 축구, 월드컵 등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을 합치면 KBS의 경우 무려 77.25%를 차지하고 있고 MBC는 76.86%를 차지하면서 소수 종목에 절대적으로 편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 동안 국내 지상파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편중하고 있어 그 외 다양한 국내 스포츠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 둘째 축구, 야구 등 소수 종목에 편중하고 있어 다양한 종목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채널간 중복 방송이 많아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6.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방송의 평가와 문제점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경우, 특히 시차가 거의 없어 매 경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이

57) 여정권 · 이창섭(2006). '스포츠케이블 방송사의 프로야구 중계 편중 및 중복 편성에 관한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1권 1호. pp.157-170.

58) 김원제(2005). 『미디어스포츠 사회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59) 김택환 · 이상복(2005). 『미디어 빅뱅, 한국이 바뀐다』. 서울: 박영출판사.

60) 송해룡(2001). '스포츠 중계권의 수급현황과 공영방송의 편성전략'. 『방송문화연구』. 13호 . pp.137-166.

번 런던올림픽과는 달리 기업의 마케팅 효과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호영·윤성옥(2009)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중계 풀(pool)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복, 편중편성에 대한 빈도는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획일성, 선정성, 승자위주의 보도 양상은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올림픽 방송의 주요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⁶¹⁾

첫째, 성별 중계방송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순위가 높은 종목에서는 상관관계가 적었으나 낮은 순위의 종목에서는 다이빙, 수중발레, 비치발리볼 등이 남성에 비해 편성빈도가 높아 신체 노출이 많은 경기 종목이 채택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미국의 올림픽 중계방송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1.9% 대 48.1%로 3.8% 정도 차이에 불과했지만 베이징 올림픽의 국내 중계방송은 남성 대 여성 경기 비율 차이는 20.3%나 나타나 남성 경기와 여성 경기의 불균형 현상이 지나치게 높았다. 따라서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성적 차별성이나 선정성이 엿보이는 편성에 대한 문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국가별 중계방송 편성빈도와 시간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KBS의 경우 2개 채널을 운용하여 타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경기가 중계되어 그나마 다양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경기중계에서는 육상, 수영, 체조, 수중발레, 다이빙, 비치발리볼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함으로써 편성에서 우리나라 경기가 제1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매력에 돋보이는(physically attractive) 경기가 대거 편성되었다. 국내 지상파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국가주의(nationalism) 경향은 국가 간 경기에서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여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조시키고 국민들의 몰입도는 높아져 결국 스포츠에 정치적 개입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미디어에 의해 올림픽 승리자는 국민적 영웅이 되고 스포츠 내셔널리즘과 승리지상주의는 스포츠의 본질적 왜곡과 기능적인 변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중복/편중 방송 현황을 분석했더니 중복방송은 2채널, 3채널 중복편성을 합산하여 55.2%였고 단일편성은 44.8%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인상평가 위주의 문제제기에서 거의 중복편성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순차편성의 모범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일본의 경우 방송사들의 협력 아래 중복편성률이 제로라는

61) 이호영·윤성옥(2009). '베이징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관한 분석: 성별, 국가주의, 중복편 중편성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1. pp.284~314.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일부 종목에서 순차편성을 시도한 것으로는 시청자 요구 수준에 도달하기에 미흡할 것이고 향후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중복편성을 방지하고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의 채널 전문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채널별 동일하게 중계방송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각 채널별 이미지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여 순차편성을 하는 것이 다매체 다채널 경쟁상황에서 전체 지상파방송 경쟁력 구축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제3절 보편적 시청권 도입과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1.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과 쟁점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미국의 모든 가정에 전화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최소한의 통신이용권을 내용으로 하여 1934년 미국의 통신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국제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1934년 미국 통신법이 도입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적절한 비용으로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⁶²⁾

보편적 서비스란 통신에서는 음성 유선전화서비스에 초점을 둔 ‘정보수단에서의 접근가능성’을 주로 의미하나, 방송에서는 ‘방송서비스에서의 보편적 접근가능성’과 ‘편성내용에서의 보편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⁶³⁾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통신영역에서 인터넷 접속 등 고도정보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⁶⁴⁾는 ‘누구에게나 무료 혹은 싼 가격으로 경제적, 정치적,

62) 김명전(2010). 『미디어법』. 박영사. p.289.

63)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보편적서비스 실현방안보고서”. 2007. 7.

64) 우리나라에서 보편서비스 개념이 법제화된 것은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부터이다. 이 법에서는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지역·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의무 제공”을 정보통신시책의 기본원칙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제3조 제3항), 지역,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의무 제공(제3조 제4항)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1998년 전기통신사업법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보편적 서비스 지침(Universal Service Directive)에서 "지정된 최소범위의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에게 적절한 요금에 제공(……the provision of a defined minimum set of services to all end user at an affordable price……)"하는 것을 보편적 서비스라 정의하고 있다.⁶⁵⁾ 즉 보편적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의미한다. 보편적 접근권은 '정보권을 새로운 인권과 복지의 개념으로 확립해야 하며 특히 지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⁶⁶⁾ 방송에 대한 접근, 곧 이용은 시청을 의미하므로, 방송의 보편적 접근권은 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의 이용자인 시청자가 물리적·경제적 장애 없이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방송사가 특정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권리나, 방송사가 특정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 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는 당초에는 명시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또는 공적 책임의 차원에서 보편적 접근 및 내용의 보편성을 추구해 왔었다. 그 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시행 2007. 4. 27[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보편적 시청권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접근개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하였다.⁶⁷⁾

방송법 시행령 제 60조 3항(금지행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개정을 통해 보편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소한의 통신 이용권을 음성전화 수준으로 간주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를 지정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999년 3월 이후에는 보편적 내용의 의무, 제공사업자의 지정방법 및 손실보전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12월 이후에는 보편서비스의 제공 범위, 비용분담제도, 손실 분담금 산정, 분담 기준 및 면제기준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윤호진·최세경, “디지털 융합 환경하에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공정접근과 보편적 서비스 연구”, 방송위원회자유, 2007. 12. 참조)

65) 김지훈(2010). “방송과 보편적 서비스”. 고려법학 제5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p.481.

66) 송해룡·김원제(2005),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협회; 김원제, 송해룡, 김재철, 조항민(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p.401.

67) 방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요소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유료방송에서의 공공채널·공익채널 편성, 종합유선방송에서의 지역채널 편성, 재난방송의 실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김명전, 2010).

밖의 주요 행사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및 편성정책 현황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스포츠 중계권 분쟁해결과 국민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68)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 Wimbledon 테니스 등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국가가 지정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방송하고 있다. 영국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69)

<표 2-12> 해외 주요국의 보편적 서비스 적용 현황

대상국가	보편적 접근권이 해당되는 방송개념	특별지정이벤트
영국	영국인구의 적어도 95% 이상 이 시청 가능한 무료 지상파 방송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무료 지상파 의무중계 경기인 그룹 'A'와 방송사들에게 독점권을 줄 수 있는 중계 경기인 그룹 'B'로 분류하여 지정. 영국여왕 대관식 등은 그 외의 특별지정 이벤트로 지정
독일	실제적으로 독일 전체 가구의 2/3이상이 수신 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해당	월드컵 축구, 동.하계 올림픽, 독일 대표팀 출전 경기 등 대형 스포츠 행사에 국한

68)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접근권'은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이 보편화됨에 따라 채널방송사업자 등이 스포츠 방송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중계권을 획득하여 남용할 경우 지상파에만 의존하는 시청자 계층의 사회복지를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제화된 개념이다.

69) 미국은 1970년대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연방법원의 위헌판결로 제도화에 실패했다. 미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도입 실패에 대해서는 심석태는 단순히 미국이 시장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보다는 지상파방송이 다루었던 주요 스포츠 행사를 유료방송이 5년 내에 다루지 못하게 하거나 장편영화의 경우 최대 10년 동안 유료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한 부분의 과잉입법문제가 보편적 시청권도입을 막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심석태, 2007).

대상국가	보편적 접근권이 해당되는 방송개념	특별지정이벤트
프랑스	성문화된 특별지정사항이不在	동.하계 올림픽, 프랑스 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축구 등의 대형 스포츠 행사에 국한
이탈리아	특정 방송사의 스포츠중계권 한도 60%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결승전 및 이탈리아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의 스포츠 경기, 산 레모 이탈리아 음악 페스티벌
덴마크	시청도달 범위가 90% 이상의 방송(무료TV)	다른 유럽국들과 같이 대형스포츠 행사들은 동일, 유럽컵 핸드볼(남, 여), 유럽컵 핸드볼(여자)등의 경기도 지정
호주	ABC, SBS와 같은 공영방송, 50% 이상의 시청범위가 커버되는 상업방송	반 독점권을 막기 위한 Anti-shiphoning 리스트와 잉여방송권에 대한 양도조항인 Anti-hoarding rule 지정. 2006년 1월에 발표된 리스트에는 크리켓, 축구, 테니스, 네트볼, 골프, 코터 스포츠의 6종목이 포함

※ 출처: 송해룡 외(2008). 보편적 시청권의 국민관심행사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p.56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호를 위해 주요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 계약을 공동으로 협상하고 순차 중계하는 사례는 해외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외국 스포츠 협회와 대행사들이 공동 중계를 카르텔 형성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공동중계방식은 일본, 유럽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협상방식이다.⁷⁰⁾

대표적인 국가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전 국민의 95%가 무료로 시청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국인데, 방송사들 간의 중계권 공동협상 및 순차중계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Ofcom이 월드컵 중계를 원하는 방송사들을 심사하여 중계권 획득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연스럽게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순차중계를 실시하고 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BBC와 ITV가 공동 순차중계 하였는데, ITV가 남아공 대 멕시코의 공식 개막전과 잉글랜드의 조별리그 2경기 등 초반 주요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가져가는 대신, BBC는 잉글랜드의 조별리그 1경기과 함께 잉글랜드의 16강과 8강 경기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각 경기의 중요도를 따져서 적절하게 배분하였고 결승전은 2사가 동시중계 하였다. 조별리그와 8강전까지는 순차중계를 통해 제반비용과 전과낭비를 줄이고 결승전 같은 중요한 경기는 2사가 동시 중계함으로써 시청자들

70) 정용준(2002). '2002 한일월드컵 방송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언론과학연구』. 2권 2호. pp.5-36.

의 채널 선택권과 방송사의 이익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이탈리아는 방송법에 특정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권 한도가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이는 어느 한 방송사가 100% 독점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인데, 폭등하는 중계권료에 대처하면서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71).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전체가구의 2/3 이상이 실제로 수신 가능하도록 보편적 시청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10 남아공 월드컵에 대해 지상파 공영방송 ARD와 ZDF가 공동 협상을 통해 중계권을 획득하며, 상업방송 RTL까지 방송에 참여하도록 하고 경기들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순차적으로 중계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한다. 동시에 다양한 방송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추구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월드컵에 대한 시청욕구를 충분히 채워주면서, 특정 채널을 선호하는 시청자의 기호까지도 보완적으로 충족하는 효과를 가져왔다(72).

또한 올림픽에 대한 중계권의 경우, 유럽 방송사들은 연합체인 EBU를 통해 금액을 협상하고, 그 권리를 분배하고 있다. EBU는 IOC로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중계권을 할당받았는데 이를 다시 각 나라별로 적절한 금액을 받고 배분함으로써 중계권료 폭등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73).

일본은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연스럽게 공영방송 NHK와 상업방송사들이 저팬 컨소시엄(Japan Consortium)을 구성해 스포츠 중계권을 공동 구매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NHK가 주요 국제 스포츠 중계권을 전담해 오다가 1976년 저팬 풀(Japan Pool)을 결성하여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을 최초로 공동중계하기 시작했으며 1984년 LA 올림픽 때부터 저팬 컨소시엄으로 이름을 바꿨다. 동계올림픽은 1998년 나가노 올림픽, 월드컵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공동구매가 진행되었다(74).

71) 정용준(2010). '중계권료 폭등에 공동 대처: 외국방송사들은 어떻게 해결했나'. 『신문과방송』. 3월호. pp.40~43.

72) 시사 IN. 140호. 2010년 05월 22일자.

73) 정용준(2010). '중계권료 폭등에 공동 대처: 외국방송사들은 어떻게 해결했나'. 『신문과방송』. 3월호. pp.40~43.

74) 안창현(2010). '日, 저팬컨소시엄 통해 올림픽 중계권 협상/중계방송 방식 결정'. 『KBS해외방송정보』. <http://office.kbs.co.kr/book1/7013>.

저편 컨소시엄은 중복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계방송 시간과 순서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NHK가 전체 중계권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상업방송인 NTV, 후지TV, TBS, TV 아사히, TV 도쿄 등 5개사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NHK가 우선권을 가지며 나머지 5개사는 추첨으로 방송할 경기를 결정한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NHK가 22경기, NTV와 후지TV, TBS가 각각 5경기씩 중계하고, TV 아사히가 4경기, TV 도쿄가 3경기를 순차 중계방송하였다.⁷⁵⁾

3. 국내의 보편적 시청권 법제 도입과 편성정책 현황

국내에서 중계권 논쟁이 결국 법제화 논의로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는 IB스포츠의 아시아 축구연맹(AFC) 주관경기의 국내 중계권의 독점 계약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이다. IB스포츠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매체에 대한 중계권을 재판매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매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상파 위주의 중계권 협상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후 방송사간의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과당경쟁과 중계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송법에 보편적 시청권 규정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특히 월드컵 축구경기나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중계권을 둘러싸고 방송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부작용은 국내방송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중계권료에 대한 부담이 크고, 방송사업자의 사업권역에 따라서는 시청이 불가능한 방송 수용자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온 것이다. 결국 방송사업자간의 프로그램 독점권이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이라는 시청자 권익보호 장치를 도입하게 되었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것은 2001년 6월 당시 심재권 의원에 의해서였다. 이 법안은 방송법에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행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사는 유료방송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생중계 또는 중계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상파 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이들 행사가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었다. 보편적 시청권 또는 접근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

75) 시사 IN. 제140호. 2010년 5월 22일자.

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행사를 유료 방송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중계해
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시청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 개념을 먼저
도입했던 대다수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슷한 접근 방법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하지
만 결과적으로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방송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2006년 말에 제시되었던 이들 법안들을 심의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 대안은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문화관광위
원회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시 방송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다만 당초
제출된 법률안들에는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문광위원회의 심의과정
에서는 이것이 ‘보편적 시청권’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방송 시청에 대한 법제인 만큼 ‘시청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에 의해서였다. 이 개정된 방송법은 2007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1년에 논의가 시작되어 정책적 협의를 거쳐 2007년 1월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이 제도화된 것이다. 또한, 이후 2008년 2월 시행령이 마련되었고, 7월에 보편적 시
청권 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구체적인 대상 및 중계원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⁷⁶⁾

<표 2-13>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입법노력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01. 6	심재권 의원이 보편적 시청권관련 입법조항 발의
2005. 10. 20	박형준 의원을 대표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보편적 접근권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안 발의
2005. 10. 27	손봉숙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법안 제출. 처음으로 ‘보편적 접근권’의 개념 정의
2006. 8. 11	최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제출.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사별 순번제 도 입의 내용
2007. 1. 26	개정방송법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추가
2008. 5. 25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의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출처: 최혜선(2010).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있어서의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법적고찰.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p.199

76) 방송통신위원회. 2010. 4. 23일자 보도자료.

한편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월드컵 이전에 중계권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SBS에 1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SBS가 KBS·MBC에 월드컵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상황이 인정되고 협상에 있어서 한국팀 경기는 SBS의 단독중계 방침을 고수하는 등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외면하였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SBS는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2011년 6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⁷⁷⁾

다행히 SBS의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로 왜해진 방송 3사간의 공조체제는 2010년 9월 주요 스포츠 경기는 방송 3사가 공동중계하기로 합의하면서 복원되었다. 방송법이 정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을 각 사 평등의 원칙에 따라 순차 편성하고 이들 경기의 중계권 획득도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공조체제의 후속조치로 2012년 3월 지상파 방송 3사는 2012년 런던올림픽 대회의 12개 주요종목은 방송사별 순차방송을 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합동방송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새롭게 제정된 고시에 의하면 특정 방송사가 중계방송권 판매나 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는 행위, 현저히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중계방송권자가 국민관심행사의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에 차별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간 분쟁의 소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77)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SBS 측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를 1심과 2심에서 판결하였다. 하지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월드컵 중계방송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도한 조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2012년 2월 2심 판결은 SBS의 패소를 결정하였다(아주경제, 2012).

4. 국내 중계방송 편성법제 및 정책현황

보도, 교양,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의 조화로운 편성을 위해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의 책임있는 편성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3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사항을 균형있게 표현하고 각 장르간 방송프로그램의 조화로운 편성을 강조하면서 주시청시간대 특정 방송 분야⁷⁸⁾의 방송프로그램 편중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의미하고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뜻한다. 그리고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채널별, 매체별 순차편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76조의5 제1항).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체별, 채널별 효율적인 순차편성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방송법 제76조의5 제2항).

78)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6호)

<표 2-14>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관련 주요 조항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 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④, ⑤ -생략-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②, ③ -생략-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②, ③, ④, ⑤ -생략-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도한 중복 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 3 장 국내 지상파방송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분석

제 1 절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분석방법

1. 분석방법

국내 지상파방송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⁷⁹⁾ KBS 1TV, KBS 2TV, MBC TV, SBS TV를 대상으로 편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KBS 1, KBS 2, MBC, SBS 지상파 4개 채널의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전량 모니터 분석을 시도하기로 하였고,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를 받았다.⁸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사후심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저장하고 있어 본 분석에서 올림픽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전량 수집하여 분석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목동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니터 분석 연구원은 2명이 투입되었다. 본 분석이 편성시간 및 빈도 수, 종목별, 채널별 편성량 분석 등 기술분석이었기 때문에 2명이 분담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명의 연구원은 수차례의 사전 회의를 통해 분석 지침을 공유하였고, 사전조사(2012년 7월 30일)를 통해 상호간 오류 가능성도 줄였다.

79) 실제 런던올림픽 기간은 2012년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이지만 축구 예선전(한국 대 멕시코)이 7월 26일 처음 중계되었고, 폐막전이 런던 현지 시간으로는 8월 12일 열렸지만 시차 때문에 국내에서는 8월 13일 편성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분석기간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하였다.

80) 모니터분석을 위해 장소와 장비를 지원해주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KBS 1TV, KBS 2TV, MBC TV, SBS TV에서 방송시작시간부터 방송종료시간까지 생중계와 녹화중계 되었던 모든 올림픽 경기를 포함하였다. 정규 뉴스나 오전 종합매거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정규 뉴스 프로그램이나 오전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은 주로 올림픽 경기를 뉴스로 다루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러나 주요 경기를 재방송하거나 하이라이트로 편집방송하는 프로그램은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KBS 2TV에서 <굿모닝 대한민국>(월~금, 오전 6시~8시), KBS 2TV <아침 뉴스타임>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일일 편성되었던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월~금, 오전 9시 40분~1시)는 포함하였다.⁸¹⁾

3. 분석유목

분석유목은 (1)방송날짜, (2)채널, (3)중계방송 형태(생중계, 녹화중계), (4)중계방송시간(방송시작시각, 방송종료시각, 방송분량), (5)경기종목 대분류(26개 종목), (6)경기종목 소분류(302개 종목), (7)국가(203개국), (8)경기 분류(성별: 남성, 여성, 혼성/개인단체: 개인전, 복식, 단체전) (9)선수명, (10)경기형태(메달경기/메달관련없는경기)로 나눠 조사하였다.

중계방송의 형태에서 생중계와 녹화중계의 구분은 생중계인 경우 주로 화면 상단에 'Live'로 표기하기 때문에 구분이 용이하였으나 사전 편성표 확인 및 방송 진행자의 언급 등을 고려하여 이중 점검을 했다. 경기종목은 런던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26개 종목(소분류 302개 종목)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조사하였다. 국가 역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통계처리하였는데 국가 분류를 통해 한국 출전 경기는 얼마나 중계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선수명은 런던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영문명으로 기입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또한 경기형태는 크게 메달 경기와 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로 구분하였다. 메달경기는 동메달전, 은메달전, 금메달전, 결선, 시상식을 포함하였고 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는 예선전, 64강, 32강, 16강, 8강, 4강, 동메달 진출전을 포함하였다.⁸²⁾

81)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녹화자료에 문제가 있어 2012년 8월 3일 17:00-21:00 방송분량은 제외되었다.

82) 결선이란 수영, 육상과 같이 다수 선수가 결선을 통해 금, 은, 동메달을 결정하는 경우를

중복편성 현황은 생중계로 전체 경기를 중계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에 앞서 KBS, MBC, SBS가 서로 주요 종목을 분담하여 순차편성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생중계 방송에서 얼마나 방송시간 합의가 잘 지켜졌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종목별로 KBS(1,2)-MBC-SBS(3개 채널), KBS(1,2)-MBC/KBS(1,2)-SBS/MBC-SBS(2개 채널) 중복편성 현황을 분석했다.

중복편성 분석에서는 방송날짜별로 302개 소분류 경기 종목과 방송시점(채널간 중계방송의 방송시작 시간의 5분 차이, 방송시작시간이나 방송종료시간 중 하나가 동일한 경우를 모두 중복편성으로 간주)이 동일한 경우 채널간 중복편성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중복편성시간 산출을 위해서는 3개 또는 2개 채널 중복 시 최소 방송시간의 채널을 기준으로 방송시간량을 추출하였다.

모든 편성분석은 편성시간과 편성빈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스포츠 종목 특성상 90분 경기부터 10초 경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편성시간이나 편성빈도만을 기준으로 편성현황의 특징과 문제점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분석항목을 편성빈도/편성시간을 비교분석하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했다.

제 2 절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현황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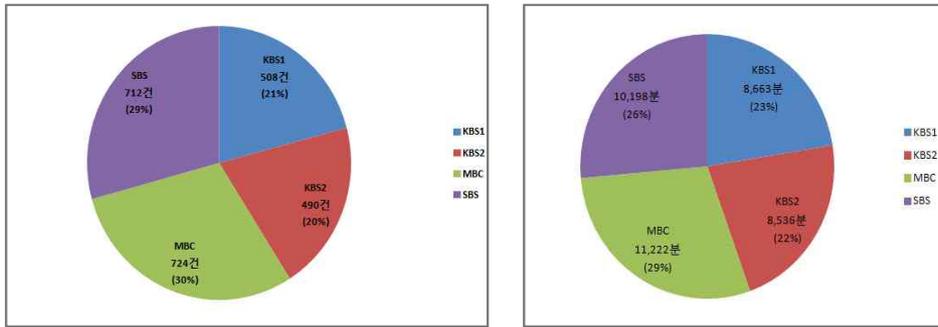
(1) 전체 편성빈도/편성시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국내 지상파 4개 채널(KBS 1TV, KBS 2TV, MBC TV, SBS TV 이하 TV 생략)은 올림픽 경기를 총 2,434건, 38,619분 중계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편성빈도로 MBC 724건, SBS 712건, KBS1 508건, KBS2 490건 순이었고, 편성시간 기준 역시 MBC 11,222분, SBS 10,198분, KBS1 8,663분, KBS2 8,536분 순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

말한다. 마찬가지로 예선은 결선에 진출하기 위해 겨루는 경우 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로 처리하였다.

방송에서는 MBC가 가장 많이 중계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채널단위가 아닌 방송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KBS1, 2를 합쳐 998건, 17,199분으로 KBS가 가장 많이 중계방송 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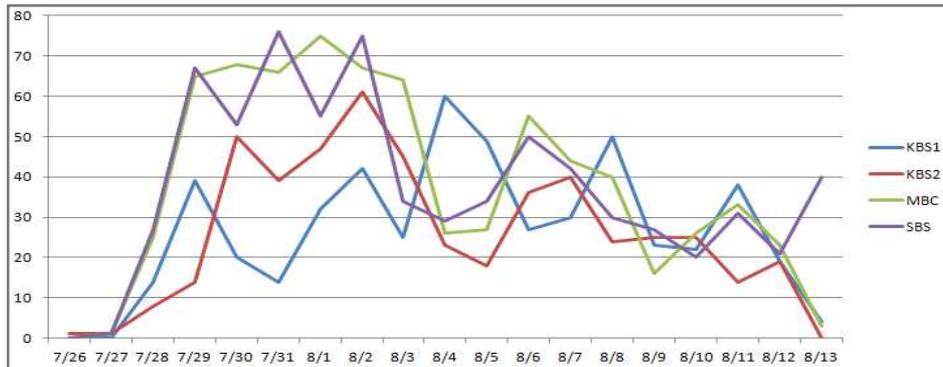
[그림 3-1] 지상파방송 3사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빈도/편성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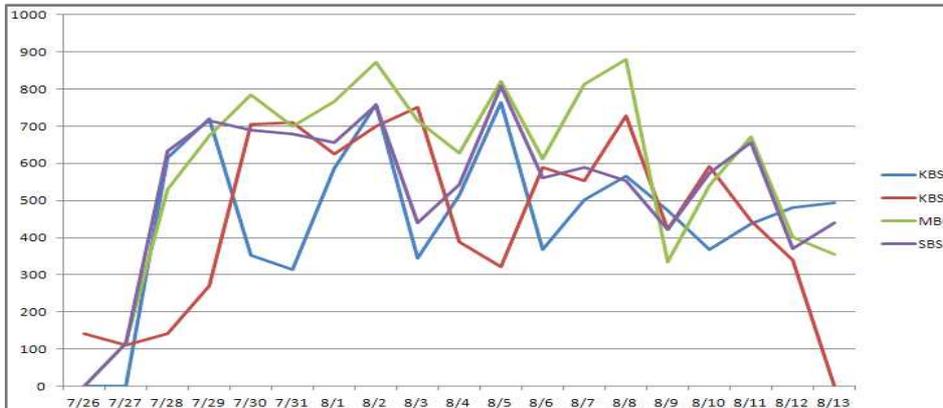
올림픽 기간 날짜별로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계방송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편성빈도로 8월 2일 가장 높은 245건을 기록했으며, 8월 1일 209건, 7월 31일 195건, 7월 30일 191건, 7월 29일 1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채널별로는 KBS1은 8월 4일(60건), 8월 8일(50건), 8월 5일(49건), 8월 2일(42건), 7월 29일(39건) 가장 많이 중계방송을 편성했고, KBS 2는 8월 2일(61건), 7월 30일(50건), 8월 1일(47건), 8월 3일(45건), 8월 7일(40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MBC는 8월 1일(75건), 7월 30일(68건), 8월 2일(67건), 7월 31일(66건), 7월 29일(65건)으로 편성빈도 기준으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계방송을 집중 편성한 것을 알 수 있다. MBC와 동일하게 같은 기간 SBS도 가장 많은 중계방송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월 31일(76건), 8월 2일(75건), 7월 29일(67건), 8월 1일(55건), 7월 30일(53건) 순이었다.

방송시간 기준으로도 8월 2일 3,089분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8월 8일 2,726분, 8월 5일 2,717분, 8월 1일 2,635분, 7월 30일 2,532분 순이었다. KBS1은 8월 5일 764분으로 가장 많이 중계방송 하였고, KBS2는 8월 3일 751분, MBC는 8월 8일 880분, SBS는 8월 5일 808분으로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날짜별 지상파방송 3사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빈도



[그림 3-3] 날짜별 지상파방송 3사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시간(분)



(2) 중계방송 형태별 편성빈도/편성시간

생중계/녹화중계의 비중을 분석했더니,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녹화중계 1,487건(61.1%)으로 생중계 947건(38.9%)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생중계가 21,922분(56.8%)으로 녹화중계 16,697분(43.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녹화중계의 경우 종목별로 짧게 반복적으로 편성함으로써 빈도 건수 자체는 높아진 반면 생중계의 경우 비교적 경기시간이 길었던 구기종목들 때문에 녹화중계보다 생중계의 편성시간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 3사의 녹화중계 빈도가 생중계보다 높은 이유는 이번 런던 올림픽의 경우 영국과의 시차를 고려할 때 새벽에 생중계한 경기를 낮 시간 동안 다시 녹화중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중계에 비해 녹화중계의 빈도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성 시간이 적은 이유는 녹화된 경기의 주요 장면만을 중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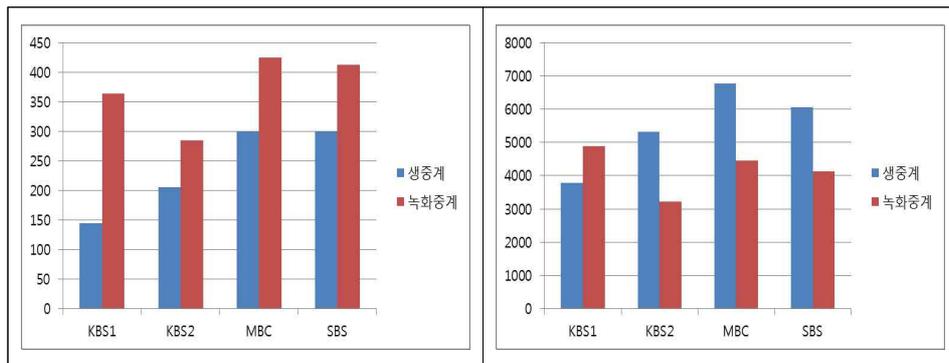
방송채널별로는 KBS1 생중계 144건(28.3%), 녹화중계 364건(71.7%)이었고, KBS2는 생중계 205건(41.8%), 녹화중계 285건(58.2%)이었다. MBC는 생중계 299건(41.3%), 녹화중계 425건(58.7%)이었고 SBS는 생중계 299건(42.0%), 녹화중계 413건(58.0%)으로 모두 녹화중계가 높았다. 편성시간으로는 KBS1이 생중계 3,772분(43.5%), 녹화중계 4,891분(56.5%), KBS2는 생중계 5,323분(62.4%), 녹화중계 3,213분(37.6%)로 나타났고, MBC는 생중계 6,761분(60.2%), 녹화중계 4,461분(39.8%), SBS가 생중계 6,066분(59.5%), 녹화중계 4,132분(40.5%)이었다.

편성시간에서 다른 채널에 비해 KBS1만 녹화중계가 많은 것은 광고 없는 채널 특성상 중계방송 편성을 생중계보다는 녹화나 재방송 위주로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지상파방송 3사의 중계형태별 올림픽 중계 편성

구분	생중계	녹화중계
KBS1	144건(28.3%)	364건(71.7%)
	3,772분(43.5%)	4,891분(56.5%)
KBS2	205건(41.8%)	285건(58.2%)
	5,323분(62.4%)	3,213분(37.6%)
MBC	299건(41.3%)	425건(58.7%)
	6,761분(60.2%)	4,461분(39.8%)
SBS	299건(42.0%)	413건(58.0%)
	6,066분(59.5%)	4,132분(40.5%)
합계	947건(38.9%)	1,487건(61.1%)
	21,922분(56.8%)	16,697분(43.2%)

[그림 3-4] 지상파방송 3사의 런던올림픽 중계형태별 편성빈도/편성시간(분)



(2) 방송형태별 편성빈도/편성시간

올림픽 경기를 전체 중계방송 했는지, 일부만 중계방송 했는지 살펴보았더니 경기 전체를 모두 중계방송 한 경우가 1,353건(23,156분)으로 일부 중계방송 한 경우 1,081건(15,463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올림픽 경기를 중계할 때 중단 없이 방송한 비율이 높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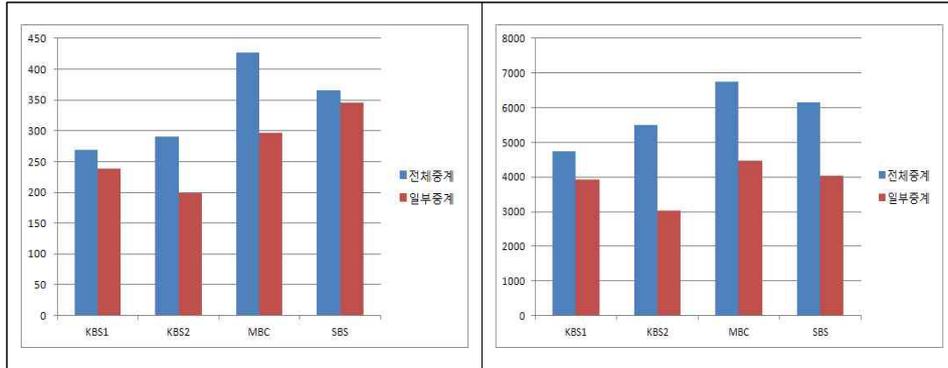
청권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중계방송 한 경우 역시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채널별로는 KBS1은 전체중계 269건(53.0%)/일부중계 239건(47.0%), KBS2 전체중계 291건(59.4%)/전체중계 199건(40.6%), MBC는 전체중계 427건(59.0%)/일부중계 297건(41.0%), SBS는 전체중계 366건(51.4%)/일부중계 346건(48.6%)으로 나타났다.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KBS1은 전체중계 4,743분(54.8%)/일부중계 3,920분(45.2%), KBS2는 전체중계 5,509분(64.5%)/일부중계 3,027분(35.5%), MBC는 전체중계 6,744분(60.1%)/일부중계 4,478분(39.9%), SBS는 전체중계 6,160분(60.4%)/일부중계 4,038분(39.6%)이었다.

<표 3-2>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형태별 올림픽 중계

구분	전체중계	일부중계
KBS1	269 건(53.0%)	239 건(47.0%)
	4743 분(54.8%)	3920 분(45.2%)
KBS2	291 건(59.4%)	199 건(40.6%)
	5509 분(64.5%)	3027 분(35.5%)
MBC	427 건(59.0%)	297 건(41.0%)
	6744 분(60.1%)	4478 분(39.9%)
SBS	366 건(51.4%)	346 건(48.6%)
	6160 분(60.4%)	4038 분(39.6%)
합계	1353 건(55.6%)	1081 건(44.4%)
	23,156 분(60.0%)	15,463 분(40.0%)

[그림 3-5] 지상파방송 3사의 런던올림픽 방송형태별 편성빈도/편성시간(분)



2. 경기 종목별 편성현황

런던올림픽은 총 26개 종목(세부종목 302개)으로 나뉘어 열렸는데 이중 요트를 제외하고 25개 종목이 한 건 이상은 편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빈도에서는 수영 401건(16.5%)이 가장 많이 편성되었고, 육상 390건(16.1%), 유도 327건(13.5%), 축구 188건(7.8%), 양궁 172건(7.1%), 펜싱 147건(6.1%), 체조 118건(4.9%), 레슬링 74건(3.1%), 배드민턴 73건(3.0%), 사격 70건(2.9%), 태권도 69건(2.8%), 사이클 68건(2.8%), 탁구 61건(2.5%), 핸드볼 60건(2.5%), 배구 57건(2.4%) 순으로 나타났다.

KBS1의 종목별 편성빈도는 육상이 132건(26.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수영 59건(11.7%), 축구 58건(11.5%), 유도 42건(8.3%), 사이클 31건(6.2%)을 편성하였다. KBS1의 경우 1순위로 많이 편성한 육상 종목과 2순위인 수영 종목 간 편성빈도가 두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육상종목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2의 종목별 중계방송은 양궁 79건(16.1%), 육상 70건(14.3%), 펜싱 48건(9.8%), 유도 48건(9.8%), 축구 41건(8.4%) 순으로 편성되었다. MBC는 수영이 232건(32.2%)으로 가장 많이 편성하였고, 육상 112건(15.5%), 축구 55건(7.6%), 펜싱 41건(5.7%), 배드민턴 41건(5.7%) 순이었다. SBS는 유도 201건(28.4%), 육상 76건(10.7%), 수영 75건(10.6%), 레슬링 45건(6.4%), 태권도 38건(5.4%)순이었다.

한편 KBS1은 근대5종, 승마, 요트 3개 종목을 중계하지 않았고 KBS2는 농구, 근대5종, 승마, 요트 4개 종목을 중계하지 않았다. 결국 KBS의 경우 근대5종, 승마, 요트 3종목에서는 단 한 건도 중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요트 3개 종목에서, SBS는 사이클, 카누, 조정, 트라이애슬론, 요트로 5개 종목에서 단 한건의 편성

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3-3〉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편성(빈도순)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수영	59건 (11.7%)	35건 (7.1%)	232건 (32.2%)	75건 (10.6%)	401건 (16.5%)
육상	132건 (26.2%)	70건 (14.3%)	112건 (15.5%)	76건 (10.7%)	390건 (16.1%)
유도	42건 (8.3%)	48건 (9.8%)	36건 (5.0%)	201건 (28.4%)	327건 (13.5%)
축구	58건 (11.5%)	41건 (8.4%)	55건 (7.6%)	34건 (4.8%)	188건 (7.8%)
양궁	16건 (3.2%)	79건 (16.1%)	40건 (5.5%)	37건 (5.2%)	172건 (7.1%)
펜싱	23건 (4.6%)	48건 (9.8%)	41건 (5.7%)	35건 (4.9%)	147건 (6.1%)
체조	30건 (6.0%)	36건 (7.3%)	30건 (4.2%)	22건 (3.1%)	118건 (4.9%)
레슬링	13건 (2.6%)	9건 (1.8%)	7건 (1.0%)	45건 (6.4%)	74건 (3.1%)
배드민턴	5건 (1.0%)	5건 (1.0%)	41건 (5.7%)	22건 (3.1%)	73건 (3.0%)
사격	13건 (2.6%)	14건 (2.9%)	12건 (1.7%)	31건 (4.4%)	70건 (2.9%)
태권도	12건 (2.4%)	11건 (2.2%)	8건 (1.1%)	38건 (5.4%)	69건 (2.8%)
사이클	31건 (6.2%)	18건 (3.7%)	19건 (2.6%)	0건 (0.0%)	68건 (2.8%)
탁구	13건 (2.6%)	24건 (4.9%)	15건 (2.0%)	9건 (1.3%)	61건 (2.5%)
핸드볼	10건 (2.0%)	12건 (2.4%)	13건 (1.8%)	25건 (3.5%)	60건 (2.5%)
배구	10건 (2.0%)	8건 (1.6%)	20건 (2.8%)	19건 (2.7%)	57건 (2.4%)
하키	8건 (1.6%)	1건 (.2%)	11건 (1.5%)	18건 (2.5%)	38건 (1.6%)
복싱	8건	4건	14건	10건	36건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1.6%)	(0.8%)	(1.9%)	(1.4%)	(1.5%)
카누	8건 (1.6%)	18건 (3.7%)	3건 (0.4%)	0건 (0.0%)	29건 (1.2%)
역도	3건 (0.6%)	2건 (0.4%)	6건 (0.8%)	8건 (1.1%)	19건 (0.8%)
조정	5건 (1.0%)	3건 (0.6%)	3건 (0.4%)	0건 (0.0%)	11건 (0.5%)
농구	3건 (0.6%)	0건 (0.0%)	1건 (0.1%)	2건 (0.3%)	6건 (0.2%)
테니스	1건 (0.2%)	2건 (0.4%)	0건 (0.0%)	1건 (0.1%)	4건 (0.2%)
트라이애슬론	1건 (0.2%)	2건 (0.4%)	0건 (0.0%)	0건 (0.0%)	3건 (0.1%)
근대5종	0건 (0.0%)	0건 (0.0%)	1건 (0.1%)	0건 (0.0%)	1건 (0.0%)
승마	0건 (0.0%)	0건 (0.0%)	1건 (0.1%)	0건 (0.0%)	1건 (0.0%)
요트	0건 (0.0%)	0건 (0.0%)	0건 (0.0%)	0건 (0.0%)	0건 (0.0%)
합계	504건 (20.8%)	490건 (20.2%)	721건 (29.8%)	708건 (29.2%)	2,423건 (100.0%)

지상파 3사의 종목별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축구가 총 4,574분(12.4%) 중계되어 가장 많이 편성된 종목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체조 3,626분(9.9%), 펜싱 3,140분(8.5%), 육상 3,106분(8.5%), 수영 3,010분(8.2%), 유도 2,703분(7.4%), 탁구 2,316분(6.3%), 양궁 2,309분(6.3%), 핸드볼 2,148분(5.8%), 배구 2,086분(5.7%), 배드민턴 1,699분(4.6%)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편성시간에서 KBS1은 육상 1,038분(13.0%), 체조 970분(12.2%), 축구 941분(11.8%), 수영 645분(8.1%), 탁구 516분(6.5%), 배구 516분(6.5%) 순으로 편성하였고, KBS 2는 체조를 1,298분(15.2%)으로 가장 많이 편성하였고 그 뒤를 이어 펜싱 1,211분(14.2%), 양궁 1,125분(13.2%), 탁구 1,032분(12.1%), 축구 931분(10.9%) 순으로 편성하였다. MBC는 수영을 1,487분(13.9%), 축구를 1,381분(12.9%)으로 많이 편성했고 그 다음으로 배드민턴 1,046분(9.8%), 체조 1,044분(9.8%), 펜싱 969분(9.1%) 순으로 나타났다. SBS는 유도 1,637분(17.1%)과 축구 1,321분(13.8%)으로 가장 많이 편성했고 그 다음으로 핸드볼 799분(8.3%), 육상 764분(8.0%), 배구 743분(7.8%) 순으로 편성했다.

〈표 3-4〉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편성(시간순)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축구	941 분 (11.8%)	931 분 (10.9%)	1,381 분 (12.9%)	1,321 분 (13.8%)	4,574 분 (12.4%)
체조	970 분 (12.2%)	1,298 분 (15.2%)	1,044 분 (9.8%)	314 분 (3.3%)	3,626 분 (9.9%)
펜싱	468 분 (5.9%)	1,211 분 (14.2%)	969 분 (9.1%)	492 분 (5.1%)	3,140 분 (8.5%)
육상	1,038 분 (13.0%)	442 분 (5.2%)	862 분 (8.1%)	764 분 (8.0%)	3,106 분 (8.5%)
수영	645 분 (8.1%)	355 분 (4.2%)	1,487 분 (13.9%)	523 분 (5.5%)	3,010 분 (8.2%)
유도	408 분 (5.1%)	421 분 (4.9%)	237 분 (2.2%)	1,637 분 (17.1%)	2,703 분 (7.4%)
탁구	516 분 (6.5%)	1,032 분 (12.1%)	650 분 (6.1%)	118 분 (1.2%)	2,316 분 (6.3%)
양궁	252 분 (3.2%)	1,125 분 (13.2%)	542 분 (5.1%)	390 분 (4.1%)	2,309 분 (6.3%)
핸드볼	440 분 (5.5%)	408 분 (4.8%)	501 분 (4.7%)	799 분 (8.3%)	2,148 분 (5.8%)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배구	516 분 (6.5%)	267 분 (3.1%)	560 분 (5.2%)	743 분 (7.8%)	2,086 분 (5.7%)
배드민턴	154 분 (1.9%)	87 분 (1.0%)	1,046 분 (9.8%)	412 분 (4.3%)	1,699 분 (4.6%)
하키	400 분 (5.0%)	22 분 (0.3%)	340 분 (3.2%)	446 분 (4.7%)	1,208 분 (3.3%)
사격	227 분 (2.8%)	203 분 (2.4%)	187 분 (1.8%)	335 분 (3.5%)	952 분 (2.6%)
태권도	159 분 (2.0%)	154 분 (1.8%)	85 분 (0.8%)	482 분 (5.0%)	880 분 (2.4%)
역도	73 분 (0.9%)	48 분 (0.6%)	255 분 (2.4%)	289 분 (3.0%)	665 분 (1.8%)
레슬링	119 분 (1.5%)	65 분 (0.8%)	47 분 (0.4%)	372 분 (3.9%)	603 분 (1.6%)
사이클	237 분 (3.0%)	161 분 (1.9%)	85 분 (0.8%)	0 분 (0.0%)	483 분 (1.3%)
복싱	109 분 (1.4%)	61 분 (0.7%)	171 분 (1.6%)	109 분 (1.1%)	450 분 (1.2%)
농구	168 분 (2.1%)	0 분 (0.0%)	117 분 (1.1%)	29 분 (0.3%)	314 분 (0.9%)
카누	56 분 (0.7%)	117 분 (1.4%)	42 분 (0.4%)	0 분 (0.0%)	215 분 (0.6%)
조정	41 분 (0.5%)	32 분 (0.4%)	29 분 (0.3%)	0 분 (0.0%)	102 분 (0.3%)
테니스	19 분 (0.2%)	74 분 (0.9%)	0 분 (0.0%)	8 분 (0.1%)	101 분 (0.3%)
트라이애슬론	11 분 (0.2%)	22 분 (0.3%)	0 분 (0.0%)	0 분 (0.0%)	33 분 (0.1%)
승마	0 분 (0.0%)	0 분 (0.0%)	20 분 (0.2%)	0 분 (0.0%)	20 분 (0.1%)
근대 5 종	0 분 (0.0%)	0 분 (0.0%)	11 분 (0.1%)	0 분 (0.0%)	11 분 (0.0%)
요트	0 분 (0.0%)	0 분 (0.0%)	0 분 (0.0%)	0 분 (0.0%)	0 분 (0.0%)
합계	7,967 분 (21.7%)	8,536 분 (23.2%)	10,668 분 (29.0%)	9,583 분 (26.1%)	36,754 분 (100.0%)

한편 상위 5순위의 편성 집중도를⁸³⁾ 분석했더니 편성빈도로는 61.0%, 편성시간으로는 47.5%로 나타났다. 편성빈도 분석에서 채널별 집중도는 MBC 66.6%, SBS 61.5%로 높게 나타났다, KBS2 58.4%, KBS 52.2%로 나타났다. 즉 편성빈도 분석에서 MBC와 SBS는 상위 5순위 종목을 집중 편성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편성시간으로는 KBS가 집중도가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MBC 55.5%, SBS 55.0%, KBS 51.6% 순으로 이어졌다. 편성시간으로는 다른 채널에 비해 KBS2가 주로 상위 5순위 종목에 집중적으로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편성 순위

빈도	KBS1	KBS2	MBC	SBS	전체
1 위	육상 132 건(26.2%)	양궁 79 건(16.1%)	수영 232 건(32.3%)	유도 201 건(28.4%)	수영 401 건(16.5%)
2 위	수영 59 건(11.7%)	육상 70 건(14.3%)	육상 112 건(15.5%)	육상 76 건(10.7%)	육상 390 건(16.1%)
3 위	축구 58 건(11.5%)	유도 48 건(9.8%)	축구 55 건(7.6%)	수영 75 건(10.6%)	유도 327 건(13.5%)
4 위	유도 42 건(8.3%)	펜싱 48 건(9.8%)	펜싱 41 건(5.7%)	레슬링 45 건(6.4%)	축구 188 건(7.8%)
5 위	체조 30 건(6.0%)	축구 41 건(8.4%)	양궁 40 건(5.5%)	태권도 38 건(5.4%)	양궁 172 건(7.1%)
집중도	321 건(52.2%)	286 건(58.4%)	480 건(66.6%)	435 건(61.5%)	1,478 건(61.0%)

시간	KBS1	KBS2	MBC	SBS	전체
1 위	육상 1,038 분(13.0%)	체조 1,298 분(15.2%)	수영 1,487 분(13.9%)	유도 1,637 분(17.1%)	축구 4,574 분(12.4%)
2 위	체조 970 분(12.2%)	펜싱 1,211 분(14.2%)	축구 1,381 분(12.9%)	축구 1,321 분(13.8%)	체조 3,626 분(9.9%)
3 위	축구 941 분(11.8%)	양궁 1,125 분(13.2%)	배드민턴 1,046 분(9.8%)	핸드볼 799 분(8.3%)	펜싱 3,140 분(8.5%)
4 위	수영 645 분(8.1%)	탁구 1,032 분(12.1%)	체조 1,044 분(9.8%)	육상 764 분(8.0%)	육상 3,106 분(8.5%)
5 위	탁구(배구) 516 분(6.5%)	축구 931 분(10.9%)	펜싱 969 분(9.1%)	배구 743 분(7.8%)	수영 3,010 분(8.2%)
집중도	4,110 분(51.6%)	5,597 분(65.6%)	4,958 분(55.5%)	5,264 분(55.0%)	17,456 분(47.5%)

83) 경기종목별 분석에서 상위 5순위가 전체 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중계방송은 25개 종목에서 이루어졌지만 상위 5순위 종목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3. 한국 출전 경기 편성현황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중 한국 출전 경기는 편성빈도 기준으로 1,259건으로 전체 방송건수 중 51.7%였고, 방송시간 기준으로는 24,920분으로 전체 방송시간 중 64.5%를 차지함으로써 한국 출전 경기 편향성이 나타났다. 편성빈도, 편성시간 측면에서 모두 한국 출전 경기를 절반 이상 편성하고 있었다.

한국 출전 경기의 중계방송 편성빈도를 채널별로 분석했더니 SBS 65.7%(468건), KBS2 52.2%(256건), MBC 47.5%(344건), KBS1 37.6%(191건)로 SBS가 가장 많은 한국 출전 경기 건수를 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별 한국 출전경기 편성시간 분석에서는 KBS2 70.3%(6,005분), SBS 70.3%(7,165분), MBC 65.4%(7,344분), KBS1 50.9%(4,406분) 순이었다. 편성시간으로 보면, MBC가 65%를 넘고 KBS2와 SBS가 70%에 이르고 있어 매우 높은 수치로 한국 편향적인 올림픽 중계방송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빈도, 편성시간 면에서 모두 SBS가 가장 한국 출전 경기 편향적인 편성행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공영방송 KBS의 경우 편성빈도 분석에서 KBS1이 한국이 출전하지 않은 경기를 62.4%(317건)나 중계함으로써 한국 출전 경기보다 훨씬 많이 편성하기는 했지만 KBS2가 전체 방송시간에서 무려 한국 출전 경기를 70.3%나 편성함으로써 한국 출전 경기의 편향성이 SBS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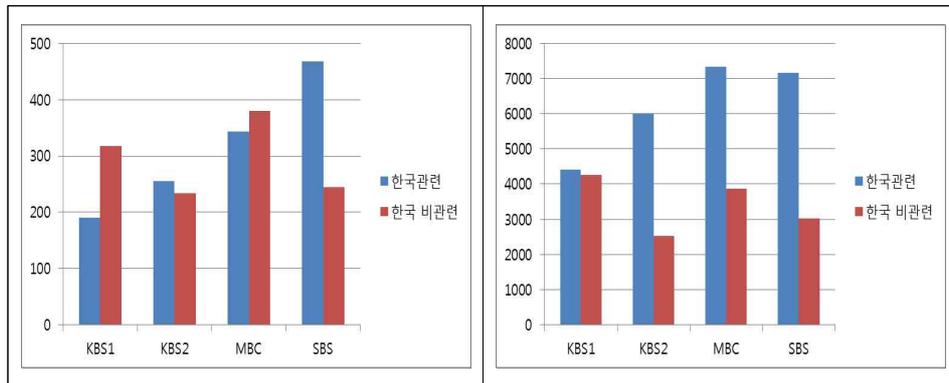
한국 출전 경기의 편성빈도와 편성시간에서 10% 이상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 출전 경기는 비교적 구기종목 등 경기시간이 긴 경기도 편성을 하지만 한국 비출전 경기는 비교적 짧은 경기시간 종목을 편성하여 중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 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현황

구분	한국출전	한국비출전	합계
KBS1	191 건(37.6%)	317 건(62.4%)	508 건(100.0%)
	4,406 분(50.9%)	4,257 분(49.1%)	8,663 분(100.0%)
KBS2	256 건(52.2%)	234 건(47.8%)	490 건(100.0%)
	6,005 분(70.3%)	2,531 분(29.7%)	8,536 분(100.0%)
MBC	344 건(47.5%)	380 건(52.5%)	724 건(100.0%)
	7,344 분(65.4%)	3,878 분(34.6%)	11,222 분(100.0%)
SBS	468 건(65.7%)	244 건(34.3%)	712 건(100.0%)
	7,165 분(70.3%)	3,033 분(29.7%)	10,198 분(100.0%)

구분	한국출전	한국비출전	합계
합계	1,259 건(51.7%)	1,175 건(48.3%)	2,434 건(100.0%)
	24,920 분(64.5%)	13,699 분(35.5%)	38,619 분(100.0%)

[그림 3-6]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출전 경기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빈도/편성시간(분)



한국 출전/비출전 경기에 따라 전체중계나 일부중계 여부가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 출전경기는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일부중계 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전체중계 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한국 비출전 경기인 경우는 편성빈도/편성시간 기준 모두 전체 중계한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한국 경기일수록 중요하게 다루어 전체중계 하고 한국 비출전 경기일수록 경기 중간에 끊거나 중간부터 시작하는 등 일부 중계 편성을 빈번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표 3-7> 한국 출전/비출전 경기의 방송형태별 중계 현황

구분	한국 출전	한국 비출전
전체중계	585 건(46.5%)	768 건(65.3%)
	14,587 분(58.6%)	8,569 분(62.4%)
일부중계	673 건(53.5%)	408 건(34.7%)
	10,293 분(41.4%)	5,170 분(37.6%)
합계	1,258 건(100.0%)	1,176 건(100.0%)
	24,880 분(100.0%)	13,739 분(100.0%)

다음은 한국 출전 경기의 중계방송 편성에서 종목별 순위를 분석했다. 편성빈도 분석에서는 유도 208건(16.5%), 펜싱 137건(10.9%), 수영 134건(10.6%), 양궁 130건(10.3%), 축구 73건(5.8%), 사격 68건(5.4%), 체조 65건(5.2%), 배드민턴 6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KBS1은 한국 출전 경기를 유도 29건(15.2%), 펜싱 23건(12.0%), 수영 17건(8.9%), 양궁 13건(6.8%), 체조 12건(6.3%) 순으로 중계하였다. KBS2는 양궁 47건(18.4%), 펜싱 43건(16.8%), 유도 32건(12.5%), 탁구 23건(9.0%), 체조 18건(7.0%) 등을 중계 방송하였다. MBC는 한국 출전 경기를 수영 59건(17.2%), 펜싱 36건(10.5%), 유도 35건(10.2%), 배드민턴 34건(9.9%), 양궁 33건(9.6%) 순으로 중계하였다. SBS는 한국 출전 경기에서 유도가 112건(23.9%)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 수영 43건(9.2%), 양궁 37건(7.9%), 펜싱 35건(7.5%), 사격 31건(6.6%) 순으로 편성하였다.

<표 3-8>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출전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빈도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유도	29 건 (15.2%)	32 건 (12.5%)	35 건 (10.2%)	112 건 (23.9%)	208 건 (16.5%)
펜싱	23 건 (12.0%)	43 건 (16.8%)	36 건 (10.5%)	35 건 (7.5%)	137 건 (10.9%)
수영	17 건 (8.9%)	15 건 (5.9%)	59 건 (17.2%)	43 건 (9.2%)	134 건 (10.6%)
양궁	13 건 (6.8%)	47 건 (18.4%)	33 건 (9.6%)	37 건 (7.9%)	130 건 (10.3%)
축구	9 건 (4.7%)	14 건 (5.5%)	25 건 (7.3%)	25 건 (5.3%)	73 건 (5.8%)
사격	11 건 (5.8%)	14 건 (5.5%)	12 건 (3.5%)	31 건 (6.6%)	68 건 (5.4%)
체조	12 건 (6.3%)	18 건 (7.0%)	16 건 (4.7%)	19 건 (4.1%)	65 건 (5.2%)
배드민턴	5 건 (2.6%)	5 건 (2.0%)	34 건 (9.9%)	20 건 (4.3%)	64 건 (5.1%)
핸드볼	10 건 (5.2%)	12 건 (4.7%)	13 건 (3.8%)	25 건 (5.3%)	60 건 (4.8%)
탁구	10 건 (5.2%)	23 건 (9.0%)	15 건 (4.4%)	9 건 (1.9%)	57 건 (4.5%)
레슬링	10 건 (5.2%)	8 건 (3.1%)	7 건 (2.0%)	30 건 (6.4%)	55 건 (4.4%)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태권도	10 건 (5.2%)	9 건 (3.5%)	8 건 (2.3%)	27 건 (5.8%)	54 건 (4.3%)
배구	5 건 (2.6%)	5 건 (2.0%)	15 건 (4.4%)	18 건 (3.8%)	43 건 (3.4%)
하키	8 건 (4.2%)	1 건 (0.4%)	11 건 (3.2%)	18 건 (3.8%)	38 건 (3.0%)
복싱	5 건 (2.6%)	1 건 (0.4%)	11 건 (3.2%)	10 건 (2.1%)	27 건 (2.1%)
역도	3 건 (1.6%)	2 건 (0.8%)	6 건 (1.7%)	8 건 (1.7%)	19 건 (1.5%)
육상	4 건 (2.1%)	3 건 (1.2%)	4 건 (1.2%)	0 건 (0.0%)	11 건 (0.9%)
사이클	5 건 (2.6%)	2 건 (0.8%)	3 건 (0.9%)	0 건 (0.0%)	10 건 (0.8%)
트라이애슬론	1 건 (0.5%)	2 건 (0.8%)	0 건 (0.0%)	0 건 (0.0%)	3 건 (0.2%)
근대 5종	0 건 (0.0%)	0 건 (0.0%)	1 건 (0.3%)	0 건 (0.0%)	1 건 (0.1%)
농구	0 건 (0.0%)	0 건 (0.0%)	0 건 (0.0%)	1 건 (0.2%)	1 건 (0.1%)
조정	1 건 (0.5%)	0 건 (0.0%)	0 건 (0.0%)	0 건 (0.0%)	1 건 (0.1%)
승마	0 건 (0.0%)				
요트	0 건 (0.0%)				
카누	0 건 (0.0%)				
테니스	0 건 (0.0%)				
합계	191 건 (15.2%)	256 건 (20.3%)	344 건 (27.3%)	468 건 (37.2%)	1,259 건 (100.0%)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시간 분석에서 한국 출전 경기 중 가장 많이 방송된 종목은 축구였다. 지상파 3사는 한국 출전 경기로 축구 2,936분(11.8%), 펜싱 2,877분(11.5%), 체조 2,288분(9.2%), 탁구 2,212분(8.9%), 핸드볼 2,148분(8.6%), 유도 1,686분(6.8%), 양궁 1,657분

(6.6%), 배구 1,653분(6.6%), 배드민턴 1,577분(6.3%) 순으로 중계하였다. 편성시간 기준이다 보니 구기종목인 축구, 탁구, 핸드볼과 경기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체조 등이 많이 포함되었다. 상대적으로 한국 출전 경기 편성빈도 분석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수영, 양궁은 단위 경기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편성시간 분석에서는 낮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채널별로는 KBS1은 펜싱 468분(10.6%), 핸드볼 440분(10.0%), 탁구434분(9.9%), 체조 351분(8.0%), 하키 400분(9.1%) 순이었고, KBS2는 펜싱 1,090분(18.2%), 탁구 1,010분(16.8%), 체조 911분(15.2%), 축구 686분(11.4%), 양궁 673분(11.2%) 등으로 한국 출전 경기를 중계하였다. MBC는 한국 출전 경기를 배드민턴 976분(13.3%), 축구 855분(11.6%), 펜싱 827분(11.3%), 체조 747분(10.2%), 탁구 650분(8.9%) 순으로 중계하였고, SBS는 축구 1,020분(14.2%), 유도 912분(12.7%), 핸드볼 799분(11.2%), 배구 723분(10.1%), 펜싱 492분(6.9%) 순으로 한국 출전 경기를 중계하였다.

<표 3-9>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 출전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시간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축구	375 분 (8.5%)	686 분 (11.4%)	855 분 (11.6%)	1,020 분 (14.2%)	2,936 분 (11.8%)
펜싱	468 분 (10.6%)	1,090 분 (18.2%)	827 분 (11.3%)	492 분 (6.9%)	2,877 분 (11.5%)
체조	351 분 (8.0%)	911 분 (15.2%)	747 분 (10.2%)	279 분 (3.9%)	2,288 분 (9.2%)
탁구	434 분 (9.9%)	1,010 분 (16.8%)	650 분 (8.9%)	118 분 (1.6%)	2,212 분 (8.9%)
핸드볼	440 분 (10.0%)	408 분 (6.8%)	501 분 (6.8%)	799 분 (11.2%)	2,148 분 (8.6%)
유도	266 분 (6.0%)	279 분 (4.6%)	229 분 (3.1%)	912 분 (12.7%)	1,686 분 (6.8%)
양궁	179 분 (4.1%)	673 분 (11.2%)	415 분 (5.7%)	390 분 (5.4%)	1,657 분 (6.6%)
배구	300 분 (6.8%)	149 분 (2.5%)	481 분 (6.5%)	723 분 (10.1%)	1,653 분 (6.6%)
배드민턴	154 분 (3.5%)	87 분 (1.4%)	976 분 (13.3%)	360 분 (5.0%)	1,577 분 (6.3%)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하키	400 분 (9.1%)	22 분 (0.4%)	340 분 (4.6%)	446 분 (6.2%)	1,208 분 (4.8%)
수영	226 분 (5.1%)	133 분 (2.2%)	497 분 (6.8%)	288 분 (4.0%)	1,144 분 (4.6%)
사격	167 분 (3.8%)	203 분 (3.3%)	187 분 (2.5%)	335 분 (4.7%)	892 분 (3.6%)
태권도	135 분 (3.1%)	136 분 (2.3%)	85 분 (1.2%)	357 분 (5.0%)	713 분 (2.9%)
역도	73 분 (1.7%)	48 분 (0.8%)	255 분 (3.5%)	289 분 (4.0%)	665 분 (2.7%)
레슬링	98 분 (2.2%)	54 분 (0.9%)	47 분 (0.6%)	238 분 (3.3%)	437 분 (1.8%)
복싱	64 분 (1.5%)	15 분 (0.2%)	129 분 (1.8%)	109 분 (1.5%)	317 분 (1.3%)
육상	177 분 (4.0%)	17 분 (0.3%)	97 분 (1.3%)	0 분 (0.0%)	291 분 (1.2%)
사이클	79 분 (1.8%)	62 분 (1.0%)	15 분 (0.2%)	0 분 (0.0%)	156 분 (0.6%)
트라이애슬론	11 분 (0.2%)	22 분 (0.4%)	0 분 (0.0%)	0 분 (0.0%)	33 분 (0.1%)
근대 5 종	0 분 (0.0%)	0 분 (0.0%)	11 분 (0.1%)	0 분 (0.0%)	11 분 (0.0%)
농구	0 분 (0.0%)	0 분 (0.0%)	0 분 (0.0%)	10 분 (0.2%)	10 분 (0.0%)
조정	9 분 (0.2%)	0 분 (0.0%)	0 분 (0.0%)	0 분 (0.0%)	9 분 (0.0%)
승마	0 분 (0.0%)				
요트	0 분 (0.0%)				
카누	0 분 (0.0%)				
테니스	0 분 (0.0%)				
합계	4,406 분 (17.7%)	6,005 분 (24.1%)	7,344 분 (29.5%)	7,165 분 (28.8%)	24,920 분 (100.0%)

한국이 출전하지 않은 경기를 중계하는 경우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편성했는지 분석했다. 한국 비출전 경기로는 육상 379건(32.6%), 수영 267건(22.9%), 유도 119건(10.2%), 축구 115건(9.9%), 사이클 58건(5.0%), 체조 53건(4.6%), 양궁 42건(3.2%), 카누 29건(2.5%) 순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비출전 경기로 육상과 수영이 많이 편성된 데에는 메달이 많은 종목이라는 점, 비교적 경기시간이 짧아 다른 국가 출전 경기임에도 중계방송하거나 편성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근대 5종, 역도, 요트, 트라이애슬론, 하키, 핸드볼 종목에서 한국이 출전하지 않은 경기는 한건도 중계되지 않았다.⁸⁴⁾

한국 비출전 경기의 중계방송 현황을 채널별로 분석했더니, KBS1은 육상 128건(40.9%), 축구 49건(15.7%), 수영 42건(13.4%), 사이클 26건(8.3%), 체조 18건(5.8%)으로 많이 편성했고, KBS2는 육상 67건(28.6%), 양궁 32건(13.7%), 축구 27건(11.5%), 수영 20건(8.5%), 체조 18건(7.7%) 순으로 중계방송 했다. 그런데 KBS1은 승마, 근대5종, 역도, 요트, 트라이애슬론, 하키, 핸드볼 종목에서, KBS2는 사격, 승마, 근대5종, 역도, 요트, 트라이애슬론, 하키, 핸드볼 종목에서 한국 비출전 경기의 중계가 나타나지 않았다.⁸⁵⁾

MBC는 한국 비출전 경기로 수영 173건(45.9%), 육상 108건(28.6%), 축구 30건(8.0%), 사이클 16건(4.2%), 체조 14건(3.7%) 순으로 중계방송 했는데 한국 비출전 경기 중계 시 수영과 육상 종목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MBC는 사이클, 양궁, 카누, 레슬링, 태권도, 탁구, 테니스, 사격, 근대5종, 역도, 요트, 트라이애슬론, 하키, 핸드볼 종목에서 한국 비출전 경기는 편성되지 않았다.⁸⁶⁾ 타사가 독점 중계하는 6개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8개 종목에서 한국 비출전 경기가 중계되지 않았다.

SBS는 한국 비출전 경기를 유도 89건(37.1%), 육상 76건(31.7%), 수영 32건(13.3%), 레슬링 15건(6.3%), 태권도 11건(4.6%) 순으로 중계하였다. SBS 역시 육상, 수영이 세계적으로 인기있고 메달 수가 많이 걸려있는 종목이라 한국이 출전하지 않더라도 중계한 경우가 많았고 SBS가 독점 중계할 수 있는 유도, 레슬링, 태권도 종목이 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BS도 사이클, 양궁, 카누, 조정, 펜싱, 복싱, 탁구, 사격, 승마, 근대 5종, 역도, 요트,

84) 농구, 테니스, 승마, 카누처럼 한국 선수가 아예 출전하지 않은 종목도 있다.

85) 역도는 MBC, 사격은 SBS의 독점 중계 종목이다.

86) 양궁, 탁구는 KBS의 독점 중계 종목이고, 역도는 MBC, 레슬링, 태권도, 사격은 SBS의 독점 중계 종목이다.

트라이애슬론, 하키, 핸드볼 15개 종목에서 한국 비출전 경기는 중계방송하지 않았다.⁸⁷⁾ 타사 독점 중계 6개 종목을 제외하면 9개 종목에서 한국 비출전 경기는 편성되지 않았다.

<표 3-10>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 비출전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빈도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육상	128 건 (40.9%)	67 건 (28.6%)	108 건 (28.6%)	76 건 (31.7%)	379 건 (32.6%)
수영	42 건 (13.4%)	20 건 (8.5%)	173 건 (45.9%)	32 건 (13.3%)	267 건 (22.9%)
유도	13 건 (4.2%)	16 건 (6.8%)	1 건 (.3%)	89 건 (37.1%)	119 건 (10.2%)
축구	49 건 (15.7%)	27 건 (11.5%)	30 건 (8.0%)	9 건 (3.8%)	115 건 (9.9%)
사이클	26 건 (8.3%)	16 건 (6.8%)	16 건 (4.2%)	0 건 (0.0%)	58 건 (5.0%)
체조	18 건 (5.8%)	18 건 (7.7%)	14 건 (3.7%)	3 건 (1.3%)	53 건 (4.6%)
양궁	3 건 (1.0%)	32 건 (13.7%)	7 건 (1.9%)	0 건 (0.0%)	42 건 (3.6%)
카누	8 건 (2.6%)	18 건 (7.7%)	3 건 (0.8%)	0 건 (0.0%)	29 건 (2.5%)
레슬링	3 건 (1.0%)	1 건 (0.4%)	0 건 (0.0%)	15 건 (6.3%)	19 건 (1.6%)
태권도	2 건 (.6%)	2 건 (0.9%)	0 건 (0.0%)	11 건 (4.6%)	15 건 (1.3%)
배구	5 건 (1.6%)	3 건 (1.3%)	5 건 (1.3%)	1 건 (0.4%)	14 건 (1.2%)
조정	4 건 (1.3%)	3 건 (1.3%)	3 건 (0.8%)	0 건 (0.0%)	10 건 (0.9%)
펜싱	0 건 (0.0%)	5 건 (2.1%)	5 건 (1.3%)	0 건 (0.0%)	10 건 (0.9%)
배드민턴	0 건 (0.0%)	0 건 (0.0%)	7 건 (1.9%)	2 건 (0.8%)	9 건 (0.8%)
복싱	3 건 (1.0%)	3 건 (1.3%)	3 건 (0.8%)	0 건 (0.0%)	9 건 (0.8%)

87) 양궁, 탁구, 펜싱은 KBS, 역도, 복싱은 MBC, 사격은 SBS의 독점 중계 종목이다.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농구	3 건 (1.0%)	0 건 (0.0%)	1 건 (0.3%)	1 건 (0.4%)	5 건 (0.4%)
탁구	3 건 (1.0%)	1 건 (0.4%)	0 건 (0.0%)	0 건 (0.0%)	44 건 (0.3%)
테니스	1 건 (0.3%)	2 건 (0.9%)	0 건 (0.0%)	1 건 (0.4%)	4 건 (0.3%)
사격	2 건 (0.6%)	0 건 (0.0%)	0 건 (0.0%)	0 건 (0.0%)	2 건 (0.2%)
승마	0 건 (0.0%)	0 건 (0.0%)	1 건 (0.3%)	0 건 (0.0%)	1 건 (0.1%)
근대 5 종	0 건 (0.0%)				
역도	0 건 (0.0%)				
요트	0 건 (0.0%)				
트라이애슬론	0 건 (0.0%)				
하키	0 건 (0.0%)				
핸드볼	0 건 (0.0%)				
합계	313 건 (26.9%)	234 건 (20.1%)	377 건 (32.4%)	240 건 (20.6%)	1,164 건 (100.0%)

편성시간 기준으로 한국 비출전 종목의 중계방송 분석에서는 육상 2,815분(23.8%), 수영 1,866분(15.8%), 축구 1,638분(13.8%), 체조 1,338분(11.3%), 유도 1,017분(8.6%) 순으로 나타났다. 편성빈도와 마찬가지로 육상, 수영 종목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채널별로는 KBS1은 육상 861분(24.2%), 체조 619분(17.4%), 축구 566분(15.9%), 수영 419분(11.8%), 배구 216분(6.1%) 순으로, KBS2는 양궁 452분(17.9%), 육상 425분(16.8%), 체조 387분(15.3%), 축구 245분(9.7%), 수영 222분(8.8%) 순으로 한국 비출전 경기를 중계방송했다. MBC는 수영 990분(29.8%), 육상 765분(23.0%), 축구 526분(15.8%), 체조 297분(8.9%), 펜싱 142분(4.3%) 순으로, SBS는 육상 764분(31.6%), 유도 725분(30.0%), 축구 301분(12.4%), 수영 235분(9.7%), 레슬링 134분(5.5%) 순으로 한국 비출전 경기를 중계방송 하였다.

<표 3-11> 지상파방송 3사의 한국 비출전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시간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육상	861 분 (24.2%)	425 분 (16.8%)	765 분 (23.0%)	764 분 (31.6%)	2,815 분 (23.8%)
수영	419 분 (11.8%)	222 분 (8.8%)	990 분 (29.8%)	235 분 (9.7%)	1,866 분 (15.8%)
축구	566 분 (15.9%)	245 분 (9.7%)	526 분 (15.8%)	301 분 (12.4%)	1,638 분 (13.8%)
체조	619 분 (17.4%)	387 분 (15.3%)	297 분 (8.9%)	35 분 (1.4%)	1,338 분 (11.3%)
유도	142 분 (4.0%)	142 분 (5.6%)	8 분 (0.2%)	725 분 (30.0%)	1,017 분 (8.6%)
양궁	73 분 (2.0%)	452 분 (17.9%)	127 분 (3.8%)	0 분 (0.0%)	652 분 (5.5%)
배구	216 분 (6.1%)	118 분 (4.7%)	79 분 (2.4%)	20 분 (0.8%)	433 분 (3.7%)
사이클	158 분 (4.4%)	99 분 (3.9%)	70 분 (2.1%)	0 분 (0.0%)	327 분 (2.8%)
농구	168 분 (4.7%)	0 분 (.0%)	117 분 (3.5%)	19 분 (0.8%)	304 분 (2.6%)
펜싱	0 분 (0.0%)	121 분 (4.8%)	142 분 (4.3%)	0 분 (0.0%)	263 분 (2.2%)
카누	56 분 (1.6%)	117 분 (4.6%)	42 분 (1.3%)	0 분 (0.0%)	215 분 (1.8%)
태권도	24 분 (0.7%)	18 분 (0.7%)	0 분 (0.0%)	125 분 (5.2%)	167 분 (1.4%)
레슬링	21 분 (0.6%)	11 분 (0.4%)	0 분 (0.0%)	134 분 (5.5%)	166 분 (1.4%)
복싱	45 분 (1.3%)	46 분 (1.8%)	42 분 (1.3%)	0 분 (0.0%)	133 분 (1.1%)
배드민턴	0 분 (0.0%)	0 분 (0.0%)	70 분 (2.1%)	52 분 (2.2%)	122 분 (1.0%)
탁구	82 분 (2.3%)	22 분 (0.9%)	0 분 (0.0%)	0 분 (0.0%)	104 분 (0.9%)
테니스	19 분 (.5%)	74 분 (2.9%)	0 분 (0.0%)	8 분 (0.3%)	101 분 (0.9%)
조정	32 분 (0.9%)	32 분 (1.3%)	29 분 (0.9%)	0 분 (0.0%)	93 분 (0.8%)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사격	60 분 (1.7%)	0 분 (0.0%)	0 분 (0.0%)	0 분 (0.0%)	60 분 (0.5%)
승마	0 분 (0.0%)	0 분 (0.0%)	20 분 (0.6%)	0 분 (0.0%)	20 분 (0.2%)
근대 5 종	0 분 (0.0%)				
역도	0 분 (0.0%)				
요트	0 분 (0.0%)				
트라이애슬론	0 분 (0.0%)				
하키	0 분 (0.0%)				
핸드볼	0 분 (0.0%)				
합계	3,561 분 (30.1%)	2,531 분 (21.4%)	3,324 분 (28.1%)	2,418 분 (20.4%)	11,834 분 (100.0%)

4. 경기종류별(메달관련성) 편성현황

런던올림픽 전체 중계방송에서 메달 위주의 중계방송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메달 관련 있는 경기와 메달 관련 없는 경기로 구분하였다. 메달 관련 없는 경기로는 예선, 64강, 32강, 16강, 8강, 4강, 동메달 진출전을 포함했고 메달 관련 있는 경기로는 동메달 결정전, 결승전(금/은메달), 결선, 시상식을 포함하였다. 결선은 육상, 수영처럼 여러 명이 출전하여 메달을 결정하는 경기가 해당된다.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메달 경기는 989건(40.6%), 비메달 경기 1,445건(59.4%)로 나타나 메달 경기 편중 현상이 심각하지는 않았다. 채널별로 살펴본 결과 MBC가 가장 메달 경기 편향적인 채널로 나타났다. KBS1은 메달 경기 238건(46.9%), 비메달 경기 270건(53.1%)이었고 KBS2는 메달경기 288건(58.8%), 비메달 경기 202건(41.2%)이었다. MBC는 메달경기 474건(65.5%), 비메달 경기 250건(34.5%)이었고 SBS는 메달경기 445건(62.5%), 비메달 경기 267건(37.5%)으로 나타났다.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비메달 경기는 총 21,741분으로 61.5%, 메달 경기는 총 14,878분으로 38.5%로 편성되었다. KBS1은 메달 경기가 총 3,865분으로 44.6%, 비메달 경기가 총

4,798분으로 55.4%로 편성되었다. KBS2는 메달 경기가 총 3,642분으로 42.7%, 비메달 경기가 총 4,894분으로 57.3% 편성되었다. MBC는 메달 경기가 총 4,109분으로 35.8%, 비메달 경기가 총 7,203분으로 64.2% 편성되었으며 SBS는 메달 경기가 총 3,352분으로 32.9%, 비메달 경기가 총 6,846분으로 67.1% 편성되었다.

<표 3-12> 지상파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경기종류별(메달유무) 편성비도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메달 없음	예선	137 건 (27.0%)	120 건 (24.5%)	328 건 (45.3%)	170 건 (23.9%)	755 건 (31.0%)
	64 강	0 건 (0.0%)	15 건 (3.1%)	1 건 (0.1%)	7 건 (1.0%)	23 건 (0.9%)
	32 강	9 건 (1.8%)	22 건 (4.5%)	16 건 (2.2%)	46 건 (6.5%)	93 건 (3.8%)
	16 강	18 건 (3.5%)	30 건 (6.1%)	20 건 (2.8%)	61 건 (8.6%)	129 건 (5.3%)
	8 강	37 건 (7.3%)	42 건 (8.6%)	43 건 (5.9%)	65 건 (9.1%)	187 건 (7.7%)
	4 강	33 건 (6.5%)	55 건 (11.2%)	62 건 (8.6%)	70 건 (9.8%)	220 건 (9.0%)
	동메달 진출전	0 건 (0.0%)	4 건 (0.8%)	1 건 (0.1%)	22 건 (3.1%)	27 건 (1.1%)
	개폐회식	4 건 (0.8%)	0 건 (0.0%)	3 건 (0.4%)	4 건 (0.6%)	11 건 (0.5%)
	소계	238 건 (46.9%)	288 건 (58.8%)	474 건 (65.5%)	445 건 (62.5%)	1445 건 (59.4%)
메달 있음	동메달 결정전	30 건 (5.9%)	39 건 (8.0%)	35 건 (4.8%)	55 건 (7.7%)	159 건 (6.5%)
	결승전	36 건 (7.1%)	38 건 (7.8%)	38 건 (5.2%)	55 건 (7.7%)	167 건 (6.9%)
	결선	178 건 (35.0%)	103 건 (21.0%)	149 건 (20.6%)	90 건 (12.6%)	520 건 (21.4%)
	시상식	26 건 (5.1%)	22 건 (4.5%)	28 건 (3.9%)	67 건 (9.4%)	143 건 (5.9%)
	소계	270 건 (53.1%)	202 건 (41.2%)	250 건 (34.5%)	267 건 (37.5%)	989 건 (40.6%)
합계	508 건 (100.0%)	490 건 (100.0%)	724 건 (100.0%)	712 건 (100.0%)	2434 건 (100.0%)	

* 결선은 수영, 육상과 같이 여러 명이 출전하여 메달을 결정하는 경기의 경우 해당되었고 결승전은 토너먼트 식의 경기에서 금메달 결승전을 말한다.

<표 3-13> 지상파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경기종류별(메달유무) 편성시간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메달 없음	예선	2,100 분 (24.2%)	1,657 분 (19.4%)	3,608 분 (32.2%)	2,506 분 (24.6%)	9,871 분 (25.6%)
	64 강	0 분 (0.0%)	183 분 (2.1%)	5 분 (0.0%)	50 분 (0.5%)	238 분 (0.6%)
	32 강	164 분 (1.9%)	387 분 (4.5%)	155 분 (1.4%)	333 분 (3.3%)	1,039 분 (2.7%)
	16 강	314 분 (3.6%)	481 분 (5.6%)	258 분 (2.3%)	533 분 (5.2%)	1,586 분 (4.1%)
	8 강	790 분 (9.1%)	888 분 (10.4%)	895 분 (8.0%)	1,330 분 (13.0%)	3,903 분 (10.1%)
	4 강	734 분 (8.5%)	1,274 분 (14.9%)	1,719 분 (15.3%)	1,254 분 (12.3%)	4,981 분 (12.9%)
	동메달 진출전	0 분 (0.0%)	24 분 (0.3%)	9 분 (0.1%)	225 분 (2.2%)	258 분 (0.7%)
	개폐회식	696 분 (8.0%)	0 분 (0.0%)	554 분 (4.9%)	615 분 (6.0%)	1,865 분 (4.8%)
	소계	4,798 분 (55.4%)	4,894 분 (57.3%)	7,203 분 (64.2%)	6,846 분 (67.1%)	23,741 분 (61.5%)
메달 있음	동메달 결정전	477 분 (5.5%)	1,064 분 (12.5%)	1,100 분 (9.8%)	970 분 (9.5%)	3,611 분 (9.4%)
	결승전	743 분 (8.6%)	812 분 (9.5%)	741 분 (6.6%)	689 분 (6.8%)	2,985 분 (7.7%)
	결선	2,519 분 (29.1%)	1,608 분 (18.8%)	2,036 분 (18.1%)	1,434 분 (14.1%)	7,597 분 (19.7%)
	시상식	126 분 (1.5%)	158 분 (1.9%)	142 분 (1.3%)	259 분 (2.5%)	685 분 (1.8%)
	소계	3,865 분 (44.6%)	3,642 분 (42.7%)	4,019 분 (35.8%)	3,352 분 (32.9%)	14,878 분 (38.5%)
합계	8,663 분 (100.0%)	8,536 분 (100.0%)	11,222 분 (100.0%)	10,198 분 (100.0%)	38,619 분 (100.0%)	

* 결선은 수영, 육상과 같이 여러 명이 출전하여 메달을 결정하는 경기의 경우 해당되었고 결승전은 토너먼트 식의 경기에서 금메달 결승전을 말한다

그 다음 한국이 출전한 경기일수록 메달 위주의 편성을 하는지 조사했으나 큰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 출전 경기의 중계방송 중 메달경기는 490건(20.1%), 비메달 경

기는 768건(31.6%)로 비메달 경기의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한국 비출전 경기의 중계방송 중 메달경기는 499건(20.5%), 비메달 경기는 677건(27.8%)으로 나타났다. 편성빈도 기준으로 한국 출전/비출전 경기 모두 비메달 경기가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한국 출전 경기 중계방송 중 메달경기는 8,772분(22.7%), 비메달 경기는 16,108분(41.8%)이었고, 한국 비출전 경기 중계방송 중 메달경기는 6,106분(15.8%), 비메달 경기 7,633분(19.8%)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전 여부와 메달경기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3-14>, <표 3-15>와 같다.

<표 3-14> 지상파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한국관련 경기종류별(메달유무) 편성빈도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한국 출전	메달경기	83 건 (16.3%)	103 건 (21.0%)	112 건 (15.5%)	192 건 (27.0%)	490 건 (20.1%)
	비메달 경기	108 건 (21.3%)	153 건 (31.2%)	232 건 (32.0%)	275 건 (38.6%)	768 건 (31.6%)
한국 비출전	메달경기	187 건 (36.8%)	99 건 (20.2%)	138 건 (19.1%)	75 건 (10.5%)	499 건 (20.5%)
	비메달 경기	130 건 (25.6%)	135 건 (27.6%)	242 건 (33.4%)	170 건 (23.9%)	677 건 (27.8%)
합계		508 건 (100%)	490 건 (100%)	724 건 (100%)	712 건 (100%)	2434 건 (100%)

<표 3-15> 지상파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한국관련 경기종류별(메달유무) 편성시간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한국 출전	메달경기	1,501 분 (17.3%)	2,375 분 (27.8%)	2,480 분 (22.1%)	2,416 분 (23.7%)	8,772 분 (22.7%)
	비메달 경기	2,905 분 (33.5%)	3,630 분 (42.5%)	4,864 분 (43.3%)	4,709 분 (46.2%)	16,108 분 (41.7%)
한국 비출전	메달경기	2,364 분 (27.3%)	1,267 분 (14.8%)	1,539 분 (13.7%)	936 분 (9.2%)	6,106 분 (15.8%)
	비메달 경기	1,893 분 (21.9%)	1,264 분 (14.8%)	2,339 분 (20.8%)	2,137 분 (21.0%)	7,633 분 (19.8%)
합계		8,663 분 (100%)	8,536 분 (100%)	11,222 분 (100%)	10,198 분 (100%)	38,619 분 (100%)

5. 성별 편성현황

올림픽 중계방송의 성별 경기 편성현황을 분석했더니 남성경기가 여성경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편성빈도 기준으로 남성경기 1,411건(58.2%), 여성경기 1,007건(41.6%), 혼성 경기 5건(0.2%)이었다. 편성시간으로는 남성경기 19,865분(54.0%), 여성경기 16,738분(45.5%), 혼성경기 151분(0.4%)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상파방송 3사의 성별 올림픽중계 편성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남성	빈도	281 건 (55.8%)	278 건 (56.7%)	411 건 (57.0%)	441 건 (62.3%)	1,411 건 (58.2%)
	시간	4,389 분 (55.1%)	4,369 분 (51.2%)	5,666 분 (53.1%)	5,441 분 (56.8%)	19,865 분 (54.0%)
여성	빈도	223 건 (44.2%)	212 건 (43.3%)	305 건 (42.3%)	267 건 (37.7%)	1,007 건 (41.6%)
	시간	3,578 분 (44.9%)	4,167 분 (48.8%)	4,851 분 (45.5%)	4,142 분 (43.2%)	16,738 분 (45.5%)
혼성	빈도	0 건 (0.0%)	0 건 (0.0%)	5 건 (0.7%)	0 건 (0.0%)	5 건 (0.2%)
	시간	0 분 (0.0%)	0 분 (0.0%)	151 분 (1.4%)	0 분 (0.0%)	151 분 (0.4%)
합계	빈도	504 건 (20.8%)	490 건 (20.2%)	721 건 (29.8%)	708 건 (29.2%)	2,423 건 (100.0%)
	시간	7,967 분 (21.7%)	8,536 분 (23.2%)	10,668 분 (29.0%)	9,583 분 (26.1%)	36,754 분 (100.0%)

남성 경기는 편성빈도 기준으로 수영 246건(17.4%), 유도 223건(15.8%), 육상 221건(15.7%), 축구 144건(10.2%), 양궁 78건(5.5%) 순으로 나타났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축구 4,204분(21.2%), 유도 1,846분(9.3%), 육상 1,714분(8.6%), 수영 1,608분(8.1%), 배드민턴 1,332분(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지상파방송 3사의 남성 경기 종목별 편성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수영	34 건(12.1%)	22 건(7.9%)	132 건(32.1%)	58 건(13.2%)	246 건(17.4%)
	273 분(6.2%)	186 분(4.3%)	777 분(13.7%)	372 분(6.8%)	1608 분(8.1%)
유도	29 건(10.3%)	32 건(11.5%)	30 건(7.3%)	132 건(30.0%)	223 건(15.8%)
	275 분(6.3%)	299 분(6.8%)	196 분(3.5%)	1076 분(19.8%)	1846 분(9.3%)
육상	59 건(21.0%)	48 건(17.3%)	64 건(15.6%)	50 건(11.3%)	221 건(15.7%)
	503 분(11.5%)	287 분(6.6%)	497 분(8.8%)	427 분(7.8%)	1714 분(8.6%)
축구	33 건(11.7%)	34 건(12.2%)	46 건(11.2%)	31 건(7.0%)	144 건(10.2%)
	751 분(17.1%)	900 분(20.6%)	1,323 분(23.3%)	1230 분(22.6%)	4204 분(21.2%)
양궁	10 건(3.6%)	35 건(12.6%)	18 건(4.4%)	15 건(3.4%)	78 건(5.5%)
	159 분(3.6%)	535 분(12.2%)	229 분(4.0%)	176 분(3.2%)	1099 분(5.5%)
레슬링	13 건(4.6%)	9 건(3.2%)	6 건(1.5%)	45 건(10.2%)	73 건(5.1%)
	119 분(2.7%)	65 분(1.5%)	40 분(0.7%)	372 분(6.8%)	596 분(3.0%)
배드민턴	4 건(1.4%)	5 건(1.8%)	30 건(7.3%)	19 건(4.3%)	58 건(4.1%)
	113 분(2.6%)	87 분(2.0%)	771 분(13.6%)	361 분(6.6%)	1332 분(6.7%)
펜싱	9 건(3.2%)	20 건(7.2%)	16 건(3.9%)	11 건(2.5%)	56 건(4.0%)
	153 분(3.5%)	523 분(12.0%)	407 분(7.2%)	179 분(3.3%)	1262 분(6.4%)
체조	12 건(4.3%)	17 건(6.1%)	15 건(3.6%)	10 건(2.3%)	54 건(3.8%)
	334 분(7.6%)	339 분(7.8%)	292 분(5.2%)	78 분(1.4%)	1043 분(5.3%)
사격	10 건(3.6%)	9 건(3.2%)	10 건(2.4%)	19 건(4.3%)	48 건(3.4%)
	176 분(4.0%)	146 분(3.3%)	157 분(2.8%)	241 분(4.4%)	720 분(3.6%)
사이클	22 건(7.8%)	10 건(3.6%)	9 건(2.2%)	0 건(0.0%)	41 건(2.9%)
	178 분(4.1%)	110 분(2.5%)	46 분(0.8%)	0 분(0.0%)	334 분(1.7%)
탁구	10 건(3.6%)	13 건(4.7%)	7 건(1.7%)	5 건(1.1%)	35 건(2.5%)
	420 분(9.6%)	525 분(12.0%)	343 분(6.1%)	82 분(1.5%)	1370 분(6.9%)
복싱	8 건(2.8%)	1 건(0.4%)	14 건(3.4%)	10 건(2.3%)	33 건(2.3%)
	109 분(2.5%)	15 분(0.3%)	171 분(3.0%)	109 분(2.0%)	404 분(2.0%)
태권도	6 건(2.1%)	4 건(1.4%)	3 건(0.7%)	13 건(2.9%)	26 건(1.8%)
	93 분(2.1%)	63 분(1.4%)	32 분(0.6%)	194 분(3.6%)	382 분(1.9%)
카누	6 건(2.1%)	10 건(3.6%)	2 건(0.5%)	0 건(0.0%)	18 건(1.3%)
	47 분(1.1%)	64 분(1.5%)	21 분(0.4%)	0 분(0.0%)	132 분(0.7%)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하키	3 건(1.1%)	0 건(0.0%)	5 건(1.2%)	9 건(2.0%)	17 건(1.2%)
	191 분(4.4%)	0 분(0.0%)	213 분(3.8%)	219 분(4.0%)	623 분(3.1%)
역도	2 건(0.7%)	1 건(0.4%)	1 건(0.2%)	6 건(1.4%)	10 건(0.7%)
	50 분(1.1%)	25 분(0.6%)	13 분(0.2%)	184 분(3.4%)	272 분(1.4%)
핸드볼	2 건(0.7%)	2 건(0.7%)	0 건(0.0%)	5 건(1.1%)	9 건(0.6%)
	103 분(2.3%)	73 분(1.7%)	0 분(0.0%)	104 분(1.9%)	280 분(1.4%)
농구	3 건(1.1%)	0 건(0.0%)	1 건(0.2%)	2 건(0.5%)	6 건(0.4%)
	168 분(3.8%)	0 분(0.0%)	117 분(2.1%)	29 분(0.5%)	314 분(1.6%)
배구	3 건(1.1%)	1 건(0.4%)	0 건(0.0%)	0 건(0.0%)	4 건(0.3%)
	137 분(3.1%)	47 분(1.1%)	0 분(0.0%)	0 분(0.0%)	184 분(0.9%)
조정	1 건(0.4%)	2 건(0.7%)	1 건(0.2%)	0 건(0.0%)	4 건(0.3%)
	7 분(0.2%)	23 분(0.5%)	10 분(0.2%)	0 분(0.0%)	40 분(0.2%)
테니스	1 건(0.4%)	1 건(0.4%)	0 건(0.0%)	1 건(0.2%)	3 건(0.2%)
	19 분(0.4%)	35 분(0.8%)	0 분(0.0%)	8 분(0.1%)	62 분(0.3%)
트라이애슬론	1 건(0.4%)	2 건(0.7%)	0 건(0.0%)	0 건(0.0%)	3 건(0.2%)
	11 분(0.3%)	22 분(0.5%)	0 분(0.0%)	0 분(0.0%)	33 분(0.2%)
근대5종	0 건(0.0%)	0 건(0.0%)	1 건(0.2%)	0 건(0.0%)	1 건(0.1%)
	0 분(0.0%)	0 분(0.0%)	11 분(0.2%)	0 분(0.0%)	11 분(0.1%)
승마	0 건(0.0%)				
	0 분(0.0%)				
요트	0 건(0.0%)				
	0 분(0.0%)				
합계	281 건 (19.9%)	278 건 (19.7%)	411 건 (29.1%)	441 건 (31.3%)	1,411 건 (100.0%)
	4389 분 (22.1%)	4369 분 (22.0%)	5666 분 (28.5%)	5441 분 (27.4%)	19865 분 (100.0%)

여성 경기는 편성빈도 기준으로 육상 169건(16.8%), 수영 155건(15.4%), 유도 104건(10.3%), 양궁 94건(9.3%), 펜싱 91건(9.0%) 순으로 나타났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체조 2,583분(15.4%), 배구 1,902분(11.4%), 펜싱 1,878분(11.2%), 핸드볼 1,868분(11.2%), 수영 1,402분(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지상파방송 3사의 여성 경기 종목별 편성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수영	25 건(2.5%)	13 건(1.3%)	100 건(9.9%)	17 건(1.7%)	155 건(15.4%)
	372 분(2.2%)	169 분(1.0%)	710 분(4.2%)	515 분(0.9%)	1,402 분(8.4%)
유도	13 건(1.3%)	16 건(1.6%)	6 건(0.6%)	69 건(6.9%)	104 건(10.3%)
	133 분(0.8%)	122 분(0.7%)	41 분(0.2%)	561 분(3.4%)	857 분(5.1%)
육상	73 건(7.2%)	22 건(2.2%)	48 건(4.8%)	26 건(2.6%)	169 건(16.8%)
	535 분(3.2%)	155 분(0.9%)	365 분(2.2%)	337 분(2.0%)	1,392 분(8.3%)
축구	25 건(2.5%)	7 건(0.7%)	9 건(0.9%)	3 건(0.3%)	44 건(4.4%)
	190 분(1.1%)	31 분(0.2%)	58 분(0.3%)	91 분(0.5%)	370 분(2.2%)
양궁	6 건(0.6%)	44 건(4.4%)	22 건(2.2%)	22 건(2.2%)	94 건(9.3%)
	93 분(0.6%)	590 분(3.5%)	313 분(1.9%)	214 분(1.3%)	1,210 분(7.2%)
레슬링	0 건(0.0%)	0 건(0.0%)	1 건(0.1%)	0 건(0.0%)	1 건(0.1%)
	0 분(0.0%)	0 분(0.0%)	7 분(0.0%)	0 분(0.0%)	7 분(0.0%)
배드민턴	1 건(0.1%)	0 건(0.0%)	7 건(0.7%)	3 건(0.3%)	11 건(1.1%)
	41 분(0.2%)	0 분(0.0%)	144 분(0.9%)	51 분(0.3%)	236 분(1.4%)
펜싱	14 건(1.4%)	28 건(2.8%)	25 건(2.5%)	24 건(2.4%)	91 건(9.0%)
	315 분(1.9%)	688 분(4.1%)	562 분(3.4%)	313 분(1.9%)	1,878 분(11.2%)
체조	18 건(1.8%)	19 건(1.9%)	15 건(1.5%)	12 건(1.2%)	64 건(6.4%)
	636 분(3.8%)	959 분(5.7%)	752 분(4.5%)	236 분(1.4%)	2,583 분(15.4%)
사격	3 건(0.3%)	5 건(0.5%)	2 건(0.2%)	12 건(1.2%)	22 건(2.2%)
	51 분(0.3%)	57 분(0.3%)	30 분(0.2%)	94 분(0.6%)	232 분(1.4%)
사이클	9 건(0.9%)	8 건(0.8%)	10 건(1.0%)	0 건(0.0%)	27 건(2.7%)
	59 분(0.4%)	51 분(0.3%)	39 분(0.2%)	0 분(0.0%)	149 분(0.9%)
탁구	3 건(0.3%)	11 건(1.1%)	8 건(0.8%)	4 건(0.4%)	26 건(2.6%)
	96 분(0.6%)	507 분(3.0%)	307 분(1.8%)	36 분(0.2%)	946 분(5.7%)
복싱	0 건(0.0%)	3 건(0.3%)	0 건(0.0%)	0 건(0.0%)	3 건(0.3%)
	0 분(0.0%)	46 분(0.3%)	0 분(0.0%)	0 분(0.0%)	46 분(0.3%)
태권도	6 건(0.6%)	7 건(0.7%)	5 건(0.5%)	25 건(2.5%)	43 건(4.3%)
	66 분(0.4%)	91 분(0.5%)	53 분(0.3%)	288 분(1.7%)	498 분(3.0%)
카누	2 건(0.2%)	8 건(0.8%)	1 건(0.1%)	0 건(0.0%)	11 건(1.1%)
	9 분(0.1%)	53 분(0.3%)	21 분(0.1%)	0 분(0.0%)	83 분(0.5%)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하키	5 건(0.5%)	1 건(0.1%)	6 건(0.6%)	9 건(0.9%)	21 건(2.1%)
	209 분(1.2%)	22 분(0.1%)	127 분(0.8%)	227 분(1.4%)	585 분(3.5%)
역도	1 건(0.1%)	1 건(0.1%)	5 건(0.5%)	2 건(0.2%)	9 건(0.9%)
	23 분(0.1%)	23 분(0.1%)	242 분(1.4%)	105 분(0.6%)	393 분(2.3%)
핸드볼	8 건(0.8%)	10 건(1.0%)	13 건(1.3%)	20 건(2.0%)	51 건(5.1%)
	337 분(2.0%)	335 분(2.0%)	501 분(3.0%)	695 분(4.2%)	1,868 분(11.2%)
농구	0 건(0.0%)				
	0 분(0.0%)				
배구	7 건(0.7%)	7 건(0.7%)	20 건(2.0%)	19 건(1.9%)	53 건(5.3%)
	379 분(2.3%)	220 분(1.3%)	560 분(3.3%)	743 분(4.4%)	1,902 분(11.4%)
조정	4 건(0.4%)	1 건(0.1%)	2 건(0.2%)	0 건(0.0%)	7 건(0.7%)
	34 분(0.2%)	9 분(0.1%)	19 분(0.1%)	0 분(0.0%)	62 분(0.4%)
테니스	0 건(0.0%)	1 건(0.1%)	0 건(0.0%)	0 건(0.0%)	1 건(0.1%)
	0 분(0.0%)	39 분(0.2%)	0 분(0.0%)	0 분(0.0%)	39 분(0.2%)
트라이애슬론	0 건(0.0%)				
	0 분(0.0%)				
근대5종	0 건(0.0%)				
	0 분(0.0%)				
승마	0 건(0.0%)				
	0 분(0.0%)				
요트	0 건(0.0%)				
	0 분(0.0%)				
합계	223 건 (22.1%)	212 건 (21.1%)	305 건 (30.3%)	267 건 (26.5%)	1,007 건 (100.0%)
	3,578 분 (21.4%)	4,167 분 (24.9%)	4,851 분 (29.0%)	4,142 분 (24.7%)	16,738 분 (100.0%)

6. 그 외: 개인단체별, 국내외 선수별 중계방송

개인/복식/단체별 경기 분류에 따른 중계방송 현황을 분석했더니 개인전이 높게 나타났다.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개인전 1,743건(71.6%), 단체전 585건(24.0%), 복식 94건(3.9%), 기타 11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개인전 15,798분(40.9%), 단체전 12,433분(32.2%), 복식 5,520분(14.3%), 기타 4,868분(12.6%) 순이었다.

〈표 3-19〉 개인/복식/단체별 중계방송 현황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개인	빈도	340 건 (66.9%)	349 건 (71.2%)	495 건 (68.4%)	559 건 (78.6%)	1,743 건 (71.6%)
	시간	696 분 (8.0%)	4,890 분 (57.3%)	4,792 분 (42.7%)	5,420 분 (53.1%)	15,798 분 (40.9%)
복식	빈도	20 건 (3.9%)	14 건 (2.9%)	45 건 (6.2%)	15 건 (2.1%)	94 건 (3.9%)
	시간	3,827 분 (44.2%)	282 분 (3.3%)	1,095 분 (9.8%)	316 분 (3.1%)	5,520 분 (14.3%)
단체	빈도	144 건 (28.3%)	127 건 (25.9%)	181 건 (25.0%)	133 건 (18.7%)	585 건 (24.0%)
	시간	441 분 (5.1%)	3,364 분 (39.4%)	4,781 분 (42.6%)	3,847 분 (37.7%)	12,433 분 (32.2%)
기타	빈도	4 건 (0.8%)	0 건 (0.0%)	3 건 (0.4%)	4 건 (0.6%)	11 건 (0.5%)
	시간	3,699 분 (42.7%)	0 분 (0.0%)	554 분 (4.9%)	615 분 (6.0%)	4,868 분 (12.6%)
합계	빈도	508 건 (100.0%)	490 건 (100.0%)	724 건 (100.0%)	711 건 (100.0%)	2,433 건 (100.0%)
	시간	8,663 분 (100.0%)	8,536 분 (100.0%)	11,222 분 (100.0%)	10,198 분 (100.0%)	38,619 분 (100.0%)

국내 선수별로 가장 많이 중계방송 한 순위를 분석해보았더니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박태환 선수가,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손연재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우선 편성빈도 기준 가장 많이 중계방송 한 국내 선수는 박태환(수영) 85건, 송대남(유도) 48건, 김재범(유도) 40건, 김현우(레슬링) 40건, 기보배(양궁) 39건, 진종오(사격) 33건,

손연재(체조) 30건, 이용대/정재성(배드민턴) 30건, 오진혁(양궁) 30건, 황경선(태권도) 28건 순이었다.

편성시간 기준 가장 많이 중계방송한 선수는 손연재(체조) 1,437분, 이용대/정재성(배드민턴) 713분, 박태환(수영) 635분, 진종오(사격) 481분, 기보배(양궁) 399분, 이현일(배드민턴) 390분, 신아람(펜싱) 367분, 양학선(체조) 355분, 장미란(역도) 331분, 오진혁(양궁) 326분이었다.

편성빈도 기준 국내외 선수별로 살펴보면 1위 박태환(수영) 85건(635분), 2위 쑨양(수영) 49건(367분), 3위 송대남(유도) 48건(300분), 4위 우사인 볼트(육상) 43건(317분), 5위 김재범(유도) 40건(320분), 6위 김현우(레슬링) 40건(306분), 7위 기보배(양궁) 39건(399분), 8위 라이언 록티(수영) 35건(197분), 9위 야닉 아넬 35건(180분), 10위 요한 블레이크(육상) 34건(259분)순으로 나타났다.

라이언 록티는 런던올림픽에서 개인 통산 22개의 메달을 딴 마이클 펠프스의 그늘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얻은 미국의 수영 선수이다. 프랑스 수영선수 야닉 아넬은 자유형 200m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했고, 이어서 박태환과 쑨양(중국)이 공동 은메달을 땀다.

〈표 3-20〉 국내 선수별 중계방송 순위(편성빈도)

순위	선수명	종목	방송건수	방송시간
1	박태환	수영	85건	635분
2	송대남	유도	48건	300분
3	김재범	유도	40건	320분
4	김현우	레슬링	40건	306분
5	기보배	양궁	39건	399분
6	진종오	사격	33건	481분
7	손연재	체조	30건	1,687분
8	이용대/정재성	배드민턴	30건	713분
9	오진혁	양궁	30건	326분
10	황경선	태권도	28건	305분

<표 3-21> 국내 선수별 중계방송 순위(편성시간)

순위	선수명	종목	방송시간	방송건수
1	손연재	체조	1,437분	30건
2	이용대/정재성	배드민턴	713분	30건
3	박태환	수영	635분	85건
4	진중오	사격	481분	33건
5	기보배	양궁	399분	39건
6	이현일	배드민턴	390분	17건
7	신아람	펜싱	367분	24건
8	양학선	체조	355분	25건
9	장미란	역도	331분	7건
10	오진혁	양궁	326분	30건

<표 3-22> 국내외 선수별 중계방송 순위

순위	선수명	종목	방송건수	방송시간
1	박태환	수영	85건	635분
2	Sun Yang	수영	49건	367분
3	송대남	유도	48건	300분
4	U.Bolt	육상	43건	317분
5	김재범	유도	40건	320분
6	김현우	레슬링	40건	306분
7	기보배	양궁	39건	399분
8	R.Lochte	수영	35건	197분
9	Y.Agnel	수영	35건	180분
10	Y.Blake	육상	34건	259분

제 3 절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중복편성 현황

1. 일반 중복편성 현황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지상파 3사의 중복 편성 현황 분석은 생중계로 전체 경기를 중계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지상파 3사의 중복편성 시간은 총 8,413분이었다. 이는 2개 채널 중복편성 시간과 3개 채널 중복편성 시간을 채널별로 모두 합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전체 올림픽 중계 방송시간 대비 중복편성 시간은 21.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개 채널 중복편성 시간은 17.6%를 차지했으며 3개 채널의 중복편성 시간은 4.2%로 줄었다.

3개 채널 중복편성은 총 11건으로 채널당 543분이었고, 2개 채널 중복편성은 총 114건으로 3,392분이었다. KBS1-MBC-SBS의 중복편성은 6건(500분)이었고, KBS2-MBC-SBS는 5건(43분)이었다. 2개 채널 중복편성 분석 결과 KBS2-MBC가 가장 많았는데 35건(1,423분)이었다. 다음으로 MBC-SBS 중복편성이 28건(899분)으로 많았고, KBS2-SBS가 25건(443분), KBS1-SBS 17건(398분), KBS1-MBC 9건(229분)이었다.

<표 3-23> 지상파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비교

중복편성		단일편성 및 그 외	총합
2 채널	3 채널		
6,784 분 (3,392 분×2)	1,629 분 (543 분×3)	30,206 분	38,619 분
17.6%	4.2%	78.2%	100.0%

*중복편성은 생방송 전체경기를 대상으로 하였음.

<표 3-24> 지상파방송 3사의 채널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시간)

구분		중복편성
3 채널 중복	KBS1-MBC-SBS	6 건(4.8%)/500 분(12.7%)
	KBS2-MBC-SBS	5 건(4.0%)/43 분(1.1%)
	합계	11 건(8.8%)/543 분(13.8%)
2 채널 중복	KBS1-MBC	9 건(7.2%)/229 분(5.8%)
	KBS1-SBS	17 건(13.6%)/398 분(10.1%)
	KBS2-MBC	35 건(28.0%)/1,423 분(36.2%)
	KBS2-SBS	25 건(20.0%)/443 분(11.3%)
	MBC-SBS	28 건(22.4%)/899 분(22.8%)
합계	114 건(91.2%)/3,392 분(86.2%)	
합계	125 건(100%)/3,935 분(100%)	

2. 종목별 중복편성 현황

종목별 중복편성의 빈도 분석 결과는 육상 27건(21.6%), 수영 16건(12.8%), 양궁 13건(10.4%), 펜싱 11건(8.8%) 순으로 나타났다. 편성시간으로는 기타 464분(11.8%), 펜싱 407분(10.3%), 탁구 353분(9.0%), 체조 290분(7.4%), 유도 281분(7.1%), 배구 240분(6.1%), 육상 233분(5.9%), 양궁 222분(5.6%), 수영 130분(3.3%) 순이었다. 중복편성 분석에서 기타가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은 개폐회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편성빈도 측면에서는 육상, 수영, 양궁 등이 높게 나타났으나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펜싱, 탁구, 체조, 유도 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종목별 중복편성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상의 경우 KBS1-MBC-SBS 4건(3.2%), KBS2-MBC-SBS 5건(4.0%), KBS1-MBC 6건(4.8%), KBS1-SBS 1건(0.8%), KBS2-MBC 5건(4.0%), KBS2-SBS 2건(1.6%), MBC-SBS 4건(3.2%)으로 채널 중복 현상이 모두 나타났다. 이는 육상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고 메달 수가 많은 종목인 반면 국내에서 순차편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편성 현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 국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수영, 양궁, 펜싱이 중복편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수영 MBC-SBS 중복 편성현황이 16건(12.8%)으로 높았고, 양궁이 KBS2-MBC 13건(10.4%), 펜싱이 KBS2-MBC 9건(7.2%)과 KBS1-MBC 2건(1.6%)이었다.

종목별 중복편성 시간 분석 결과에서는 펜싱 KBS2-MBC 369분(9.4%)/KBS1-MBC 38분(1.0%)이었고, 탁구 KBS2-MBC 219분(5.6%), KBS2-MBC 134분(3.4%), 체조 KBS2-MBC 290분(7.4%), 양궁 KBS2-MBC 222분(5.6%)으로 종목별로 KBS와 MBC 채널 중복편성이 두드러졌다. 그 다음 유도는 KBS2-SBS 170분(4.3%), KBS1-SBS 111분(2.8%)이었고, 배구 KBS1-SBS 139분(3.5%), MBC-SBS 101분(2.6%)으로 나타났다. 수영은 MBC-SBS 130분(3.3%)이었다.

<표 3-25>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비도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레슬링	-	-	-	4건 (3.2%)	-	1건 (0.8%)	-	5건 (4.0%)
배구	-	-	-	1건 (0.8%)	-	-	1건 (0.8%)	2건 (1.6%)
배드민턴	-	-	-	-	-	-	1건 (0.8%)	1건 (0.8%)
복싱	-	-	-	-	-	-	1건 (0.8%)	1건 (0.8%)
사격	-	-	-	-	-	2건 (1.6%)	-	2건 (1.6%)
수영	-	-	-	-	-	-	16건 (12.8%)	16건 (12.8%)
양궁	-	-	-	-	13건 (10.4%)	-	-	13건 (10.4%)
역도	-	-	-	-	-	-	1건 (0.8%)	1건 (0.8%)
유도	-	-	-	10건 (8.0%)	-	14건 (11.2%)	-	24건 (19.2%)
육상	4건 (3.2%)	5건 (4.0%)	6건 (4.8%)	1건 (0.8%)	5건 (4.0%)	2건 (1.6%)	4건 (3.2%)	27건 (21.6%)
체조	-	-	-	-	4건 (3.2%)	-	-	4건 (3.2%)
축구	-	-	-	-	2건 (1.6%)	1건 (0.8%)	2건 (1.6%)	5건 (4.0%)
탁구	-	-	1건 (0.8%)	-	2건 (1.6%)	-	-	3건 (2.4%)
태권도	-	-	-	-	-	5건 (4.0%)	1건 (0.8%)	6건 (4.8%)
펜싱	-	-	2건 (1.6%)	-	9건 (7.2%)	-	-	11건 (8.8%)
핸드볼	-	-	-	1건 (0.8%)	-	-	1건 (0.8%)	2건 (1.6%)
기타	2건 (1.6%)	-	-	-	-	-	-	2건 (1.6%)
합계	6건 (4.8%)	5건 (4.0%)	9건 (7.2%)	17건 (13.6%)	35건 (28.0%)	25건 (20.0%)	28건 (22.4%)	125건 (100%)

<표 3-26>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시간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레슬링	-	-	-	47 분 (1.2%)	-	9 분 (0.2%)	-	56 분 (1.4%)
배구	-	-	-	139 분 (3.5%)	-	-	101 분 (2.6%)	240 분 (6.1%)
배드민턴	-	-	-	-	-	-	92 분 (2.3%)	92 분 (2.3%)
복싱	-	-	-	-	-	-	17 분 (0.4%)	17 분 (0.4%)
사격	-	-	-	-	-	26 분 (0.7%)	-	26 분 (0.7%)
수영	-	-	-	-	-	-	130 분 (3.3%)	130 분 (3.3%)
양궁	-	-	-	-	222 분 (5.6%)	-	-	222 분 (5.6%)
역도	-	-	-	-	-	-	94 분 (2.4%)	94 분 (2.4%)
유도	-	-	-	111 분 (2.8%)	-	170 분 (4.3%)	-	281 분 (7.1%)
육상	36 분 (0.9%)	43 분 (1.1%)	57 분 (1.4%)	2 분 (0.1%)	36 분 (0.9%)	14 분 (0.4%)	45 분 (1.1%)	233 분 (5.9%)
체조	-	-	-	-	290 분 (7.4%)	-	-	290 분 (7.4%)
축구	-	-	-	-	287 분 (7.3%)	151 분 (3.8%)	306 분 (7.8%)	744 분 (18.9%)
탁구	-	-	134 분 (3.4%)	-	219 분 (5.6%)	-	-	353 분 (9.0%)
태권도	-	-	-	-	-	73 분 (1.9%)	16 분 (0.4%)	89 분 (2.3%)
펜싱	-	-	38 분 (1.0%)	-	369 분 (9.4%)	-	-	407 분 (10.3%)
핸드볼	-	-	-	99 분 (2.5%)	-	-	98 분 (2.5%)	197 분 (5.0%)
기타	464 분 (11.8%)	-	-	-	-	-	-	464 분 (11.8%)
합계	500 분 (12.7%)	43 분 (1.1%)	229 분 (5.8%)	398 분 (10.1%)	1,423 분 (36.2%)	443 분 (11.3%)	899 분 (22.8%)	3,935 분 (100%)

3. 한국 출전/비출전 중복편성 현황

중복편성 현황에서 한국 출전 경기와 비출전 경기로 나눠 분석했더니 한국 출전 경기의 경우 중복편성 현상이 더 나타났다. 한국 출전 경기의 중복편성은 67건(3,142분)이었고, 한국 비출전 경기의 중복편성은 58건(793분)이었다.

한국 출전 경기의 중복편성 빈도는 KBS2-MBC 23건(34.3%), KBS2-SBS 15건(22.4%), MBC-SBS 13건(19.4%), KBS1-SBS 11건(16.4%), KBS1-MBC 3건(4.5%), KBS1-MBC-SBS 2건(3.0%) 순이었다. 편성시간 기준으로 한국 출전 경기의 중복편성은 KBS2-MBC 1,158분(36.9%), MBC-SBS 661분(21.0%), KBS1-MBC-SBS 464분(14.8%), KBS2-SBS 345분(11.0%), KBS1-SBS 342분(10.9%), KBS1-MBC 172분(5.5%) 순이었다.

한국 비출전 경기의 중복편성 빈도는 MBC-SBS 15건(25.9%), KBS2-MBC 12건(20.7%), KBS2-SBS 10건(17.2%) 순이었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KBS2-MBC 265분(33.4%), MBC-SBS 238분(30.0%), KBS2-SBS 98분(12.4%), KBS1-MBC 57분(7.2%), KBS1-SBS 56분(7.1%), KBS2-MBC-SBS 43분(5.4%), KBS1-MBC-SBS 36분(4.5%)이었다.

한국 비출전 경기의 경우 3개 채널 중복편성이 비교적 많은 것은 한국 출전 경기 외에 올림픽 중계방송을 편성하는 기준이 방송시간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방송 3사는 한국이 출전하지 않았지만 육상 종목의 중계방송을 우선적으로 편성했고 이로 인해 한국 비출전 경기에서 3개 채널 중복편성이 더 두드러졌다.

<표 3-27> 한국출전/비출전 경기 중복편성 현황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한국 출전	2건 (3.0%)	0건 (0.0%)	3건 (4.5%)	11건 (16.4%)	23건 (34.3%)	15건 (22.4%)	13건 (19.4%)	67건 (100%)
	464분 (14.8%)	0분 (0.0%)	172분 (5.5%)	342분 (10.9%)	1,158분 (36.9%)	345분 (11.0%)	661분 (21.0%)	3,142분 (100%)
한국 비출전	4건 (6.9%)	5건 (8.6%)	6건 (10.3%)	6건 (10.3%)	12건 (20.7%)	10건 (17.2%)	15건 (25.9%)	58건 (100%)
	36분 (4.5%)	43분 (5.4%)	57분 (7.2%)	56분 (7.1%)	265분 (33.4%)	98분 (12.4%)	238분 (30.0%)	793분 (100%)
합계	6건 (4.8%)	5건 (4.0%)	9건 (7.2%)	17건 (13.6%)	35건 (28.0%)	25건 (20.0%)	28건 (22.4%)	125건 (100%)
	500분 (12.7%)	43분 (1.1%)	229분 (5.8%)	398분 (10.1%)	1,423분 (36.2%)	443분 (11.3%)	899분 (22.8%)	3,935분 (100%)

한국 출전경기와 비출전 경기의 중복편성에서 종목별 순위를 알아보았다. 한국 비출전 경기의 중복편성에서는 육상 27건(46.6%), 유도 11건(19.0%), 수영 10건(17.2%) 순이었다. 한국 출전 경기는 유도 13건(19.4%), 양궁과 펜싱이 각각 9건(13.4%), 수영 6건(9.0%), 레슬링 4건(6.0%) 순이었다.

<표 3-28>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한국출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비도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레슬링	-	-	-	1 건 (1.7%)	-	-	-	1 건 (1.7%)
수영	-	-	-	-	-	-	10 건 (17.2%)	10 건 (17.2%)
양궁	-	-	-	-	4 건 (6.9%)	-	-	4 건 (6.9%)
유도	-	-	-	4 건 (6.9%)	-	7 건 (12.1%)	-	11 건 (19.0%)
육상	4 건 (6.9%)	5 건 (8.6%)	6 건 (10.3%)	1 건 (1.7%)	5 건 (8.6%)	2 건 (3.4%)	4 건 (6.9%)	27 건 (46.6%)
축구	-	-	-	-	1 건 (1.7%)	-	1 건 (1.7%)	2 건 (3.4%)
태권도	-	-	-	-	-	1 건 (1.7%)	-	1 건 (1.7%)
펜싱	-	-	-	-	2 건 (3.4%)	-	-	2 건 (3.4%)
합계	4 건 (6.9%)	5 건 (8.6%)	6 건 (10.3%)	6 건 (10.3%)	12 건 (20.7%)	10 건 (17.2%)	15 건 (25.9%)	58 건 (100.0%)

〈표 3-29〉 지상파방송 3사의 종목별 한국출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레슬링	-	-	-	3 건 (4.5%)	-	1 건 (1.5%)	-	4 건 (6.0%)
배구	-	-	-	1 건 (1.5%)	-	-	1 건 (1.5%)	2 건 (3.0%)
배드민턴	-	-	-	-	-	-	1 건 (1.5%)	1 건 (1.5%)
복싱	-	-	-	-	-	-	1 건 (1.5%)	1 건 (1.5%)
사격	-	-	-	-	-	2 건 (3.0%)	-	2 건 (3.0%)
수영	-	-	-	-	-	-	6 건 (9.0%)	6 건 (9.0%)
양궁	-	-	-	-	9 건 (13.4%)	-	-	9 건 (13.4%)
역도	-	-	-	-	-	-	1 건 (1.5%)	1 건 (1.5%)
유도	-	-	-	6 건 (9.0%)	-	7 건 (10.4%)	-	13 건 (19.4%)
체조	-	-	-	-	4 건 (6.0%)	-	-	4 건 (6.0%)
축구	-	-	-	-	1 건 (1.5%)	1 건 (1.5%)	1 건 (1.5%)	3 건 (4.5%)
탁구	-	-	1 건 (1.5%)	-	2 건 (3.0%)	-	-	3 건 (4.5%)
태권도	-	-	-	-	-	4 건 (6.0%)	1 건 (1.5%)	5 건 (7.5%)
펜싱	-	-	2 건 (3.0%)	-	7 건 (10.4%)	-	-	9 건 (13.4%)
핸드볼	-	-	-	1 건 (1.5%)	-	-	1 건 (1.5%)	2 건 (3.0%)
기타	2 건 (3.0%)	-	-	-	-	-	-	2 건 (3.0%)
합계	2 건 (3.0%)	0 건 (0.0%)	3 건 (4.5%)	11 건 (16.4%)	23 건 (34.3%)	15 건 (22.4%)	13 건 (19.4%)	67 건 (100.0%)

4. 경기종류별(메달관련성) 중복편성 현황

중복편성 현황을 메달 경기와 비메달 경기로 나눠 분석하였다. 편성빈도 분석결과 중복 편성에 있어 메달 경기 62건, 비메달 경기 61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비메달 경기는 2,061분, 메달 경기는 1,410분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표 3-30> 메달/비메달 경기별 중복편성 현황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비메달 경기	3 건 (4.9%)	3 건 (4.9%)	5 건 (8.2%)	9 건 (14.8%)	17 건 (27.9%)	9 건 (14.8%)	15 건 (24.6%)	61 건 (100%)
	23 분 (1.1%)	16 분 (0.8%)	170 분 (8.2%)	318 분 (15.4%)	862 분 (41.8%)	92 분 (4.5%)	580 분 (28.1%)	2,061 분 (100%)
메달 경기	1 건 (1.6%)	2 건 (3.2%)	4 건 (6.5%)	8 건 (12.9%)	18 건 (29.0%)	16 건 (25.8%)	13 건 (21.0%)	62 건 (100%)
	13 분 (0.9%)	27 분 (1.9%)	59 분 (4.2%)	80 분 (5.7%)	561 분 (39.8%)	351 분 (24.9%)	319 분 (22.6%)	1,410 분 (100%)
합계	4 건 (3.3%)	5 건 (4.1%)	9 건 (7.3%)	17 건 (13.8%)	35 건 (28.5%)	25 건 (20.3%)	28 건 (22.8%)	123 건 (100%)
	36 분 (1.0%)	43 분 (1.2%)	229 분 (6.6%)	398 분 (11.5%)	1,423 분 (41.0%)	443 분 (12.8%)	899 분 (25.9%)	3,471 분 (100%)

편성빈도 기준으로 중복편성 비메달 경기의 종목별 순위는 육상 17건(27.9%), 유도 10건(16.4%), 수영 8건(13.1%), 양궁과 펜싱이 각각 5건(8.2%)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편성 메달 경기의 종목별 순위는 유도 14건(22.6%), 육상 10건(16.1%), 수영과 양궁이 각각 8건(12.9%), 펜싱 6건(9.7%), 레슬링과 체조가 각각 3건(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 비메달 경기의 종목별 중복편성 빈도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레슬링	-	-	-	2 건 (3.3%)	-	-	-	2 건 (3.3%)
배구	-	-	-	1 건 (1.6%)	-	-	-	1 건 (1.6%)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배드민턴	-	-	-	-	-	-	1 건 (1.6%)	1 건 (1.6%)
수영	-	-	-	-	-	-	8 건 (13.1%)	8 건 (13.1%)
양궁	-	-	-	-	5 건 (8.2%)	-	-	5 건 (8.2%)
유도	-	-	-	5 건 (8.2%)	-	5 건 (8.2%)	-	10 건 (16.4)
육상	3 건 (4.9%)	3 건 (4.9%)	4 건 (6.6%)	-	3 건 (4.9%)	2 건 (3.3%)	2 건 (3.3%)	17 건 (27.9%)
체조	-	-	-	-	1 건 (1.6%)	-	-	1 건 (1.6%)
축구	-	-	-	-	2 건 (3.3%)	-	2 건 (3.3%)	4 건 (6.6%)
탁구	-	-	1 건 (1.6%)	-	1 건 (1.6%)	-	-	2 건 (3.3%)
태권도	-	-	-	-	-	2 건 (3.3%)	1 건 (1.6%)	3 건 (4.9%)
펜싱	-	-	-	-	5 건 (8.2%)	-	-	5 건 (8.2%)
핸드볼	-	-	-	1 건 (1.6%)	-	-	1 건 (1.6%)	2 건 (3.3%)
합계	3 건 (4.9%)	3 건 (4.9%)	5 건 (8.2%)	9 건 (14.8%)	17 건 (27.9%)	9 건 (14.8%)	15 건 (24.6%)	61 건 (100%)

<표 3-32> 메달 경기의 경기종목별 중복편성 빈도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레슬링	-	-	-	2 건 (3.2%)	-	1 건 (1.6%)	-	3 건 (4.8%)
배구	-	-	-	-	-	-	1 건 (1.6%)	1 건 (1.6%)
복싱	-	-	-	-	-	-	1 건 (1.6%)	1 건 (1.6%)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사격	-	-	-	-	-	2 건 (3.2%)	-	2 건 (3.2%)
수영	-	-	-	-	-	-	8 건 (12.9%)	8 건 (12.9%)
양궁	-	-	-	-	8 건 (12.9%)	-	-	8 건 (12.9%)
역도	-	-	-	-	-	-	1 건 (1.6%)	1 건 (1.6%)
유도	-	-	-	5 건 (8.1%)	-	9 건 (14.5%)	-	14 건 (22.6%)
육상	1 건 (1.6%)	2 건 (3.2%)	2 건 (3.2%)	1 건 (1.6%)	2 건 (3.2%)	-	2 건 (3.2%)	10 건 (16.1%)
체조	-	-	-	-	3 건 (4.8%)	-	-	3 건 (4.8%)
축구	-	-	-	-	-	1 건 (1.6%)	-	1 건 (1.6%)
탁구	-	-	-	-	1 건 (1.6%)	-	-	1 건 (1.6%)
태권도	-	-	-	-	-	3 건 (4.8%)	-	3 건 (4.8%)
펜싱	-	-	2 건 (3.2%)	-	4 건 (6.5%)	-	-	6 건 (9.7%)
합계	1 건 (1.6%)	2 건 (3.2%)	4 건 (6.5%)	8 건 (12.9%)	18 건 (29.0%)	16 건 (25.8%)	13 건 (21.0%)	62 건 (100.0%)

편성시간 기준으로 중복편성 비메달 경기의 종목별 순위는 축구 593분(28.8%), 탁구 233분(11.3%), 체조 201분(9.8%), 핸드볼 197분(9.6%), 펜싱 164분(8.0%), 배구 139분(6.7%), 육상 129분(6.3%), 유도 111분(5.4%) 순이었다. 중복편성 메달 경기의 종목별 순위는 펜싱 243분(17.2%), 유도 170분(12.1%), 축구 151분(10.7%), 양궁 133분(9.4%), 탁구 120분(8.5%), 육상 104분(7.4%), 역도 94분(6.7%), 체조 89분(6.3%), 수영 80분(5.7%)으로 나타났다.

<표 3-33> 비메달 경기 종목별 중복편성 시간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레슬링	-	-	-	19 분 (0.9%)	-	-	-	19 분 (0.9%)
배구	-	-	-	139 분 (6.7%)	-	-	-	139 분 (6.7%)
배드민턴	-	-	-	-	-	-	92 분 (4.5%)	92 분 (4.5%)
수영	-	-	-	-	-	-	50 분 (2.4%)	50 분 (2.4%)
양궁	-	-	-	-	89 분 (4.3%)	-	-	89 분 (4.3%)
유도	-	-	-	61 분 (3.0%)	-	50 분 (2.4%)	-	111 분 (5.4%)
육상	23 분 (1.1%)	16 분 (0.8%)	36 분 (1.7%)	-	22 분 (1.1%)	14 분 (0.7%)	18 분 (0.9%)	129 분 (6.3%)
체조	-	-	-	-	201 분 (9.8%)	-	-	201 분 (9.8%)
축구	-	-	-	-	287 분 (13.9%)	-	306 분 (14.8%)	593 분 (28.8%)
탁구	-	-	134 분 (6.5%)	-	99 분 (4.8%)	-	-	233 분 (11.3%)
태권도	-	-	-	-	-	28 분 (1.4%)	16 분 (0.8%)	44 분 (2.1%)
펜싱	-	-	-	-	164 분 (8.0%)	-	-	164 분 (8.0%)
핸드볼	-	-	-	99 분 (4.8%)	-	-	98 분 (4.8%)	197 분 (9.6%)
합계	23 분 (1.1%)	16 분 (0.8%)	170 분 (8.2%)	318 분 (15.4%)	862 분 (41.8%)	92 분 (4.5%)	580 분 (28.1%)	2,061 분 (100%)

<표 3-34> 메달 경기 종목별 중복편성 시간

구분	K1/M/S	K2/M/S	K1/M	K1/S	K2/M	K2/S	M/S	합계
레슬링	-	-	-	28 분 (2.0%)	-	9 분 (0.6%)	-	37 분 (2.6%)
배구	-	-	-	-	-	-	101 분 (7.2%)	101 분 (7.2%)
복싱	-	-	-	-	-	-	17 분 (1.2%)	17 분 (1.2%)
사격	-	-	-	-	-	26 분 (1.8%)	-	26 분 (1.8%)
수영	-	-	-	-	-	-	80 분 (5.7%)	80 분 (5.7%)
양궁	-	-	-	-	133 분 (9.4%)	-	-	133 분 (9.4%)
역도	-	-	-	-	-	-	94 분 (6.7%)	94 분 (6.7%)
유도	-	-	-	50 분 (3.5%)	-	120 분 (8.5%)	-	170 분 (12.1%)
육상	13 분 (0.9%)	27 분 (1.9%)	21 분 (1.5%)	2 분 (0.1%)	14 분 (1.0%)	-	27 분 (1.9%)	104 분 (7.4%)
체조	-	-	-	-	89 분 (6.3%)	-	-	89 분 (6.3%)
축구	-	-	-	-	-	151 분 (10.7%)	-	151 분 (10.7%)
탁구	-	-	-	-	120 분 (8.5%)	-	-	120 분 (8.5%)
태권도	-	-	-	-	-	45 분 (3.2%)	-	45 분 (3.2%)
펜싱	-	-	38 분 (2.7%)	-	205 분 (14.5%)	-	-	243 분 (17.2%)
합계	13 분 (0.9%)	27 분 (1.9%)	59 분 (4.2%)	80 분 (5.7%)	561 분 (39.8%)	351 분 (24.9%)	319 분 (22.6%)	1410 분 (100.0%)

제 4 장 2008년과 2012년 올림픽 중계방송 비교분석

제 1 절 분석방법

이 장에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의 국내 지상파방송사 중계방송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012년 런던올림픽의 국내 지상파방송사 중계방송은 앞서 기술한 제5장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였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국내 지상파방송사 중계방송은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분석: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8-19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였다.⁸⁸⁾

양 분석이 분석대상이나 분석유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유사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 중계방송 추이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분석하였고 런던올림픽의 경우 방송시작 시간부터 방송종료 시간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유의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중계방송 시간량의 증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생중계/녹화방송 등 구체적인 항목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올림픽 방송 추이 파악 및 평가의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제 2 절 일반 현황

우선 올림픽 중계방송 일반 현황에서 전체 방송시간과 편성빈도를 비교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전체 시간은 25,536분/814건이었고,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전체 시간 38,619분/2,434건이었다. 시차도 다르고 분석대상이 다소 달라 단순히 증감 추이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편성시간 기준으로 SBS가 7,941분으로 가장 많이 편성한 채널이었

88) 이호영·윤성욱(2008).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분석: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8-19), 서울: 한국전파진흥원.

으나 런던올림픽에서는 MBC가 11,222분으로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양 대회 모두 KBS1과 KBS2의 중계방송 시간을 합하면 올림픽 중계방송을 KBS가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베이징 vs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빈도/시간

구분	베이징 올림픽		런던올림픽	
	편성빈도	편성시간	편성빈도	편성시간
KBS1	144건(17.7%)	2,930분	508건	8,663분
KBS2	207건(25.4%)	6,936분	490건	8,536분
MBC	245건(30.1%)	7,729분	724건	11,222분
SBS	218건(26.8%)	7,941분	712건	10,198분
합계	814건(100.0%)	25,536분	2,434건	38,619분

베이징 올림픽에는 생중계 방송이 22,296분이었고, 런던올림픽에서는 생중계 방송이 21,922분으로 생중계 방송은 더 줄었다. 이는 한국과 시차가 적은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낮 시간대 생중계 방송시간이 다소 높았으나 시차가 큰 런던은 생중계보다는 인기 있는 경기의 녹화 중계를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표 4-2> 베이징 vs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의 생중계/녹화중계 비교분석⁸⁹⁾

구분	베이징 올림픽		런던올림픽	
	생중계	녹화중계	생중계	녹화중계
KBS1	66건(7.4%)	78건(9.6%)	144건(28.3%)	364건(71.7%)
	1,869분(7.3%)	1,061분(4.1%)	2,772분(43.5%)	4,891분(56.5%)
KBS2	168건(20.6%)	39건(4.8%)	205건(41.8%)	285건(58.2%)
	6,193분(24.2%)	743분(2.9%)	5,323분(62.4%)	3,213분(37.6%)
MBC	201건(24.7%)	44건(5.4%)	299건(41.3%)	425건(58.7%)
	7,170분(28.0%)	559분(2.2%)	6,761분(60.2%)	4,461분(39.8%)
SBS	170건(20.9%)	48건(5.9%)	299건(42.0%)	413건(58.0%)
	7,064분(4.1%)	877분(3.4%)	6,066분(59.5%)	4,132분(40.5%)
합계	605건(74.3%)	209건(25.7%)	947건(38.9%)	1,487건(61.1%)
	22,296분(87.3%)	3,240분(12.7%)	21,922분(56.8%)	16,697분(43.2%)

89) 녹화 중계의 경우 베이징 올림픽에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제외되었으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생중계는 양 대회간 단순비교가 가능함.

제3절 경기 종목별 편성현황

편성빈도 기준으로 베이징 올림픽은 유도, 수영, 육상, 양궁, 핸드볼 5개 종목이 45.5%를 차지했고 런던올림픽은 수영, 육상, 유도, 축구, 양궁 5개 종목이 61.0%를 차지했다. 그러나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이 야구, 탁구, 핸드볼, 기타, 양궁 5개 종목이 50.6%로 구기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런던올림픽은 축구, 체조, 펜싱, 육상, 수영 5개 종목이 47.5%였다.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올림픽이 상위 5개 종목의 집중도가 높았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경기 종목별 분석 결과 베이징 올림픽은 ①유도 85건(10.4%), ②수영 82건(10.1%), ③육상 72건(8.8%), ④양궁 71건(8.7%), ⑤핸드볼 61건(7.5%)으로 상위 5개 종목(371건)의 집중도는 45.5%였다. 런던올림픽은 ①수영 401건(16.5%), ②육상 390건(16.1%), ③유도 327건(13.5%), ④축구 188건(7.8%), ⑤양궁 172건(7.1%)으로 상위 5개 종목(1,478건)의 집중도는 61.0%였다.

경기 종목별 편성시간 분석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①야구 4,162분(16.2%), ②탁구 2,791분(10.9%), ③핸드볼 2,231분(8.7%), ④기타 1,964분(7.7%), ⑤양궁 1,834분(7.1%)으로 상위 5개 종목(12,982분)의 집중도는 50.6%였다. 런던올림픽은 ①축구 4,574분(12.4%), ②체조 3,626분(9.9%), ③펜싱 3,140분(8.5%), ④육상 3,106분(8.5%), ⑤수영 3,010분(8.2%)으로 상위 5개 종목(17,456분)의 집중도는 47.5%였다.

<표 4-3> 베이징 vs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종목별 순위와 5위 집중도(편성빈도)

구분	베이징 올림픽					런던올림픽				
	KBS1	KBS2	MBC	SBS	전체	KBS1	KBS2	MBC	SBS	전체
1위	육상	수영	유도	유도	유도	육상	양궁	수영	유도	수영
	37건 25.7%	26건 12.6%	27건 11.0%	29건 13.3%	85건 10.4%	132건 26.2%	79건 16.1%	232건 32.3%	201건 28.4%	401건 16.5%
2위	수영	양궁	양궁	양궁	수영	수영	육상	육상	육상	육상
	16건 11.1%	18건 8.7%	25건 10.2%	22건 10.1%	82건 10.1%	59건 11.7%	70건 14.3%	113건 15.5%	76건 10.7%	390건 16.1%
3위	유도	육상	수영/ 핸드볼	수영	육상	축구	유도	축구	수영	유도
	14건 9.7%	17건 8.2%	21건 8.6%	19건 8.7%	72건 8.8%	55건 7.6%	48건 9.8%	55건 7.6%	75건 10.6%	327건 13.5%

구분	베이징 올림픽					런던올림픽				
	KBS1	KBS2	MBC	SBS	전체	KBS1	KBS2	MBC	SBS	전체
4위	핸드볼 10건 16.9%	핸드볼/ 유도/ 태권도 15건 7.2%	야구/ 탁구 7.8%	핸드볼 15건 6.9%	양궁 71건 8.7%	유도 42건 8.3%	펜싱 48건 9.8%	펜싱 41건 5.7%	레슬링 45건 6.4%	축구 188건 7.8%
5위	펜싱/ 농구 7건 4.9%	탁구 13건 6.3%	기타 16건 6.5%	야구/ 탁구 14건 6.4%	핸드볼 61건 7.5%	체조 30건 6.0%	축구 41건 8.4%	양궁 40건 5.5%	태권도 38건 5.4%	양궁 172건 7.1%
집중도	84건 53.3%	89건 43.0%	87건 44.1%	80건 45.4%	371건 45.5%	321건 52.5%	286건 58.4%	480건 66.6%	435건 61.5%	1,478건 61.0%

* 기타는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누, 소프트볼 등

<표 4-4> 베이징 vs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종목별 순위와 5위 집중도(편성시간)

구분	베이징 올림픽					런던올림픽				
	KBS1	KBS2	MBC	SBS	전체	KBS1	KBS2	MBC	SBS	전체
1위	육상 694분 2.7%	야구 1,153분 4.5%	야구 1,568분 6.1%	야구 1,417분 5.5%	야구 4,162분 16.2%	육상 1,038분 13.0%	체조 1,298분 15.2%	수영 1,487분 13.9%	유도 1,637분 17.1%	축구 4,574분 12.4%
2위	농구 378분 1.5%	탁구 736분 2.9%	탁구 1,002분 3.9%	탁구 897분 3.5%	탁구 2,791분 10.9%	체조 970분 12.2%	펜싱 1,211분 14.2%	축구 1,381분 12.9%	축구 1,321분 13.8%	체조 3,626분 9.9%
3위	기타 267분 1.1%	수영 547분 2.1%	핸드볼 705분 2.7%	기타 633분 2.6%	핸드볼 2,231분 8.7%	축구 941분 11.8%	양궁 1,125분 13.2%	배드민 턴 1,046분 9.8%	핸드볼 799분 8.3%	펜싱 3,140분 8.5%
4위	핸드볼 260분 1.0%	양궁 517분 2.0%	기타 683분 2.8%	핸드볼 611분 2.4%	기타 1,964분 7.7%	수영 645분 8.1%	탁구 1,032분 12.1%	체조 1,044분 9.8%	육상 764분 8.0%	육상 3,106분 8.5%
5위	탁구 156분 0.6%	축구 467분 1.8%	양궁 603분 2.3%	양궁 576분 2.2%	양궁 1,834분 7.1%	탁구/배구 516분 6.5%	축구 931분 10.9%	펜싱 969분 9.1%	배구 743분 7.8%	수영 3,010분 8.2%
집중도	1,755분 6.9%	3,420분 20.3%	4,561분 17.8%	4,125분 16.2%	12,982분 50.6%	4,110분 51.6%	5,597분 65.6%	4,958분 55.5%	5,264분 55.0%	17,456분 47.5%

* 기타는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누, 소프트볼 등

제 4 절 한국 출전 경기 편성현황

베이징 올림픽은 한국 출전 경기를 21,774분(85.3%)/654건(80.3%) 중계 방송하였고, 런던올림픽은 한국 출전 경기를 24,920분(64.5%)/1,259건(51.7%) 중계 방송하였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출전 경기를 집중적으로 편성했다면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는 한국 비출전 경기를 비교적 많이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런던올림픽에서 KBS1은 한국 비출전 경기(62.4%)를 한국 출전 경기(37.6%)보다 많이 편성함으로써 특기할 만했다.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출전 경기의 집중편성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던 MBC(한국 출전 경기 90.1% 편성)는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는 한국출전 경기를 65.4% 편성함으로써 다소 완화되었다(편성시간 기준).

〈표 4-5〉 한국 출전/비출전 경기 올림픽 중계방송 현황

구분	베이징 올림픽			런던올림픽		
	한국출전	한국비출전	합계	한국출전	한국비출전	합계
KBS1	110건 76.4%	34건 23.6%	144건 100.0%	191건 37.6%	317건 62.4%	508건 100.0%
	2,194분 74.8%	736분 25.2%	2,930분 100.0%	4,406분 50.9%	4,257분 49.1%	8,663분 100.0%
KBS2	153건 73.9%	54건 26.1%	207건 100.0%	256건 52.2%	234건 47.8%	490건 100.0%
	5,625분 81.1%	1,311분 18.9%	6,936분 100.0%	6,005분 70.3%	2,531분 29.7%	8,536분 100.0%
MBC	213건 86.9%	32건 13.1%	245건 100.0%	344건 47.5%	380건 52.5%	724건 100.0%
	6,964분 90.1%	765분 9.9%	7,729분 100.0%	7,344분 65.4%	3,878분 34.6%	11,222분 100.0%
SBS	178건 81.7%	40건 18.3%	218건 100.0%	468건 65.7%	244건 34.3%	712건 100.0%
	6,991분 88.0%	950분 11.0%	7,941분 100.0%	7,165분 70.3%	3,033분 29.7%	10,198분 100.0%
합계	654건 80.3%	160건 19.7%	814건 100.0%	1,259건 51.7%	1,175건 48.3%	2,434건 100.0%
	21,774분 85.3%	3,762분 14.7%	25,536분 100.0%	24,920분 64.5%	13,699분 35.5%	38,619분 100.0%

제 5 절 경기종류별(메달관련성) 편성현황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메달 경기를 404건(49.6%), 12,299분(48.1%)을 중계방송 하였고, 런던올림픽에서는 메달 경기를 989건(40.6%), 14,878분(38.5%) 중계방송하였다. 메달 경기 위주의 중계방송 편성도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올림픽에서 감소하였고, 비메달 경기 중계방송의 비율이 높아졌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KBS2가 49.6%로 메달 위주의 경기를 가장 많이 편성하였고, 런던올림픽에서는 KBS1이 44.6%로 메달 위주의 경기를 가장 많이 편성하였다(편성시간 기준). 방송시간 순차편성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시청률이 높은 메달 위주의 경기를 광고 재원의 KBS2에 편성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런던올림픽에서는 방송시간 순차편성에 따라 일부 종목에서 메달 경기의 중계방송에 제한이 있어 상대적으로 KBS2의 메달 경기 중계방송의 편성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KBS1은 한국이 출전하지 않은 경기 중 메달 위주의 경기를 선호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KBS1이 한국 비출전 경기의 중계방송 편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표 4-6〉 경기종류별(메달유무) 올림픽 중계방송 현황

구분	베이징 올림픽					런던올림픽				
	KBS1	KBS2	MBC	SBS	전체	KBS1	KBS2	MBC	SBS	전체
비메달	67건	94건	123건	111건	395건	238건	288건	474건	445건	1,445건
	46.5%	45.4%	50.2%	50.9%	48.6%	46.9%	58.8%	65.5%	62.5%	59.4%
메달	1,124분	3,494분	3,569분	3,770분	11,957분	4,798분	4,894분	7,203분	6,846분	23,741분
	4.4%	13.7%	13.9%	14.7%	46.8%	55.4%	57.3%	64.2%	67.1%	61.5%
기타	72건	113건	117건	102건	404건	270건	202건	250건	267건	989건
	50.0%	54.6%	47.8%	46.8%	49.6%	53.1%	41.2%	34.5%	37.5%	40.6%
합계	1,328분	3,442분	3,759분	3,770분	12,299분	3,865분	3,642분	4,019분	3,352분	14,878분
	5.2%	13.5%	14.7%	14.7%	48.1%	44.6%	42.7%	35.8%	32.9%	38.5%
합계	5건	0건	5건	5건	15건	/				
	3.5%	0.0%	2.0%	2.3%	1.8%					
합계	478분	0분	401분	401분	1,280분	/				
	1.8%	0.0%	1.6%	1.6%	5.1%					
합계	144건	207건	245건	218건	814건	508건	490건	724건	712건	2,434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2,930분	6,936분	7,729분	7,941분	25,536분	8,663분	8,536분	11,222분	10,198분	38,619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베이징 올림픽의 기타는 개폐회식, 일부 시상식 등이 포함되었고, 런던올림픽에서 개폐회식은 비메달 경기로, 시상식은 메달 경기로 분류되었음

제 6 절 중복편성 현황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올림픽의 중복편성 현상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생방송으로 전체 중계된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베이징 올림픽 때는 중복편성 된 비율이 전체 방송시간의 55.2%나 되었다. 그러나 런던올림픽에서는 중복편성 비율이 21.8%로 매우 현저하게 줄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3채널 중복편성 비율이 41.4%에 달했으나 런던올림픽에서는 3채널 중복편성 비율은 4.2%로 대폭 줄었다.

중복편성 된 경기만 다시 분석하였더니, 베이징 올림픽 때는 KBS2-MBC-SBS 3채널 중복편성이 2,853분(53.9%)으로 가장 높았고, 런던올림픽 때는 KBS2-MBC 2채널 중복편성이 1,423분(36.2%)으로 가장 높았다.

<표 4-7>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비교

도시	중복편성	2채널	3,540분(1770분×2)	13.8%	55.2%
		3채널	10,572분(3,524분×2)	41.4%	
전체		25,536분		100.0%	
런던	중복편성	2채널	6,784분(3,392분×2)	17.6%	22.8%
		3채널	1,629분(543분×3)	4.2%	
	전체		38,619분		100.0%

* 중복편성 분석은 생방송 전체 중계 경기만 포함하였음.

<표 4-8> 지상파방송 3사의 채널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구분	베이징 올림픽		런던올림픽		
3채널 중복	KBS1-MBC-SBS	9건 (5.4%)	671분 (12.7%)	6건 (4.8%)	500분 (12.7%)
	KBS2-MBC-SBS	69건 (41.8%)	2,853분 (53.9%)	5건 (4.0%)	43분 (1.1%)
	소계	78건 (47.2%)	3,254분 (66.6%)	11건 (8.8%)	543분 (13.8%)

구분		베이징 올림픽		런던올림픽	
2채널 중복	KBS1-MBC	5건 (3.0%)	57분 (1.1%)	9건 (7.2%)	229분 (5.8%)
	KBS1-SBS	-	-	17건 (13.6%)	398분 (10.1%)
	KBS2-MBC	29건 (17.6%)	511분 (9.6%)	35건 (28.0%)	1,423분 (36.2%)
	KBS2-SBS	22건 (13.3%)	415분 (7.8%)	25건 (20.0%)	443분 (11.3%)
	MBC-SBS	31건 (5.9%)	787분 (14.9%)	28건 (22.4%)	899분 (22.8%)
	소계	87건 (52.8%)	1,770분 (33.4%)	114건 (91.2%)	3,392분 (86.2%)
합계		165건 (100.0%)	5,294분 (100.0%)	125건 (100.0%)	3,935분 (100.0%)

제 5 장 국내외 2012 런던올림픽 방송 비교분석

제 1 절 국내외 지상파방송사의 2012 런던올림픽 방송

1. 분석방법

한국, 일본, 영국의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을 비교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비교대상 없이 한국의 중계방송만 분석할 경우 연구결과에서 함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년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올림픽 기간 중 이들 3개국의 주요 지상파방송사(한국의 KBS, MBC, SBS, 일본의 NHK, 영국의 BBC)의 홈페이지를 통해 편성표를 수집하여 분석하기로 했다. 편성표는 실제 방송분과 차이가 있고 각 나라별, 채널별로 편성표에 제공하는 정보도 일관되지 않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편성표 분석은 실제 채널의 24시간 전체 방송분을 모니터분석하지 않고 국가별 올림픽 중계방송을 비교분석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은 국내의 경우 KBS1, KBS2, MBC, SBS 4개 채널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고 해외는 일본 NHK, 영국은 BBC1과 BBC2 2개 채널에 대한 편성표를 분석했다. 우선 분석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3개국, 총 7개 채널의 ① 경기 중계방송, ② 올림픽 정규방송, ③ 올림픽 특집방송을 나눠 각각 측정했다. 여기서 '경기 중계방송'은 편성표상에서 특정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의 올림픽 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올림픽 정규방송'은 올림픽 기간 동안만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특집방송'은 기존의 정규 편성 프로그램의 특집 또는 특별 편성된 단일 프로그램으로 특정 선수, 종목, 경기에 대해 심층 조사, 취재한 다큐멘터리·오락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분석단위는 채널별 편성 프로그램수와 시간, 중계방송 종류별 프로그램수와 시간, 일자별·중계방송 종류별 프로그램시간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올림픽 기간 동안 3개국 지상파채널 간 얼마나 많은 올림픽방송을 편성하는지, 중계/정규/특집 프로그램 편성량은 어떤지 등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주요 분석결과

(1) 3개국 런던올림픽 방송 비교

우선, 국내외 7개 방송채널의 올림픽 기간 중 중계방송 프로그램 수는 총 951개로 국내 4개 채널은 567개, 해외 3개 채널은 384개로 나타났다. 국내 방송채널 중에는 SBS가 210개의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4개 채널 합계의 37.1%를 차지했고 MBC가 156개(27.5%), KBS2 101개(17.8%), KBS1 100개(17.6%)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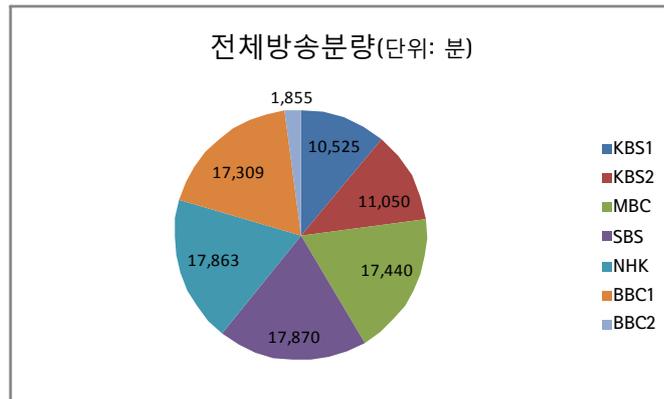
<표 5-1> 국내외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종류별 프로그램 개수

(단위: 개)

채널	경기 중계방송	올림픽 정규방송	올림픽 특집방송	합계
KBS1	41(41.0%)	53(53.0%)	6(6.0%)	100(100.0%)
KBS2	68(67.3%)	23(22.8%)	10(9.9%)	101(100.0%)
MBC	63(40.4%)	53(34.0%)	40(25.6%)	156(100.0%)
SBS	65(30.9%)	47(22.4%)	98(46.7%)	210(100.0%)
국내 소계	237	176	154	
NHK	80(36.4%)	42(19.1%)	98(44.5%)	220(100.0%)
BBC1	78(58.2%)	54(40.3%)	2(1.5%)	134(100.0%)
BBC2	2(6.7%)	28(93.3%)	0(0.0%)	30(100.0%)
해외 소계	160	124	100	
총계	397	300	254	

한편,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개국의 7채널의 전체 올림픽 중계방송시간은 93,912분(1,565시간 20분)이었다. 각 채널의 편성시간은 3개 채널(KBS1, KBS2, BBC2)을 제외하면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7개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올림픽 중계방송을 편성한 채널은 SBS로 17,870분(297시간 50분)을 편성했다. 이어 NHK가 17,863분(297시간 43분), MBC 17,440분(290시간 40분), BBC1 17,309분(288시간 29분), KBS2 11,050분(184시간 10분), KBS1 10,525분(175시간 25분), BBC2 1,855분(30시간 55분)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KBS1과 KBS2가 같은 방송사로서 서로 비슷한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비율을 보인 반면, BBC1과 BBC2는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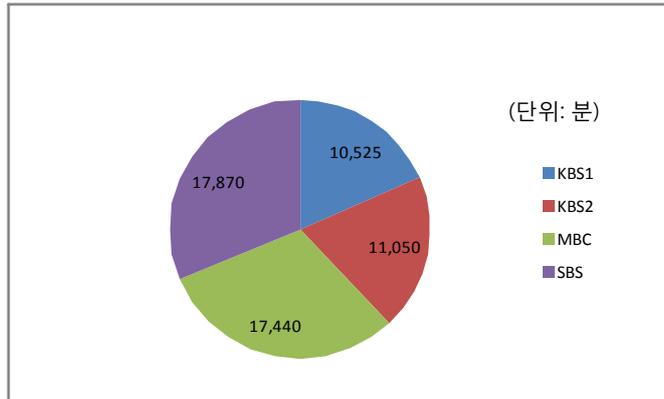
[그림 5-1] 3개국 7개 채널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시간



(2) 국내 지상파방송의 올림픽방송 편성분석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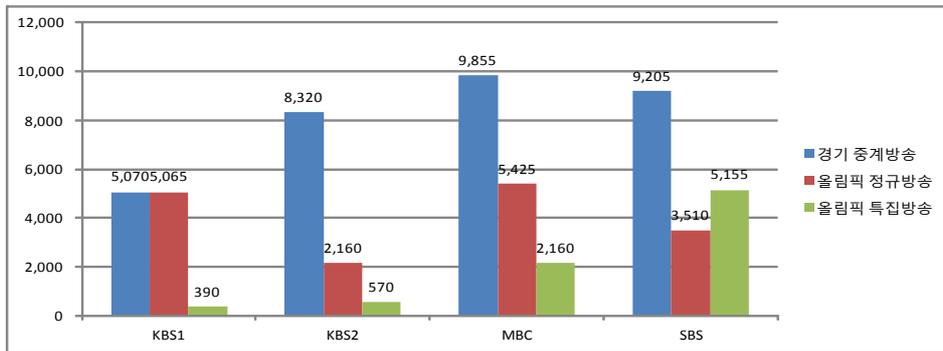
첫째, 국내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올림픽 중계방송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채널은 SBS로 올림픽 전체 기간인 18일 동안 297시간 50분(17,870분)을 편성했다. 그 다음은 MBC로 290시간 40분(17,440분), KBS2 184시간 10분(11,050분), KBS1 175시간 25분(10,525분)을 각각 편성했다. 각 채널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현황을 프로그램 개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 중계방송'을 가장 많이 편성한 채널은 KBS2로 전체의 67.3%를 편성했고 '올림픽 정규방송'은 KBS1(53.0%), '올림픽 특집방송'은 SBS(46.7%)가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특집방송을 제작, 방송하여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KBS1과 KBS2는 특집방송 편성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으나 KBS1은 '올림픽 정규방송'에 KBS2는 '경기 중계방송'에 각각 편성비중을 달리하여 유형별 편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국내채널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시간



둘째, 각 채널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경기 중계방송'은 MBC가 9,855분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개수에 비해 편성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분석되어 경기 중계방송 개수가 많았던 KBS2에 비해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경기를 중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올림픽 정규방송' 편성도 KBS1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MBC(5,425분)가 앞섰으며 '올림픽 특집방송'은 SBS가 5,155분으로 가장 많은 편성시간을 보였다.

[그림 5-3] 국내채널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셋째, 올림픽 기간중 일자별·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을 살펴보았는데 국내 채널의 경우, 개막전 경기, 개막식, 폐막식 등을 포함하여 총 19일간의 편성표를 분석했다. 올림픽 초기 '경기 중계방송'의 편성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본격적인 경기가 집중되는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1일당 1,000분 이상 프로그램이 편성되었고 편성시간이 가장 많았던 일자는 8월 2일로 2,560분의 경기 중계방송이 편성되었다. 한편, '올림픽 정규방송'은 1일당 1,000분을 초과 편성한 일자가 5일이었고 '올림픽 특집방송'은 1일당 500분을 초과 편성한 일자가 6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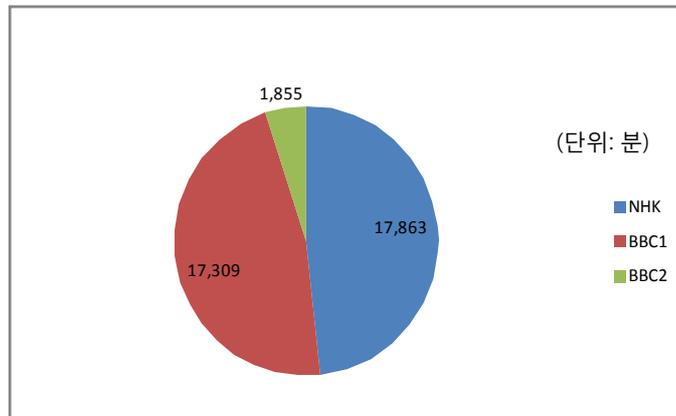
<표 5-2> 국내 채널의 일자별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일자	경기 중계방송	올림픽 정규방송	올림픽 특집방송
7.26	190	340	125
27	605	495	400
28	1,275	1,425	510
29	2,015	830	320
30	2,330	1,010	455
31	2,060	1,035	520
8.1	2,355	945	505
2	2,560	875	485
3	2,160	910	405
4	1,950	795	425
5	2,135	800	400
6	1,710	1,070	495
7	1,980	1,010	615
8	2,520	785	585
9	1,740	965	495
10	1,655	845	525
11	1,860	780	465
12	1,200	725	395
13	150	670	0
합계(비중)	32,450(57.1%)	16,310(28.6%)	8,125(14.3%)

(3) 일본, 영국의 런던올림픽 방송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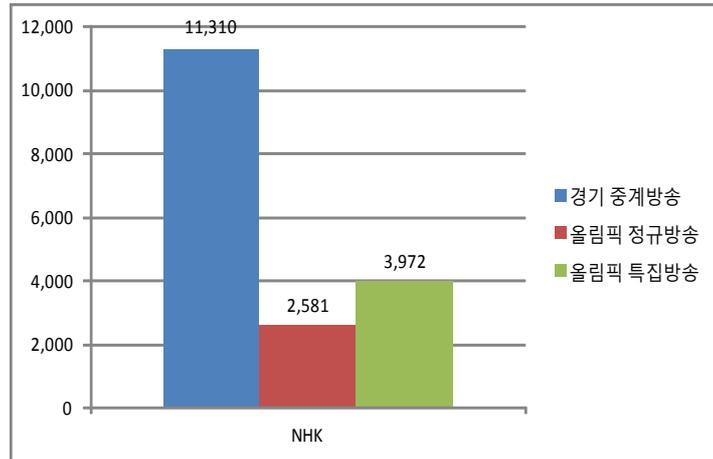
첫째, 해외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올림픽 중계방송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채널은 NHK로 올림픽 전체 기간인 18일 동안 297시간 43분(17,863분)을 편성했다. 그 다음은 BBC1으로 288시간 29분(17,309분), BBC2 30시간 55분(1,855분)을 각각 편성했다. 해외 채널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현황을 프로그램 개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 중계방송'을 가장 많이 편성한 채널은 BBC1으로 전체의 58.2%를 편성했고 '올림픽 정규방송'은 BBC2(93.3%), '올림픽 특집방송'은 NHK(44.5%)가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별 편성특징으로는 BBC1과 BBC2가 우리나라의 KBS1, KBS2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유형을 달리하여 편성한 점이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채널의 프로그램 개수와 편성시간에서는 대조적이었다.

[그림 5-4] 해외채널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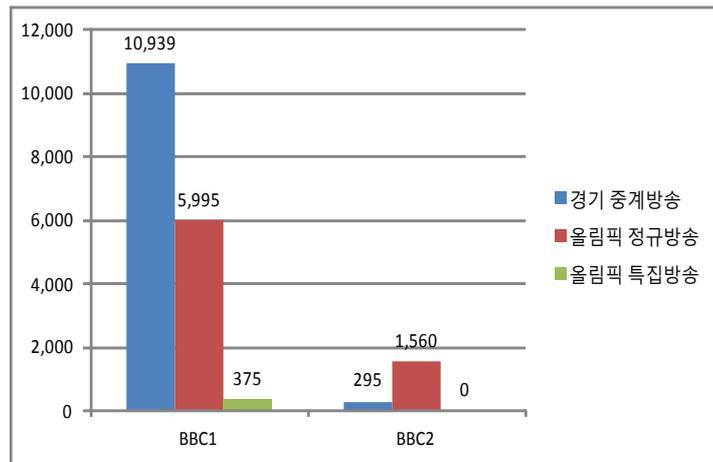


둘째, 각 채널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경기 중계방송'은 NHK가 11,310분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림픽 정규방송' 편성은 BBC1으로 5,995분을 편성하여 개최국 대표방송사로서 정규방송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올림픽 특집방송'은 NHK가 3,972분으로 가장 많은 편성시간을 할애했고 BBC2는 올림픽 기간 중 특집방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NHK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그림 5-6] BBC1, BBC2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셋째, 올림픽 기간 중 일자별·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에서 해외 채널의 경우, 개막전 경기, 개막식, 폐막식 등을 포함하여 총 18일간의 편성표를 분석했다. 올림픽 초기 '경기 중계방송'의 편성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국내 채널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국내 채널 대비 편성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중계방송이 가장 집중된 날짜는

8월 4일로 1,720분이 편성되었다. 한편, '올림픽 정규방송'은 1일당 1,000분을 초과 편성한 일자는 단 1일(7월 30일)에 불과했고 '올림픽 특집방송'도 1일당 500분을 초과 편성한 일자가 단 1일(7월 30일)로 집계되어 국내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집방송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 NHK의 일자별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일자	경기 중계방송	올림픽 정규방송	올림픽 특집방송
26	279	45	0
27	0	175	0
28	496	654	50
29	426	444	0
30	564	347	900
31	778	60	192
8.1	853	40	291
2	848	60	231
3	874	45	258
4	925	61	192
5	679	140	75
6	710	30	320
7	743	90	278
8	422	190	360
9	640	35	300
10	754	35	265
11	925	110	195
12	394	20	65
합계(비중)	11,310(63.3%)	2,581(14.5%)	3,972(22.2%)

<표 5-4> BBC1, BBC2의 일자별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시간

일자	경기 중계방송	올림픽 정규방송	올림픽 특집방송
7.25	150	30	0
26	450	120	0
27	0	470	195
28	750	90	180
29	650	440	0
30	345	800	0
31	675	425	0
8.1	675	425	0
2	675	425	0
3	745	310	0
4	795	295	0
5	679	535	0
6	675	450	0
7	710	410	0
8	675	450	0
9	675	480	0
10	675	465	0
11	745	305	0
12	490	630	0
합계(비중)	11,234(58.6%)	7,555(39.4%)	375(1.96%)

제 2 절 한국 지상파방송사의 2012 런던올림픽 방송현황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MBC는 지난 7월 25일 2012년 런던올림픽에 대한 편성방침을 공개했다. MBC는 1일 평균 15시간 내외의 올림픽 관련 방송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시간으로 오후 4시 40분부터 밤 12시(현지시간 오전 8시 40분~오후 4시)까지 각 종목 예선경기를 생중계하고 한국시간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현지시간 오후 4시~오후 10시) 각 종목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생중계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오전은 하이라이트로 구성하되, 오전 9시 40분부터 낮 12시까지 밤사이 열린 주요 경기와 낮 12시

1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주요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해 방송하며 주요 한국선수가 출전하는 주종목 예선경기를 독점 라이브 또는 순차방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KBS의 경우, 2개 채널을 합해 1일 평균 23시간 20분(1,000분-생중계, 400분-하이라이트)을 중계방송 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경기는 물론이고 메달 경쟁 밖의 비인기 종목까지 아우르는 공영방송다운 올림픽 편성계획을 세우면서도 사전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SBS도 시청률이 높은 주요 간판 프로그램을 내리고 올림픽 중계 방송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었다.

1. 2012 런던올림픽과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순차편성 합의

방송중계권 과다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KBS, MBC, SBS 지상파방송 3사는 제30회 런던올림픽 개막에 앞서 올림픽 중계 순차방송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우선 지상파방송 3사는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주요 관심종목 12개(양궁, 체조, 펜싱, 탁구, 수영, 배드민턴, 역도, 복싱, 유도, 태권도, 사격, 레슬링)는 1종목 1사 독점생중계를 원칙으로 배분했다. 그러나 한국선수 또는 한국팀의 준결승, 메달결정전(결승전, 3/4위전)과 시상식 등은 2사 동시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주요 종목으로 KBS는 양궁, 체조, 펜싱, 탁구(추가 1사: MBC), MBC는 수영, 배드민턴, 역도, 복싱(추가 1사: SBS), SBS는 유도, 태권도, 사격, 레슬링(추가 1사: KBS)을 맡음으로써 방송사 순차 중계방송 하기로 했다.

구기종목 축구(남자)의 경우 예선 3경기는 1사 1경기, 8강전 이상은 2사 1경기 동시 생방송하기로 했다. 배구(여자)는 예선 4경기는 1사 1경기, 8강전 이상은 2사 1경기 동시 생방송을 허용했다. 핸드볼(남녀)은 예선 5경기는 1사 1경기(단 여자 2경기는 2사 1경기), 8강전 이상은 2사 1경기 동시 생방송하기로 했다. 하키(남녀)는 예선 5경기는 1사 1경기, 준결승 이상은 2사 1경기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런던올림픽경기는 사전에 KBS, MBC, SBS가 주요 종목과 구기 종목을 순차방송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런던올림픽 합동방송

■ **종목 및 원칙**

- IOC가 구분한 26개(수영, 사이클, 카누/카약, 체조, 배구, 승마, 레슬링, 근대5종, 농구, 배드민턴, 복싱, 사격,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필드하키, 핸드볼) 종목을 기준으로 함
- 아래에서 합의한 순차방송 종목 또는 경기 이외에는 3사 모두 동시 생중계를 허용함

■ **주요종목**

- 한국선수가 출전하는 주요 관심종목 12개(양궁, 체조, 펜싱, 탁구, 수영, 배드민턴, 역도, 복싱, 유도, 태권도, 사격, 레슬링)는 1종목 1사 독점생중계 원칙으로 배분한다.
- 단, 한국선수 또는 한국팀의 준결승, 메달결정전(결승전, 3/4위전)과 시상식 등은 2사 동시 생중계를 허용한다.

구분	1사 독점	추가 1사
KBS	양궁, 체조, 펜싱, 탁구	유도, 태권도, 사격, 레슬링
MBC	수영, 배드민턴, 역도, 복싱	양궁, 체조, 펜싱, 탁구
SBS	유도, 태권도, 사격, 레슬링	수영, 배드민턴, 역도, 복싱

※ 단, 리듬체조의 경우 예선임에도 5일 경기는 KBS, MBC가 2사 동시 생중계를 허용함

■ **구기종목**

- 축구(남자) : 예선 3경기는 1사 1경기, 8강전 이상은 2사 1경기 동시 생방송

구분(한국시간)	종류	경기
7월 26일 14:30(22:30)	B조	한국 : 멕시코
7월 29일 17:15(+01:15)		한국 : 스위스
8월 1일 19:45(+03:45)		한국 : 가봉
8월 4일	8강전 4경기	-
8월 7일	준결승 2경기	-
8월 10일	3/4위 1경기	-
8월 11일	결승전	-

- 배구(여자) : 예선 4경기는 1사 1경기, 8강전 이상은 2사 1경기 동시 생방송

구분(한국시간)	종류	경기
7월 28일 20:00(+04:00)	B조	한국 : 미국
7월 30일 11:30(18:30)		한국 : 세르비아
8월 1일 22:00(+06:00)		한국 : 브라질
8월 3일 14:45(22:45)		한국 : 터키
8월 5일 11:30(18:30)		한국 : 중국
8월 7일	8강전 4경기	-
8월 9일	준결승 2경기	-
8월 11일	3/4위 및 결승전	-

- 핸드볼(남/여) : 예선 5경기는 1사 1경기(단, 여자 2경기는 2사 1경기), 8강전 이상은 2사 1경기 동시 생방송

구분(한국시간)	종류	경기
7월 28일 11:15(19:15)	여B조	한국 : 스페인
7월 29일 11:15(19:15)	남B조	한국 : 크로아티아
7월 30일 11:15(19:15)	여B조	한국 : 덴마크
7월 31일 11:15(19:15)	남B조	한국 : 헝가리
8월 1일 09:30(17:30)	여B조	한국 : 노르웨이
8월 2일 09:30(17:30)	남B조	한국 : 스페인
8월 3일 11:15(19:15)	여B조	한국 : 프랑스
8월 4일 11:15(19:15)	남B조	한국 : 세르비아
8월 5일 09:30(17:30)	여B조	한국 : 스웨덴
8월 6일 14:30(22:30)	남B조	한국 : 덴마크
8월 7일	여자 8강전 4경기	-
8월 8일	남자 8강전 4경기	-
8월 9일	여자 준결승 2경기	-
8월 10일	남자 준결승 2경기	-
8월 11일	여자 3/4위, 결승	-
8월 12일	남자 3/4위, 결승	-

- 하키(남/여) : 예선 5경기는 1사 1경기, 준결승 이상은 2사, 1경기 동시 생방송

구분(한국시간)	종류	경기
7월 29일 13:45(21:45)	여A조	한국 : 중국
7월 30일 08:30(16:30)	남B조	한국 : 뉴질랜드
7월 31일 16:00(24:00)	여A조	한국 : 영국
8월 1일 21:15(+05:15)	남B조	한국 : 독일
8월 2일 08:30(16:30)	여A조	한국 : 일본
8월 3일 21:15(+05:15)	남B조	한국 : 벨기에
8월 4일 10:45(18:45)	여A조	한국 : 네덜란드
8월 5일 13:45(21:45)	남B조	한국 : 인도
8월 6일 16:00(24:00)	여A조	한국 : 벨기에
8월 7일 08:30(16:30)	남B조	한국 : 네덜란드
8월 8일	여자 준결승 2경기	-
8월 9일	남자 준결승 2경기	-
8월 10일	여자 3/4위, 결승	-
8월 11일	남자 3/4위, 결승	-

2.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시청률

2012년 런던올림픽 경기는 우리 시각으로 저녁시간대와 새벽시간대에 치러졌다. 다시 말해 시차로 인해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기는 늦은 밤 중계방송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은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비해 시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올림픽의 중계방송 시청률은 방송사에게 있어 올림픽기간은 물론이고 전후 해당 방송사의 절대적인 평가 성적표로 간주된다.

시청률 조사기관 TNmS에 따르면, 2012년 7월 26일 축구예선 중계방송부터 폐막식 하루 전인 8월 12일 중계방송까지 2012년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지상파에서 중계한 올림픽 중계방송 전국 평균 시청률은 6.2%로 집계되었다. 역대 올림픽 시청률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와 1시간 시차가 있었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지상파 4개 채널 평균 시청률 7.4%(KBS1 6.4%, KBS2 8.3%, MBC 8.3%, SBS 6.1%)보다는 낮았지만, 2004년 아테네올림픽 평균 시청률 4.8%(KBS1 5.3%, KBS2 5.0%, MBC 5.1%, SBS 4.1%), 2000년 시드니올림픽 평균 시청률

5.1%(KBS1 8.6%, KBS2 4.3%, MBC 5.8%, SBS 2.7%)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올림픽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둔 2012년 런던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시청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런던올림픽 지상파 중계방송 시청률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KBS2가 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SBS 6.5%, KBS1 5.7%, MBC 5.2% 순으로 나타났다. MBC는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지상파 4개 채널 가운데 시청률이 1위 내지는 2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파업과 중계방송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청률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5-5> 지상파방송 3사의 역대올림픽 중계방송 평균 시청률

구분	KBS1	KBS2	MBC	SBS	지상파방송 채널 평균
2012년 런던올림픽	5.7%	7.5%	5.2%	6.5%	6.2%
2008년 베이징올림픽	6.4%	8.3%	8.3%	6.1%	7.4%
2004년 아테네올림픽	5.3%	5.0%	5.1%	4.1%	4.8%
2000년 시드니올림픽	8.6%	4.3%	5.8%	2.7%	5.1%

*2012년 런던올림픽은 16개 시·도 지역을 포함한 전국 기준, 2000~2008년까지는 6개 광역시 기준

※출처: TNmS

한편, 2012년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시청률 순위를 살펴보면 1위와 2위 모두 리듬체조 부문의 손연재 경기였고 3위는 <축구 동메달 결정전 대한민국:일본>이었다. 시청률 순위 1위를 차지한 8월 11일 <리듬체조 여자 개인종합 곤봉 결승>의 동시중계 시청률은 44.1%(KBS2 29.8%, MBC 14.3%)에 달했다. 시청률 2위 경기는 8월 11일 <리듬체조 여자 개인종합 리본 결승>의 동시중계 시청률로서 43.9%(KBS2 28.9%, MBC 15.0%)였다. 경기별 시청률 3위는 8월 11일 <축구 남자 동메달 결정전 대한민국:일본> 동시중계 시청률은 38.0%(KBS2 16.5%, SBS 21.5%)였다. 또한, 경기별 시청률 10위권에는 리듬체조 부문의 손연재 경기가 시청률 순위 10위중에서 3개를 차지하여 손연재의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양궁 종목이 3개, 유도 2개, 축구 1개 경기가 경기별 시청률 10위안에 포함되었다.

<표 5-6>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중 경기별 시청률 상위 10위(전국기준)

순위	프로그램	일자	KBS1	KBS2	MBC	SBS	시청률
1	<리듬체조>여(생) 개인종합곤봉-결승-손연재	8.11		29.8	14.3		44.1
2	<리듬체조>여(생) 개인종합리본-결승-손연재	8.11		28.9	15.0		43.9
3	<축구>남(생) 동메달결정전-대한민국:일본	8.11		16.5		21.5	38.0
4	<유도>남(생) 73KG-준결승-왕기춘	7.30		12.2		23.6	35.8
5	<양궁>남(생) 개인-결승-오진혁	8.3		23.3	11.3		34.6
6	<리듬체조>여(생) 개인종합리본-예선-손연재	8.10		33.7			33.7
7	<유도>남(생) 81KG-준결승-김재범	7.31		12.5		20.8	33.3
8	<양궁>여(생) 개인-결승-기보배	8.2		22.5	10.6		33.1
9	<양궁>남(생) 개인-준결승-오진혁	8.3		23.5	8.8		32.3
10	<리듬체조>여(생) 개인종합후프-결승-손연재	8.11		24.6	7.2		31.8

*경기별 시청률은 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서 실제 경기 시간만을 포함하고 인터뷰 등의 시간은 제외하여 산출

**시청률은 동시 중계방송의 경우, 채널별 중계방송 시청률의 합계임

※ 출처: TNmS

제 3 절 일본 NHK의 2012 런던올림픽 방송

1. 지상파방송의 올림픽 방송권을 둘러싼 논의

일본 내 올림픽 방송권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덴츠(電通)에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방송협회(이하,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하, 민방연)은 공동으로 설립한 '저팬 킨소사업(JC)'을 통해 분담금을 협의하고 방송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올림픽 방송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TV아사히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의 방송권을 단독으로 취득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에 NHK와 민방연은 올림픽 방송권료를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저팬 풀(Japan Pool)'을 설립하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1개 방송사에 의한 대표취재를 운영해 왔다.

1984년 올림픽 이후 IOC의 올림픽 방송권료가 급등함에 따라 NHK와 민방연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부터 ‘저팬 풀’을 ‘저팬 컨소시엄(JC)’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올림픽 방송권료의 분담 비율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즉 JC는 올림픽 경기의 영상을 일본 국내에 전송하기 위한 기자재와 요원 수의 책정을 비롯하여 JC 작업의 기초가 되는 국제방송센터 내의 스페이스 검토, 경기장 내의 중계석 확보, 현지제작비 산출 등 현지체제를 위한 준비 작업과 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으로 경기 신호를 송출하는 작업을 전담하는 방송기구로서, NHK와 민방연은 일본어 해설을 제작하기 위한 해설자, 아나운서, 디렉터, 기술 스태프, 조직위원회 및 국제신호제작조직과의 교섭협의를 위한 섭외 요원, 각 스태프를 지원하는 서무그룹 등을 공동 분담하여 파견하고 있다.

올림픽 방송권료의 분담 비율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NHK가 86.7%, 민방연이 13.3%를 지불하였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NHK가 80%, 민방연이 20%로 조절되었으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NHK 75%와 민방연 25%,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이후에는 NHK 70%와 민방연 30%로 변경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일본은 NHK와 민방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JC가 1992년부터 하계올림픽 방송권을 전담해 왔다. 하지만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의 방송권을 NHK가 단독으로 획득하여 민방이 중계료를 지불하는 문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NHK와 민방이 우선적으로 방송종목 및 방송시간대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니혼TV 계열 담당의 스키 자유형 및 여자 모글 결승전 방송을 NHK가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등 NHK와 민방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NHK와 민방연은 “방송 등에 관한 협정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통해 양자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모든 올림픽 방송권을 JC가 취득하는 형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JC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까지 하계와 동계 5개 대회를 5억 4,550만 달러로 일괄 계약했다. 또한 JC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의 2개 대회를 325억 엔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권을 획득하였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서는 일본 국내 TV와 라디오, 인터넷, 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에 송신 가능한 방송권을 360억 엔에 합의했다.

<표 5-7> 역대 올림픽 방송권료 추이

시기	개최지역	방송권료	취득자
1960년	로마	5만 달러(0.18억 엔)	NHK
1964년	도쿄	50만 달러(1.8억 엔)	
1968년	멕시코시티	60만 달러(2.2억 엔)	
1972년	뮌헨	105만 달러(3.8억 엔)	
1976년	몬트리올	130만 달러(3.9억 엔)	저팬 폴
1980년	모스크바	850만 달러(18.7억 엔)	TV아사히
1984년	로스앤젤레스	1,850만 달러(46.3억 엔)	저팬 폴
1988년	서울	5,000만 달러(77.5억 엔)	
1992년	바르셀로나	5,750만 달러(88억 엔)	저팬 컨소시엄
1996년	애틀랜타	9,950만 달러(104.5억 엔)	
2000년	시드니	1억 3,500만 달러(142.7억 엔)	
2004년	아테네	1억 5,500만 달러(170.5억 엔)	
2008년	베이징	1억 8,000만 달러(198억 엔)	
2010년(동계)	벤쿠버	325억 엔	
2012년	런던		
2014년(동계)	소치	360억 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이와 같이 NHK와 민방은 급등하는 고액의 올림픽 중계권료를 분담하기 위해 JC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국제올림픽연맹(IOC)로부터 방송권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양자 간의 합의 하에 경기 종목을 선택하고 중계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동일한 방송시간대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중복편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7월 이후 일본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하여 실질적으로 BS(방송위성) 방송이 일본 전역에 보급됨에 따라 NHK의 위성방송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시청자의 경우 일본 선수가 참가하는 모든 경기를 편성/방송하는 BS1과 지상파방송과의 중복편성 문제가 있다.

올림픽 중계권료의 분담 비율은 NHK가 60%, 민방이 40%를 부담하고 있어 이러한 분담 비율의 차이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중계 선택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에는 시청률 경쟁의 격화와 광고 편성의 확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는 중계권료 275억 엔 중 NHK가 165억 엔, 민방의 니혼TV가 110억 엔, TBS/후지TV/TV 아사히가 각 25억 엔, TV도쿄가 10억 엔의 순으로 각각 부담하였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NHK가 고시청률이 예상되는 경기의 중계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민방은 NHK와의 시청률 경쟁은 물론 올림픽 중계시간 중의 광고편성을 확대하고 있다.

2. 일본의 런던올림픽 방송 일반

일본 지상파방송사의 런던올림픽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NHK는 종합TV, BShi, BS1, 라디오 제1을 포함하여 총 729시간 25분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상파방송의 종합TV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비롯하여 주요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총 274시간 8분을 편성하고, 스포츠를 주요 콘텐츠로 하는 BS1은 총 357시간 23분을 편성하였으며, 라디오 제1도 일본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 주요 경기를 중심으로 생중계함과 동시에 최신 정보와 활약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총 97시간 54분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NHK의 런던올림픽 중계편성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편성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종합TV(일부 ETV 포함)와 BS1은 가장 많은 편성시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경우 런던올림픽 경기(중계와 녹화 포함)는 종합TV 226시간 35분과 ETV(교육방송) 19시간 55분을 포함한 총 246시간 30분, 뉴스/정보 프로그램은 27시간 38분, 자막방송은 154시간 13분이 각각 편성되었다.

<표 5-8> NHK의 역대 올림픽 방송시간

연도	대회	종합TV	BShi	BS1	라디오 제1	합계
1992	바르셀로나	184시간 42분	120시간 00분	329시간 09분	123시간 12분	757시간 03분
1996	애틀랜타	211시간 34분				945시간 17분
2000	시드니	191시간 07분				944시간 36분
2004	아테네	230시간 41분				1,008시간 46분
2008	북경	224시간 50분				776시간 53분
2012	런던	274시간 08분		357시간 23분	97시간 54분	729시간 25분

<표 5-9> NHK의 채널별 런던올림픽 방송시간 내역

내역	종합TV	BShi	BS1	라디오 제1	합계	
합계	274시간 08분	/	357시간 23분	97시간 54분	729시간 25분	
경기 (중계/녹화)	전체 246시간 30분				89시간 59분	
	종합TV 226시간 35분					
	ETV 19시간 55분					
뉴스/ 정보프로그램	27시간 38분				7시간 55분	
다중편성				4시간 10분		
자막방송	154시간 13분					

3. 일본의 런던올림픽 편성현황 및 특징

NHK는 이번 런던올림픽의 중계편성과 관련하여 종합TV에서 여자축구(준준결승과 3위 결정전 또는 결승전), 유도, 수영, 체조, 레슬링, 육상, 탁구, 남자마라톤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오전 6시부터 8까지 올림픽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Ohayo Nippon & Olympic>을 시작으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전날의 주요 경기(축구, 수영, 역도, 체조, 탁구, 육상, 배구, 레슬링 등)를 녹화방송한 후 12시부터 12시 45분까지 <News & Olympic>을 편성하였다. 또한 올림픽 경기가 집중하는 저녁시간대에는 시청자가 주목하는 일본 선수의 활약을 5.1 서라운드 음성으로 생중계하여 일본 선수의 약동과 현지의 열기를 그대로 전달함과 동시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였다.

NHK는 16시 30분부터 17시까지 전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와 당일 주요 경기의 소개를 시작으로 17시 30분부터 18시 45분까지 주요 경기(배구, 유도, 수영, 육상 등) 중계방송, 19시부터 30분간 올림픽 관련 주요 뉴스 <News7 & Olympic>, 19시 30분부터 20시 45분까지 주요 경기(축구, 유도, 수영, 육상 등) 중계방송, 21시부터 22시까지 올림픽 관련 주요 뉴스 <News Watch9 & Olympic>를 반복 편성하였으며, 22시부터 심야시간대에는 결승 종목(축구, 유도, 체조, 수영, 펜싱, 하키, 육상, 레슬링, 탁구, 배구 등)의 생중계는 물론 녹

화방송 시간대를 마련하여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시청자를 배려하는 편성을 도모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NHK의 BS1은 오전 6시 50분부터 9시까지 올림픽 관련 뉴스와 PR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면, 오전 9시부터 심야시간대까지 일본인 선수가 참가하는 총 26개의 경기를 비롯하여 시청자가 주목하는 경기를 편성하여 중계했다.

<표 5-10> NHK 종합TV의 런던올림픽 경기 종목 생중계 편성표

일정	종목	시간
7.26(목)	축구/남 예선 <일본×스페인>	22:00-24:50
7.28(토)	개회식	04:30-08:00
	배구/여 예선 <일본×알제리>	17:30-18:45
	축구/여 예선 <일본×스웨덴>	20:00-20:00
	유도/결승 여48kg급 남60kg급	22:00-24:20
	체조/남 예선	24:25-26:00
7.29(일)	유도/예선 여52kg급 남66kg급	05:30-06:45
	유도/예선 여52kg급 남66kg급	19:30-08:45
	역도/여53kg급	23:30-25:10
	탁구/여 개인 3회전	26:00-30:00
7.30(월)	수영/예선 여200m자유형 남200m접영	18:20-18:55
	유도/결승 여57kg급 남73kg급	21:45-24:20
	체조/남 단체결승	24:25-27:30
7.31(화)	배구/여 예선<일본×이탈리아>	04:00-05:30
	유도/예선 여63kg급 남81kg급	17:30-18:45
	유도/예선 여63kg급 남81kg급	19:30-20:45
	체조/여 단체결승	24:10-26:30
	수영/남200m접영 결승, 여200m접영 준결승, 남200m평영 준결승, 남800m릴레이 등	27:30-29:00
8.1(수)	배구/여 예선 <일본×도미니카공화국>	17:30-18:55
	수영/예선 남200m, 여800m릴레이 등	19:30-20:45
	유도/결승 여70kg급 남90kg급	21:45-24:20
	축구/남 예선<일본×온두라스>	25:00-27:30
	수영/남200m평영 결승, 남200m평영 준결승 등	27:30-28:45
8.2(목)	하키/여 예선<일본×한국>	16:30-18:00
	수영/예선 남50m자유형 여800m자유형	18:10-18:45
	수영/예선 남100m접영 여200m배영 등	19:30-20:45
	체조/여 개인종합 결승	24:10-26:25

일정	종목	시간
	수영/결승 여200m평영, 남200배영 등	27:30-29:00
8.3(금)	수영/예선 여50m자유형, 남1500m자유형	18:10-18:45
	수영/예선 남1500m자유형, 여400m릴레이, 남400m릴레이	19:30-20:45
	유도/결승 여78kg초급, 남100kg초급	21:45-24:20
	육상/결승 여100m 1차 예선 등	27:00-30:00
8.4(토)	여 트라이애슬론	17:00-19:00
	육상/남400m허들 준결승, 여100m 준결승 등	26:50-30:00
8.5(일)	체조/종목별 결승	21:50-24:15
	펜싱/남 단체(일본 출전시합의 경우)	26:00-28:30
8.6(월)	육상/예선 여100m허들 1차 예선 등	17:45-18:45
	체조/종목별 결승	21:30-24:15
8.7(화)	육상/예선 여 창던지기 남110m허들 1차 예선	17:45-18:45
	육상/예선 여5000m 1차 예선 등	19:30-20:45
	싱크로/듀엣 결승	23:00-24:15
8.8(수)	육상/예선 남 장대높이뛰기, 여 해머던지기 등	17:45-18:45
	육상/예선 남5000m 1차, 여800m 1차, 여 해머던지기 등	19:30-20:45
	레슬링/결승 여48kg급 여63kg급	25:45-28:15
8.9(목)	육상/예선 남1600m릴레이 등	19:30-20:45
	레슬링/예선-준결승 여55kg급 여72kg급	21:00-24:00
	육상/결승 남 3단 멀리뛰기 등	27:00-30:00
8.10(금)	신체조/예선 개인종합, 단체	19:30-20:45
	신체조/예선 개인종합, 단체	22:00-24:00
	육상/결승 남 장대높이뛰기 등	27:00-29:30
8.11(토)	신체조/결승 개인종합	21:00-22:40
	축구/결승 남자	22:50-25:00
	레슬링/결승 남60kg급 남84kg급 남120kg급	25:45-28:15
8.12(일)	남자 마라톤	18:55-21:25
	신체조/결승 단체	21:30-22:50
	농구/결승 남자	22:55-25:00
8.13(월)	폐회식	04:30-07:30

이에 비해 민방은 지상파TV에서 일본 선수의 메달이 기대되는 주요 경기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민방의 지상파TV는 저녁시간대부터 골든타임에 치러지는 예선 선발과 22시 이후에 치러지는 결승 경기의 생중계를 중심으로 녹화방송을 포함하여 1일 평균 약 10시간을 기획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216시간을 편성했으며, 자사 계열의 BS를 통

해서도 지상파TV에서 방송된 중계경기의 주요 장면을 낮 시간대에 2시간 분량으로 편집하는 등 총 48시간을 편성했다.

민방의 런던올림픽 중계편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방 5사 모두 오전시간대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올림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를 마련하였고, 오후시간대에는 17시 25분부터 심야까지 생중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즉 니혼TV는 남자 수영 100m 평영 결승과 남자 체조 개인종합 결승 등을, TBS는 남자 유도 66kg급과 여자 유도 52kg급 결승 및 여자 레슬링 자유형 55kg급과 72kg급 결승 등을, 후지TV는 육상 예선과 여자 마라톤 등, TV도쿄는 남자 유도 81Kg급과 여자 유도 63Kg급 결승 그리고 여자 탁구 단체 준결승 등을, TV아사히는 남자 해머던지기 결승, 남자 100m 결승, 남자 평영 200m 예선, 여자 접영 200m 예선, 남자 유도 66Kg급 결승과 여자 유도 52Kg급 결승, 여자 레슬링 자유형 55Kg급과 72Kg급 결승 등을 중심으로 각각 편성하였다.

특히 여자마라톤을 독점한 민방은 전국 32개 방송지역을 모두 생중계로 편성하였으며, 시청자들에게 주목받는 축구와 배구도 예선을 비롯하여 준준결승과 3위 결정전 또는 결승전을 각각 편성했다.

<표 5-11> 일본 민방TV의 런던올림픽 경기 종목 생중계 편성표

방송사	종목	일정	시간
니혼TV 계열 (NTV)	수영/남100m평영(결승), 남100m배영(준결승), 여100m배영(준결승)	7/29(일)	27:30-29:25
	체조/결승 남 개인종합	8/1(수)	24:30-27:15
	축구/여자 준결승	8.6(월)	25:00-27:00 27:45-29:45
	체조/결승 남 철봉/평행봉 여 평균대/마루	8.7(화)	22:00-25:15
	레슬링/준결승 여 자유형 48kg급, 63kg급	8.8(수)	21:00-23:45
TBS 계열 (TBS)	유도/결승 남66kg급 여52kg급	7/29(일)	22:00-24:50
	유도/예선 남100kg급 여78kg급	8/2(목)	17:30-20:30
	유도/결승 남100kg급 여78kg급	8/2(목)	22:00-24:50
	레슬링 자유형/결승 여55kg급, 72kg급	8/9(목)	25:45-28:15
	육상/결승 남4×100m릴레이, 여4×400m릴레이, 여 높이뛰기, 남 창던지기 등	8/11(토)	26:45-29:25

방송사	종목	일정	시간
후지TV 계열 (CX)	유도/예선 남73kg급, 여57kg급	7.30(월)	17:30-20:30
	유도/예선 남90kg급, 여70kg급	8.1(수)	17:30-20:30
	육상/남100m(1차 예선, 2차 예선), 여 장대높이뛰기(예선) 등	8.4(토)	18:00-21:45
	육상/여자 마라톤	8.5(일)	19:00-22:00
	싱크로/듀엣 프리 루틴	8.6(월)	23:00-25:10
	육상/결승 남400m, 여 장대높이뛰기 등	8.6(월)	26:50-29:35
	육상/남200m(준결승), 여200m(결승) 등	8.8(수)	26:00-29:55
TV아사히 계열 (EX)	유도/예선 남60kg급, 여48kg급	7.28(토)	17:30-20:30
	수영/예선 여100m배영, 남100m배영 등	7.29(일)	18:00-20:50
	수영/예선 남200m평영 등	7.31(화)	18:00-20:15
	유도/예선 남100kg초급, 여78kg초급	8.3(금)	17:30-20:30
	수영/결승 남4×100m릴레이, 여4×100m릴레이	8.4(토)	27:30-29:00
	싱크로/듀엣 테크니컬 루틴	8.5(일)	23:00-24:40
TV도쿄 계열 (TX)	육상/남100m(준결승/결승), 남 해머던지기(결승) 등	8.5(일)	26:50-29:55
	유도/결승 남81kg급, 여63kg급	7.31(화)	22:00-24:50
	탁구/여 단체 1회전	8.3(금)	22:30-25:30
	수영/결승 남100m접영, 여200m배영 등	8.3(금)	27:30-28:50
	탁구/여 단체 준결승	8.6(월)	18:00-21:00
	육상/결승 남1500m, 여100m허들, 남 높이뛰기 등	8.7(화)	26:50-29:20

또한 민방의 지상파 라디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되는 런던올림픽을 통일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특히 민방연의 라디오위원회가 런던올림픽 개막 전의 7월 2일부터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민방 라디오 통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편성하는 한편 올림픽 기간 중에는 실황소재를 이용한 경기 결과, 활약한 선수와 주목되는 선수의 인터뷰 등을 라디오의 골든타임인 통근시간 등에 편성하는 방침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런던올림픽 개막 전의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오전시간대(9시-12시)에 런던올림픽 관련 뉴스와 경기 소개, 메달 예상 등을 90초간 방송하는 <London Olympic Information>, 오후시간대(12시-17시)에는 일본 대표선수의 소개와 선수에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110초간 방송하는 <Road to London Olympic>을 각각 편성하였다. 또한 올림픽대회 기간 중에는 오전 7시대와 8시대에 올림픽 상황과 선수 인터뷰를 다이제스트로 방송하는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과 <런던올림픽 리포트>를 각각 5분간 편성하고, 오후 5시대에는 그 날의 주목 경기와 주목 선수 등을 소개하는 <투데이즈 런던올림픽>을 90초간 편성했다.

4. 일본의 올림픽 방송 온라인 서비스

런던올림픽에서 특이한 사항으로는 NHK가 PC,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을 위한 특별 홈페이지와 데이터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여 올림픽의 매력을 전달함은 물론 경기 정보와 경기 결과를 리얼타임으로 제공하고,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하이라이트 동영상이나 알고 싶어 하는 정보 등을 신속하고 간단히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점이다. 특히 NHK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방송법상 방송이 종료한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NHK는 '방송 및 그 수신자의 진보 발달에 특히 필요한 업무'(특인 업무, 방송법 제20조 제2항 제8호)로서 인터넷 생중계(라이브 스트리밍) 업무의 실시를 총무성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 처음으로 NHK의 종합TV와 민방의 지상파TV가 생중계로 방송하지 않는 일부 경기종목을 인터넷 생중계로 무료 제공했다.

한편 민방은 베이징 하계 올림픽과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 이어 132개 지상파TV의 공동 공식 동영상 사이트 'gorin.jp'를 개설하여 올림픽 경기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뉴스 속보, 주요 경기 장면을 제공하였다. 또한 민방은 'gorin.jp'을 이용하여 지상파TV와 BS에서 방송하지 않는 경기나 평소에 접하지 않은 스포츠의 매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민방의 중계 경기와 주요 경기 장면을 소개하고, 각 방송국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하여 주요 경기 내용을 전달했다.

민방의 'gorin.jp'는 2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Live1 채널은 테니스/축구/배구/농구/하키/비치발리볼 등 구기종목을 중심으로 편성함과 동시에 민방의 지상파TV에서 방송하는 일본 시합과 외국 선수들의 주요 경기를 제공했다. Live2 채널은 사이클/사격/카누/보트/복싱/태권도 등 올림픽에서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인 선수의 활약을 중심으로 방송했다.

이러한 민방의 공동 공식 사이트 'gorin.jp'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대회 기간 중 민방TV의 예정된 방송 외에도 연일 주요 장면을 상세히 소개하고, 경기 결과와 선수들의 인터뷰, 올림픽대회 뉴스, 메달 집계 현황, 칼럼 등 기존의 올림픽 방송보다 충실한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둘째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총 2000편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TV에서 본 장면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인 선수의 활약을 중심

으로 메달리스트와 주목받는 선수의 경기를 하이라이트 동영상으로 제공했다.

셋째 총 2000편 이상에 달하는 하이라이트 동영상 중에서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경기를 간단히 볼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충실히 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상단부에 있는 검색 스페이스의 대회일정, 경기, 선수, 메달의 각 항목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경기 하이라이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시청하는 올림픽에서 참가하는 올림픽으로!’를 키워드로 하여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공식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민방TV 각사의 방송 예정과 런던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TV로 관전하는 시청자와의 감동을 공유하고 생중계의 경우에는 트위터로 시합의 진행을 공유하는 시도도 전개했다.

그 외에도 민방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각종 경기의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트리밍 전송에 의한 동영상 재생 기능과 검색 기능(대회 일정별, 경기별, 선수별, 그리운 명장면), 경기결과와 스케줄, 선수 소개, 뉴스와 칼럼 전송, 민방TV의 방송 스케줄, 소셜 공유 기능 등을 탑재한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제공했다.

이와 같은 ‘gorin.jp’의 운영 결과 하이라이트 동영상은 2,268편, 라이브 스트리밍은 2개 채널에 총 27개 경기를 405시간 7분 제공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페이지뷰(PV) 4,460만 건, 유니크 유저(UU) 261만 건, 하이라이트 동영상 재생횟수 809만 건 등으로 최대의 액세스를 기록했다.

<표 5-12> 일본 민방TV의 ‘gorin.jp’ 액세스 현황

구분	하이라이트 동영상 수	페이지뷰(PV)	유니크 유저(UU)	하이라이트 동영상 재생회수
베이징	384	13,800,000	1,600,000	2,550,000
밴쿠버	1466	9,140,000	1,890,000	7,050,000
런던	2,268	44,600,000	2,610,000	8,090,000

제 4 절 영국 BBC의 2012 런던올림픽 방송

1. 영국의 런던올림픽 방송계획과 역대 올림픽 중계방송 시청 현황

영국의 경우 BBC가 2012년 런던올림픽의 국내 방송권(TV와 라디오)을 가지고 있고 유로스포츠(Eurosport)는 유럽지역 권리를, 채널4는 런던 장애인 올림픽의 국내 방송권을 보유했다. BBC는 2012 런던올림픽을 TV채널뿐만 아니라 PC, 모바일, 태블릿, 커넥티드 TV의 온라인에서 24시간 SD 또는 HD 생중계를 통해 거의 모든 경기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BBC의 공표에 따르면 총 2,500시간의 생중계가 방송된다고 했다. 또한 BBC의 레드버튼 서비스는 생중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도 제공한다고 했다. BBC 라디오에서도 경기중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B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보급과 함께 BBC i-Player와 BBC 웹사이트에서 중계경기뿐만 아니라 올림픽 뉴스도 제공했다. 스카이(Sky), 버진 미디어(Virgin Media), 프리셋(Freesat)은 가입자에게 BBC의 24시간 올림픽 생중계를 SD 또는 HD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채널4는 장애인 올림픽을 150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 올림픽 방송에서 가장 많은 방송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BBC와 유로스포츠는 주요 경기를 3D 방송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스카이(Sky), 버진 미디어(Virgin Media)를 통해 3D 경기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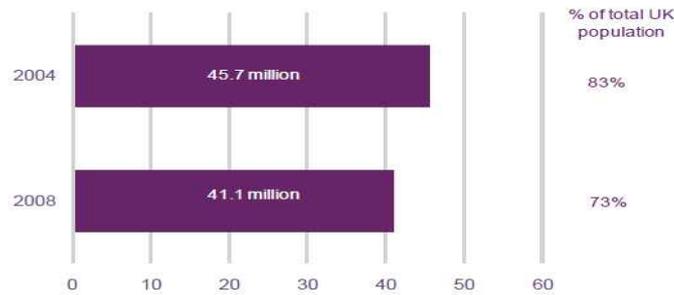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에 앞서 BBC는 라이브 사이트(Live sites)인 22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중계방송하고, 슈퍼 하이비전(Super Hi-Vision)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슈퍼하이비전 TV는 기존 HD TV보다 해상도가 16배나 높다고 한다. BBC 올림픽방송 책임자인 로저 모지(Roger Mosey)는 슈퍼하이비전 TV에 대해 "마치 유리창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고, 3D TV 입체화면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올림픽에서 영국의 TV 시청률은 그 동안 높은 편이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영국 국민 4,600만 명이 시청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4,100만 명의 영국 국민들이 올림픽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영국 국민들의 83%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영국 국민들의 73%가 시청한 셈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같은 시기의 TV 시청 조사와 비교해서 높은 수치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TV 시청이 감소한 것은 영국과 그리스 아테네는 2시간의 시차이지만 중국의 베이징은 7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TV 시청 가능시간이 줄었던 것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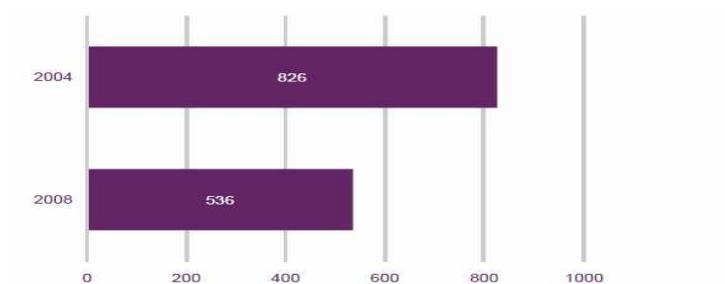
영국의 성인들은 2004년 올림픽에서는 평균 826분으로 거의 14시간을 시청하였고, 2008년에는 536분으로 거의 9시간 가까이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7] 2004년과 2008년 올림픽에서 영국의 TV시청



※ 출처: BARB 2004, 2008, 15분 연속시청, 4세 이상 성인 대상

[그림 5-8] 영국 내 올림픽 기간 평균 TV시청 시간



※ 출처: BARB 2004년(8.13~8.29)과 2008년(8.8~8.24)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는 TV시청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8월 영국 사람들은 평균 3,686분 TV시청을 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

의 평균 TV시청은 3,486분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07년 8월 평균 TV 시청시간은 3,418분이었으나 베이징 올림픽 시기인 2008년 8월에는 평균 TV 시청시간이 3,898분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영국 내 올림픽 개최연도와 전년도 TV시청 시간 비교



※ 출처: BARB 2003/2004년(8.13~8.29)과 2007/2008년(8.8~8.24)

또한 가장 많이 시청하는 올림픽 중계방송은 개폐회식과 육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가장 시청을 많이 한 경기 5위 중 3개 종목은 영국이 금메달을 딴 남자 100미터 계주, 여자 1,500미터 결선, 여자 800미터 결선 경기였다. 2008년에는 영국이 금메달을 딴 남자 사이클이 포함되었다.

2004년 한 해 동안 상위 50위 인기 프로그램 중 올림픽 프로그램은 38개가 차지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평균 900만 시청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영국의 켈리 홀즈(Kelly Holmes)가 금메달을 딴 여자 1,500 미터 결선, 역시 영국이 금메달을 딴 남자 100미터 계주 등이 포함되었다. 2004년 올림픽 개회식도 870만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그 해 전체 프로그램 시청 순위 50위에 선정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시청 순위 50위에 포함된 올림픽 프로그램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10] 2004/2008년 영국 내 Top 5 올림픽 중계방송(30분 단위)



※ 출처: BARB 2003/2004년(8.13~8.29)과 2007/2008년(8.8~8.24)

2. BBC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특징

BBC의 2012년 런던올림픽방송단 단장인 로저 모지(Roger Mosey)는 방송 목표를 “당신이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당신이 보고 싶은 시간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국은 1948년 런던올림픽 이후 64년 만에 2012년 런던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고 BBC는 주관방송으로 실력을 발휘했다. 특히 1964년에 비해 이번 올림픽은 방송 환경이 매우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BBC의 노력이 단연 돋보였다.

BBC는 ‘디지털 올림픽’ 방송을 표방하며 24개 채널을 통해 HD방송으로 중계하며 위성, 케이블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 전체 올림픽 중계 콘텐츠 분량은 2,500시간에 이른다고 했으며 BBC 웹사이트에 접속해 컴퓨터, 모바일, 스마트 기기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거의 모든 경기를 생중계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BBC 1, BBC 3이 올림픽 중계방송의 메인 채널이었으며, BBC HD, BBC 1HD, 라디오 5 Live(24시간 디지털 라디오 스테이션), 라디오 5 Live Sports Extra, 라디오 5 Live Olympic Extra(올림픽 기간 임시 채널)를 통해서도 올림픽 중계방송이 편성되었다. BBC 3 방송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플랫폼인 프리뷰(Freeview)에서 기존의 BBC Parliament 채널 대신 송출되었고, 케이블, 위성, 온라인에서는 기존의 BBC 3 채널 그대로 시청 가능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도 BBC Parliamnet 채널은 임시 송출이 중단된 바 있었다. 올림픽 기간 임시 채널인 라디오 5 Olympic Extra는 올림픽 기간 스포츠 중계와 뉴스 방송을 거의 생방송으로 다루었다.⁹⁰⁾

그 외에도 시청자들이 TV뿐만 아니라 PC,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TV를 이용해 다양한 플랫폼과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원하는 중계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BBC는 날씨, 뉴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문자 정보와 추가 동영상 등 쌍방향 디지털TV 서비스인 레드버튼(Red Button)을 이용해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리모컨에 있는 빨간색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경기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BBC는 인터넷 사이트(www.bbc.co.uk/sport)를 통해 올림픽 방송, 뉴스, 데이터 등 세부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개막식, 폐막식, 남자 100미터 결승 등 주요 경기는 3D 방송으로도 제공되었다. BBC HD 채널에서는 매일 밤 11시에는 3D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편성해 3D로 제작된 특별 스포츠 경기들을 방송하기도 했다.

BBC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중계방송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 조사에 따르면 런던올림픽으로 인해 응답자의 81%가 BBC에 대해 호감이 커졌다고 응답했다.⁹¹⁾

3. BBC의 런던올림픽 방송편성 현황

영국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현재까지 BBC가 올림픽을 단독 중계방송 하는 시스템이다. BBC는 보편적 시청권 조항에 따라 올림픽, 월드컵, 유로 축구 대회 등 국민적 관심사안의 스포츠 이벤트의 영국 내 방송권을 단독 혹은 다른 공공 서비스 방송사와 공동 보유하며 중계방송을 해왔다. 그러나 IOC는 '올림픽 중계권은 공공기업, 개인기업, 지상파, 위성, 모바일 혹은 대행업체인 에이전시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BBC를 견제하고 있다. 특히 BBC가 IOC로부터 취득한 영국 내 중계권은 BBC1, BBC3과 같은 TV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므로

90) 박성우(2011. 11.). 'BBC, 런던올림픽방송 기본운영계획 발표', <KBS 해외방송정보>

91) 황보연(2012. 8. 22.). BBC의 올림픽 중계혁명,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 /articleView.html?idxno=29296>

IOC로부터 수익 발생에 대해 집중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BBC가 IOC와 맺은 중계권료는 공식적으로 언급되거나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0~2012년 사이 BBC는 올림픽 중계권료로 대략 6천만 파운드 정도를 IOC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²⁾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BBC TV는 총 2,500시간을 올림픽방송에 할애함으로써 자신들의 방송 역사상 가장 많은 방송을 하였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1,000시간이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BBC는 올림픽 채널이라는 기치 아래 BBC1, BBC2(BBC1 뉴스 시간에 올림픽방송 보완 채널 역할), BBC3, BBC HD, BBC1 HD 등을 통해 올림픽 경기를 중계하였다.

또한 BBC는 스카이, 버진 미디어, 프리셋 등을 통한 레드 버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청자들이 24시간 생중계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리뷰와 BT 비전을 통해 레드버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채널도 제공되었다. 커넥티드TV를 위한 BBC 스포츠 앱도 제공되었고, 버진 미디어의 티보(TiVo) 이용자들도 BBC 레드버튼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받았다. 개최식, 폐회식, 주요 하이라이트 등은 3D TV로 제작되어 매일 제공되었다.

해설가 역시 올림픽 수영 5관왕인 이안 소프(Ian Thorpe), 복싱 은메달리스트인 아미르 칸(Amir Khan) 등 유명 스포츠 스타를 대거 영입하였다.

런던올림픽의 주요 경기들은 BBC 1, BBC 2, BBC 3을 통해 중계되었는데 BBC 1은 정규 뉴스를 제외하고는 올림픽 기간 중 거의 모든 방송시간을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을 편성하였고, BBC 2는 주중에 BBC 1의 정규뉴스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한 중계방송을 넘겨받아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주말의 경우 BBC 2는 거의 정규방송 편성을 유지하였다. BBC 3의 경우는 BBC 1이 모두 제공하지 못하는 경기들을 보완적으로 중계방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BBC 1은 오전 6시부터 <Olympic Breakfast>를 통해 올림픽방송의 문을 열었으며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는 주로 육상, 조정, 수영 등 그날의 첫 생중계 방송을 제공했다. BBC 1은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계속 중계방송을 전하는데 오후 1시부터 1시 45분까지는 BBC 2로 올림픽 방송을 넘겼다.

오후 1시 45분부터 4시까지는 BBC 1을 통해 사이클, 테니스, 다이빙, 승마 등 올림픽 중계

92) 박성우(2012. 7.). '영국: BBC, 페이스북과 손잡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실시', <KBS 해외방송정보>.

방송이 다시 제공되었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BBC 2가 올림픽 방송을 이어받아 경기를 중계하였다. 오후 7시부터 10시 35분까지는 BBC 1이 그날 저녁 주요 경기를 중계하였으며 오후 10시부터 10시 35분에는 BBC 2가 BBC 1을 대신하여 올림픽 방송을 진행하였다.

오후 10시 40분부터 자정까지는 <Olympic Tonight>을 통해 그날 인기 있거나 주목할 만한 스토리나 스포츠 경기를 소개하고 초대 손님과의 인터뷰 방송도 제공했다.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 15분부터 오전 1시까지 BBC 1은 <Olympic Sportsday>를 통해 그날 경기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BBC 3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BBC 1이 다 방송하지 못하는 경기들을 중계하였고, 7시부터 11시까지는 축구, 하키, 복싱, 농구 등 베스트 경기들을 중계방송 하였다.

<표 5-13> BBC TV 올림픽방송 현황(주중 평균 기준)

시간대	BBC 1TV	BBC 2TV	BBC 3TV
06:00	<Olympic Breakfast>		
07:00			
08:00			
09:00	중계방송		중계방송
10:00			
11:00			
12:00			
13:00	BBC 뉴스	<Olympic London 2012>	중계방송
14:00	45분		
15:00	중계방송		
16:00			
17:00			중계방송
18:00	BBC 뉴스/런던 뉴스	<Olympic London 2012>	
19:00	중계방송		
20:00			
21:00	BBC 뉴스/런던 뉴스		중계방송
22:00	BBC 날씨	<Olympic London 2012>	
23:00	40분 <Olympic Tonight>		
24:00	BBC 뉴스		
	10분 <Olympic Sportsday>		
	55분 일기예보		
01:00	BBC 뉴스		

<표 5-14> BBC TV 올림픽방송 현황(주말 편성/7월 30일~8월 5일 기준)

시간대	BBC 1TV		BBC 2TV		BBC 3TV		
	토	일	토	일			
06:00	<Olympic Breakfast>		정규 편성				
07:00							
08:00							
09:00	중계방송	BBC주말뉴스				정규 편성	중계방송
10:00							
11:00	BBC 주말뉴스	중계방송					
12:00							
13:00	BBC 런던뉴스	중계방송	30분				
14:00	15분						
15:00	중계방송	중계방송	정규 편성				
16:00							
17:00	BBC 주말뉴스	50분 런던뉴스	정규편성				
	BBC 런던뉴스						
	15분 중계방송	런던뉴스					
18:00							
19:00	중계방송						
20:00							
21:00							
22:00	중계방송	15분 주말뉴스	정규편성				
	30분 주말뉴스	30분 런던뉴스					
	50분 복권	40분 <Olympic Tonight>					
23:00	<Olympic Tonight>						
24:00	<Olympic Tonight>	BBC 뉴스					
	25분 BBC 뉴스	10분 <Olympic Sportsday>					
	30분 <Olympic Sportsday>	55분 일기예보					
01:00	15 일기예보	BBC 뉴스					
	20 BBC 뉴스						

제 6 장 연구결과 및 주요 합의

제 1 절 연구 결과

본 연구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국내 지상파방송의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분석, 둘째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의 중계방송 비교분석을 통한 추이 파악, 셋째 국내외 주요 방송사의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 비교분석이다. 이번 연구는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분석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국내 올림픽 방송에 대해 자료를 축적해나가고, 아울러 국내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내 올림픽 중계방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분석 결과

(1) 일반 편성현황 분석결과

①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빈도 및 시간

-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국내 지상파 4개 채널(KBS 1TV, KBS 2TV, MBC TV, SBS TV 이하 TV 생략)은 올림픽 경기를 총 2,434건, 38,619분 중계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널별로는 MBC 11,222분(724건), SBS 10,198분(712건), KBS1 8,663분(508건), KBS2 8,536분(490건) 순이었다.
 - 올림픽 기간 날짜별로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계방송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시간 기준으로는 7월 29일/30일, 8월 2일/5일/8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대체로 20개 이상의 종목에서 50~60개의 경기가 열리고 메달 경기만 하루에 10~11개가 열리는 올림픽 중반기이기 때문에 중계방송 분량 자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8월 2일의 경우는 유도/역도/펜싱/배구/핸드볼/사격 등 한국에서 인기 있는 종목과 양궁 개인 결승전(기보배 선수), 축구 예선전(한국-가봉) 등

주요 한국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② 중계방송/방송형태별 편성

- 생중계/녹화중계의 비중을 분석했더니,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녹화중계 1,487건(61.1%)으로 생중계 947건(38.9%)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생중계가 21,922분(56.8%)으로 녹화중계 16,697분(43.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채널별로 KBS2, MBC, SBS 모두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녹화중계가 많았으나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생중계가 많았지만, KBS1만 편성빈도/편성시간 기준 모두 녹화중계가 많았다.
- 올림픽 경기를 전체 중계방송 했는지, 일부만 중계방송 했는지 방송형태를 살펴보았더니 경기 전체를 모두 중계방송 한 경우가 1,353건(23,156분)으로 일부 중계방송 한 경우 1,081건(15,463분)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올림픽 경기를 중계할 때 중단 없이 방송한 비율이 높아 시청권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중계방송 한 경우 역시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④ 경기 종목별 편성

- 런던올림픽은 총 26개 종목(세부종목 302개)으로 나뉘 열렸는데 이중 요트를 제외하고 25개 종목은 한 건 이상 편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편성빈도에서는 수영 401건(16.5%)이 가장 많이 편성되었고, 육상 390건(16.1%), 유도 327건(13.5%), 축구 188건(7.8%), 양궁 172건(7.1%), 펜싱 147건(6.1%), 체조 118건(4.9%), 레슬링 74건(3.1%), 배드민턴 73건(3.0%), 사격 70건(2.9%), 태권도 69건(2.8%), 사이클 68건(2.8%), 탁구 61건(2.5%), 핸드볼 60건(2.5%), 배구 57건(2.4%) 순으로 나타났다.
 - 종목별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축구가 총 4,574분(12.4%) 중계되어 가장 많이 편성된 종목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체조 3,626분(9.9%), 펜싱 3,140분(8.5%), 육상 3,106분(8.5%), 수영 3,010분(8.2%), 유도 2,703분(7.4%), 탁구 2,316분(6.3%), 양궁 2,309분(6.3%), 핸드볼 2,148분(5.8%), 배구 2,086분(5.7%), 배드민턴 1,699분(4.6%) 순으로 나타났다.

- 상위 5순위의 편성 집중도를⁹³⁾ 분석했다니 편성빈도로는 61.0%, 편성시간으로는 47.5%로 나타났다. 편성빈도 분석에서 채널별 집중도는 MBC 66.6%, SBS 61.5%로 높게 나타났다, KBS2 58.4%, KBS2 52.2%이다.

⑤ 한국 출전/비출전 경기 편성

-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중 한국 출전 경기는 편성빈도 기준으로 1,259건으로 전체 방송건수 중 51.7%였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24,920분으로 전체 방송시간 중 64.5%를 차지했다.
 - 채널별로는 편성빈도 기준 SBS 65.7%, KBS 52.2%, MBC 47.5%, KBS1 37.6% 순으로 한국 출전 경기를 많이 편성하였고, 편성시간 기준으로 KBS2 70.3%, SBS 70.3%, MBC 65.4%, KBS1 50.9%순으로 한국 출전 경기를 편성하였다.
 - 한국 출전 경기일수록 전체 중계하는지, 한국 비출전 경기일수록 일부 중계하는지 교차분석한 결과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 편성빈도 기준 한국 출전 경기를 많이 중계한 종목은 유도, 펜싱, 수영, 양궁, 축구 순이었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축구, 펜싱, 체조, 탁구, 핸드볼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 구기종목은 경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편성빈도 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어려운데 한국 출전 경기로 축구가 편성빈도/편성시간 기준에서 5위 안에 들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한국 비출전 경기로 편성빈도/편성시간 기준 모두 육상,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편성빈도 기준으로 육상 379건(32.6%), 수영 267건(22.9%)이었고, 편성시간 기준으로 육상 2,815분(23.8%), 수영 1,866분(15.8%)이었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종목별 금메달 수는 육상 47개, 수영 46개로 전체 종목에서 육상, 수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 한국 비출전 경기로 육상과 수영 종목을 가장 많이 편성하는 데 요인이라고 본다.

93) 경기종목별 분석에서 상위 5순위가 전체 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중계방송에서 상위 5순위 종목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⑥ 경기종류별(메달관련성) 편성 현황

-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메달 경기는 989건(40.6%), 비메달 경기 1,445건(59.4%)로 나타났다.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비메달 경기는 총 21,741분으로 61.5%, 메달 경기는 총 14,878분으로 38.5%로 편성되었다.
- 한국 출전 경기일수록 메달 위주의 편성을 하는지 교차분석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⑦ 성별 중계방송 편성현황

- 올림픽 중계방송의 성별 경기 편성현황을 분석했더니 남성경기가 여성경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편성빈도 기준으로 남성경기 1,411건(58.2%), 여성경기 1,007건(41.6%), 혼성 경기 5건(0.2%)이었다. 편성시간으로는 남성경기 19,865분(54.0%), 여성경기 16,738분(45.5%), 혼성경기 151분(0.4%)으로 나타났다.

⑧ 선수별 중계방송 편성현황

- 국내 선수별 가장 많이 중계방송 한 순위를 분석해보았더니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수영의 박태환 선수가 높았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체조의 손연재 선수가 높게 나타났다. 국외 선수로는 쑤양(수영), 우사인 볼트(육상), 카나예비(체조) 선수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쑤양(수영)과 카나예비(체조)는 우리나라의 박태환 선수와 손연재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같은 경기에서 함께 경쟁한 선수들이 동반해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육상의 우사인 볼트는 워낙 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주 많이 편성하고 있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성빈도 기준 국내외 선수별 순위는 1위 박태환(수영) 85건(635분), 2위 쑤양(수영) 49건(367분), 3위 송대남(유도) 48건(300분), 4위 우사인 볼트(육상) 43건(317분), 5위 김재범(유도) 40건(320분), 6위 김현우(레슬링) 40건(306분), 7위 기보배(양궁) 39건(399분), 8위 라이언 록티(수영) 35건(197분), 9위 야닉 아넬 35건(180분), 10위 요한 블레이크(육상) 34건(259분)순이었다.
- 편성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중계방송한 국내 선수는 1위 손연재(체조) 1,437분, 2위 이용대/정재성(배드민턴) 713분, 3위 박태환(수영) 635분, 4위 진중오(사격) 481분, 5위 기보배(양궁) 399분 순이었다.

(2) 중복편성 현황

① 일반 중복편성 현황

- 전체 올림픽 중계 방송시간 대비 중복편성 시간은 21.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2개 채널 중복편성 시간은 17.6%를 차지했으며 3개 채널의 중복편성 시간은 4.2%로 줄었다. 3개 채널 중복편성은 총 11건으로 채널당 543분이었고, 2개 채널 중복편성은 총 114건으로 3,392분이었다.
 - KBS1-MBC-SBS의 중복편성은 6건(500분)이었고, KBS2-MBC-SBS는 5건(43분)이었다. 2개 채널 중복편성 분석 결과 KBS2-MBC가 가장 많았는데 35건(1,423분)이었다. 다음으로 MBC-SBS 중복편성이 28건(899분)으로 많았고, KBS2-SBS가 25건(443분), KBS1-SBS 17건(398분), KBS1-MBC 9건(229분)이었다.

② 종목별 중복편성 현황

- 종목별 중복편성의 편성빈도 분석 결과는 육상 27건(21.6%), 수영 16건(12.8%), 양궁 13건(10.4%), 펜싱 11건(8.8%)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중복편성 편성시간 분석 결과에서는 펜싱 KBS2-MBC 369분(9.4%)/KBS1-MBC 38분(1.0%)이었고, 탁구 KBS2-MBC 219분(5.6%), KBS2-MBC 134분(3.4%), 체조 KBS2-MBC 290분(7.4%), 양궁 KBS2-MBC 222분(5.6%)으로 종목별로 KBS와 MBC 채널 중복편성이 두드러졌다.

③ 한국출전여부/메달관련성 중복편성 현황

- 한국 출전 경기의 중복편성은 67건(3,142분)이었고, 한국 비출전 경기의 중복편성은 58건(793분)이었다. 중복편성 분석 결과 한국 비출전 경기에 비해 한국 출전 경기의 중복편성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중복편성 현황을 메달 경기와 비메달 경기의 편성빈도 분석결과 중복편성에 있어 메달 경기 62건, 비메달 경기 61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비메달 경기는 2,061분, 메달 경기는 1,410분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2. 베이징올림픽 vs 런던올림픽 비교분석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전체 시간은 25,536분/814건이었고,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전체 시간 38,619분/2,434건이었다(베이징 올림픽(오전 11시부터 자정)과 런던 올림픽(전체 방송시간)의 중계방송 분석대상이 약간 달라져 단순히 증감 추이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베이징 올림픽 때는 편성시간 기준으로 SBS가 7,941분으로 가장 많이 편성한 채널이었으나 런던올림픽에서는 MBC가 11,222분으로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양 대회 모두 KBS1과 KBS2의 중계방송 시간을 합하면 올림픽 중계방송을 KBS가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종목별 편성분석에서는 편성빈도 기준으로 베이징 올림픽은 유도, 수영, 육상, 양궁, 핸드볼 5개 종목이 45.5%를 차지했고 런던올림픽은 수영, 육상, 유도, 축구, 양궁 5개 종목이 61.0%를 차지했다. 그러나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이 야구, 탁구, 핸드볼, 기타, 양궁 5개 종목이 50.6%로 구기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런던올림픽은 축구, 체조, 펜싱, 육상, 수영 5개 종목이 47.5%였다. 편성빈도 기준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올림픽이 상위 5개 종목의 집중도가 높았고, 편성시간 기준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이 더 높았다.
- 베이징 올림픽은 한국 출전 경기를 21,774분(85.3%)/654건(80.3%) 중계방송하였고, 런던올림픽은 한국 출전 경기를 24,920분(64.5%)/1,259건(51.7%) 중계 방송하였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출전 경기를 집중적으로 편성했다면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는 한국 비출전 경기를 비교적 많이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메달 경기를 404건(49.6%), 12,299분(48.1%)을 중계방송하였고, 런던올림픽에서는 메달 경기를 989건(40.6%), 14,878분(38.5%) 중계방송 하였다. 메달 경기 위주의 중계방송 편성도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올림픽에서 감소하였고, 비메달 경기 중계방송의 비율이 높아졌다.
-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올림픽의 중복편성 현상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생방송으로 전체 중계된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베이징 올림픽 때는 중복편성된 비율이 전체 방송시간의 55.2%나 되었다. 그러나 런던올림픽에서는 중복편성 비율

이 21.8%로 매우 현저하게 줄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3채널 중복편성 비율이 41.4%에 달했으나 런던올림픽에서는 3채널 중복편성 비율은 4.2%로 대폭 줄었다.

3. 한국, 일본, 영국의 런던올림픽 방송 비교분석

- 한국, 일본, 영국 3개국 주요 지상파 채널(NHK, BBC1, BBC2, KBS1, KBS2, MBC, SBS)의 편성표 비교분석 결과, SBS 297시간 50분으로 NHK 297시간 43분과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 각 채널의 편성시간은 3개 채널(KBS1, KBS2, BBC2)을 제외하면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7개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올림픽 중계방송을 편성한 채널은 SBS로 17,870분(297시간 50분)이었고 NHK는 17,863분(297시간 43분), MBC 17,440분(290시간 40분), BBC1 17,309분(288시간 29분), KBS2 11,050분(184시간 10분), KBS1 10,525분(175시간 25분), BBC2 1,855분(30시간 55분) 순으로 나타났다.
 - 특기할 만 한 점은 KBS1과 KBS2가 같은 방송사로서 서로 비슷한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비율을 보인 반면, BBC1과 BBC2는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 올림픽 방송을 '경기 중계방송' '올림픽 정규방송' '정규방송의 올림픽 특집'으로 분류한 결과 올림픽 정규방송 시간은 BBC1이 많았고, 경기 중계방송으로 편성한 경우는 NHK가 많았다.
 - '올림픽 정규방송' 편성시간은 BBC1(5,995분), MBC(5,425분), KBS1(5,065분), SBS(3,510분), BBC2(1,560분), NHK(2,581분), KBS2(2,160분)이었다.
 -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은 NHK(11,310분)BBC1(10,939분), MBC(9,855분), SBS(9,205분), KBS2(8,320분), KBS1(5,070분), BBC2(295분)이었다.
- 올림픽 기간 중 가장 많이 올림픽 방송을 편성한 날짜는 국내 채널들의 경우 8월 2일(2,560분)이었고, NHK는 7월 30일(1,811분), BBC1/BBC2는 8월 5일(1,214분)이었다.
 - 런던 올림픽에서 7월 30일(22종목, 54경기, 7메달경기), 8월 2일(21종목, 56경기, 10메달경기), 8월 5일(21종목, 50경기, 11메달경기)로 많은 종목과 경기, 메달전 등이 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각국이 편성량이 가장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주요 합의

2012년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본 연구는 국내 지상파방송사들의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 작업으로서 올림픽 중계방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분석은 베이징 올림픽이나 해외 공영방송의 중계방송과 비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 평가를 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합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지상파방송의 올림픽 중계방송은 편성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채널간 차별성이 없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량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런던 올림픽의 경우 시차 때문에 새벽시간대에 생중계를 하고 낮 시간대에 다시 녹화중계를 함으로써 편성량 증가는 매우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편성량 자체를 문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올림픽 기간 일본의 NHK(297시간)나 영국의 BBC1(288시간)도 채널당 올림픽 방송 편성량이 국내 채널들과 유사하거나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올림픽 기간 동안 공영방송의 주채널만 올림픽 채널로 전환하는 데 비해 국내 지상파 채널은 공민영 구분 없이 전 채널이 올림픽방송 전문 채널 체제로 바뀐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방송을 선호하지 않는 시청자들의 드라마, 예능, 교양 등 다른 장르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공영방송 내에서 채널간 편성에서도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KBS1(175시간)과 KBS2(184시간)는 거의 편성량이 유사한 반면 BBC1(288시간)과 BBC2(30시간)는 채널간 차별성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BBC의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 1채널은 올림픽 채널로 완전히 전환하여 국민적 관심사인 올림픽 방송을 충분히 시청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2채널은 거의 평상시 편성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스포츠 외 다른 장르를 선호하는 시청층을 배려함으로써 편성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다른 지상파 채널들에 비해 KBS1이 우리나라가 출전하는 않는 경기나 소외된

종목을 편성하는 장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이 두 채널인 만큼 어떤 편성방향이 국민들에게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향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런던 올림픽에서 중계방송의 중복편성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베이징 올림픽 때 3채널 또는 2채널 중복편성 비율이 전체 방송시간의 55.2%였으나 이번 런던 올림픽 때는 21.8%로 하락했다. 특히 3채널 중복편성 비율이 베이징 올림픽 때 41.4%였던 것이 런던 올림픽 때는 4.2%로 대폭 줄었다.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중복편성이 대폭 개선됨으로써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이 다소나마 확보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런던 올림픽에서 중복편성 문제가 개선된 데는 지상파방송사간 순차방송 합의가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런던 올림픽까지 4년간 국내 방송계는 그 어느 때보다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심각했다. 다행히 그러한 갈등과 분쟁의 결과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기회가 되었고 제재 조치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 등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강제 장치보다는 방송사들의 자율 의지가 얼마나 효율적인 규제 효과가 있는지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셋째 올림픽 중계방송의 종목 편중 현상은 여전히 문제이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 종목의 편성이 특기할 만했다면 런던 올림픽 때는 축구 중계방송이 많은 편성량을 보였다는 점을 제외하고 양 대회 모두 유도, 수영, 육상, 양궁 등 종목에 편중하고 있다. 런던 올림픽의 경우 수영, 육상, 유도, 축구, 양궁 상위 5개 종목 편성비율이 전체 중계방송에서 61.0%나 된다(편성빈도 기준).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편중 편성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세였던 종목, 특정 스포츠 스타에 의존하는 종목,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며 새롭게 부상하는 종목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이 아직까지는 아마추어리즘을 표방하는 유일한 세계 경기라는 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4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을 고려한다면 소외된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나 인기 종목을 다소 비중 있게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5개 종목 집중도가 현재처럼 높은 종목 편중 편성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경기 편중 편성, 메달 경기 편중 편성 현상이 다소 개선되었다.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출전 경기의 편성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64.5%로 한국 출전 경기 편중 편성 현상이 다소 나타나기는 했으나 올림픽 경기가 국가간 경쟁이라는 점을 고려하건대 자국 위주의 중계방송 현상을 아예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출전 경기 편성 비율 64.5%라는 수치는 베이징 올림픽 85.3%에서 20% 가량 완화된 것이다.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한국 출전 경기 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은 방송사간 순차편성 합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인기 종목을 방송사간 분배하여 순차편성하기로 함으로써 방송사별로 담당하는 종목 내에서 자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편성할 여지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메달 경기 편중 현상도 완화되었다.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 경기 편성량이 10% 정도 하락하였다.

다섯째 런던 올림픽에서 중계방송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중계가 아닌 일부중계 편성량(44.4%)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중계방송 형태에서 일부중계란 경기 시작 후 끝까지 보여주지 않거나 경기 중간부터 중계한다든지, 경기 중간에 중계방송을 시작해서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일부 중계방식은 계획적인 중계라기보다는 중요 경기간의 시간채우기용으로 이루어지거나 중계방송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경기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고 있던 경기를 중간에 끊는 것이 짜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보다 계획적인 올림픽 중계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중복편성, 편중편성 등에서 다소 긍정적인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다. 그러나 국내 올림픽 방송에서 채널간 차별성, 종목 편중현상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방송편성 행위는 방송사마다 고유한 권한이자 생존 전략이다. 방송편성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방송사의 윤리나 도덕에 의한 강요가 쉽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시청자 복지와 다양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분석결과가 국내 올림픽 중계방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지만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급등하는 스포츠 중계권료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중계권 구매방식을 어떻

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민영방송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이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어야 그 결과물, 즉 편성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방송시간 순차편성 합의, 다양한 단말기로 방송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중계, 3D와 같은 새로운 TV기술의 도입 등으로 런던 올림픽 방송을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오랜 과업으로 준비기간이 짧았고, 그에 따라 빈번했던 방송사고나 비전문성이 엿보였던 해설 방송 등은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양적 분석에는 충실하였지만 올림픽 중계방송의 질적 평가까지 다 포괄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차기 올림픽 중계방송 평가에서는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와 분석이 보완되어 좀 더 발전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환(2010). 한국언론학회 ‘스포츠이벤트의 <방송중계권> 갈등과 대안모색’
- 김택환·이상복(2005). 『미디어 빅뱅, 한국이 바뀐다』. 서울: 박영률출판사.
- 박보현(2008). 2006년도 지상과 TV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6), 204~212.
- 송해룡(2001). 스포츠 중계권의 수급현황과 공영방송의 편성전략. 『방송문화연구』, 13, 137-166.
- 여정권이창섭(2006). 스포츠케이블 방송사의 프로야구 중계 편중 및 중복 편성에 관한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1(1), 157~170.
- 윤호잔·이동훈(2004). 지상과 방송 3사 스포츠 뉴스 분석. 한국영상산업진흥원 뉴스워치 보도자료
- 이기현·이동훈(2004). 아테네 올림픽 관련 보도프로그램의 스포츠저널리즘 평가. 한국영상산업진흥원 뉴스워치 보도자료.
- 조성식, 박영욱(2001). TV 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과 편성 요인.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4(2), 539~554.
- 강희중(2010). 중계권 에이전시 등장으로 풀 구성 한계 보여. 신문과 방송. 2010년 3월호.
- 김경환(2010). 스포츠 이벤트의 <생방송중계권> 갈등과 대안모색. 2010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스포츠와 미디어 세미나, 2010.5, 35-48
- 김명전(2010), 『미디어법』, 박영사
- 김원제, 송해룡, 김재철, 조항민(2009).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9 Vol. 9 No. 12. p.401.
- 김지훈(2010), “방송과 보편적 서비스”, 고려법학 제5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2007), “보편적서비스 실현방안보고서”
- 박성우(2011. 11.). 'BBC, 런던올림픽방송 기본운영계획 발표', <KBS 해외방송정보>

- 박성우(2012. 7.). ‘영국: BBC, 페이스북과 손잡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실시’, <KBS 해외방송정보>.
- 서울고법 ‘SBS 월드컵 독점중계 과징금 정당’(2012. 2. 17). 『아주경제』.
- 송해룡, 김원제(2005),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협회,
- 송해룡·김원제·조항민(2007). 인기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접근권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중계권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차원을 중심으로. 『미디어경계와 문화』, 5권 2호, 80~120.
- 송해룡·김원제·정세일·조항민(2008). 『보편적 시청권의 국민관심행사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연구지원사업 보고서.
- 심석태(2007).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소고. 언론과 법. 6(1), pp.258-288.
- 안창현(2010). 日, 저팬 컨소시엄 통해 올림픽 중계권 협상/중계방송 방식 결정. 『KBS 해외방송정보』, 월호, Available: <http://office.kbs.co.kr/book1/7013>
- 윤병진(2005).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스포츠. 한올아카데미.
- 윤호진·최세경(2007), “디지털 융합 환경하에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공정접근과 보편적 서비스 연구”, 방송위원회자유
- 이호영·윤성옥(2008).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분석: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8-19), 서울: 한국전파진흥원.
- 정두남(2012). <스마트미디어 시대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연구: 상업방송의 주요 스포츠 이벤트 독점 중계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정용준(2002). 인기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3권 1호, pp.205~229.
- 정용준(2010a).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중계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 문제의 진단과 해법. KBS 발제문. 4월 23일.
- 정용준(2010b). 중계권료 폭등에 공동 대처. 신문과 방송. 2010년 3월호.
- 최혜선(2010).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있어서의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법적고찰.
- 황보연(2012. 8. 22.). BBC의 올림픽 중계혁명,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296>

- Aktin, W. & Litman, B.(1986). Network TV Programming: Economics, audiences, and the Rating Games, *Journal of communication*, 36(3), 32-50.
- Bainer, A. (2001). *Sport, Nationalizaion, and Globalizatio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Perspectives*. Albany, NY: SUNY.
- Billings, A. C. (2007). From diving boards to pole vaults: gendered athlete portrayals in the “big four“ sports at the 2004 Athens Summer Olympics.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72(4), 329-344.
- Billings, A. C. (2008). *Olympic media inside the biggest show on television*. NY: Routledge.
- Billings, A. C. & Angelini, J. R. (2007). Packaging the games for viewer consumption: nationality, gender, and ethnicity in NBC’s coverage of the 2004 Summer Olympics. *Communication Quarterly*, 55(1), 95-111.
- Billings, A. C. & Eastman, S. T. (2002). Nationality, gender, and ethnicity: formation of identity in NBC’s 2000 Olympic coverage.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7(3), 349-368.
- Billings, A. C. & Eastman, S. T. (2003). Framing identities: gender, ethnic, and national parity in network announcing of the 2002 Winter Olympics. *Journal of Communication*, 53(4), 369-386.
- Clarke, A. & Clarke, J. (1982). Highlights and action replays : ideology, sport, and the media. In J. Hargreaves(ed.), *Sport, Culture, and Ideology*(pp. 62-87). London:Routledge.
- Eastman, S. T. & Billings, A. C. (1999). Gender parity in the Olympics: Hying women athlete, favoring men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3(2), 140-170.
- Eastman, S. T. & Billings, A. C. (2000). Sportscasting and sports reporting: The power of gender bias, *Journal of Sports and Social Issues*, 24(1), 191-212.
- Espy, R. (1979). *The Politics of the Olympic Games*. Berkeley, CA: Univeristy of California Press.
- Foley, D. E. (1990). The great American football ritual: reproducing race, class, and gender inequality. *Sociology of Sport Journal*, 7, 111-135.
- Garland, J. & Rowe, D. (1999). War minus the shooting? Jingoism, the English press, and

- Euro 96.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3, 80-95.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Gruneau, R. (1983). *Class, Sports, and Social Development*. Amherst,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Hall, S. (1971). *Innovation and Decline in the Treatment of Culture on British Television*. Paris: UNESCO.
- Hargreaves, J. A. (2000). *Heroines of Sport*. London: Routledge.
- Heistand, M. (2006, Jan. 18) NBC aiming for Olympic viewers to stay tuned. USA Today, p. 2C.
- Higgs, D. T. & Willer, K. H. (1994). Gender bias and the 1992 Summer Olympic Games: An analysis of television coverage.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18, 234-246.
- Ingham, A. G. & Donnelly, P. (1990). Whose knowledge counts? The production of knowledge and issues of application in the sociology of sport. *Sociology of Sport Journal*, 7, 58-65.
- Ingham, A. G., Blissmer, B. J. & Davidson, K. W. (1999). The expendable prolympic self: going beyond the boundaries of sociology and psychology of sport. *Sociology of Sport Journal*, 16, 236-268.
- Jutel, A. (2002). Olympic road cycling and national identity: Where is Germany?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6(2), 183-192.
- Kane, M. J. (1989). The post-Title IX female athlete in the media: Things are changing, but how much?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60(1), 58-62.
- Larson, J. F. & Park, H. S. (1993). *Global Television and the Politics of the Seoul Olympics*. Boulder, CO: Westview.
- Larson, J. F. & Rivenburgh, N. K. (1991). A comparative analysis of Australian, US, and British telecasts of the Seoul Olympic ceremony.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5(1), 75-94.
- Mandan, M. (2000). It's not just cricket: World Series Cricket: race, nation, and diasporic Indian identity.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4(1), 24-35.

- Miller, T., Lawrence, G., McKay, J. and Rowe, D. (2001). *Globalization and Sport: Playing the World*. London: Sage.
- Owen, B., Beebe, J., & Manning, W. Jr. (1974). *Television Economics*. 최양수 역(1996) 『텔레비전 경제학』. 서울: 나남.
- Picard, R. G. (2002). *Media Economic: Theory and Practice*. 김지운 역(2005). 『미디어 경제학』 서울: 나남.
- Rowe, D. (1999). *Sports, culture and the media: the unruly trin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Stempel, C. (2006). Televised sports, masculinist moral capital, and support for the US invasion in Iraq.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30(1), 79~106.
- Tuggle, C. A. & Owen, A. (1999). A descriptive analysis of NBC's coverage of the Centennial Olympic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3, 171~182.
- Wang, X. (2005, Dec. 25) Gold is not sole goal for Chinese sports. *Xinhua General News Service*.
- Whannel, G. (1984). The television spectacular. In A. Tomlinson and G. Whannel(eds), *Five Ring Circus: Money, Power, and Politics at the Olympic Games*(pp. 30-43). London: Pluto Press.

부록 1.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 방송편성표

<표 1> KBS1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26일~7월 29일)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4						4		
5						5		30 2012 런던올림픽 ①수영(남) 400m결승 (박태환출전) ②탁구 여 단식2R
6				00	KBS 뉴스광장	6	00 2012 런던올림픽 개막식	00 KBS 뉴스
7				50	인간극장	7		10 2012 런던올림픽 기획 결어서 세계속으로
8				25	아침마당	8	00 2012 런던올림픽특집 KBS 뉴스광장	00 KBS 뉴스
9				30	KBS 뉴스	9	30 2012 런던올림픽 기획 아침마당	3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10	40	
11				00 러브인 아시아 55 바른말 고운말	00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11	00 2012 런던올림픽 개막식	00 TV쇼 진품명품
12				00 KBS 뉴스12		12	00 KBS 뉴스 10 2012 런던올림픽 기획 결어서 세계속으로	10 전국노래자랑 -전남 보성군-
1				00 KBS결작선 동안미녀	00 열린채널 30 100년의 가게	1	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20 100년의 가게
2				00 KBS 뉴스 10 제22회 KBS 국악 대경연	10 시사기획 창	2	00 상상친구 구매구매 30 퍼쉬와 줍스	5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식 (주요경기 재방송)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3				00 KBS 기상 속보 폭염		3	00 특별생방송 여기는 엑스포 현장입니다	50 런던올림픽특집 위대한 도전 1948-2012
				05 제22회 KBS 국악 대경연	0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1948 런던으로 간 대한민국 전사들 55 바른말 고운말			
4				00 KBS 오늘의 경제		4	00 2012 여수세계박람회 특집 영상포럼 바다는 사람에게 호른다	50 KBS 뉴스
				10 여름방학특집 죽제의 바다 여수엑스포에 가다 제4편	10 특별생방송 여기는엑스포 현장입니다			
5				00 KBS 뉴스5		5	00 2012 런던올림픽 ①배드민턴 여단체/혼합복식 ②유도(남) 여48kg/남60kg ③사이클 남 도로 ④펜싱 여자 폴로테 (남현희출전) ⑤사격 남 도로 여10m 공기소총 ⑥수영(남) 400m 자유형예선 (박태환출전) ⑦체조 남자예선	50 2012 런던올림픽 ①탁구 남녀단식예선 ②체조 여자예선 ③사격 여자10m 공기권총결선 ④펜싱 남자 사브르 64강 ⑤수영(남) 200m 자유형예선 (박태환출전)
				20 동물의 세계				
6				00 6시 내고향		6		
				55 시청자칼럼 우리는 세상				
7				00 KBS뉴스 7		7		
				30 한국인의 밥상	30 소비자 고발			
8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8		
9				00 KBS 뉴스9	00 2012 런던올림픽개막 특집 KBS 뉴스9	9	00 2012 런던올림픽특집 KBS 뉴스9	00 KBS 뉴스9
							50 2012 글로벌 다큐멘터리 미리클 보디 제1편 우사인 볼트, 최고 속도의 비밀	40 2012 런던 올림픽 ①탁구 남자 단식 2R ②유도 남66kg 준결 ③육구 남B조 예선 멕시코VS가봉
10				0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1948 런던으로 간 대한민국 전사들	00 런던올림픽특집 위대한 도전 1948-2012	10	50 특파원 현장보고	
				50 아름다운 사람들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11				00 KBS 뉴스라인	00 2012 런던올림픽특집 KBS 뉴스라인	11	30	
12				40 2012 런던올림픽특집 런던드림 한관!-유도	40 2012 런던올림픽특집 런던드림 1010!-양궁	12	생방송 심야토론	20 2012 여수세계박람회 특집 미래의 바다를 보다 [광주충곡]
1				20 KBS 뉴스	20 런던올림픽개막 특선영화 페이스메이커	1	10 KBS 뉴스	15 KBS 뉴스
2				30 TV미술관		2	15 런던올림픽기획 독립영화관 점프아원	20 KBS 바둑왕전
3				20	40 2012 런던올림픽특집 런던드림 박태환, 3분40초07	3	20	30
					20 2012 런던올림픽특집 런던드림 한관!-유도			

<표 2> KBS1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30일~8월 5일)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4						4		
5	00 2012 런던올림픽 ①다이빙(녹) 여싱크로3m 스프링보드 결승 ②탁구 여자단식3R ③수영(녹) 전날 주요결승	30 2012 런던올림픽 ①탁구 남자단식4R ②수영(녹) 200m자유형 결승 하이라이트 남62kg결승	30 2012 런던올림픽 ①탁구 남자단식8강 ②수영 주요경기결승 하이라이트	30 2012 런던올림픽 ①펜싱 여 사브르 결승 ②역도(녹) 남자77kg결승 (사재혁출전) ③하키 남B조 예선 한국VS독일 ④수영 100m자유형결승 (엘프스출전)	00 런던올림픽 수영(녹) 여200m평영 결승 외	5	30 2012 런던올림픽 ①수영 여200m평영 결승 외 ②탁구 남자단체1R	00 2012 런던올림픽 ①수영(녹) 1500m자유형 결승 (박태환출전) ②육상 여자100m결승
6	00	KBS 뉴스광장			00 KBS 뉴스광장	6	00 KBS 뉴스광장	00 KBS 뉴스 10 KBS 네트워크 특선 남도 지오그래피 -광주-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7				50 KBS 뉴스광장		7		10 한국 현대사 증인 TV 자서전
8	50	인간극장				8	50	00 KBS 뉴스
9	25	아침마당				9	1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30	KBS 뉴스						1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55 아름다운 사람들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11	55 2012 런던올림픽기획 KBS 스페셜 런던의 재탄생	0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올림픽 사이언스	00	특별생방송 여기는 엑스포 현장입니다		11	00	00 한국 제발전 -강원 정선-
	55	바른말 고운말						
12	00	KBS 뉴스12				12	00	00 KBS 뉴스
							10	10 KBS 뉴스
1	0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식 플러스				1	00	10 전국노래자랑 여름특집1 -경북 영덕군-
							20	20 100년의 가계
2	00	KBS 뉴스				2	00	5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식 (주요경기 재방송)
	1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식	1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식	10	30	00	00 상상천구 꾸메꾸메
3								00 피쉬와 치즈
4	10	KBS 뉴스				4	00	0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식 (주요경기 재방송)
	20	2012 런던올림픽	00	KBS 뉴스5	20	20	00	00 KBS 뉴스
5		20 하키 남자예선 한국VS뉴질랜드	20	동물의 세계	20	20	00	00 KBS 뉴스
		40 세상은 넓다	20 2012 런던올림픽	20	20	40	10	1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식 (주요경기 재방송)
			20 2012 런던올림픽	20	20	40	00	00 동물의 왕국
6	00	6시 내고향		20 2012 런던올림픽	00	6시 내고향	6	1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식 (주요경기 재방송)
	55	시청자칼럼 우리는 세상		20 2012 런던올림픽	55	시청자칼럼 우리는 세상	10	1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식 (주요경기 재방송)
			20 2012 런던올림픽	20	20	40	00	00 KBS 뉴스
7	00	KBS 뉴스 7				7	00	00 KBS 뉴스
	30	우리말 겨루기	30	리브인 아시아	30	스카우트	30	30 한국인의 밥상
								30 소비자 고발
8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8		0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식 (주요경기 재방송)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9	00	KBS 뉴스9				00	KBS 뉴스9	
10	00	00 시사기획 창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2012 런던올림픽 ①유도 여70/남90kg 준결승 ②양궁 남녀개인(64/32강) (일동현, 기보배) ③탁구 여자단식 결승	00 2012 런던올림픽 ①유도 여78/남100kg 준결승 ②탁구 남자단식 3,4위전/결승전 (오상은 출전)	00 강연100℃ 50 아름다운 사람들	10	40 특파원 현장보고	2012 런던올림픽 기계체조 남녀총복합 결승전 (김수연 출전)
11	00	KBS뉴스라인		00	00	11	20 생방송 심야토론	30 콘서트 7080
12	40	40	40	25	25	12	40	40
	여름방학 특선 앙코르 문명의 기억지도 제2편	세상사는 이야기 -제주-	세상사는 이야기 -제주-	KBS뉴스	KBS뉴스	2012 대선 새누리당 경선 후보토론회 (KBS 초청)	KBS네트워크 특선다큐 녹색혁명, 도시 제1편	
	35	35	35	35	35			
	KBS 뉴스	2012 런던올림픽 기계체조 여자단체 결승	2012 런던올림픽 축구 남B조예선 멕시코VS스위스	2012 런던올림픽 ①카누 슬러럼 남C2/여K1 결승 ②배드민턴(복) 남복식8강 (이용대 출전)	2012 런던올림픽 ①카누 슬러럼 남C2/여K1 결승 ②배드민턴(복) 남복식8강 (이용대 출전)	1	00 KBS 뉴스 05 독립영화관 Hello 外	25 KBS 뉴스 30 KBS 바둑왕전
1	40	30	00	25	10	2	05	40
	2012 런던올림픽 ①기계체조 남 단체결승 (양학선 출전)				명화극장 이지 리더			
2					25	3		
3	25							

<표 3> KBS1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8월 6일~8월 12일)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3						3		
4						4		
5	00	00	00		00	5	00	
	2012 런던올림픽 ①육상 -남자 1500m준결 3000m장애물 결승 100m결승 (볼트출전) -여자 세단뛰기결승	2012 런던올림픽 탁구 남자단체 준결승 한국VS홍콩	2012 런던올림픽 육상 주요경기결승 남자 높이뛰기 여자 200m준결		2012 런던올림픽 ①육상 남200m결승 (볼트 출전) ②축구 여자결승		2012 런던올림픽 ②육상 주요결승 여5000m 여400m 계주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6	00	KBS 뉴스광장				6	00	00 KBS 뉴스
7	50	인간극장				7	10	2012 글로벌 다큐멘터리 미러클 보디 제3편 마라토너, 인간한계를 넘어서
8						8	50	10 광복절 기획 한국 현대사 증언 TV 자서전
9	25	아침마당				9	1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30	KBS 뉴스			3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5	10		
	55	55	55	55	05			
			TV동화 행복한 세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	2012 글로벌 다큐멘터리 미러클 보디 제1편 우사인 볼트 최고 속도의 비밀	2012 글로벌 다큐멘터리 미러클 보디 제2편 제조 아름다운 공중유영	00	00	교실이야기	11	00	00
			특별생방송 여기는 엑스포 현장입니다				한국재발견 -강원 정선-	TV쇼 진품명품
	55	바른말 고운말						
12	00	KBS 뉴스12				12	00	00
							KBS 뉴스	KBS 뉴스
							10	10
							국악 한마당	전국노래자랑 여름특집2 -충남 태안-
1	0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석 플러스				1	00	2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특별생방송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2	00 KBS 뉴스					2	00 상상친구 꾸메꾸메	여기는 엑스포 현장입니다
	1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석	10 2012 런던올림픽중 계석	1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석	10 2012 런던올림픽중계석			30 피쉬와 칩스	
3	00 KBS 기상속보 전력 '주의' 단계	00 KBS 기상속보 이틀째 전력 주의경보	1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석	10 2012 런던올림픽중계석		3	00	2012 런던올림픽 중계석 (주요경기 재방송)
4	05 2012 런던올림픽 중계석	05 2012 런던올림픽 중계석	배구 여자8강 한국VS이탈리 아 외			4		
5	00 KBS 뉴스5					5	00 KBS뉴스	00 KBS뉴스
	20 동물의 세계						10 여름방학 특선양코르	10 동물의 왕국
	40 세상은 넓다						25 공룡의 땅 제1편	25 열린음악회 -출천 공연-
6	00 6시 내고향					6	00 사랑의 리퀘스트	50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7	00 KBS뉴스 7					7	00 KBS 뉴스	2012 런던올림픽 남자마라톤 (19:00-21:30)
	30 우리말 겨루기	30 러브 인 아시아	30 스카우트	30 한국인의 밥상	30 소비자 고발		10 글로벌 성공시대	
8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8	00 생로병사의 비밀	
9	00 KBS 뉴스9					9	00 KBS 뉴스9	
10	00 2012 런던올림픽 ①기계체조 남녀종목별 결승전 ②레슬링(녹) 남 그레코 (정지현/이세 영)	00 2012 런던올림픽 ①기계체조 남녀종목별 결승전 -남 평행봉 -여 평균대 ②레슬링(녹) 남 그레코 (김현우출전)	00 2012 런던올림픽 하키 여자 7,8위전 한국VS독일 외	00 2012 런던올림픽 ①리듬체조 개인종합예선	00 런던올림픽특집 ①태권도(녹) 여67kg16/8강 (황경선 출전) ②수영(녹) 남자 마라톤10km ③리듬체조(녹) 개인종합예선	00 2012 글로벌 다큐멘터리 미러클 보디 제3편 마라톤너, 인간한계를 넘어서	40 2012 런던 올림픽 리듬체조 단체전 결승	
						40 특과원 현장보고		
11						11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20	KBS 뉴스라인		(10:00~10:40) ②배구 여자 준결승 한국VS미국	20 KBS 뉴스라인		20	20	
12	40	40	40	③수영(녹) 여자 마라톤 10km결승	40	12	생방송 심야토론	2012 여수엑스포 폐막식 -녹화중계-	
			수요기획		40				미디어 비평
		25	KBS 뉴스		10				KBS 뉴스
	35	KBS 뉴스					00	15	
	40		35	25	20		05	20	
1	2012 런던올림픽	35	2012 런던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	명화극장 캐치 미 이프 유 캔	1	독립영화관 로맨스 조	런던올림픽 ①농구 남자 결승전 (드립팀) ②배구 남자결승	
	핸드볼 남B조예선 한국VS덴마크	①핸드볼 여자8강 한국VS러시아 ②레슬링(녹) 그레코 결승,3,4위 전 (김현우 출전)	내권도 남자 58kg이하 예선,8강 준결승 (이대훈출전)						
2	30		00		40	2			
					2012 런던올림픽 ①싱크로나이 즈드				
3		00			00		00	50	
4						3		2012 런던올림픽 폐막식 (05:00~08:00)	
5									

<표 4> KBS2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26일~7월 29일)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6				00 굿모닝 대한민국 1부		6	00 노장불패	00 싱싱일요일
7				00 굿모닝 대한민국 2부		7	50 세상의 모든 다큐	00 런던올림픽특집 KBS 일요 뉴스타임
8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40 두리둥실 몽계공향	40 영상앨범 산
9				00 TV소셜 사랑아 사랑아		9	55 빠뿌야 놀자	10 런던올림픽 기획 세계는 지금
10				40 여유만만		10	10 런던올림픽 기획 세계는 지금	10 퀴즈쇼 사총사
11				50 지구촌 뉴스		11	00 KBS 뉴스타임(주말, 휴일)	05 세대공감 토요일
12				10 KBS 스포츠 타임		12	05 세대공감 토요일	1박 2일
1				20 사랑의 가족		1	05 영화가 좋다	35 출발 드림팀 시즌2
2				50 해의특별기획 드라마 삼국지 [41회]	50 2012 런던올 림픽 축구 B조 예선 대한민 국·멕시코 ·뉴캐슬	2	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45 남자의 자격
3				40 위기탈출 넘버원	40 TOP밴 드2	3	15 개그콘서트	5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4				50 이야기쇼 두드림	00 세계는 지금	4	45 월화드라마 빅 [15]	30 수목드라마 각시탈 [17회]
5				00 생생 정보통 스페셜	45 환경스페셜	5	50 월화드라마 빅 [최종회]	45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45회]
6				30 KBS 뉴스타임		6	55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44회]	
7				35 메타제트	35 TV 유치원	7		
8				00 부루와 숲속 친구들	05 누가 누가 잘하나	8		
9				30 TV 유치원		9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5				00 키오카	00 유후와 친구들	5	05	00
				30 문화기행 세계의 유산	30 Go Go 코리아! 황금밭			
6				00 KBS 뉴스타임		6	15	해피 선데이
				10 생생 정보통 1부	10 런던올림픽 특집 뮤직뱅크			
7				00 생생 정보통 2부		7	55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45 일일시트콤 선녀가 필요해 스페셜				
8				20 스타 인생극장		8	15	개그 콘서트
				50 의뢰인 K	50 스펀지			
9				40 2012 런던올림픽 축구 B조예선 대한민국:멕시코 -뉴캐슬-	55 VJ특공대	9	1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10						10		
11						11	5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12						12	45	양궁 여자단체 8강 (기보배 외) (23:00-24:40)
					05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2			
1				5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런던으로 가는 길 런던은 지금	15 유희열의 스케치북	1	50	양궁 남자단체 준결/3,4위전 (임동현 외) (24:40-02:01)
2					35 영상앨범 산	2	00	00
3				10	25	3	00	양궁 여자단체 결승/시상(기보배 외) (02:01-02:41) 펜싱 사브르 남개인 준결-결승(류본길) (02:00-03:50) 역도 여53/남56 결승(윤진희)(누) (23:30-25:10) 축구 남 예선 한국:스위스 HL(누) (01:15-03:15)
4						4	30	00

<표 5> KBS2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30일~8월 5일)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6	00	굿모닝 대한민국 1부				6	00	노장블패 00 싱싱일요일	
7	00	굿모닝 대한민국 2부				7	50	00	세상의 모든 다큐 런던올림픽특집 KBS일요 뉴스타임
	30	굿모닝 런던					40	40	두리둥실 몽계공황 영상앨범 산
8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55	10	백뿌야 놀자 세계는 지금 퀴즈쇼 사중사
	00	TV소셜 사랑아 사랑아					00	KBS 뉴스타임(주말, 휴일)	
10	4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부				10	05	05	세대공감 토요일 1박 2일
	2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2부					05	35	영화가 좋다 KBS 올스타 올림픽
11	2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1	05	5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남자의 자격
12	00	사람의 가족				12	20	45	개그 콘서트 불후의 명곡 전철을 노래하다
2	30	30	30	30	30	2	50	15	김승우의 송승장구 (김준현/신보라1 편)
	30	30	40	30	30		05		수목드라마 각시탈 [18회]
3	30	30	40	30	30	3	30	30	월화드라마 빅 [16회]
	30	30	40	30	30				김승우의 송승장구 (김준현 /신보라2편)
4	55	부부와 숲속 친구들			55	4	20	45	수목드라마 각시탈 [18회]
	30	TV유치원							55
5	50	50	50	50	50	5	40	45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48회]
	50	50	50	50	50				20
6	50	50	50	50	50	6	40	4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50	50	50	50	50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6	50	50	50	50	50	6	40	45	양궁 남녀 개인전 64강-32강 (17:00-20:53) 탁구 남 단식 3Round (주제화) (17:55-) 유도 여57, 남73 예선 (김잔디, 왕기춘) (-20:48)
	50	50	50	50	50				양궁 남 개인 16강 (최현주 기보배, 이성진, 권인실(북한)) (17:00-18:45) 양궁 남 개인 16강 (임동현, 오진혁, 김법민) Live (17:00-18:44) 탁구 남 단체 1R (한국:북한)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7	00 핸드볼 여자B조 예선 <한국:덴마크> Live (19:00-20:28) 양궁 남개인 64강-32강 (임동현) Live (19:36-20:40) 유도 여57, 남73 예선 (김잔디, 황기춘) (20:44-20:48)	00 핸드볼 남 B조 예선 <한국:헝가리> Live (19:07-20:41) 양궁 여 개인 64강-32강 (이성진) Live (20:13-20:41) 유도 여63, 남81 예선 (녹) (20:44-20:48)	00 양궁 남녀 개인 64강-32강 (오진혁 외) Live (18:56-20:48) 펜싱 남 에페 개인 16강 (박경두, 정진선) Live (19:13-19:35)	00 탁구 남 단식 준결승 (오상은) (18:57-19:50) 배드민턴 남북식 8강 (이용대, 정재성) (19:55-) 유도 여78, 남100 예선 (정경미, 황희태) (-20:48)	00 탁구 여 단체 1R Live (19:00-19:25) 펜싱 남 사브르 단체 8강 Live (구본길, 원우영, 김정환) (19:26-19:55) 사격 남 50m 소총복사 결승 (김학만,한진섭) Live (19:55-20:20) 수영 남 1500m 예선(박태환)(녹) (18:25-20:48)	7	55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48회]	40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48회]
8	50 위기탈출 넘버원	50 1대 100	50 비타민	50 의뢰인 K	50 스펀지	8	15 연예가 중계	00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배구 여 예선 (한국v중국) 40 개그 콘서트
9	55	55	55 수목드라마 각시탈 [18회]	50	50	9	25 다큐멘터리 3일	4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탁구 여 단체 8강 (김경아 외) Live (22:25-22:55) 사격 여 트랩 결승 (강지은) Live (22:55-23:45) 테니스 여 단식 결승 (사라포바) (녹) (23:45-24:22)
10						10		
11			15			11		
12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탁구 남 단식 3Round (오상은) 탁구 여 단식 4Round (김경아, 박미영) (22:00-24:00) 유도 여57/남73 준결-결승 Live (황기춘) (22:10-24:24)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유도 여63/남81 준결-결승 (장다훈, 김재범) (22:03-24:24) 펜싱 남 플뢰레 16강-8강 (최병철) Live (22:40-23:58)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사격 여 25m 권총 결승(김장미, 이정애) (23:25-23:58)유도 여70, 남90 결승(황예슬, 송태남) (00:00-00:20)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양궁 여 개인 8강-결승-시상 (최현주,이성진,기보배,권은실(북)) (21:55-24:00) 유도 여78/남100 결승 (정경미, 황희태) (24:00-24:20)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양궁 남 개인 8강-결승-시상 (21:55-24:00) 유도 여78,남100 결승 (김나영, 김성민) (24:00-24:20)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탁구 여 단체 8강 (김경아 외) Live (22:25-22:55) 사격 여 트랩 결승 (강지은) Live (22:55-23:45) 테니스 여 단식 결승 (사라포바) (녹) (23:45-24:22)	12	4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체조 남녀 종목별 결승(양학선, 김수민) (22:00-24:28) 탁구 남 단체 8강전 (오상은 외) (22:30-01:30) 레슬링 남 그레코 55/74준결(최규진) (22:45-23:45)
1	30 탁구 여 단식 4Round (김경아, 박미영) (00:30-01:30) 역도 여58 (양은혜) 결승 (01:35-01:49)	45 양궁 남 개인 64강-32강 (김범민) Live (24:31-01:25) 탁구 여 단식 준결승 (김경아, 박미영) Live (01:25-01:50)	30 체조 남 개인종합 결승 (00:28-02:20)	30 체조 여 개인종합 결승 (00:28-02:20)	30 사격 남 25m 속사권총 결승 (00:26-01:00) 핸드볼 여 예선 (한국:프랑스) (녹) (01:00-01:29) 체조 남 트램플린 결승 (녹) (01:29-01:48)	1	30 체조 여 트램플린 결승(녹) (00:28-00:55) 사이클 남 30km 포인트레이스 (조호성) (00:57-01:43) 사이클 여 단체 추발 결승 (01:43-02:10)	55 역도 여 475 결승 (장미란) (녹) (23:30-01:10) 테니스 남단/여복/혼복 결승 (20:00-04:30)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2						2			
	00	00	00	00	00	00			
3	펜싱 여 에페 개인 준결-결승 Live (01:55-04:10) 수영 자유형 200m(박태환) 결승 (누) (04:10-04:20) 탁구 남 단식 4Round Live (04:20-05:00)	복싱 플라이급(신종훈) 등 주요예선 (02:00-02:30) 펜싱 남 플리레 개인 준결-결승(최병철) (02:30-04:10) 탁구 남자 단식 8강(04:00-4:30)	체조 남 개인종합 결승 Live (01:48-03:10) 양궁 여 개인 64강(기보배)Live (02:02-02:54) 남자축구 예선 HL 한국:가봉(북) (03:12-03:22) 다이빙 남 싱크로3m 스프링보드 결승 (03:25-04:10) 조정 주요 결승 (04:12-04:30)	펜싱 여 단체 플리레 3,4위전-결승 (02:25-04:30)	사이클 남 단체 추발 결승 (장선재 외) Live (01:53-02:40) 펜싱 남 사브르 단체 결승(구본길 외) Live (02:40-03:30) 육상 여 100m 1R 등 주요경기 Live (03:30-04:30) 축구 여 8강 (일본 북한경기)HL (04:30 -)	사이클 남 유니엵 제외경기(조호성) (02:20-02:40) 조정 주요 결승 (02:45-03:25) 육상 여 100m 준결승 (03:30-03:52) 육상 남 멀리뛰기 결승 등 여 원반 결승 등 주요 경기 (03:52-05:00)	25	사이클 남 유니엵 1km 타임 트라이얼(조호성) (02:10-02:45) 펜싱 플리레 남 단체 결승(02:00-04:50) 레슬링 남 그레코 55/74 3/4위-결승 (01:45-04:15)	
4	30	30	30		30	4		00	

<표 6> KBS2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8월 6일~8월 12일)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3			00			3		
4						4	00	
5			축구 남 준결승 (한국:브라질) (03:34-06:40)	00	[여기는 런던] 육상 주요 경기 Live (03:40-04:50)	5	[여기는 런던] 육상 주요경기 Live (04:00-05:05) 태권도 동메달 결정전 (이인종, 차동민) (05:06-06:00)	
6	굿모닝 대한민국 1부		30	태권도 동메달전 (이대훈) Live (04:55-06:00) 태권도 남 결승 (이대훈) Live (06:10-06:45)	00	굿모닝 대한민국 1부	30	태권도 결승, 시상 Live (이인종, 차동민) (06:10-06:56)
7	00	굿모닝 대한민국 2부			00	굿모닝 대한민국 2부	00	00
							세상의 모든 다큐	런던올림픽특집 KBS 일요 뉴스타임
	30		굿모닝 런던			40	두리둥실 동계공화	40
						55	짝퐁야 놀다	영상앨범 산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8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10 세계는 지금	10 퀴즈쇼 사총사
9	00		TV소셜 사랑아 사랑아			9	00 KBS 뉴스타임(주말, 휴일)	05 1박 2일
10	4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부			10	05 세대공감 토요일	35 출발 트림팀 시즌2
11	2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2부			11	05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45 해피 투게더 스페셜
12						12	15 개그콘서트	50 남자의 자격
1	00		사람의 가족			1		
	30 영화가 좋다	30 비타민		30 위기탈출 넘버원	30 세계는 지금			
2		30	수목드라마 각시탈 [18회]	30		2	45 월화드라마 해운대 연인들 [1회]	55 수목드라마 각시탈 [19회]
	30 2012 Summer 빅 콘서트 "여름! 바다! 젊음!" (부산총국)	런던올림픽 기획 결어서 세계속으로 영국편4.웨일즈		런던올림픽 기획 결어서 세계속으로 영국편6-스코틀랜드	30			
3			40 런던올림픽 기획 결어서 세계속으로 영국편6.북아일랜드		환경스페셜			
	30		KBS 뉴스타임			3	50 월화드라마 해운대 연인들 [2회]	00 수목드라마 각시탈 [20회]
	35 매가게트 [40회]	35 콩푸 공룡수호대 [첫회]	35 콩푸 공룡수호대		35 TV 유치원			
4	00		뽀뽀빵 빵 구조대		05 누가누가 잘하나	4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48회]	05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49회]
	30		TV 유치원	30	TV 유치원			
5	50 알록달록 종이마을	50 프랭키와 친구들	00 두리둥실 문개공방	00 키오카	00 유추와 친구들	5	05 청춘불패 2	10
	20 맛있는 퀴즈쇼! 행운의 식탁		15 뽀뿌야 놀자					
	50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50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육상 오전세션 주요경기 Live (17:55-18:43)	30 청/진/기	30 문화기행 세계의 유산	30 Go Go 코리아! 황금밭			
6	탁구 여 단체 준결 단식(한국:중국) Live (17:55-19:00)		00	KBS 뉴스타임		6	15	해피 선데이
			10 생생 정보통 1부	10 생생 정보통 1부	10			
7	00	탁구 여 단체 동메달 결정전단식1 (18:55-19:43)	50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00	00 생생 정보통 2부	7	7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탁구 여 단체 준결 복식 (한국:중국) Live (19:00-20:30)		00	3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4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8		00 탁구 여 단체 동메달 결정전 단식2,복식,단식3 (19:48-20:51)	50	35 리듬제조 개인종합 예선 로테이션(불, 후프) (순연제) (19:55-22:02)	45 리듬제조 개인종합 예선 로테이션(리본, 곤봉) (순연제)	8	8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50	탁구 여 단체 동메달 결정전 단식4, 복식 (20:56-21:56)	50	비타민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9	위기탈출 넘버원				(19:55-22:36)	9		15 개그 콘서트
10	55 월화드라마 해운대 연인들 [첫회] [1회]	55 월화드라마 해운대 연인들 [2회]	55 수목드라마 각시탈 [19회]	05 수목드라마 각시탈 [20회]		10		55 다큐멘터리 3일
11					00	11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12	1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체조 남 도마 결승시상(양학선) Live (23:20-00:28)	1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체조 남 철봉 결승 Live (15:37-) 체조 여 마루 결승 Live (16:23-)	1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25 해피 투게더	리듬체조 단체 로테이션 (22:55-23:45) 사이클 BMX 남녀 준결(녹),결승 Live	12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승(손연재) (21:25-23:43)	45 영화가 좋다
1	30 사격 남 트랩 결승 (녹) (00:40-01:20) 싱크로 듀엣 프리루틴 예선 (박현선, 박현하) (01:23-01:58)	40 축구 남 준결승 (일본:멕시코) (00:48-02:54)	탁구 남 단체 결승 단식, 복식 (23:25-01:58)	45 [2012 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육상 오전세션(녹) 남*400R 1라운드 (00:50-01:13) 싱크로 팀 테크니컬 루틴(녹) (01:18-02:03)	30 태권도 여+67 준결승 (황경신) Live (00:55-01:57)	1	30 핸드볼 여 동메달 결정전 (한국:스페인) (00:50-02:35)	45 VJ특공대
2	00 레슬링 남 그레코 동메달 결정전(정지현),결 승전 시상식 Live (02:25-03:30)		00 레슬링 여 그레코 48kg 동메달 결정전, 결승전 Live (02:16-03:00)	00 복싱 여 결승(녹) (02:11-02:56) 카누 스포린트 주요 결승(녹) (02:56-03:24)	00 런던올림픽 특집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Live	2	40 근대5종 남 복합 Live (02:45-03:05)	
3	00	00	육상 남 110m 허들 준결 등 주요경기 Live (03:06-03:31)	육상 주요경기 Live (03:28-05:00) 비치발리볼 남결승 Live (05:06-05:54)	00	3	육상 주요경기 Live (여 높이뛰기 결승 등) (03:08-04:00)	
4			00			4	00	

<표 7> MBC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26일~7월 29일)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6				00 MBC 뉴스투데이		6	(계속)	00 MBC 뉴스
7				30 MBC 뉴스투데이 2부		7	50 2012 런던올림픽 개회식	20 늘 푸른 인생 10 MBC 뉴스
8				50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8	30 MBC 뉴스투데이	2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30 생방송 오늘 아침		8	50	10 2012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9				30 MBC 뉴스		9	2012 런던올림픽 특집 시추에이션 휴먼다큐 그날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45 기분 좋은 날			45 무한도전 스페셜	
10						10	50 찾아라! 맛있는 TV	45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11				00 일일연속극 '그대 없인 못살아' (재)		50 MBC 뉴스		
12				00 MBC 뉴스		12	00 KBS 뉴스	00 MBC 뉴스
				10 출발! 비디오여행 스페셜	10 TV 속의 TV		10 2012 런던올림픽 개회식 하이라이트	10 출발! 비디오여행
1				10 MBC스포츠 2012 런던올림픽 축구 분선 B그룹 상대팀 분석 (가봉)	10 2012 런던올림픽 [축구예선]한국: 멕시코(재)	1	30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닥터 진'(재)	10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닥터 진'(재)
2						2		25 MBC 영화특별기획 쇼! 음악중심 '골든 타임' (재)
3				55 도시탐험M		3	4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쇼! 음악중심	
				10 뚝딱아저씨	10 뽀빠이 아이조아 스페셜			
4				00 마법천자문(재)	00 얼마는 마법사(첫회)	4	05 무한도전	30 MBC 뉴스
				30 보글보글 쿡2	30 TV발상 우리기 석사교실			
5				00 문화 四色	00 MBC 파워매거진 (Live)	5		
6				00 MBC 뉴스	00 MBC 뉴스	6	40 2012 런던올림픽 [수영] 남자400m 자유형 예선(박태환) 17:55-21:00 *박태환 경기 18:47-19:14	40 2012 런던올림픽 [수영] 남자200m 자유형 예선(박태환) 17:55-20:50 *박태환 경기 18:20-18:48
				10 생방송 월화수목	2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생방송 금요와이드		7	
7				50 고향을 부탁해				
8				45 일일시트콤 '스탠바이'		8	[여자핸드볼 B조 예선] 한국:스페인 19:15-20:45	[사격 결승](Delay) 여자 10m 공기권총(김장미) 19:45-
				15 일일연속극 '그대 없인 못살아'				
9				55 MBC 뉴스데스크	5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9	00 MBC 뉴스데스크	
10				5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아이돌스타 올림픽'	55 댄싱 위드 더 스타II (Dancing with the Stars)	10	40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닥터진'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11				2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11	00	00
				35	MBC 스페셜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특집 소비자의 눈 블렉박스 (파일럿)			
12					15	12	20	30
					40			
1				55	25	1		2012 런던올림픽 [양궁] 여자단체 준결승-결승 24:40-02:41
2				2012 런던올림픽 [축구 B조 예선] 가봉-스위스 01:15-03:15	20	2	00	[펜싱] 남자 개인 사브르 준결승-결승(구본길) 02:00-03:30
					1부			
3					40	3		
4				30	20	4	00	00
					2012 런던올림픽 개최식 (계속)			

<표 8> MBC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30일-8월 5일)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6	0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1부		00	00	6	00	0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1부		(계속) [남자하키 B조 예선] 한국-벨기에 (05:15)	(계속) 2012 런던올림픽 [축구 8강]
7	3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2부		30	30	7	50	40
				2012 런던올림픽 [여자배구 예선] 대한민국-브라질 06:3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2부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MBC뉴스
8	50	50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8	55	50
	30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50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9	20 MBC 뉴스	생방송 오늘 아침				9							
	30	MBC 뉴스											
	45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0							
11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1	00 찾아라 맛있는 TV	45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12	00	MBC 뉴스				12	00 MBC 뉴스	00 MBC 뉴스					
	2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굿데이 런던 1부	2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굿데이 런던	2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마린보이, 은빛 물살을 가르다(제)	10 출발! 비디오여행					
	1						50 MBC 월화특별기획 '골든 타임'(제,7화)	20 MBC 월화특별기획 '골든 타임'(제,8화)					
2	0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굿데이 런던 2부	4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최종병기 활, 런던을 쏜다	0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굿데이 런던 2부	40	MBC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닥터진'(제)					
3	30	뽀뽀뽀 아이즈아	30	엄마는 마법사(제)	30	엄마는 마법사	00	TV속의 TV					
4	00	키즈 CSI 과학수사대	00	내 사랑 똥	00	안녕 토토비	00	보글보글 쿡2	00	TV발상 꾸러기 석사교실			
	30	MBC 뉴스				4	05	쇼! 음악중심	15	MBC 뉴스			
5	40	2012 런던올림픽 [메드민턴]혼합복 식예선 등 [제조] 남자단체결선 [수영예선] 여자200m 결영(최혜라) 18:00-19:02 여자200m 개인혼영 (최혜라)	40	2012 런던올림픽 [메드민턴]혼합복 식예선 등 [제조] 남자단체결선 [수영예선] 여자200m 결영(최혜라) 18:30-18:35	40	2012 런던올림픽 [메드민턴] 남자복식 예선(최종진(이용대, 정재성) [제조] 여자단체결선 [수영예선]18:00- 남자200m배영(박 형주) 여자200m 평영예선(정다래,백 수연)	40	2012 런던올림픽 [메드민턴] 남자복식 6강 (이용대, 정재성) 17:45-18:40 [수영예선] 여자800m 자유형 (한나경) 18:37-	4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마린보이, 은빛 물살을 가르다(제)	5	05	2012 런던올림픽 [메드민턴]3-4위전] 남자단체식(이현일) 17:00- 남자복식(이용대,정 재성)17:45-
	6								6	2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7		30	2012 런던올림픽 [수영예선] 남자200m 평영(최규웅)18:39- 19:01 남자4*200m자유형 등	10	2012 런던올림픽 [유도]송태남, 황예슬(H,L) [여자 핸드볼]한국:노르웨 이(H,L) [메드민턴 16강] 남자단체식(이현일) 20:25-21:22	00	2012 런던올림픽 [수영 종목별 예선] 남자100m결영 (장규철, 켈프스) 19:20- 여자200m배영 (함찬미)19:31- [양궁]여자 개인 16강(H,L)	25	2012 런던올림픽 [수영예선] 17:55-20:50 남자1500m 자유형예선(박태환) 18:23-19:47	7	20	5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섹션TV 연예통신
	8	2012 런던올림픽 [여자배구 B조 예선] 한국:세르비아 19:30-21:00 [메드민턴] 혼합복식 예선 (이용대, 허정은) 20:30-	[유도](Delay) 남자-81kg 32강전,16강전(김재 범) 여자-63kg 8강전(정다운)								8	3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9		5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3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2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5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9	4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50	55							25		2012 런던올림픽 [팬싱]	40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1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MBC 월화특별기획 '골든 타임'	MBC 뉴스데스크 25 황금어장	[펜싱 준결승] 여자단체 플리데 대한민국:러시아 21:25-23:00	2012 런던올림픽 [펜싱] 남자단체사브르준 결승 21:25-22:30	10	여자단체 예페 준결승 (신아람 등) 21:30-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닥터 진'
11	MBC 월화특별기획 '골든 타임'	1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마린보이, 은빛 물살을 가르다	45	[양궁 준결승-결승] 여자 개인 (기보배) 22:50-24:05	[베드민턴 준결승] 남자 단식(이현일) 22:15- [양궁 준결승-결승] 남자 개인(오진혁) 22:50-24:05	50 11	세·바·퀴 00	2012 런던올림픽 [역도] 여자+75kg (강미란) 23:25-01:30 [사이클] 남자 혼자 (조호성) 18:00-19:00 01:00-01:20 02:10-02:45
12	55 2012 런던올림픽 [펜싱 8강](Delay) 여자 개인 에페(신아람) [역도] 여자58kg 그룹B 결선(양은혜) 여자58kg 그룹A 결선(북한 정미)	55 2012 런던올림픽 [여자하키 A조 예선] 대한민국:영국 24:05- [유도결승](Delay) 남자-81kg(김재범) [체조 여자단체결승] 01:30-	2012 런던올림픽 [축구 B조 예선] 대한민국:가봉 01:00-03:00	15 2012 런던올림픽 [사이클] 여자단체 스프린트 남자단체 추발 [펜싱 3.4위전] 여자단체 플리데 02:00-	30 2012 런던올림픽 [주요경기 H.L] [펜싱 결승전] 남자단체사브르 02:45-	10 1	2012 런던올림픽 [육상] 남자100m 예선 등 브라질:온두라스 01:00-	
1	[펜싱 준결승] 여자 개인 에페(신아람) 02:00-					2		
2						3		
3						4		
4	25 2012 런던올림픽 [수영결승] 03:25-05:15 남자 자유형 200m 결승(박태환) 03:42-03:52	00 2012 런던올림픽 [펜싱 준결승 3.4위 전] 남자 개인 플리데(최병철) 02:00-04:00 [베드민턴] 남자복식 예선 (이용대, 정재성) 02:26- [수영] 03:57-	30 2012 런던올림픽 [역도 결승] 남자77kg(사재혁)0 3:00- [펜싱 결승] 여자개인사브르(김 지연)04:30- [유도결승](Delay) 남자-90kg급(송대 남) [수영] 여자200m 평영 준결 승(정다래, 백수연)	25 2012 런던올림픽 [베드민턴 8강] 남자 단식(이현일) 02:32- [수영] 남자200m 배영 결승 등 03:50- [복싱 16강] 남자 라이트급(한승철)0 5:21-	00 2012 런던올림픽 [수영] 03:30-04:50 [남자하키 B조 예선] 한국:벨기에 (05:15-)	00 2012 런던올림픽 [축구 8강] 한국:영국 03:30-05:30 [수영결승] 남자1500m 자유형 (박태환) 03:30-04:00 [역도] 남자94kg(김민재) 03:00-05:00 [복싱 49kg급 16강] (신종훈) 05:15- (축구 연장전 시, SB없이 계속)	4	00 2012 런던올림픽 [육상] 남자100m 결승 등 [다이빙]
5	15 2012 런던올림픽 [탁구](Delay) 여자 단식 16강(김경아)	여200m 접영 준결승 (최혜라) 남계영4*200m 결승 등 [수영]싱크로나이즈 10m 플랫폼 결승				5		

<표 9> MBC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8월 6일~8월 12일)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6	0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1부		00 2012 런던올림픽 [축구]준결승 대한민국:브라질 [여자배구 8강] 대한민국:이탈리아	0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1부		6	0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1부	00 MBC 뉴스
	30			30	30	3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2부	10 늘 푸른 인생
7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2부		0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1부	2012 런던올림픽 [여자배구 예선] 대한민국:브라질 06:3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2부	7		00 MBC 뉴스
						30	지구촌 리포트	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8	50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00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50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8	55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부	0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부
	30			30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9	생방송 오늘 아침	40 생방송 오늘 아침	40 MBC 뉴스	30 MBC 뉴스	생방송 오늘 아침	9	3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2부	2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2부
	MBC 뉴스							
	45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0			55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45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1						00 찾아라! 맛있는 TV	40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12	00 MBC 뉴스	2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굿데이 런던 1부	00 MBC 뉴스	0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굿데이 런던 2부	00 MBC 뉴스	12	00 MBC 뉴스	55 MBC 뉴스
	1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3부						05 출발! 비디오여행	
	40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닥터 진'(재)						05 황금어장 스페셜	
2	0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굿데이 런던 2부				00 2012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굿데이 런던 2부	2	00	10
3	50 MBC 뉴스				00 TV속의 TV	3	월화특별기획 '골든타임' 스페셜 1부	월화특별기획 '골든타임' 스페셜 2부
4	00 뽀뽀 아이조아		00 엄마는 마법사(재)	00 엄마는 마법사				00 MBC 뉴스
	30 키즈 CSI 과학수사대	30	30 안녕 토트비	30 보글보글 룩2	30 TV발상 꾸러기 식사교실	4	15 MBC 뉴스	10
5	00 2012 런던올림픽 특집프로그램 끝나지 않은 신화, 장미란	00 2012 런던올림픽 [남자하키B조예선] 대한민국-네덜란드	00 히스토리 후	00 문화四色	00 MBC 파워매거진	5	25 쇼! 음악중심	색선TV연예통신
6	00 생방송 일화수목		00 MBC 뉴스		00 MBC 뉴스	6	40 무한도전	10 무한결스
7	50 2012 런던올림픽 [탁구]여단체 준결승 대한민국-중국 [육상]예선 등	40 2012 런던올림픽 [탁구]여자단체3-4위 전 대한민국-싱가포르	10 2012 런던올림픽 [육상]여자800m 예선 등	50	20 생방송 금요와이드	7	10 '나는 가수다 II'	20 일밤 '나는 가수다 II'
8					45 2012 런던올림픽특집 '런던올림픽 영광의 순간들'	8	2012 런던올림픽 [여자배구3-4위전] 대한민국,일본	5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 스태스 크
9	55 2012 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2012 런던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예선 (손연재) [태권도 예선]	55 2012 런던올림픽특집 MBC 뉴스데스크	9	10 2012 런던올림픽특집 MBC 뉴스데스크	30 대장경 천년 특별기획 무신(武 神)47화
		55					40	
10	55 MBC 월화특별기획 '골든 타임'	2012 런던올림픽 [체조]남녀 종목별 결승 [싱크로나이즈드]			55	10	2012 런던 올림픽 [리듬체조]개인종합 결선(손연재)	40 2012 런던올림픽 [복싱결승]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11	15	스위밍	05	40 2012 런던올림픽특집 MBC 뉴스데스크	2012런던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예선 (순연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11	10 MBC주말특별기 획드라마'닥터진'(최종)	30 2012런던올림픽특 집프로그램 런던올림픽 영광의 순간들2
12	2012 런던올림픽 [체조]남자총복합결 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듀엣 예선	30 2012런던올림픽 [축구]준결승 일본-멕시코	2012런던올림픽 [탁구]남자단체결승 [대한민국:중국 [여자레슬링]	30 2012런던올림픽 [싱크로나이즈] 여단체결선 [여자핸드볼준결 승]대한민국:노르웨 이 [여자레슬링]	2012런던올림픽 [여자핸드볼3-4위전] 대한민국:스페인	12	50 2012런던올림픽	
1						1		
2						2		
3	30 2012런던올림픽 [탁구]남자단체 결승	00 2012런던올림픽 [축구]준결승 대한민국:브라질	00 2012런던올림픽 [육상]남자110m허들 결승 등 [다이빙]여자10m플 랫폼 예선	00 2012런던올림픽 [육상] 남200m결승 등 [태권도]준결승	00 2012런던올림픽 [육상]남자4*100m 결승 등 [복싱]준결승] 남자라이트급 (한순철)	3		
4	[육상]여자장대높이 뛰기 결승, 여자200m예선 등	00 2012런던올림픽 [축구]준결승 대한민국:브라질 [여자배구8강] 대한민국:이탈리아				4	00 2012런던올림픽 [육상]남자4*100m결 승 등	30 2012런던올림픽 폐회식
5						5	[다이빙]남100m 플랫폼결성	

<표 10> SBS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26일~7월 29일)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5						5	00 -계속- 런던2012 -배구여 04:00-05:30	
6				00 런던2012특집 출발!모닝와이드(1부)		6	-계속-	30 런던와이드(1부)
7				30 런던2012특집 출발!모닝와이드(2부)		7	런던2012 -올림픽 개회식 05:00-08:00	30 런던와이드(2부)
8				30 런던2012특집 출발!모닝와이드(3부)		8		30 런던와이드(3부)
9				30 아침연속극 내 인생의 단비		9	20 런던와이드	10 런던2012 하이라이트
10				10 좋은 아침		10	40 잘먹고 잘사는 법	
				30 SBS 뉴스		10	55	30 런던2012특집 영원한 마린보이 박태환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11				00 SBS 생활경제	00 런던2012 별을쓰다 -틀러차기의 교본(태권도 차동민 편)	11	점속! 무비월드	20 SBS 뉴스
								30 강심장
12				00 SBS 12뉴스	런던2012-축구남예 선 대한민국-멕시코(승 리or무승부시)	12	55 SBS 뉴스	40 드라마 스페셜 유령(17화)
				30 런던2012특집 별을쓰다 -대한민국 리듬제조의 역사를 쓰다(손연재 편)			05 퀵백소 보아 4354	50 드라마 스페셜 유령(18화)
1				00 SBS 컬처클럽	00 열린 TV 시청자제상	1	05 런던2012 개회식 하이라이트	
2				00 SBS 뉴스		2		
3				10 TV 동물농장	10 정재형 이효리의 유&&아이	3	15 특별기획 신사의 품격 (17화)	00 SBS 뉴스
				10 감성여행 쉽표	10 개그 투나잇		35 특별기획 신사의 품격 (18화)	10 런던2012특집 SBS 인기가요
4				00 브레인 마스터스	00 SBS 애니갤러리	4	55 SBS 뉴스	
				30 꾸러기 탐구생활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05	30 런던2012특집 땅콩 검객의 마르세 남현희
5				00 SBS 뉴스퍼레이드		5	런던2012	20
				30 날짜와 생활			-유도 남60kg,여48kg 예선	
6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35 잘먹고 잘사는법 스페셜	6		
				05 런던2012특집 생방송 투데이			양궁 남단체16강 H/L 18:40이후	런던2012
7				20 일인드라마 그래도 당신		7	-수영 남400m자유형예선 (막대관) H/L 19:14이후	-유도 남66kg,여52kg예선 (조준호) 17:30-20:30
8				00		8	-핸드볼 여 예선	-사격 여10m공기권총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런던2012특집 SBS 8 뉴스			대한민국:스페인 19:15-20:45	결선,시상식 (김강미) 19:45-20:25 -핸드볼 남예선 대한민국:크로아티아 19:15-20:45 -양궁,수영 H/L
9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50 궁금한 이야기 Y	9	50 런던2012특집 SBS 8 뉴스	
10				55 드라마 스페셜 유령	55 런던2012특집 세대공간 1억 퀴즈쇼	10	30 런던2012 -유도 남60kg,여48kg준결 승,결승,시상식 22:00-24:48 -사격 남10m중기권총 결선,시상식(진종오) 23:30-24:10	30 런던2012 -하키 여 예선 대한민국:중국 21:45-23:15 -유도 남60kg,여52kg (조준호) 준결승,3,4위전 22:00-24:00 결승 24:00-24:20 시상식 24:40-24:45
11				15 스타 부부쇼 자기야	05 GO쇼	11		
12				35 나이트 라인	25 런던2012특집 올림픽 선수단 필승 콘서트 We Are The Champion	12		
1				55 런던 2012 축구 남예선 가봉:스위스 01:15-03:15	55 나이트 라인	1	15 런던2012 -양궁 남단체 8강H/L 24:00이후 4강H/L 01:30이후 결승H/L 02:26이후	30 런던 2012 -축구 남 예선 대한민국:스위스 01:15-03:15
2					10 런던2012특집 별을 샀다 -영원한 마린보이 (수영 박태환 편)	2		
3					40 런닝맨 -런닝올림픽	3		
4					15 런던2012 -올림픽 개최식 05:00-08:00 --계속--	4	00 런던2012 -수영 남400m자유형결승 (박태환) 03:49-03:56 시상식 04:20-04:28 -배구 여 예선 대한민국:미국 04:00-05:30 -펜싱 여 플뢰레 개인 준결승,결승 (남현희)H/L 04:10이후	30 런던 2012 -수영 남200m자유형 준결승 (박태환) 03:37-03:46 -양궁 여 단체 8강,준결승,결승 H/L 02:27이후 -펜싱 남 사브르 개인 준결승,결승 (구본길)H/L 03:30이후

<표 11> SBS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30일~8월 5일)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5	런던와이드(1부)			00 런던와이드(1부)	00 -계속- 런던 2012 -편성 H/L	5	00 런던와이드(1부)	00 -계속- 런던 2012 축구 8강전
6					00 런던와이드(1부)	6		00 런던와이드(1부)
7	런던와이드(2부)						30	런던와이드(2부)
7	런던와이드(3부)						30	30 런던와이드(3부)
8	아침연속극 내 인생의 단비						8	
9	10 좋은 아침	10 런던2012특집 -유도 왕기순(가제)	10 런던2012특집 -유도 김재범(가제)	10	10 좋은 아침	9	45 생활의 달인 베스트	10 도전! 1000곡
10	30	00 좋은 아침		30	30 런던 2012 특집SBS뉴스	10	45 잘먹고 잘사는 법	25 런던캠 프 기쁘지 아니한 가(가제)
11	런던2012 축구남예선 대한민국:스위스 하이라이트	20 SBS 생활경제		런던2012 축구남예선 대한민국:가봉 하이라이트	00 SBS 생활경제	11	00 접속! 무비월드	45 런던 2012 하이라이트
12	런던2012특집 SBS 12뉴스						12	00 SBS 뉴스
1	런던2012 하이라이트						1	10 런던2012하이라이트
2	런던2012 하이라이트						2	00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3	SBS 뉴스						30	30 강실장 베스트
3	00 네트워크 현상! 고향이 보인다 -광주	00 네트워크 현상! 고향이 보인다 -전주	00 SBS 컬처클럽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00 열린 TV 시청자제상	3	10 순간포착	10 SBS 뉴스
						40	20 런던2012특집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4	00 동화 속 과학탐험	00 안녕 자두야	50 브레인 마스터스	00 SBS 애니컬러리	세상에 이런 일이	SBS 인기가요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우리기 탐구생활	30 우리기 탐구생활	30 민영방송 기획 물은 생명이다	40 SBS 뉴스			
5	00 런던2012	00 런던2012	00 런던2012	20 런던2012	50 일요일이 좋다	40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유도 남73kg,여57kg 예선,8강 (왕기훈) 17:30-20:30	-유도 남81kg,여63kg 예선,8강 (김재범) 17:30-20:30	-헬드블 여 예선 대한민국,노르웨이 17:30-19:00 -유도 남90kg,여70kg 예선,8강 (송대남) 17:30-20:30	-하기 여 예선 대한민국,일본 (16:30-18:00) -유도 남100kg 여78kg 예선 (황희태,정경미) 17:30-20:30	00 -베드민턴 혼합복식 3,4위전 17:00-20:00 -유도 남+100kg,여+79kg 예선 17:30-20:30		50 -베드민턴 남 복식 준결승 (이용대) 17:00-20:00	
6	6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6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6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6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6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6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6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7	7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7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7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7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7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7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7 남 100kg, 여 70kg 예선, 8강 (송대남) 17:30-20:30	
8	00 런던2012	00 런던2012	00 런던2012	00 런던2012	00 런던2012	40 런던2012특집 SBS 8 뉴스		
	-유도 남73kg,여57kg 예선,8강 (왕기훈) 17:30-20:30	-유도 남81kg,여63kg 예선,8강 (김재범) 17:30-20:30	-베드민턴 혼합복식 8강(1) (이용대)H/L 19:00이후 -수영 여 200m평영예선 (정다래)H/L 19:12이후	-유도 17:30-20:30 양궁여개인 16강전H/L 19:44이후 -베드민턴 남복식8강 (이용대)HL 19:00이후	00 런던2012 -헬드블 여 예선 대한민국,프랑스 19:15-20:45 -사격 남 10m소총복사 결선 20:00-20:15 -수영 남 1,500m자유형 예선H/L 19:47이후	8 20 런던 2012 -사격 남 50m립총결선(김 중오) 20:30-21:15 -베드민턴 남 복식 결승, 시상식 (이용대) 21:00-24:00 -레슬링 남 그레코로만형 55kg,74kg 예선,8강,4강 21:00-23:45		
9	40 런던2012특집 SBS 8 뉴스	40 런던2012특집 SBS 8 뉴스	40 런던2012특집 SBS 8 뉴스	40 런던2012특집 SBS 8 뉴스	50 런던2012특집 SBS 8 뉴스	9 00 런던2012특집 SBS 8 뉴스		
10	30 런던 2012	30 런던 2012	30 런던 2012	30 런던2012	20 공금한 이야기 Y	40 런던캠프 기쁘지 아니할까(가제)		
11	-유도 남73kg,여57kg 준결승,결승,시상 식 (왕기훈) 22:00-24:48	-유도 남 81kg 패자부활전, 준결승,결승,시상식 (기재범) 22:00-24:48 -양궁 남녀개인 64강,32강 H/L 20:54이후	런던 2012 -유도 남90kg 여70kg 준결승,결승,시상 식(송대남)	-베드민턴 혼합복식 준결승 20:30-23:30 -유도 남100kg 여78kg 준결승,결승,시상 식 (황희태,정경미)22	25 런던 2012	11 00 런던 2012	30 런던 2012 -역도 여 +75kg 결선,시상식 (장미란) 23:30-01:30	
12	-유도 남73kg,여57kg 준결승,결승,시상 식 (왕기훈) 22:00-24:48 -역도 여 58kg 23:30-01:10	-유도 남 81kg 패자부활전, 준결승,결승,시상식 (기재범) 22:00-24:48 -양궁 남녀개인 64강,32강 H/L 20:54이후	런던 2012 -유도 남90kg 여70kg 준결승,결승,시상 식(송대남)	-베드민턴 혼합복식 준결승 20:30-23:30 -유도 남100kg 여78kg 준결승,결승,시상 식 (황희태,정경미)22	런던 2012	12 00 런던 2012	30 런던 2012 -역도 여 +75kg 결선,시상식 (장미란) 23:30-01:30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1	-양궁 남녀 개인 64강,32강 H/L 20:54이후 -핸드볼 여 H/L 20:45이후 -배구 여 H/L 21:00이후	-탁구 여 단식 8강 H/L 22:00이후	22:00-24:38 -역도 여 69kg 23:30-01:10 -베드민턴 혼합복식 8강(2) (이 용데)H/L 23:30이후	:00-24:38 -양궁 여 개인 8강, 4강, 결 승 H/L 23:50이후	-양궁 남 개인 8강, 준결승, 결승 H/L 23:50이후 -펜싱 남 사브르 단체 준결승 H/L 22:30이후	1	-베드민턴 여 단식 3,4위전 여 복식 결승 21:30-01:00	-베드민턴 21:00-24:00 -레슬링 21:00-23:45 -기계체조 남 안마, 마루 결선 H/L 24:13이후
	50 나이트라인	10 런던 2012	10 나이트라인	10 나이트라인	30 런던 2012		30 런던 2012	
2	30 런던 2012 -양궁 남녀 개인 64강, 32강 H/L 01:36이후 -하키 여 예선 대한민국-영국 H/L 01:30이후	-축구 여 예선 북한-미국 01:15-03:15 -양궁 남녀 개인 64강, 32강 H/L 01:36이후 -탁구 여 단식 준결승 H/L 02:00이후	30 런던 2012 -축구 남 예선 대한민국-가봉 H/ L 03:00이후	30 런던 2012 -베드민턴 여 복식 준결승 01:00-04:00 -수영 여 200m 평영 결승 (정다래) 03:38-03:43	00 런던 2012	2	30 런던 2012 -수영 남 1,500m 자유형 결승 (박태환) 03:36-03:55	30 런던 2012 -레슬링 남 그레코로만형 55kg, 74kg 패자부활, 3,4위전, 결승 01:45-04:15 -탁구 남 단체 8강 H/L 01:30이후
3	00	25	런던 2012	00	00	3	00	50
4	런던 2012 -수영 남 200m 자유형 결승(박태환) 03:41-03:46 시상식 04:08-04:11 -역도 남 62kg 03:00-04:40 -체조 남 단체 결선 H/L 03:05이후	런던 2012 -역도 남 69kg (원정석) 03:00-05:00	-역도 남 77kg (사제혁) 03:00-05:00 -수영 여 200m 평형 준결승 (정다래) 04:24-04:34 -양궁 남녀 개인 64강, 32강 H/L 02:54이후	런던 2012 -펜싱 여 플리레 단체 예선, 준결승, 결승 H/L 04:30이후	런던 2012 -펜싱 남 사브르 단체 결승 H/L 03:30이후 -육상 여 100m 예선 남 릴리뛰기 예선 남 1,500m 예선 여 10,000m 결선 03:00-05:55	4	-역도 남 94kg 03:00-05:00 -육상 남 400m 와들 준결승 여 100m 준결승, 결승 남 릴리뛰기 결승 여 400m 준결승 02:50-06:00	런던 2012 -레슬링 01:45-04:15 -육상 남 100m 준결승, 결 승 여 400m 결승 02:50-05:50 -계속-

<표 12> SBS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8월 6일~8월 12일)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5	-계속- 런던 2012	00 -계속- 런던 2012	런던와이드 (1부)	00 -계속- 런던 2012 -태권도 남58kg 여49kg 결승 (이대훈) 04:00-06:45 시상식 07:00-07:20	00 -계속- 런던 2012	5	00 -계속- 축구남 3,4위전	런던 와이드 (1부)
		15 런던 와이드 (1부)					15 런던와이드 (1부)	
6						6		
7	런던와이드 (1부)	런던와이드(2부)	런던와이드(2부)	런던 와이드	런던와이드(2부)	7	00 런던 와이드 (2부)	30 런던 와이드 (2부)
								30 런던 와이드 (3부)
8	40 런던와이드 (2부)	40 런던와이드(3부)		40 런던 와이드	40 런던와이드(3부)	8	00 런던 와이드 (3부)	10 도전! 1000곡
9	30 아침연속극 내 인생의 단비						9	00 생활의 달인 베스트
	10 좋은 아침							25 TV 동물농장
10	30 런던2012특집 SBS 뉴스						10	50 잘먹고 잘사는 법
								45 런던 2012 특집 대한민국 리듬체조의 역사를 쓰다
11	00 SBS 생활경제						11	05 겹속! 무비월드
12	00 런던2012특집 SBS 12뉴스						12	05 SBS 뉴스
	30 런던2012 하이라이트							15 런던 2012 하이라이트
1	40 런던2012 하이라이트		40 런던2012 하이라이트	런던2012 하이라이트		1	00 SBS 뉴스	
2	40 SBS뉴스						10 드라마 스페셜 유령 (19회)	
	50 SBS 뉴스	5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제주	50 SBS 뉴스			2	20 드라마 스페셜 유령 (최종)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3	00 네트워크 현장! 고양이 보인다 .부산	50 안녕 자두야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POP 슈퍼콘서트 in 여수 엑스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00 런던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0 SBS 뉴스
4	00 통화 속 과학탐험	20 런던2012	00 안녕 자두야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SBS 애니갤러리	4	50 SBS 뉴스	40 런던 2012 특집 SBS 인기가요
5	00 런던2012특집 SBS뉴스퍼레이드	-하키 남 예선 대한민국:네덜란드 16:30-18:00	00 런던2012특집 SBS뉴스퍼레이드	30 날짜와 생활	35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5	00 런던 2012	00
6	30 잘먹고 잘사는 법 스페셜	05 런던2012특집 생방송 투데이	05 런던2012특집 생방송 투데이	05 런던2012특집 생방송 투데이	30 런던2012	6	-태권도 여+67kg 남+80kg 예선 (차동민,17:15- 이인중,17:30-)	일요일이 좋다 -김병만의 정금의 법칙 -런닝맨
7	10 런던2012특집 이송대, 경제성 서블록형제의 마지막 도전	10 런던2012특집 도마의 신 마침내 비장!	00 런던2012 -태권도 남 58kg 예선(이대훈) 19:15-	10 런던 2012	-태권도 여67kg 예선(황경선) 19:00-	7	30 런던 2012 -배구 여 3.4위전 19:30-21:30	
8	00	00	00	00	00	8	00 런던 2012 특집 SBS 8 뉴스	00 런던 2012 특집 SBS 8 뉴스
9	50 런던2012	50 런던2012	50 런던2012특집 -장미란(가제)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50 궁금한 이야기 Y	9	40 런던 2012	30 주말극장 맛있는 인생
10	-탁구 여 단체 준결승 H/L21:00이후 -사격 남50m소총3자세 결선 21:45-22:05 -레슬링 남 그레코로만형 60kg(정지현) 예선,16강,8강,4 강 21:00-23:45	-레슬링 남 그레코로만형 66kg (김현우) 예선,16강,8강,4강 21:00-24:30 -탁구 여 단체 3.4위전 H/L 22:00이후	40 드라마 스페셜 유령	40 드라마 스페셜 유령	55 런던 2012 특집 -축구국가대표(가 제)	10	30 특별기획 신사의 품격	40 런던 2012 -복싱라이트60kg (한순철)결승21:45-2 2:00
11	55 런던2012	10 런던2012특집 나이트라인	00 런던 2012	00 런던 2012 배구 여 준결승(1)23:00-25:00	45 런던 2012 -리듬체조 개인예선 (손연재)H/L 22:36이후	11	50 런던 2012 -태권도 여+67kg 남+80kg 8강,4강 (이인중,차동민) 23:00-02:00	10 특별기획 신사의 품격
12	-하키 여 예선 대한민국:벨기에 24:00-25:30	30 런던2012	-태권도 남58kg8강,4강 (이대훈) 23:00-02:00 -탁구 남 단체 3.4위전 H/L22:00이후	00 런던 2012 배구 여 준결승(1)23:00-25:00	-태권도 여67kg 8강,4강 (황경선) 23:00-0 2:00	12	-리듬체조 개인결선 (손연재) H/L	30 런던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1	30 런던2012특집 나이트라인	-헨드블 여 8강전 대한민국:러시아 01:00-03:00 -레슬링 남 그레코로만형66kg 3,4위전-결승 01:45-04:15	10 런던 2012특집 나이트라인	40 런던 2012특집 나이트라인 00 런던 2012 -헨드블 여 준결승(1)25:00-26:30	00 런던 2012특집 나이트라인	1	23:43이 후	50
2	45 런던2012	00	30 런던2012	30 런던 2012	15 런던 2012 -레슬링 남 자유형 55kg,74kg 3,4위전,결승 01:4-04:15	2	10 런던 2012	런던 2012 결산 하이라이트 (가제)
3	-레슬링 남 그레코로만형60 kg (정지현) 결승,시상식 01:45-04:15 -역도 남105kg 03:00-04:40	런던2012	-탁구 남 단체 결승 H/L 02:30이후 -육상 남110m허들결승 여200m결승 02:00-05:55	-배구 여 준결승(2) 03:30-05:30 -헨드블 여 준결승(2) 04:30-06:00	-육상 남110m허들결승 여200m결승 03:00-05:40	3	-배구 여 결승,시상식 02:30-04:30	
4	-육상 여 장대높이뛰기 결승 03:00-06:00 -복싱 라이트60kg급 (한순철) 8강 H.L05:30	-역도 남+105kg 03:00-04:40 -계속-	50 런던2012	-육상 여 계주예선 남 200m결승 02:30-05:40 -복싱 라이트60kg급 (한순철)준결승 (05:00-05:30 -계속-	50 런던 2012 -태권도 여67kg 패자부활전,3,4위 전,결승 (황경선) 04:00-06:45 -계속-	4	런던 2012 -태권도 여+67kg,남+80kg결 승 (이인준,차동민) 04:00-06:45	00 런던 2012 -올림픽 폐회식 05:00-07:30 -계속-

<표 13> NHK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26일~7월 29일)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4				15 시리즈 세계 유산 100 "에덴버러 시내-영국" 20 시점 • 논점 "중국" 가져 "생각"		4	00 당신이 주역 50 SP ~ 올림픽 직전 파이팅! 일본 음성 20 교회 팬을 순례 음악 히카루 "루스 '도로의 노래'" 25 시리즈 세계 유산 100 "더헵 성과 대성당 ~ 영국 ~"	15 대하드라마 모리 다이제스트 제29회 "현자의 결혼" 30 아름다움의 향아리 "배구니 가방"
5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뉴스 • 기상정보 • 스포츠		5	00 뉴스 기상 정보 15 리우 제품군의 BUI Wenzhen 늘어 올 차트 갑 '모라색 텍스트' 중계 야마모토 Yih의 황금 세계의 원래 파빌리온 45 NHK 국제 방송 프로그램 심의회 - 7월 심의에서 50 기상 정보	런던 올림픽(중계) <개 회식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6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뉴스•스포츠•기상정보		6		00 뉴스 기상 정보
				3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뉴스•스포츠•길거리 정보실			15 늘속할 스타! 선 "쫄깃쫄깃 투명! 호각의 활용(영역) 이하 ~ 사가 가라 쓰시 ~"	50 고려해야 할 NHK 중앙 방송 편 그룹 7월 고려
7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뉴스•특집 스포츠		7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스포츠•기 상정보
				45 NHK 뉴스 오하요 일본 뉴스•중계 리포트				
8				00 연속 TV 소설 메화박사(100) "여기에 있는"		8	47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스포츠•기 상정보	
				15 아사이치 "프리미엄 토크 야나기 사와 신고"				
				55 뉴스 기상 정보				
9				15 아사이치 "JAPA네비 배"모에"파라다이스 아웃이치"	00 상원 사회 보장의 국회 지원 "특별위원회 하나 개혁 세금 의문"	9	02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기상정보	
				55 모두의 제조			07 연속 TV 소설 메화 박사(102) "여기에 있는"	45 런던 올림픽(특화) <수 영>제조매진 <주 구여자> <애선
							22 주간 뉴스 깊이 읽기모드디어 개막! 런던 올림픽 개막식 다이제스트 외	
10				00 뉴스 기상 정보		10	런던 올림픽(특화) <개 회식	
11				05 런던 올림픽(특화) 올림픽자세선F "일본vs캐나다"		11		
				54 기상 정보			54 기상 정보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12				00 뉴스	20 BS 콘시어지 "이키 모노가 카리를 맞아"	12	00 뉴스	00 뉴스
				20 사라메시 "주먹밥 선택"			20 머라이어디 생활 웃음 백과 셀▽즉시 두고한다고 했는데▽아내의 빛	15 NHK 느린 이후 - 그를 말과 현립 마에마시 -
				45 연속 TV 소설 매화 박사(100) "여기에 있는"			45 연속 TV 소설 매화 박사(102) "여기에 있는"	
1				00 뉴스		1	00 뉴스	
				05 연속 퀴즈 홀드 은1<061>			05 핑 치양 Sean(29)에이즈 하위 결혼식	05
2				27 스튜디오 파크에서 안녕하세요 메구 유우키		2		전국 대학 야구 선수 권 회의에 94 다시 - 이스트 도쿄 회의 직무 중•콜 - Kokushikan "올주 문전"학원의 설립
				00 뉴스 기상 정보 05 안녕하십니까 일본 열도			50 전국 대학 야구 선수 권 회의에 94 다시-웨스트 도쿄 회의 직무 중•전화-주 단기 음주 운전Kosei 학원	20 뉴스
3				00 뉴스 기상 정보	상원 사회 보장의 국회 지원 "특별위원회 하나 개혁 세금 의문"	3		25 올림픽을 더 즐겁게!
				12 모두의 동요 "갈매기 수병 씨"			30 다윈이 왔다!•신"개구리 아빠 목숨을 건 육아"	
				15 로컬 다이렉트 매일 세균 ☆ 스타 "런던 올림픽 최선 응원 스페셜"				
4				00 뉴스 기상 정보		4	10 NHK런던 올림픽 방송 테마 송 "이키 모노가 카리 "마음이 불고 있다"	00
				05			15 (런던 올림픽 PR) "유상 남자 마리타. 후지와라 새로운 불꽃 코스에"	매화 선생님 일주일 제17주 "여기에 있는"
				종합 진료의 닥터G "아파서 죽을 것"			16 올림픽을 더 즐겁게!	20 NHK 런던 올림픽 방송 테마 송 "이키 모노가 카리"바람이 불고 있다"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50 우체국 두어 네트워크			26 NHK 사전지도	5 NHK 사전지도
5				55 뉴스	08 뉴스		30	30
				05 우체국 두어 네트워크 ▽ 와타나베 美佐子 생산 출연 "할머니 담"의 모습 • 거물 고백?	18 우체국 두어 네트워크 ▽ 여름의 후지산! 기상캐스터 히라이 노부유키가 인기의 절경 루트 결주	5	런던 올림픽(중계) <배 구 여자 예선 "일본 vs 알제리"	런던 올림픽(중계) <유 도 • 예선 여자 52kg급 남자 66 kg급
6				00 뉴스			53 기상 정보	55 기상 정보
				10 수도권 네트워크		6		
				52 기상 정보				
7				00 NHK 뉴스 7			00 NHK 뉴스 7 & 올림픽	58 NHK 뉴스 7 & 올림픽
				30 클로즈업 현대 "데모는 사회를 바꾸거나~ 목소리 를 내기 시작한 시민들~"		7		
				58 기상 정보	30 런던 올림픽을 철저히 즐기자!! "곧 개막! 런던 올림픽"			
8				00 일 하켄 伝 "진심 스위치				30 런던 올림픽
				43 곧 9시 사전지도		8		
				45 수도권 뉴스 845			30 런던 올림픽(중계) <축 구 여자 "일본 vs 스웨덴"	
9				00 뉴스 워치 9 ▽나테시코 승리! 남자 스페인전 바로 정보 ▽아동 학대 새로운 대책	00 뉴스 워치 9 ▽축구 남자가 금성 ▽00아나운 서가 대담 예상 • 금메달은 누가?	9		
10				00	00 정보 LIVE 방금! "당신은 몰라! 열대야 공포"			02 평 치양 Sean<30> 수준의 홈 에게 만족
					50 뉴스 기상 정보	10		47 뉴스 기상 정보
					55 들라크루아			54 뉴스 기상 정보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11				런던 올림픽(중계)◇축 구 남자•예선 "일본 vs 스페인"	"한류 러브 스페셜" 25 Sports 플러스 ▽ 런던 올림픽 개막 직전 특집! 그 선수누? 35 Biz 플러스 ▽ 멋진 점유율 사업 기회? 50 시론 공론 "곧 개막! 런던 올림픽에 대한 관점" 00후지오 해설 위원	11		57 런던 올림픽
12				50 NEWS WEB24 ▽종료 직후 축구 스페인전을 미야자와 미셀 씨와 되돌아	00 NEWS WEB24 ▽런던 올림픽 곧 개막! 일본 세의 활약을 전망. 금메달은 25 Shibuya Deep A 올림픽 퀴즈 SP	12		
1				15 사천 Zhanheng 평문가의 경우 여론의 "마련 상태 이내 0000 아웃 25 NHK 스페셜 "나데시코	55 마리오 님의 이공 님! "윤두"	1	27 뉴스 기상 정보 23 뉴스 기상 정보	32 런던 올림픽(중계)◇탁 구여자◇체조여자
2				15 NHK 스페셜 "사랑과 0 순-탁구 여자 메달에 도전한다~"	:00 SONGS "이키 도노가 카리" 30 런던 올림픽을	2	28 런던 올림픽◇제조 남자•예선 외	53 런던 올림픽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3				05 모리 연고지가는	철저히 즐기자!! "몬 개막! 런던 올림픽" 45 올림픽 감동은 노래를 타고	3		
4				05 모두의 노래 "쇼보쿠지라・췌비 코부라" "6양이 드러누워" 10 BS 사경지도 "한국 역사 드라마" 공주의 날자(BS 프리미엄)"	00 당신이 주역 50 음성 SP ~올림픽 직전 파이팅! 넋은 음성~	4		

<표 14> NHK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30일~8월 5일)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1						1		
2					10 런던올림픽(중계)◇ 체조여자단체◇수 영남자200m접영결 승	2		
3	53		10 런던올림픽(중계)◇ 체조여자단체◇수 영남자200m접영결 승		10 런던올림픽(중계)◇ 체조여자개인종합 결승◇수영결승 다른	3		14
4	런던 올림픽	24		11 런던올림픽(중계) ◇수영남자200m경 영결승다른		4		
5		런던올림픽(중계) ◇체조남자단체결 승◇배구여자예선	09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기상정보・스 포츠	24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기상정보・ 스포츠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기상정보・ 스포츠	00	런던올림픽(중계) ◇육구 여자준결승◇육 상여자 100m 예선	런던올림픽(중계) ◇육상 남자 10000m결승 외
6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스포츠・기상 정보	03 NHK 뉴스 오하요 일본&올림픽뉴스・ 스포츠・기상정보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올림픽뉴스・스포츠・기상정보			6	13 NHK 뉴스 오하요 일본&올림픽뉴스・ 스포츠・기상정보	03 뉴스 기상 정보 13 뉴스 기상 정보 18 늘어난 스타! "생선의 맛을 듬뿍! 잡어 천국"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3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스포츠 길거리 정보실					3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스포츠 길거리 정보실	53 기상 정보 뉴스
7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특집 • 스포츠				7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특집 • 스포츠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 스포츠 • 기 상 정보
	5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5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45 여름뿐만 아니라 카 진연백 정망 위성탄 일파인 권트리 라인의
8	00	연속 TV 소설 매화 박사 "소중한 사람"				8	00 연속 TV 소설 매화 박사(108) "소중한 사람"	00 주방이 달린다 선 "항구 요코하마 어린이 8명! 대가족의 식탁"
							15 주간 뉴스 깊이 읽기	45 모타씨의 딸 제6화 "웃는 얼굴은 모두 황금이다"
							45	50 미와 노유 그 두 단어 로망을 낳는다
9	15	15	15	15	15	9	00 일 야오 토론 Naru 협의회 정말 여름 의회의 공격과 방어	
10		런던 올림픽(녹화)◇수영◇ 축구남자◇탁구여자 ◇제조여자	런던 올림픽(녹화)◇체 조남자단체결승◇ 수영◇배구여자◇ 탁구	런던 올림픽(녹화)◇수영 ◇탁구◇축구여자 ◇제조여자단체	런던 올림픽(녹화)◇체 조남자 개인 종합 결승◇수영◇축구 남자	10	런던올림픽(녹화)◇ 수영결승◇제조 여자 개인 종합◇배드민턴	00 뉴스 기상 정보
	11					11	10:05 런던올림픽(녹화) ◇수영◇축구남자 준결승◇육상◇탁 구여자 단체	
	54	기상 정보					54	기상 정보
12	00	뉴스와 올림픽					00 뉴스와 올림픽	00 뉴스
	45	연속TV 소설 매화 박사 "소중한 사람"					45 연속TV 소설 매화 박사(108) "소중한 사람"	15 NHK 느린 이후 아이치현 고난사-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1	00 뉴스		00 뉴스			1	00 뉴스	00 뉴스	
	05 연속퀴즈홀드 온!		05 연속퀴즈홀드 온!<062>				05 모리(30) "헤이케 납부 거처"	05 혈액에서 새로 선출된 그룹(12)<end>마지막 결사에 대해 기록된	
	27 스튜디오파크에서 안녕하세요 쿤지		27 스튜디오파크에서 안녕하세요 우치다테마키오	27 스튜디오파크에서 안녕하세요 시바 모토유키	27 스튜디오파크에서 안녕하세요 오카다 마사키		51 NHK 사전지도		
2	00 뉴스 기상 정보		00 뉴스 기상 정보			2	00 토요일 스튜디오파크모객 후지모토다카히로. 스이엔사 결스	50 NHK 아카이브즈 시리즈 올림픽(2) 여자마라톤 시드니 금메달	
	05 안녕하세요십니까 일본열도		05 안녕하세요십니까 일본열도	05 안녕하세요십니까 일본열도					
	55 텔레비전 제조		55 텔레비전 제조						
3	00 뉴스 기상 정보	00 상원사회보장의 국회지원 "특별위원회는 하나 개혁 세금 의문"	00 뉴스 기상 정보	00 뉴스 기상 정보		3	00 뉴스		
	15 세계 훌쩍 거리 걷기 선 "밀라노"		12 모두의 동요는 "모른다 초특급"	12 알고있다? 디지털 "런던올림픽을 데이터 방송으로!"	05 NHK스페셜 "붕괴 연쇄의 진상"		05 NHK스페셜 "도쿄 대공습 583장의 미공개 사진"		
	15 세계 훌쩍 거리 걷기 선 "마드리드"		15 세계 훌쩍 거리 걷기 선 "아테네(그리스)"	15 세계 훌쩍 거리 걷기 선 "칼즈부르크"	55 NHK 사전지도				
4	00 뉴스 기상 정보		00 뉴스 기상 정보	00 뉴스 기상 정보	00 뉴스 기상 정보	4	05 목격! 일본열도-선 "설에 도착! 우리들의 여름-오카나와 雨天東島"	00 대하 드라마 모리 다이제스트 제30회 헤이케 납부 거처"	
	05 사라메시 선택		15 월간 잡힌 마이 비디오-7월호-	05 사라메시 선택	15 사라메시 선택		28 BS 사전지도 "거대 전함 야마토(BS 프리미엄)"	25 NHK 사전지도	
	30 런던올림픽▽오늘의 예정-볼거리▽전날 하이라이트		30 런던올림픽▽오늘의 예정-볼거리▽전날 하이라이트	런던올림픽(중계) ◇하키 여자예선.. "일본vs한국"	30 런던올림픽▽오늘의 예정-볼거리▽전날 하이라이트				
6	00 뉴스	10 뉴스	10	00 뉴스		6	런던올림픽(중계) ◇트라이 애슬론 여자		
	10 수도권 뉴스		런던올림픽(중계) ◇ 배구 여자예선 "일본 vs도미니크공화국"	10 런던올림픽(중계) 수영-예선 남자 50m 자유형 여자 800m 자유형	10 런던올림픽(중계) ◇ 수영-예선 여자 50m 자유형 의		30 런던올림픽▽오늘의 예정-볼거리▽전날 하이라이트	40 뉴스	
	20 런던 올림픽(중계)◇수영-예선 남자 200m 접영 의		런던올림픽(중계) ◇ 유도-예선 여자 63kg 급. 남자 81kg급					50 런던올림픽(중계) ◇탁구 남자 단체 준결승 "일본vs홍콩"	
				45 수도권 뉴스				45 수도권 뉴스	
	55		기상 정보	52 기상 정보				53 기상 정보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00 NHK 뉴스 7 & 올림픽						04 NHK 뉴스 7 & 올림픽	00 NHK 뉴스 7 & 올림픽
7	30 런던 올림픽(중계)수영 • 예선 여자 200m 개인혼영의	30 런던 올림픽(중계)유도 • 예선 여자 63kg 급, 남자 81kg 급	30 런던 올림픽(중계)수영 • 예선 남자 200m 배영 의	30 런던올림픽(중계)수영 • 예선 남자 100m 접영 의	30 런던올림픽(중계)수영 • 예선 여자 400m 혼계영 의	7	44 런던올림픽(중계)유도 하이라이트	30 런던올림픽(중계) 탁구 남자 단체 준결승 "일본vs중국"
8						8		00 평치양 Saen(31)는 이즈올리다
	45 수도권 뉴스 845						45 뉴스 기상 정보	
9	00 뉴스 위치 9 & 올림픽(중계)남자 축구 8강 진출! ▽ 북삼 200미터	00 뉴스 위치 9 & 올림픽(중계)다음의 메달은? 유도, 탁구, 수영 경기의 최선정보	00 뉴스 위치 9 & 올림픽	00 뉴스 위치 9 & 올림픽(중계)어머나에게 바치는 금메달...유지, 완전 부활의 비밀	00 뉴스 위치 9 & 올림픽(중계)수영에서 전후 최대 메달 일본팀 27명의 인연	9	00 런던올림픽(중계)탁구 남자 단체 육상 예선(중계)남자 여자 준결승	
10	45 런던 올림픽(중계)수영(중계)탁구(중계)배드민턴 여자 복식	00 런던올림픽(중계)수영(중계)탁구(중계)배드민턴 여자 복식	45 런던 올림픽(중계)유도 결승 여자 70kg 급, 남자 90kg 급	00 런던올림픽(중계)양궁(중계)체조 남자(중계)하키 여자(중계)수영 하이라이트	45 런던 올림픽(중계)유도 결승 여자 78kg 이상 급, 남자 100kg 이상 급	10	15 뉴스 기상 정보	00 런던 올림픽(중계)체조 종목별 결승 외
11	50 시론공론 "전국민에게 변호할당 마이 변호 법안의 과제" 다케다 해설위원	00 시론공론 "전국민에게 변호할당 마이 변호 법안의 과제" 다케다 해설위원	50 시론공론 "발원점은 실현할까" 독일의 도전 이혼 신해철 위원			11	20 런던올림픽(중계)탁구 여자 단체 준결승 "일본vs독일"	
12		00 뉴스 기상 정보	20 뉴스 기상 정보	00 뉴스 기상 정보	30 뉴스 기상 정보	12	58 런던올림픽(중계)배드민턴 여자 복식 결승	16 뉴스 기상 정보
1	19 뉴스 기상 정보	10 런던올림픽(중계)축구 남자	30 런던올림픽(중계)축구 남자	10 런던올림픽(중계)체조 여자 개인 종합 결승(중계)수영 결승 다른	35 런던올림픽(중계)축구 여자 준결승(중계)육상 여자 100m 예선	1	09 뉴스 기상 정보	21 런던올림픽(중계)펜싱(중계)탁구 여자 단체 준결승
2						2	14 런던올림픽(중계)육상 남자 10000m 결승 외	
3	24 런던 올림픽(중계)체조 남자 단체 결승(중계)배구 여자 예선	런던올림픽(중계)체조 여자 단체(중계)수영 남자 200m 접영 결승	11 런던올림픽(중계)수영 남자 200m 평영 결승 다른		00 런던올림픽(중계)축구 여자 준결승(중계)육상 여자 100m 예선	3		

<표 15> NHK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8월 6일~8월 12일)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12						12		
1						1		
2						2		
3	21			15		3	30 런던올림픽(중계) ◇축구남자-3위결 정전"일본vs한국"	
4	런던올림픽(중계) ◇펜싱◇탁구여자 단체 준결승	15 시리즈 세계유산 100 "페르 크린 겐 제철소 ~독일~"	15 시리즈 세계유산 100 "알베 로벨로의 투룟리~이탈리아~"	런던올림픽(중계) ◇레슬링 결승 여자 48kg급. 여자63kg급	00	4	15 태하 트라다 모리 다이제스트 제31회 "이즈의 流人"	
		20 시집-눈점"무역 혹자 진관가?"	20 모타씨의 '말' 제1화 "노력해야만 벌인될 수 있다"				20 명곡 앨범 "마라게나"	
		30 NHK뉴스 오하요 일본&올림픽뉴스 기상정보·스포츠	30 NHK뉴스 오하요 일본&올림픽뉴스 기상정보·스포츠	45 NHK뉴스 오하요 일본&올림픽뉴스 기상정보·스포츠	런던올림픽(중계) ◇축구여자 결승"일본vs미국"		25 시리즈 세계유산 100 "메니스와 석호~이탈리아"	
5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 기상정보 • 스포츠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 기상정보 • 스포츠			5	30 아름다운의 향아리 "사쿠렌트 매혹의 다육식물"	
	56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 스포츠 • 기 상정보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 기상정보 • 스포츠					00 뉴스 기상 정보	
6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 스포츠 • 기 상정보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스포츠 • 기상정보		15 NHK뉴스 오하요 일본&올림픽뉴스· 스포츠·길거리 정보기상정보	6	15 NHK뉴스 오하요 일본&올림픽뉴스· 스포츠·기상정보	00 뉴스 기상 정보
	25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기상정보·교 통정보						50 능숙한 스타! 선 "한기 좋아! 청류가 육성 은은~기후 균조시~"	
	3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스포츠 길거리 정보실	30				30	50 알고있다? 디지털 "NHK 온디멘트 가족에서 활용!"	
	55 NHK 뉴스 오하요 일본 및 올림픽 교통정보·기상정보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스포츠 길거리 정보실				53 기상 정보 뉴스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7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특집 • 스포츠					7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 스포츠 • 기상정보	0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 스포츠 • 기상정보	
	5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 올림픽 뉴스						50 NHK 뉴스 오하요 일본 뉴스	45 천연 백 왕 "이와테 메 발톱 왕위"	
8	00 코드-히로시마평화공원 히로시마의 평화 기념 24년이라고 레벨~	00 연속TV 소셜 매화 박사 "새로운 가족"					8	00 연속TV 소셜 매화 박사 "새로운 가족"	00 94 다시 전국 대학 야구 선수 관 총회 - 5일
	39 연속TV 소셜 매화 박사(109) "새로운 가족"	15	15	15	15	15		15 주간 뉴스 깊이 읽기	
9	54 뉴스 기상 정보	런던올림픽(녹화) <육상><축구>여자 <체조>종목별 <권투>					9	45 런던올림픽(녹화) <레슬링><육상> 남자 <답강하>	55 NHK 사전지도
	59 런던올림픽(녹화) <육상><체조>종목별 <권투>	런던올림픽(녹화) <탁구>여자 단체 <육상><체조>종목별						9 권투 준결승 <축구> 남자 <육상>	57 기상 정보
10	런던올림픽(녹화) <육상><체조>종목별 결승	런던올림픽(녹화) <레슬링><육상><축구>여자 <배구>					10	00 권투 준결승 <육상>	00 주요 토론
11	30 헤이세이 나가사키 평화 기념 코드의 24년 나가사키 평화 공원 지의 도시					11	30 94 다시 전국 대학 야구 선수 관까지4	05 런던올림픽(녹화) <육상><배구>여자 결승 <축구>남자 결승	
	50 NHK 사전지도						52 NHK 관동 Koshinetsu 리그를 협의회를 실행할 수 있는 장소7월 고려-	54 기상 정보	
12	00 뉴스와 올림픽	00 뉴스와 올림픽	00 뉴스와 올림픽	뉴스와 올림픽		12	00 뉴스와 올림픽	00 뉴스	
	38 전국 각지 복권 서미 정보 추천-NHK 오사카 홀에서 릴레이-	뉴스와 올림픽					15 NHK노래자랑-후쿠시마현 이와키시.		
1	연속TV 소셜 매화 박사 "새로운 가족"					1	45 연속TV 소셜 매화 박사 "새로운 가족"	00 뉴스	
	뉴스						05 평 지방 Saen(31)는 이즈 흘리다	05	
1	연속퀴즈홀드 온!					1	05 평 지방 Saen(31)는 이즈 흘리다	94 다시	
	27 스튜디오파크에서 안녕하세요 기무라	27 스튜디오파크에서 안녕하세요 바위 경우아키					50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2	00 뉴스 기상 정보	안녕하십니까 일본열도 텔레비전 제조	제1일-전국 대학 야구 선수 관 컨퍼런스로 94뒤로			2		전국대학야구선수 관 총회 - 5일-	
	05								
	55								
3	00 뉴스 기상 정보	15 세계 훌쩍 거리 걷기 선 "파리 라틴 지구 지구(프랑스)"	15 세계 훌쩍 거리 걷기 선 "호치민"			3			
	15								
	15								
4	00 뉴스 기상 정보	사라메시 선택	20 모타씨의 '맘' 제8화 "현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다"	주2-전국 대학 야구 선수 관 컨퍼런스로 94뒤로	3일-<Election 행사 그대가 >전국 대학 야구 선수 관 컨퍼런스로 94뒤로	4	94 다시 전국 대학 야구 선수 관까지4	00 맑음 때로는 농장! "Vol.13 오늘은 여름색, 여자날씨."	
	05							25 미와 노유 그 두 "여자의 최강의 무기는.."	30 사랑 잡화 "뿌라카고"
	30							런던올림픽▽오늘 의 예정•불거리▽전 날 하이라이트	00 그레이트 지원 세 "영광과 우정의 산스위스 아이기"
	30							런던올림픽▽오늘의 예정•불거리▽전 날 하이라이트	30 특히 남북 네코! 참여자는 (히카루 원코트) "세계" Sandply 여행 노트를 읽히고 마십시오
5	00 뉴스	30 런던올림픽▽오늘의 예정•불거리▽전 날 하이라이트				5		40 매화 선생님 일주일 제19주 "새로운 가족"	
	10 런던 올림픽(중계)◇육 상여자 100m허들-예선 외							55 NHK 사전지도	
	10 런던 올림픽(중계)◇육 상여자 100m허들-예선 외								
6	00 뉴스	10 런던올림픽(중계) ◇육상 예선 여자 장던지기 남자110m 허들	10 런던올림픽(중계) ◇육상예선남자 장대 높이뛰기 아름다운 여자해머던지기	10 런던올림픽▽오늘의 예정불거리▽전날 하이라이트		6		10 런던올림픽▽오늘 의 예정불거리▽전날 하이라이트	
	10 런던올림픽(중계) ◇육상예선 여자 장던지기 남자110m 허들							10 런던올림픽▽오늘 의 예정불거리▽전날 하이라이트	
	45 수도권 뉴스							30 NHK 뉴스 7 & 올림픽	
	52 기상 정보							50 수도권 뉴스	
7	00 NHK 뉴스 7 & 올림픽	00 NHK 뉴스 7 & 올림픽	00 NHK 뉴스 7 & 올림픽	00 NHK 뉴스 7 & 올림픽	00 NHK 뉴스 7 & 올림픽	7		00 NHK 뉴스 7 & 올림픽	
	35 런던 올림픽◇육상 남자 800m예선◇권투남 자 벨팅급	30 런던올림픽(중계) ◇육상예선 여자 5000m.여자 장던지기 다른	35 런던올림픽(중계) ◇육상남자10종경 기.여자해머던지기 예선 외	40 런던올림픽◇육상 예선◇축구여자 나테시코 결승 불거리	45 런던올림픽◇축구 여자결승"일본vs미			30 런던올림픽◇축구 하이라이트◇탁구 하이라이트	런던올림픽(중계)◇ 남자 마라톤
	55 NHK 뉴스 7 & 올림픽	55 NHK 뉴스 7 & 올림픽	55 NHK 뉴스 7 & 올림픽	55 NHK 뉴스 7 & 올림픽	55 NHK 뉴스 7 & 올림픽			55 NHK 뉴스 7 & 올림픽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8	00 NHK스페셜 김은비~꽃 유산 (이) 많은 피복자 조사~	45 수도권 뉴스	30 뉴스 당수회담 3당 협의 관련	40 수도권 뉴스	45 뉴스 워치9 & 올림픽▽나데시코 최종결전에▽일본 금메달 러시	8	45 뉴스 기상 정보	
	50 수도권 뉴스			45 수도권 뉴스 845				
9	00 뉴스 워치9 & 올림픽▽나데시코 오늘 메달에▽볼트 빠든 비밀은	50 뉴스 워치9 & 런던올림픽(중계) ◇배구여자 준준결승	00 뉴스 워치9 & 올림픽▽해산시기 놓고 노다-다니가키 회담 모색 계속	05	00 뉴스 워치9 & 올림픽	9	00 런던올림픽(중계) ◇리듬체조개인 종합 결승	25 뉴스 기상 정보
	10 뉴스		10 뉴스 기상 정보					30 런던 올림픽(중계)◇리듬 체조 단체 결승
10	00 런던올림픽(중계) ◇체조 종목별 결승 남자남식 고리 남자범틀	25 런던올림픽(중계) ◇탁구여자단체결 승"일본vs중국"	10 뉴스	15 런던올림픽◇올림 픽 하이라이트	10 런던올림픽(중계) ◇레슬링예비전 준결승 여자 55kg급 기타	10	40 뉴스 기상 정보	50 뉴스 기상 정보
11	50 펜들과 함께 혼합 평결에 깊은 원형 RU 소비 과세 협의회 성 해설 승리 When		15 뉴스 기상 정보					55 뉴스 기상 정보
12	16 뉴스 기상 정보	31 뉴스 기상 정보	00 뉴스 기상 정보	00 뉴스 기상 정보		12	50 런던올림픽(중계) ◇축구남자 결승◇레슬링 결승	
1	26 런던올림픽(중계) ◇레슬링 그레코로만스타일 60kg급		37 런던올림픽◇육상 예선◇체조 종목별◇싱크로나 이즈드 스위밍	10 런던올림픽◇리듬 체조◇싱크로나이 즈드 스위밍	10 런던올림픽◇리듬 체조◇싱크로나이 즈드 스위밍◇권투			
2	39 북알프스 "알프스의 사계"	30 오가 사 와라. "아버지 섬 바다"	15 런던올림픽(중계) ◇레슬링 결승 여자 48kg급.여자63kg급	00	30	3		
3	00 NHK 사전지도	00 NHK 사전지도						
4	05 모두의 노래 "병아리 도꾸도" "소리의 심포니"	05 모두의 노래 "후시기나쵸카라" "꽃 바다"	05 모두의 노래 "후시기나쵸카라" "꽃 바다"	05 런던올림픽(중계) ◇축구여자 결승"일본vs미국"	05 런던올림픽(중계) ◇축구남자-3위결 정전"일본vs한국"	4		
	10 NHK 사전지도	10 NHK 런던올림픽방송 테마송"이키 모노가 카리" "비람이 불고 있다"						

<표 16> BBC1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26일~7월 29일)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6						6	00	올림픽 Breakfast	
7			00	Breakfast	00	7			
8						8			
9			15	후계자 사냥꾼		9	00	00 올림픽(조정 남자 더블 스컬 라이트캡)	
10			00	집 구매하기 프로젝트		10			
11			00	카우보이 합정	00	다락방 현금	11	30	
			45	년 낚였어	30	년 낚였어			
12			15	바겐세일 사냥	00	런던 2012: 올림픽 카운트 다운 2부	12	00 올림픽(여자 400m 자유형)	
1			00	BBC 뉴스		1	00 BBC 주말뉴스		
			30	BBC 런던 뉴스			10	BBC 런던 뉴스	
2			45	Doctors	45	바겐세일 사냥	2	15	
			15	국가 탈출					
3			00	올림픽 꿈	00	BBC 뉴스	3	00 올림픽(사이클 도로 남자)	
			05	누가 개를 나오게 했나?	05	무서운 역사			
			30	해커 타임	35	12 어게인			
4			30	12 어게인	00	마이 라이프	4	45 BBC 주말뉴스 55 BBC 런던 뉴스	
			00	올림픽(여자 축구 영국 vs 뉴질랜드)	30	마이 라이프			
5			00	런던 2012: 올림픽 카운트 다운 1부	00	런던 2012: 올림픽 카운트 다운 3부	5	00 포털 1-2012 헝가리 그랑프리 하이라이트	
			00	BBC 뉴스					
6			30	BBC 런던 뉴스		6	00	00 올림픽(양궁 남자 단체, 테니스 남자 여자 단식)	
							30	30 BBC 주말뉴스	
7			00	The One Show	00		7	00	
			30	영국 올림픽 스토리	00	00			00 올림픽(수영)
			57	BBC 뉴스 & 지역 뉴스					
8			00	EastEnders			8	00 올림픽(여자 400m 자유형)	
9			30	Bert and Dickie		올림픽 개막식	9		
10			00	BBC 뉴스		10	00	00 BBC 주말뉴스	
			25	BBC 런던 뉴스			20	15 BBC 런던 뉴스	
							30	25 토요 복권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32 BBC 날세					
			35 수요 복권	35 완전 멋져(올림픽 스페셜)			올림픽 투나잇	올림픽 투나잇
11			45 너를 위한 올드 뉴스	05 스포츠 문재(올림픽 스페셜)		11		
12			15 EastEnders 옴니버스	35 밀리언스	50 일기예보		00 BBC 뉴스	
					55 BBC 뉴스	12	10 올림픽 스포츠데이	
							55 일기예보	
1			10 일기예보			1	00 BBC 뉴스	
2			15 Britain's Lost Routes with Griff Rhys Jones	15		2		
			15 가짜 영국인					
3			00 영국 문화 영웅					
			30 색품 공장	버트와 총기협회				
4			00 BBC 뉴스					

<표 17> BBC1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30일~8월 5일)

시	07-30(월)	07-0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6						6	00 올림픽 Breakfast	00 올림픽 Breakfast
7	00		올림픽 Breakfast			7		
8						8		
9						9	45 올림픽(트라이애슬 론)	00 올림픽
10	올림픽	올림픽(승마)	00 올림픽(조정, 수영여자100m자유 형)	00 올림픽(양궁, 조정)	00 올림픽(육상, 남자양궁)	10		45 BBC 주말뉴스
11						11		
12	30 올림픽(코스스 컨트리)	30 올림픽(승마단체)	30 올림픽(조정)	30 올림픽(조정)	20 올림픽(조정)	12	20 올림픽(조정-육상남 자100m)	50 올림픽(마라톤 여자)
1	00 BBC 뉴스	15 BBC 뉴스	00 BBC 뉴스			1	00 BBC 주말뉴스	
	30 BBC 런던뉴스	45 BBC 런던뉴스	30 BBC 런던 뉴스				10 BBC 런던뉴스	
2						2		
3	45 올림픽(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싱크로 나이즈)	00 올림픽(승마)	45 올림픽(사이클)	45 올림픽(테니스, 양궁, 사격)	45 올림픽(테니스)	3	올림픽(테니스)	올림픽(요트)

시	07-30(월)	07-0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4						4		00 올림픽(테니스 남자 결승)
5	00 올림픽(기계체조 남자 단체)	00 올림픽(기계체조 여자 단체)	00 올림픽	00 올림픽(트랙 사이클)	00 올림픽(사이클)	5	00 BBC 주말뉴스	50 BBC 런던뉴스
6	00 BBC 뉴스				35 BBC 런던뉴스	6	10 BBC 런던뉴스	50 BBC 런던뉴스
7					55 올림픽(남자 100m 점영 결승, 여자 800m 자유형)	7	15 올림픽(사이클)	50 올림픽(사이클 남자 혼합)
8	00 올림픽	00 올림픽(수영)	00 올림픽(수영, 남자축구)	00 올림픽(수영)		8	50 올림픽(육상,수영)	50 올림픽(육상, 여자 세단뛰기, 여자 400m)
9						9		45 올림픽(100m 결승)
10	00 BBC 뉴스				05 BBC 뉴스	10	30 BBC 주말뉴스	15 BBC 주말뉴스
	30 BBC 런던뉴스				35 BBC 런던뉴스		40 올림픽 투나잇	30 BBC 런던뉴스
	37 BBC 날씨				42 BBC 날씨		50 토요 복권	
11	40 올림픽 투나잇				45 올림픽 투나잇	11	00 올림픽 투나잇	00 BBC 뉴스
12					10 올림픽 스포츠데이	12	25 BBC 뉴스	10 올림픽 스포츠데이
					55 일기예보		30 올림픽 스포츠데이	55 일기예보
1	00 BBC 뉴스					1	15 일기예보	00 BBC 뉴스
							20 BBC 뉴스	

<표 18> BBC1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8월 6일~8월 12일)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6	00					6	00	00
7			올림픽 Breakfast			7	올림픽 Breakfast	올림픽 Breakfast
8						8		
9		00 올림픽(육상, 카누 스프린트)				9		00 올림픽
10	00 올림픽(카누, 육상)		00 올림픽(남자 카누 K1 1,000m 결승)	00 올림픽(카누 스프린트)	00 올림픽(카투스프린 트준결승)	10	00 올림픽(카누 스프린트 200m)	45 BBC 주말뉴스
11						11		
12	30 올림픽(여자 1500m)	15 올림픽(남자 트라이애슬론)	30 올림픽(여자 육상 800m)	30 올림픽(여자 마라톤 수영)	30 올림픽(남자10km 마라톤수영)	12	00 올림픽(조정, 육상남 자100m)	50 올림픽(남자 마라톤)
1	00 BBC 뉴스		00			1	00 BBC 주말뉴스	
	30 BBC 런던뉴스	30 BBC 뉴스	30			10 BBC 런던뉴스		20
2	45 올림픽(여자 이단평행봉 결승)	00 BBC 런던뉴스	45 올림픽(복싱, 장애물 경기)	45 올림픽(남자 사이클 BMX 준결승, 승마 개인 마장마술)	45 올림픽(사이클 BMX 준결승)	2	15 올림픽(여자 사이클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	올림픽(남자 복싱)
3		15				3	30 올림픽(남자 축구 결승)	
4	00		00	00	00	4	00 BBC 주말뉴스	
5	올림픽(사이클)	올림픽(남자 평행봉 결승, 여자 평균대 결승)	올림픽(BMX 사이클, 농구)	올림픽(여자 복싱 결승)	올림픽(남자 여자 BMX, 태권도 준결승)	5	10 BBC 런던뉴스	00
							15 BBC 주말뉴스	올림픽(여자 근대 오종)
							25 BBC 런던뉴스	
6	00 BBC 뉴스		00			6		
	30 BBC 런던뉴스	40 BBC 런던뉴스	30				30 올림픽(남자 승마 장애물 경기, 남자 육상 혼신경기)	
7	00 올림픽(육상, 여자장 대높이뛰기, 남자40 0m허들)	05 올림픽(남자 육상 1500m, 여자 허들 100m 결승)	00 올림픽(남자 허들 110m 결승, 여자 400m 허들 결승)	00 올림픽(남자 육상 200m, 남자 육상 800m, 여자 창던지기 결승)	00 올림픽(육상)	7		00 BBC 주말뉴스
8						8	15 올림픽(트레킹, 10 m 다이빙)	15 BBC 런던뉴스
9						9		30 올림픽 폐막식 카운트다운
10	00		BBC 뉴스			10	00 BBC 주말뉴스	
	30		BBC 런던뉴스			10	30 토요 복권	올림픽 폐막식
	37		BBC 날씨				40	
							올림픽 투나잇	
11	40		올림픽 투나잇			11		30 BBC 주말뉴스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12	00		BBC 뉴스			12	00 BBC 뉴스	50 아폴로 라이브
	10		올림픽 스포츠데이				10 올림픽 스포츠데이	35 밤하늘
	55		일기예보				55 일기예보	55 일기예보
1	00		BBC 뉴스			1	00 BBC 뉴스	

<표 19> BBC2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26일~7월 29일)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0			05 BBC 뉴스	50 BBC 뉴스	55 문화 쇼	0	55 파리의 연인들(Orchestra SEats)		
1					25 BBC 뉴스	1		35 황금의 문 (The golden door)	
2						2	35 off air		
3						3		25 off air	
4			40 off air	00 off air	05 off air	4			
5						5			
6			00	핑구 쇼(The Pingu Show)		6	00 포스트맨 팻 (Postman Pat)		
			10	지그비(Zigby)			15	티미 타임(Timmy Time)	
			25	티미 타임(Timmy Time)			25	압니와 틸의 모험(The adventures of Abney and Teal)	
			35	두근두근 신나는 냇마당(Dirtgirl world)			35	옥토넛크(Octonauts)	
			45	칙칙폭폭 처깅틴(Chuugington)			45	라스타마우스(Rast amouse)	45 라스타마우스(Rast amouse)
			50	라스타마우스(Rastamouse)					
7			00	명수대백과 60(Deadly 60)		7	00 로어(Roar)		
			30	스플라타롯(Splatalot)			30	부모 프로젝트 (Project Parent)	30 파라다이스 카페 (Paradise Cafe)
			53	못말리는 어린 양 손(Shaun the Sheep Championsheeps)					
8			55	리그 오브 슈퍼 에빌(League of Super Evil)		8	00 스쿠비 두 쇼 (The Scooby Doo Show)		
			15	슈퍼 히어로! 캣 삼총사(Pet Squad)			55	스쿠비 두 쇼 (The Scooby Doo Show)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30 니나와 뉴론(Nina and the Neurons)				20 데니스와 쥐나셔 (Dennis & Gnasher)	20 데니스와 쥐나셔 (Dennis & Gnasher)
			45 빅 앤 스몰(Big and Small)				35 더 슬래머(The Slammer)	30 윙인잇 (Wingin' it)
9			00 팅가팅가 이야기(Tinga Tinga Tales)				05	00
			10 리틀 찰리 베어(Little Charley Bear)					
			20 라이라아 더 노이지 라이온(Raa Raa the Noisy Lion)			9	에건 프로그램 (Who Let the Dogs out?)	에건 프로그램 (Who Let the Dogs out?)
			30 뚝뚝뚝 밥 아저씨					
			45 코알라 브라더스(The Koala Brothers)					
10			55 루나 짐(Lunar Jim)				00 아이디어 (My Genius Idea)	00
			03 옥토티크(Octonauts)					
			05 컬위즈(Kerwhizz)					
			30 기관사 Dan의 이야기(Driver Dan's Story Train)		30 루이(Louie)	10	30 스플라타롯(Splatalot)	토요 요리 (Saturday Kitchen Best Bites)
			40 웨이부루(Waybuloo)		40 기관사 Dan의 이야기(Driver Dan's Story Train)			
					50 웨이부루(Waybuloo)		55 명수대백과 60(Deadly 60)	
11			00 꼬꼬마 꿈동산(In the Night Garden)				00 카피캣(Copycats)	
			30 동물원(Animal Park)		10 꼬꼬마 꿈동산(In the Night Garden)	11	30 오오글리스(OOglies)	30 레이몬드 블랑 (Raymond Blanc)
					40 동물원(Animal Park)		45 디디 영화 (Diddy Movies)	
12			00 세인트 스트라이크 백(The Saint Strikes Back)	00 세인트 스트라이크 백(The Saint Strikes Back)			00 화살의 질주 (Run of the Arrow)	30 도시탈출 (Escape to the Country)
					25 세인트의 더블 트러블(The Saint's Double Trouble)			
1			05 세인트 테이크 오버(The Saint Takes Over)	00 사느냐 마느냐(To Buy or Not to Buy)			1	15 라라미에서 온 사나이(The Man
					30 사느냐 마느냐(To		20	

시	07-23(월)	07-24(화)	07-25(수)	07-26(목)	07-27(금)	시	07-28(토)	07-29(일)
2			15 가장 약한 자(Weakest Link)	45 쇼미모네(Show me the Monet)	Buy or Not to Buy	2	엘시드 (El Cid)	from Laramie)
					15 가장 약한 자(Weakest Link)			55 영국기차 여행(Great British Railway Journeys)
3			00 쇼미모네(Show me the Monet)	30	00 쇼미모네(Show me the Monet)	3		25 오션스(Oceans)
4			45 헤어리 바이크의 영국 요리여행 (The Hairy Bikers' Food Tour of Britain)	올림픽 런던 2012 축구 남자 스페인,일본 아랍에미리트,우루과이	45 헤어리 바이크의 영국 요리여행 (The Hairy Bikers' Food Tour of Britain)	4	15 도시탈출 (Escape to the Country)	25 찬가(Songs of Praise)
			30 플로그잇 (Flog it)		30 플로그잇 (Flog it)			25 찬가(Songs of Praise)
5			15 엘틱 로드 트립(Antiques Road Trip)		15 엘틱 로드 트립(Antiques Road Trip)	5	15 포플러 1	00
6			00 지식인(Eggheads)		00 지식인(Eggheads)	6	30 지식인(Eggheads)	올림픽 런던 2012
			30 영국기차 여행(Great British Railway Journeys)		30 영국기차 여행(Great British Railway Journeys)			00
7			00 해안가(Coast)		00 해안가(Coast)	7	30 노인부대 (Dad's Army)	00 엘틱 로드 쇼 (Antiques Roadshow)
8			00 집개조 (Restoration Home)	00 내츄럴 월드(Natural World)	30 정원사 세계 (Gardeners' World)	8	00 BBC 프롬 콘서트	00 공학 거인 (Engineering Giants)
9			00 리빙 아미쉬 패러다이스 (Leaving Amish Paradise)	00 나잇 워치 (The Night Watch)	00 야생에서의 1년 (A year in the Wild)	9	25 9개의 교향곡 (Barenboim on Beethoven: Nine Symphonies That Changed the world)	00 어둠 (The Dark: Nature's Nighttime World)
10			00 문화쇼 (The Culture Show)		00 BBC 10시 뉴스	10	55	00
			30 뉴스나잇 (Newsnight)	30 뉴스나잇 (Newsnight)	30 뉴스나잇 (Newsnight)			MotoGP
11			20 오디세이 (The Bridges That built London with Dan Cruickshank)	20 러닝 점프 (A Running Jump)	10	11	55	00
			50 러닝 다리 (The Bridges That built London with Dan Cruickshank)	55 공학 거인(Engineering Giants)	00 복권			00 라인 오브 듀티 (Line of Duty)
					00 취향			저지걸(Jersey Girl)

<표 20> BBC2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7월 30일~8월 5일)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0	00 트웬티 트웰브 (Twenty Twelve)					0		
	30	30	15 월드 업! (World Up! Black American Pop at the BBC)	35 DIY SOS	30 공학 거인 (Engineering Giants)			15 보이스 프럼 카운티 클레어 (The Boys and Girl from County Clare)
1	포퐁러 1	어둠 (The Dark: Nature's Nighttime World)	15 인도양 (Indian Ocean with Simon Reeve)	35 더픽서(The fixer)	30 파노라마	1	15 썸원 엘스 (Someone Else)	40 off air
		더픽서(The fixer)						
2	00 홀비시티 (Holby City)		15 더픽서(The fixer)	35 음식 공장 (Food factory)	00 더픽서(The fixer)	2	25 토마스 테일리 영국 다이빙 선수	
		더픽서(The fixer)						
3	00 영국의 위인들 (Britain's Heritage Heroes)		15 영국의 위인들 (Britain's Heritage Heroes)	05 off air	00 내추럴 월드(Natural World)	3	20 헤어리 바이크의 영국 Best (The Hairy Bikers' Best of Britain)	
	30 off air	30 영국의 위인들 (Britain's Heritage Heroes)	45 off air					
4					00 off air	4	05 off air	
5						5		
6	00	포스트맨 팻 (Postman Pat)				00	포스트맨 팻 (Postman Pat)	
	15	칙릭폭폭 처깅턴(Chuugington)				15	티미 타임(Timmy Time)	
	20	티미 타임(Timmy Time)				25	압니와 틸의 모험(The adventures of Abney and Teal)	
	30	압니와 틸의 모험(The adventures of Abney and Teal)				35	옥토넛츠(Octonauts)	
	40	옥토넛츠(Octonauts)				45	라스타마우스(Rastamouse)	45 라스타마우스(Ra stamouse)
	50	라스타마우스(Rastamouse)						
7	05	명수대백과 60(Deadly 60)				00	로어(Roar)	00 로어(Roar)
	30	놀라운 역사(Horrible Histories)				30	부모 프로젝트 (Project Parent)	30 파라다이스 카페 (Paradise Cafe)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8	00	스쿠비 두 쇼(The Scooby Doo Show)				8	00 스쿠비 두 쇼 (The Scooby Doo Show)	55 해커 타임 (Hacker Time)
	25	트리 푸 톰(Tree Fu Tom)					20 데니스와 귀나셔 (Dennis & Gnasher)	25 데니스와 귀나셔 (Dennis & Gnasher)
	45	저스틴의 집(Justin's House)					35 더 슬래머(The Slammer)	35 윙인잇 (Wingin' it) 58 명수대백과 60(Deadly 60)
9	15	상속 사냥꾼(Heir Hunters)				9	00 애견 프로그램 (Who Let the Dogs out?)	00 애견 프로그램 (Who Let the Dogs out?)
							30 믿기지 않는 음식 (Incredible Edibles)	30 제빵 프로 (Junior Bake Off)
10	00	집 구매하기 프로젝트(Homes Under the Hammer)				10	00 아이디어 (My Genius Idea)	00 토요 요리 (Saturday Kitchen Best Bites)
							30 스플라타롯 (Splatalot)	
							55 명수대백과 60(Deadly 60)	
11	00	카우보이 트랩(Cowboy Trap)				11	00 카피캣(Copycats)	30 레이몬드 블랑 (Raymond Blanc)
	45	45	45	캐쉬 인 더 아틱 (Cash in the Attic)	캐쉬 인 더 아틱 (Cash in the Attic)		25 오오글리스 (OOglies)	
				캐쉬 인 더 아틱 (Cash in the Attic)	40 못말리는 어린 양 손(Shaun the Sheep Championsheeps)			
12	15	30	15	바긴 헌트 (Bargain Hunt)	바긴 헌트 (Bargain Hunt)	12	45 놀라운 역사(Horrible Histories)	30 뷰캐넌 라이즈 얼론 (Buchanan Rides Alone)
				바긴 헌트 (Bargain Hunt)	15			
1	00	15	00	올림픽 런던 2012	올림픽 런던 2012	1	아파치 요새 (Fort Apache)	50
	45	00	45	도시탈출 (Escape to the Country)	도시탈출 (Escape to the Country)			
2	15	00	15	플로그 잇 (Flog it)	플로그 잇 (Flog it)	2	20	
				플로그 잇 (Flog it)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3	00 스포츠 데이	00 스포츠 데이				3	로마 제국의 멸망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올림픽 런던 2012
	27 디디딕 돔 (Diddy Dick and Dom)	25 디디딕 돔 (Diddy Dick and Dom)						
	30 카피캣(Copycats)							
	58 못말리는 어린 양 손(Shaun the Sheep Championsheeps)							
4	00 사라 제인의 모험(The Sarah Jane Adventures)					4	30 영국 기차 여행 (Great British Railway Journeys)	
	30 부모 프로젝트 (Project Parent)	30 탐험가 (Serious Explorers: Living Stone)	30 12 어게인 (12 Again)	30 로이(ROY)	30 블루 피터 (Blue Peter)			
5	00 뉴스라운드					5	15 엔틱 로드 트립(Antiques Road Trip)	00 찬가(Songs of Praise)
	05 못말리는 어린 양 손(Shaun the Sheep Championsheeps)							35 올림픽 2012 런던
	15 엔틱 로드 트립(Antiques Road Trip)							
6	00 올림픽 런던 2012				00 BBC 뉴스	6	00 영국 기차 여행 (Great British Railway Journeys)	00 영국 고대사 (A History of Ancient Britain)
					30 올림픽 런던 2012 사이클 남팀 최종 17:55 사이클 여 최종 18:35		30 플로그 잇 (Flog it)	
					55 해안가(Coast)			
7	00 해안가(Coast)	00 헬리콥터 구조(Helicopter Rescue)	00 해안가(Coast)	00 헬리콥터 구조(Helicopter Rescue)	00 야생에서의 1년 (A Year in the Wild)	7	00 엔틱 로드 쇼 (Antiques Roadshow)	
	30 이스트엔더스 (EastEnders)				30 노인 부대 (Dad's Army)			
8	00 이스트엔더스 (EastEnders)	00 홀비시티 (Holby City)	00 집 개조 (Restoration Home)	00 헤어리 식이요법 (Hairy Dieters: How to Love Food and Lose Weight)	00 해안가(Coast)	8	00 중국 탐사 (Exploring China: A Culinary Adventure)	
	30 파노라마	30 정원사 세계 (Gardeners' World)					00 BBC 프롬 콘서트	
9	00 수평선 (Horizon)	00 미드와이프스 (The Midwives)	00 벡스트(Vexed)	00 아미쉬(Amish: A Secret Life)	00 영국 민중사(The Great British Story: A People's History)	9	10 QI	00 어둠 (The Dark: Nature's Nighttime World)
	40							
10	00 올림픽 런던 2012				00 해안가(Coast)	10	TOTP2	00 엣지 오브 다크니스 (Edge of Darkness)
					05 올림픽 런던 2012			

시	07-30(월)	07-31(화)	08-01(수)	08-02(목)	08-03(금)	시	08-04(토)	08-05(일)
	뉴스나이트				40 뉴스나이트 (Newsnight)		40	00
					10 복권			
11	30 흑인 음악 (Black Music Legends of the 1980s)	30 슈퍼리그(Super League Show)	30 복권	30 흑인 음악 (Black Music Legends of the 1980s)	20 사라 밀리칸 텔레비전 프로그램(The Sarah Millican Television Programme)	11	리틀 보이즈 (Little Voice)	킬러 나이트 (Judgment night)
					35 미드와이브스 (The Midwives)			
					50 이스트엔더스 (EastEnders)			

<표 21> BBC2 채널의 올림픽 주간편성표(8월 6일~8월 12일)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0		30 해안가(Coast)	15 인도양 (Indian Ocean with Simon Reeve)	35 DIY SOS	30 파노라마	0	20	25 라스트 샷 (The Last Shot)
1	30 홀비시티 (Holby City)	30 더픽서(The fixer)	15 더픽서(The fixer)	35 헤어리 바이크의 영국 Best (The Hairy Bikers' Best of Britain)	00 수평선 (Horizon)	1	1 몽크 도선 (Monk Dawson)	55 off air
2			15 영국의 위인들 (Britain's Heritage Heroes)	20 음식 공장 (Food factory)	00 내츄럴 월드(Natural World)	2		
	30 영국의 위인들 (Britain's Heritage Heroes)	30 영국의 위인들 (Britain's Heritage Heroes)	45 실제상황 구조	50 실제상황 구조	00 실제상황 구조			
3	30 off air	30 영국의 위인들 (Britain's Heritage Heroes)	30 off air	35 off air	45 off air	3	05 장수 비결 (How to Live Beyond 100)	
							40 헤어리 바이크의 영국 Best (The Hairy Bikers' Best of Britain)	
4					00 off air	4	25 off air	
5						5		
6	00	포스트맨 팻 (Postman Pat)				00	포스트맨 팻 (Postman Pat)	
	15	칙칙폭폭 처깅턴(Chuugington)				6	15 티미 타임(Timmy Time)	
	20	티미 타임(Timmy Time)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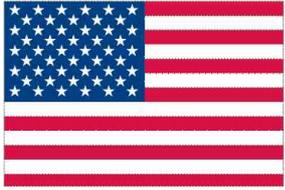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압니와 팀의 모험(The adventures of Abney and Teal)	
						30	압니와 팀의 모험(The adventures of Abney and Teal)	35 옥토넛츠(Octonauts)
						40	옥토넛츠(Octonauts)	45 라스타마우스(Rastamouse)
						50	라스타마우스(Rastamouse)	45 라스타마우스(Rastamouse)
						7	05 명수대백과 60(Deadly 60)	00 로어(Roar)
						30	놀라운 역사(Horrible Histories)	00 로어(Roar)
						7		30 부모 프로젝트 (Project Parent)
						8	00 스쿠비 두 쇼(The Scooby Doo Show)	55 해커 타임 (Hacker Time)
						25	트리 푸 톰(Tree Fu Tom)	20 테니스와 귀나셔 (Dennis & Gnasher)
						45	저스틴의 집(Justin's House)	20 테니스와 귀나셔 (Dennis & Gnasher)
						9	15 상속 사냥꾼(Heir Hunters)	30 윈인잇 (Wingin' it)
						10	00 집 구매하기 프로젝트(Homes Under the Hammer)	50 못말리는 어린 양 순(Shaun the Sheep Championsheeps)
						9	00 에견 프로그램 (Who Let the Dogs out?)	00 에견 프로그램 (Who Let the Dogs out?)
						30	믿기지 않는 음식 (Incredible Edibles)	30 제빵 프로 (Junior Bake Off)
						10	00 캅 스쿨 (Cop School)	00 토요일 요리 (Saturday Kitchen Best Bites)
						30	카피캣(Copcats)	
						11	00 카우보이 트랩(Cowboy Trap)	30 스플라롯 (Splatalot)
						45	캐쉬 인 더 아틱 (Cash in the Attic)	25 오오글리스 (Ooglies)
						45	캐쉬 인 더 아틱 (Cash in the Attic)	30 레이몬드 블랑 (Raymond Blanc)
						45	캐쉬 인 더 아틱 (Cash in the Attic)	40 디디 영화 (Diddy Movies)
						12	15 바긴 헌트 (Bargain Hunt)	55 동물원(Animal Park)
						45	바긴 헌트 (Bargain Hunt)	30 뷰캐넌 라이즈 얼론 (Buchanan Rides Alone)
						55	바긴 헌트 (Bargain Hunt)	55 머나먼 시애틀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1	00 올림픽 런던 2012	30 올림픽 런던 2012	00 올림픽 런던 2012	00 올림픽 런던 2012	00 올림픽 런던 2012	1	(The Journey of Natty Gann)	15 올림픽 런던 2012
	45 도시탈출 (Escape to the Country)		45 도시탈출 (Escape to the Country)					
2	15 플로그 잇 (Flog it)	플로그 잇 (Flog it)			00 플로그 잇 (Flog it)	2		
3	00 스포츠 데이	00 스포츠 데이			00 스포츠 데이	30 퀵 건 (The Quick Gun)	15 해안가(Coast)	
	25 디디딕 돔 (Diddy Dick and Dom)							
	30 카피캣(Copycats)				30 스포츠 데이			
	58 못말리는 어린 양 손(Shaun the Sheep Championsheeps)				55 못말리는 어린 양 손(Shaun the Sheep Championsheeps)			15 플로그 잇 (Flog it)
4	00 사라 제인의 모험(The Sarah Jane Adventures)				00 사라 제인의 모험(The Sarah Jane Adventures)	4	00 도시탈출 (Escape to the Country)	25 아이 스테드파드 (Eisteddfod 2012 with Cerys Matthews)
	30 부모 프로젝트 (Project Parent)	30 탐험가 (Serious Explorers: Livingstone)	30 제드워드스의 모험 (Jedward's Big Adventure)	30 로이(ROY)	30 블루 피터 (Blue Peter)			55 찬가(Songs of Praise)
5	00 뉴스라운드				00 뉴스라운드	5	30 공연가 이야기 (Entertaining the Troops)	05 못말리는 어린 양 손(Shaun the Sheep Championsheeps)
	15 엔틱 로드 트립(Antiques Road Trip)							
6	00 올림픽 런던 2012	00 BBC 뉴스	00 올림픽 런던 2012			6	30 플로그 잇 (Flog it)	30 해안가(Coast)
		40 올림픽 런던 2012						
7	00 해안가(Coast)	00 헬리콥터 구조(Helicopter Rescue)	00 해안가(Coast)	00 헬리콥터 구조(Helicopter Rescue)	00 야생에서의 1년 (A year in the Wild)	7	00 엔틱 로드 쇼 (Antiques Roadshow)	
		30 이스트엔더스 (EastEnders)		30 이스트엔더스 (EastEnders)				
8	00 이스트엔더스 (EastEnders)	00 홀비시티 (Holby City)	00 집 개조 (Restoration Home)	00 헤어리 식이요법 (Hairy Dieters: How to Love Food and Lose Weight)	00 해안가(Coast)	8	00 BBC 프롬 콘서트	00 중국 탐사 (Exploring China: A Culinary Adventure)
	30 파노라마			30 정원사 세계 (Gardeners' World)				

시	08-06(월)	08-07(화)	08-08(수)	08-09(목)	08-10(금)	시	08-11(토)	08-12(일)
9	00 수평선 (Horizon)	00 미드와이브스 (The Midwives)	00 벡스트(Vexed)	00 원더랜드 (Wonderland)	00 영국 민중사(The Great British Story:A People's History)	9	20	00 어둠 (The Dark: Nature's Nighttime World)
10	00 올림픽 런던 2012					10	런던의 근현대 (London-The Modern Babylon)	00
	40 뉴스나이트				40 뉴스나이트 (Newsnight)			40 글로리어스 39 (Glorious 39)
					10 복권			
11	30 어둠 (The Dark: Nature's Nighttime World)	30 슈퍼리그(Super League Show)	30 복권 35 미드와이브스 (The Midwives)	30 아미쉬(Amish: A Secret Life)	20 사라 밀리칸 텔레비전 프로그램(The Sarah Millican Television Programme)	11	25 TOTP2	
					50 이스트엔더스 (EastEnders)			

부록 2. 역대 올림픽 주요통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small>© 1984 LA Olympic Committee Games of the XXIIIrd Olympiad Los Angeles 1984</small>	개최국	미국(USA)	종합순위	
	개최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순위	국가 금/은/동/합계
개최기간	1984.07.28.(토)~08.12(일), 16일간	1	미국	83/61/30/174
참가국	140개국	2	루마니아	20/16/17/53
경기수	221개	3	서독	17/19/23/59
참가선수	6,829명	4	중국	15/8/9/32
종목수	23개	5	이탈리아	14/6/12/32
시범종목	야구, 테니스 2종	6	캐나다	10/18/16/44
한국 참가인원	임원 78명, 선수 210명	7	일본	10/8/14/32
한국의 메달획득별 경기종목	금 레슬링(2), 복싱(1), 양궁(1), 유도(2) 은 농구(1), 레슬링(1), 복싱(1), 유도(2), 핸드볼(1) 동 레슬링(4), 복싱(1), 양궁(1), 유도(1)	8	뉴질랜드	8/1/2/11
참가종목수	15개	9	유고	7/4/7/18
		10	대한민국	6/6/7/19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최국	한국(Korea)		종합순위		
	개최지	순위	국가	금/은/동/합계	
개최지	서울(Seoul)	1	소련	55/31/46/132	
개최기간	1988.09.17.(토)~10.02(일),16일간	2	동독	37/35/30/102	
참가국	160개국	3	미국	36/37/21/94	
경기수	237개	4	대한민국	12/10/11/33	
참가선수	8,391명	5	독일	11/14/15/40	
종목수	23개	6	헝가리	11/6/6/23	
시범종목	야구, 태권도, 배드민턴, 휠체어레이싱	7	불가리아	10/12/13/35	
한국 참가인원	임원 125명, 선수 477명	8	루마니아	7/11/6/24	
한국의 메달획득특별 경기종목	금 은 동	레슬링(2), 복싱(2), 양궁(3), 유도(2), 탁구(2)	9	프랑스	6/4/6/16
		레슬링(2), 양궁(2), 복싱(1), 역도(1), 탁구(1)	10	이탈리아	6/4/4
참가종목수	20개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국	스페인(Spain)		종합순위		
	개최지	순위	국가	금/은/동/합계	
개최지	바르셀로나(Barcelona)	1	독립국가 연합	45/38/29/112	
개최기간	1992.07.25(토)~08.09(일) 16일간	2	미국	37/34/37/108	
참가국	169개국	3	독일	33/21/28/82	
경기수	257개	4	중국	16/22/12/54	
참가선수	9,356명	5	쿠바	14/6/11/31	
종목수	32개	6	스페인	13/7/2/22	
시범종목	태권도, 로울러하키, 페로타	7	대한민국	12/5/12/29	
한국 참가인원	임원 97명, 선수 247명	8	헝가리	11/12/7/30	
한국의 메달획득특별 경기종목	금 은 동	레슬링(2), 배드민턴(2), 사격(2), 양궁(2), 역도(1), 유도(1), 육상(1), 핸드볼(1)	9	프랑스	8/5/16/29
		양궁(2), 레슬링(1), 배드민턴(1), 유도(1), 탁구(5), 유도(2), 복싱(2), 배드민턴(1), 레슬링(1), 체조(1)	10	호주	7/9/11/29
참가종목수	21개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



개최국	미국(USA)		종합순위	
	개최지	순위	국가	금/은/동/합계
개최지	애틀랜타(Atlanta)	1	미국	44/32/25/101
개최기간	1996.07.19(금)~08.04(일) 17일간	2	러시아	26/21/16/63
참가국	197개국	3	독일	20/18/27/65
경기수	271개	4	중국	16/22/12/50
참가선수	10,318명	5	프랑스	15/7/15/37
종목수	26개	6	이탈리아	13/10/12/35
시범종목	전원 정식종목	7	호주	9/9/23/41
한국 참가인원	입원 116명, 선수 312명	8	쿠바	9/8/8/25
한국의 메달획득별 경기종목	금 유도(2), 양궁(2), 배드민턴(2), 레슬링(1) 은 유도(4), 레슬링(3), 배드민턴(2), 복싱(1), 양궁(1), 체조(1), 육상(1), 하키(1), 핸드볼(1) 동 유도(2), 탁구(2), 양궁(1)	9	우크라이나	9/2/12/23
참가종목수	26개	10	대한민국	7/15/5/27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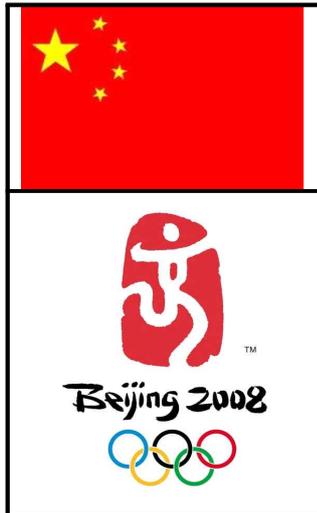
개최국	호주(Australia)		종합순위	
	개최지	순위	국가	금/은/동/합계
개최지	시드니(Sydney)	1	미국	36/24/31/91
개최기간	2000.09.15(금)~10.01(일) 17일간	2	러시아	32/28/28/88
참가국	199개국	3	중국	28/16/15/59
경기수	300개	4	호주	16/25/17/58
참가선수	10,651명	5	독일	13/17/26/56
종목수	28개	6	프랑스	13/14/11/38
시범종목	전원 정식종목	7	이탈리아	13/8/13/34
한국 참가인원	입원 112명, 선수 286명	8	네덜란드	12/9/4/25
한국의 메달획득별 경기종목	금 양궁(3), 태권도(3), 펜싱(1), 레슬링(1) 은 레슬링(2), 유도(2), 배드민턴(1), 양궁(1), 사격(1), 체조(1), 태권도(1), 하키(1) 동 유도(3), 야구(1), 양궁(1), 레슬링(1), 배드민턴(1), 체조(1), 탁구(1), 펜싱(1)	9	쿠바	11/11/7/29
참가종목수	23개	10	영국	11/10/7/28

제28회 아테네 올림픽



개최국	그리스(Greece)		종합순위	
	개최지	아테네(Atene)	순위	국가 금/은/동/합계
개최기간	2004.08.13(금)~08.29(일) 17일간		1	미국 36/39/27/102
참가국	201개국		2	중국 32/17/14/63
경기수	301개		3	러시아 28/27/38/93
참가선수	10,625명		4	호주 17/16/16/49
종목수	28개		5	일본 16/9/12/37
시범종목	전원 정식종목			
한국 참가인원	임원 109명, 선수 267명		6	독일 14/16/19/49
한국의 메달획득별 경기종목	금 은 동	양궁(3), 태권도(2), 레슬링(1), 배드민턴(1), 유도(1), 탁구(1)	7	프랑스 11/9/13/33
		배드민턴(2), 사격(2), 역도(2), 양궁(1), 유도(1), 체조(1), 탁구(1), 핸드볼(1)	8	이탈리아 10/11/11/32
		복싱(2), 태권도(2), 배드민턴(1), 유도(1), 사격(1), 체조(1), 탁구(1)	9	대한민국 9/12/9/30
참가종목수	26개		10	영국 9/9/12/30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개최국	중국(China)		종합순위	
	개최지	베이징(Beijing)	순위	국가 금/은/동/합계
개최기간	2008.08.08(금)~08.24(일) 17일간		1	중국 51/21/28/100
참가국	204개국		2	미국 36/38/36/110
경기수	302개		3	러시아 23/21/28/72
참가선수	10,942명		4	영국 19/13/15/47
종목수	28개		5	독일 16/10/15/41
시범종목	전원 정식종목			
한국 참가인원	임원 122명, 선수 267명		6	호주 14/15/17/46
한국의 메달획득별 경기종목	금 은 동	태권도(4), 양궁(2), 역도(2), 배드민턴(1), 사격(1), 수영(1), 야구(1), 유도(1)	7	대한민국 13/10/8/31
		양궁(2), 유도(2), 배드민턴(1), 사격(1), 수영(1), 역도(1), 체조(1), 펜싱(1)	8	일본 9/6/10/25
		탁구(2), 레슬링(1), 복싱(1), 배드민턴(1), 양궁(1), 유도(1), 핸드볼(1)	9	이탈리아 8/10/10/28
참가종목수	27개		10	프랑스 7/16/17/40

제30회 런던 올림픽



개최국	영국(UK)		종합순위	
	개최지	런던(London)	순위	국가 금/은/동/합계
개최기간	2012.07.28(토)~08.13(월) 17일간		1	미국 46/29/29/104
참가국	204개국		2	중국 38/27/23/88
경기수	302개		3	영국 29/17/19/65
참가선수	11,000명		4	러시아 24/26/32/82
종목수	26개		5	대한민국 13/8/7/28
시범종목	해당없음		6	독일 11/19/14/44
한국 참가인원	임원 129명, 선수 245명		7	프랑스 11/11/12/34
한국의 메달획득별 경기종목	금 은 동	사격(3), 양궁(3), 유도(2), 펜싱(2), 태권도(1), 레슬링(1), 체조(1)	7	이탈리아 8/9/11/28
		사격(2), 수영(2), 복싱(1), 태권도(1), 탁구(1), 펜싱(1), 펜싱(3), 축구(1), 배드민턴(1), 유도(1), 양궁(1)	9	헝가리 8/4/5/17
참가종목수	22개		10	호주 7/14/17/38

저 자 소 개

윤 성 옥

- 경기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
-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김 영 수

- 한국외국어대 전자물리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 정책 2012-12

런던올림픽 기간 중 중계방송 등의 편성현황 분석

2012년 11월 30일 인쇄

2012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